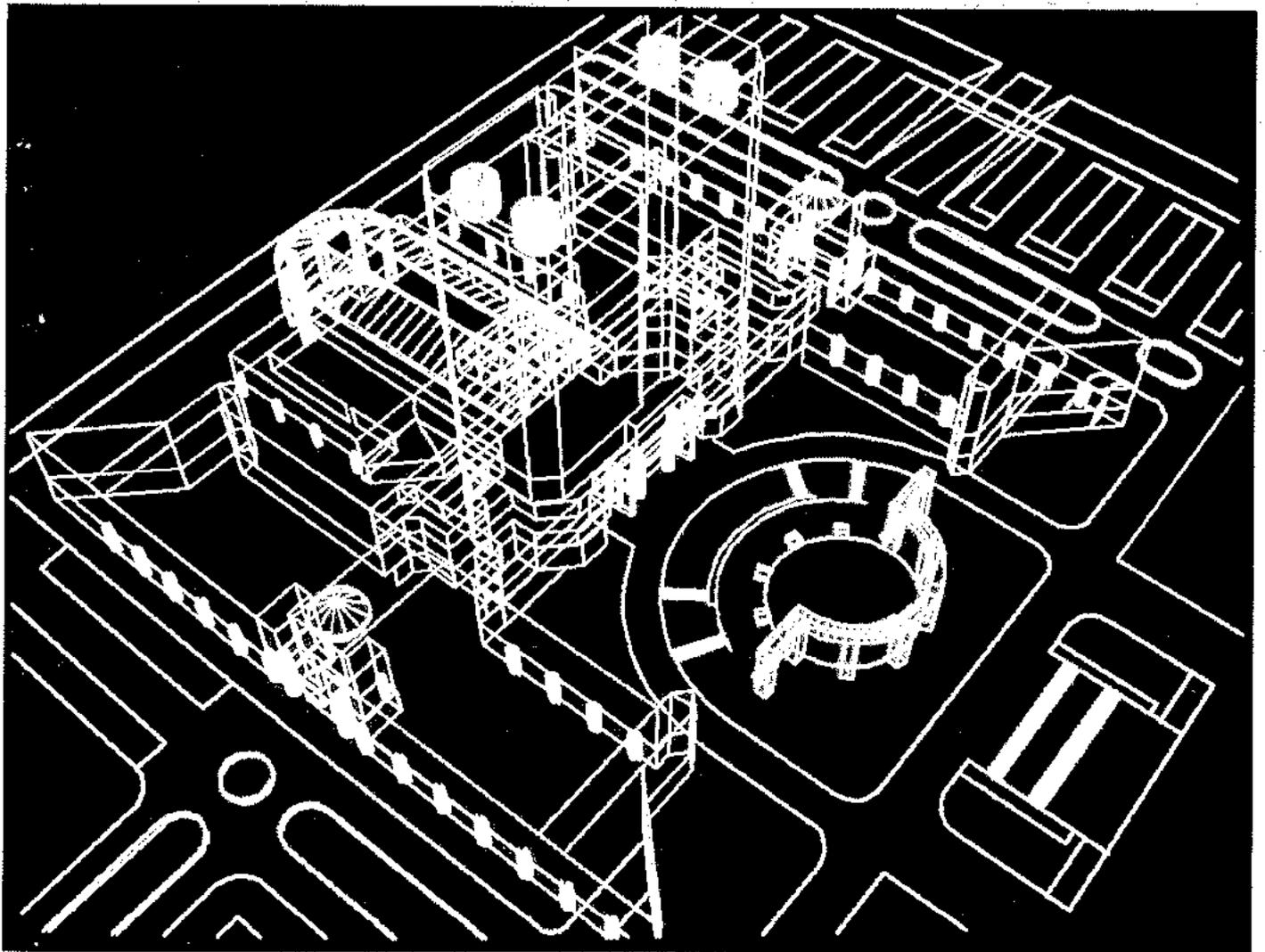


MONTHLY

# 建築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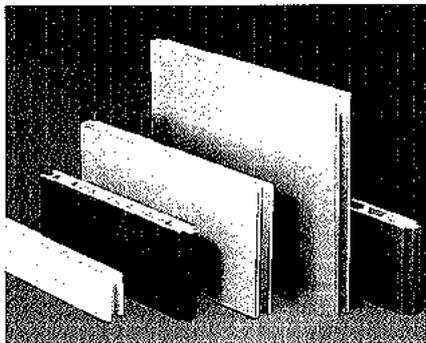
■ 定価 1967년 3월 23일 ■ 등록번호/제 라 1251  
■ 1985년 12월 31일 제 3호 등록번호(가)급인자 ■ 등록번호/187-070  
■ 1980년 1월 15일 발행 ■ 册권 249호 ■ 발행/대한건축사회의

THE JOURNAL OF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미려한 건축물을 계획하신다면 베이스판넬을 선택하십시오.



베이스란 사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 경량성** / M<sup>2</sup>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들림이 전혀 없습니다.
-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음모, 석축, 유리, 벽돌, 타일, 석재, 스테인리스의 차음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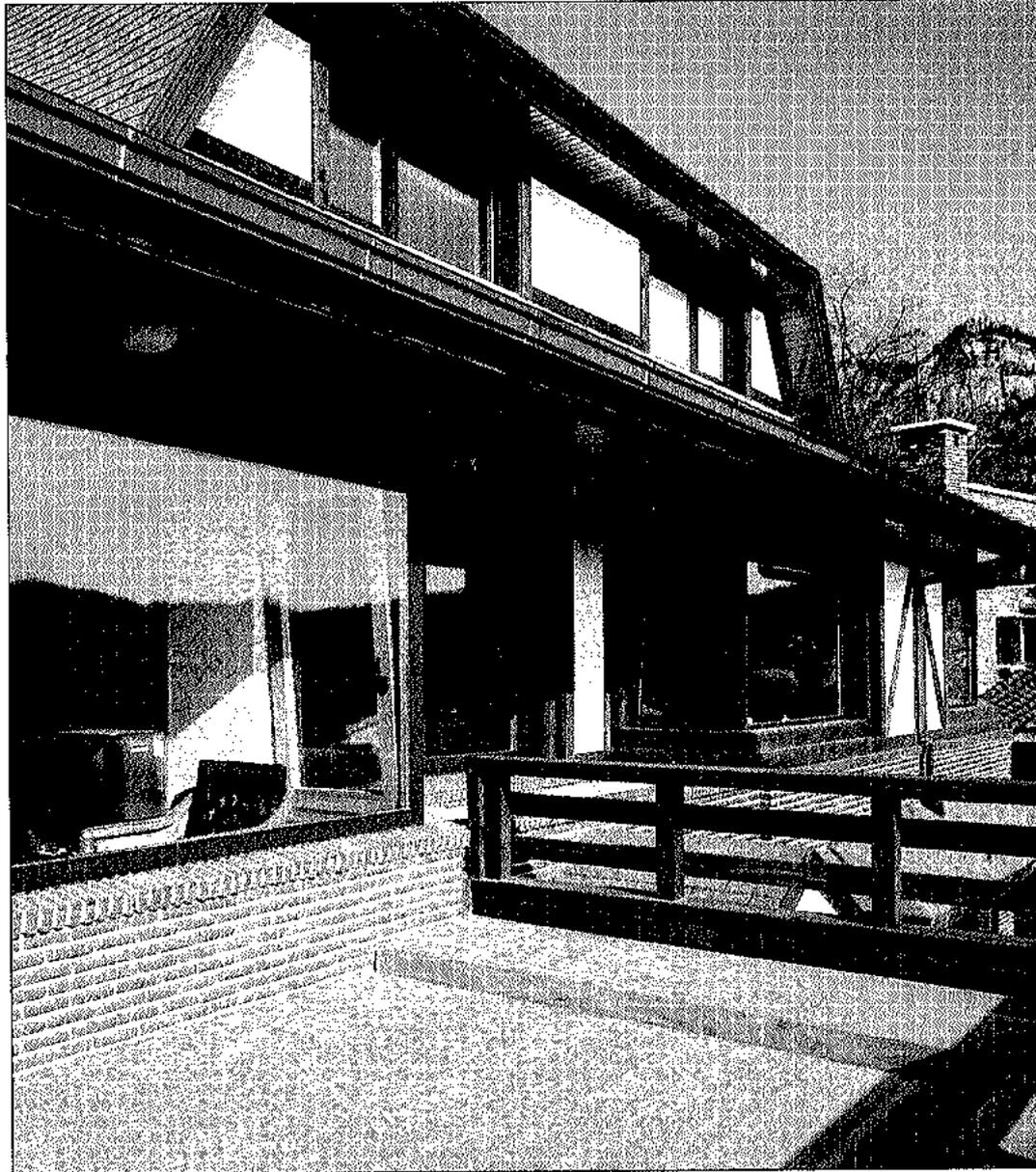
치밀한 고강도의 압출제품

**벽산 베이스**

# 평생 살집, 창문은 이견창호로 하십시오.

## 시공사례 - 겨울편

평생 살집으로 짓다보니 건축자재 하나를 골라도 직접 고르게 되었다는 평창동 S씨댁  
특히 산들에 둘러싸인 주변경관을 살리려면 큰 창문으로 보이는 전망이 중요하다 싶어 자재 전시장은 모두 찾아다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겨울철의 보온과 방음까지 고려해야 하고...  
이견창호를 처음 보았을 때 느낌은 "바로 이거다" 싶었는데 살내 화단까지 꾸미고 햇빛이 따뜻한 거실에 있노라면 역시 '이견창호'를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고 한다.



## 좋은 창문은 겨울에 특히 돋보입니다.

**보온·방음에서** / 이견창호는 이중유리와 밀폐성 높은 가스켓, 열전도를 차단하는 산소재를 사용하고 컴퓨터 정밀설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보온 기능이 뛰어나고 특히 바깥음의 차단 효과가 큼니다.

**환기에서** / 이견창호는 개폐방식이 독특하여 환기가 과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자인에서** / 이견창호는 형태와 크기, 소재 결합이 자유롭고 알미늄 칼라와 목재의 종류가 다양해 겨울에 한층 살아나는 주택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안전에서** / 이견창호의 이중특수유리와 8개의 잠금장치, 독특한 기어시스템은 겨울철 문단속 걱정울 덜어 드립니다.

## 이건 시스템 윈도우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전화 : 540-2071~9 FAX : 540-20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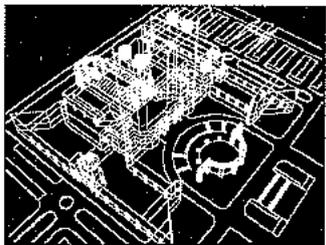


이견창호



## 차례/1990년 1월호 통권 제249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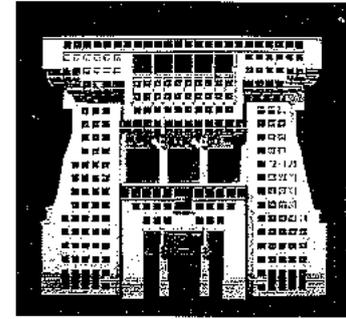
協會長 新年辭		6
會員作品	패션하우스 “에포드”/金仁喆	8
	올림픽아센터/朴相敦+姜基世	12
	아남산업(주)반도체 공장/金正澁	15
	성동구민회관/韓忠國	18
	성북구민회관/金基雄	21
나의 스케치	J빌딩계획안/金琪碩	24
일하며 생각하며	새해를 연다/金榮洙, 金善洋, 金宇成, 承孝相, 崔昌奎	26
研 究	주택단지의 설계혁신이란/金鎮愛	32
	한국의 전통건축(22) 高麗시대의 建築/張慶浩	42
	복합용도건축물의 발전경향(II)/吳德成	50
	寶島의 建築家/韓東洙	64
설계경기	대법원청사현상설계경기 수상작 발표 당선작 : 원도시종합건축案 우수작 : 금성종합건축案 삼우종합건축案 진원종합건축案	69
建築紀行	중국건축기행(完)/尹張燮	86
자 료	1989년 11월 도서신고현황	94
協會消息		96



대법원현상설계 당선작 CAD 투상도  
원도시 종합건축 (윤승중+변용)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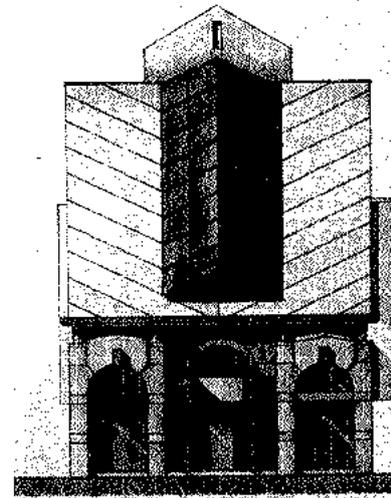
發行人: 宋基德  
 編輯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副委員長: 卞 鎔, 徐千植  
 委員: 尹錫祐, 趙聖烈, 閔庚民, 董政根,  
 姜哲求, 姜聲益, 崔正一,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렉스: KIRAA 33550  
 登錄番號: 第라-1251(月刊)  
 登錄: 1967年 3月 23日  
 U.D.C.: 69/72(054-2):0612(519)  
 印刷人: 全允柱/洗文精版社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n-Yong  
 Vice Chairmen: Byun, Yong / Suh, Chui-Sik  
 Member: Yoon, Suk-Woo, Cho, Sung-Yul, Mui, Kyung-Min, Dong, Jeong-Kuen, Kang, Chul-Koo, Kang, Sung-Ik, Choi, Jeong-Il, Kim, Joo-Cheo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17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Ra-1251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0612(519)  
 Printer: Jeon, Yim-Kyu (Kwangmoon Printing Co.)



NEW YEAR ADDRESS BY KIRA PRESIDENT

WORKS	<i>Fashion House "Epode"/Kim, In-Chul</i>	8
	<i>Olympia Centre/Park, Sang-Dong + Kang, Ki-Sea</i>	12
	<i>Anam-Amkor's New Semi-Conductor Facilities/Kim, Jung-Sik</i>	15
	<i>Seongdong-gu Inhabitants Hall/Han, Choong-Kuk</i>	18
	<i>Seongbuk-gu Inhabitants Hall/Kim, Ki-Woong</i>	21
MY SKETCH	<i>J's Building Planning/Kim, Ki-Suk</i>	24
ESSAY	<i>/Kim, Yong/Kim, Sun-Yang/Kim, Woo-Seong</i>	
	<i>/Seung, Hyo-Sang/Choi, Chang-Kyu</i>	26
REPORT	<i>Innovation in Housing Desing/Kim, Jin-Ai</i>	32
	<i>Korean Architecture History/Chang, Kyung-Ho</i>	28
	<i>Planning Tendencies of Mixed use Complex in West Germany</i>	
	<i>Oh, Deog-Seong</i>	50
	<i>China Taippi's Architect:Lee, Jo-Won/Han, Dong-Soo</i>	64
COMPETITION FOR SUPREME COURT		69
ARCHITECTURAL TRAVELS	<i>Travels to China/Yoon, Jang-Seob</i>	86
MATERIALS		94
KIRA NEWS		96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서초동1603-55,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권역분소 / 권역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가181, 631-2143 ·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05, 695-0787 ·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중로분소 / 중로구정전동201-1, 735-0905 · 마포분소 / 마포구도화동250-4, 712-8344 ·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소 / 중구무학동11-2, 252-6507 ·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6-7707 · 우정분소 / 은평구우정동79-32, 352-6720 ·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147-79, 599-6754 ·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545-0757 ·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00-1947 ·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강양분소 / 강양구망원동516-41, 491-0925 ·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가110, 923-4401 ·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130-32, 862-9009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116-168, (0431) 56-2752, 53-7342 · 충주분소 / 충주시영천동673-1, (0441) 2-3082 · 제천분소 / 제천시희림동8-8, (0443) 2-6253 ·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 32-9997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천시중구대흥동473-1, (042) 256-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 4, (0417) 2-43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유리239-1, (0451) 3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동남리703-1, (0463) 2-2217 ·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34-3367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서산시중암동3713-47, (0561) 46-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5, (0522) 74-8836 · 진주분소 / 진주시분성동7-20, (0591) 2-6403 · 충주분소 / 충주시시호동163-18, (0557) 43-3577,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부인동24B-10L, (0594) 2-6114 · 밀양분소 / 밀양군삼문동181-108, (0527) 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동양리274-3, (0598) 2-7090 ·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522-4, (0523) 184-3050 · 거제분소 / 거제군신현읍고령리139-2, (0558) 184-3432, 2-3372 ·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서동남동91-6(0593) 2-3591

제주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212동1289-6, (064) 22-3248, 52-3248 · 시키프분소 / 서귀포시서귀포동299-6, (064) 32-7777

# 成年協會로서

## 새로운面貌를 ……



宋基德 / 本協會 會長

1990年 庚午年の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會員여러분의 家庭에 건강과 幸運이 함께 하시길 祈願합니다.

庚午年은 여느 해와는 다른 含蓄을 지닌 새해입니다. 今世紀의 마지막 10년의 始發點으로, 가속화되는 歷史가 시작될 21世紀로 넘어가는 架橋로서 중요한 歷史的 轉換點이라는데 含蓄의 所以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80年代는 激動과 變化의 時代였습니다. 政治, 經濟, 社會的으로 수많은 內的 矛盾과 葛藤 속에서 우리 建築界는 成熟하고 依然한 現在의 모습으로 發展해 왔습니다. '88서울올림픽을 契機로 世界萬邦에 別진 우리의 發展相 畀만 아니라, 國民의 住生活 向上등 우리의 建築文化를 한 단계 끌어 올린 時期였습니다.

그러나 希望의 90年代를 맞는 우리는 우리 社會에 쌓인 矛盾으로 因한 葛藤과 紛糾를 正視하고 풀어나가야 할 많은 難題를 안고 있습니다.

最近一部 建築士에 의한 違法建築物의 發生으로 우리 建築士가 不當하게 處罰되는 問題에 비추어 建築行政중 調査·檢査代行業務의 構造의 矛盾의 是正등 非現實의인 惡法의 改廢를 비롯해서 價例나 惰性を 빙자한 非民主的 建設行政의 是正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까.

政府가 公權力을 行事項에 있어서는 法의 一方的인 適用을 警戒해야 할 것이며, 비록 그것이 法的으로 合當하고 秩序確立次元에서 認定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社會通念上 公正性を 喪失하고 있지 않나 하는 點을 慎重히 考慮해야 할 것입니다. 公權力의 發動이 行政便宜 爲主로 運營되어 國民의 過만을 問責하는 것이 된다면 政府의 公權力에 對한 不信은 날로 加重될 憂慮마저 있는 것입니다.

또한, 今番 建設部에서 提示한 綜合建設業免許制를 檢討한 바 모든 建設工事의 設計, 施工, 監理등 全 分野를 一括受注할 수 있도록 制度化하겠다는 것으로서, 특히 建築工事의 設計와 監理業務를 하나의 建設施業體가 直營하거나, 一括 또는 部分下都給 形態로 施行하도록 함은 建築設計와 工事監理의 制度的 概念과 그 機能을 沒理解하는 處事임을 指摘하고자 합니다.

建築은 藝術的 側面과 技術的 側面이 모두 考慮되어야 하고 藝術的 側面에 더 많은 價値가 賦與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施工者는 設計圖書에 立脚하여 現場에서 工事를 效率의으로 執行해야하는 本分下에 設計, 監理者와 充分한 協議를 거쳐야 하는 것인 바 設計, 監理者가 被雇傭人의 位置에 있어서는 專門技術分野의 生命力 있는 作品活動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建築文化 暢達의 阻害要因은 물론 創作性和 造形藝術性이 企業利潤 活動의 한 分野로 轉落되어 建築物의 質의 向上은 실로 遙遠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政府는 建築設計, 監理를 비롯한 建設技術用役分野에 대하여도 전면적인 재검토와 行政, 金融, 稅制등의 支援, 育成을 위한 制度를 마련하여 우리의 蓄積된 技術을 세계 무대에 내놓아 國際 競爭力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보다 많은 國民의 福利增進을 기하고 社會, 文化, 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계속 強力히 推進하고자 한다면 建築設計用 役을 더욱 育成, 發展시키기 위한 特別法을 制定, 施行하여 줄 것을 提議하면서 建築設計와 監理業務는 반드시 施工業 務와 分離되어야만 그 機能이 發揮될 수 있다는 것을 再闡明하는 바입니다.

會員 여러분!

올해는 協會 創立25週年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四半世紀의 歷史 속에서 여러 會員의 努力의 結果 外見上 많은 成長을 이룩하고 있으나, 內的으로는 그와같은 發展 趨勢에 調和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實質的 縣案을 가지고 있습니다.

待望의 2千年代를 바라보고 있는 이 時点에서 우리는 지난 協會 運營史를 거울 삼아 더 이상의 쓰라린 아픔과 묵은 時代의 殘滓를 없애도록 謙虛한 自己 省察과 自己 革新으로 成熟한 成年 協會로서의 새로운 面貌를 갖추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決然한 意志로 團結된 힘과 智慧를 모아 急變하는 外部變化에 對應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位相의 定立에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그 一環으로 올해에는 다음의 事項에 重点을 두어 推進하고자 합니다.

첫째, 設計費의 正常化 實現을 위해 努力하겠습니다.

現行의 設計, 監理費는 時代에 뒤떨어진 비현실적 背景으로 運用되고 있는 바, 管掌委員會 運營, 研究하여 報酬料率의 引上과 納入方法의 正常化를 이룩하여 會員의 實質的 權益保護는 勿論, 이로 인한 不實 設計圖書 防止 및 不法 施工의 剔決에 奇與하여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不法事務所의 整備를 하고자 합니다.

近來 變則的으로 運營되는 不法事務所이 亂立하여 業界에 많은 問題를 惹起시키는 바, 全 會員의 權益擁護次元에서 이러한 不法事務所을 徹底히 拔本塞源하여 整備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倫理委員會 運營을 強化하여 自體 淨化를 기하겠습니다.

一部 會員들의 不當한 事務所 運營과 正當치 않은 業務處理로 인한 全 會員들의 權益侵害는 勿論, 建築士界의 將來 까지 威脅하고 있는 實情인 바 이러한 危害로운 問題들을 惹起시키는 非達 회원에 對하여는 倫理委員會의 嚴正한 運營으로 自體 淨化하여 全 會員들의 品位 保全과 權益 向上에 노력하겠습니다.

會員 및 協會 任職員 여러분!

庚午年은 氣魄과 偉容의 象徴인 말의 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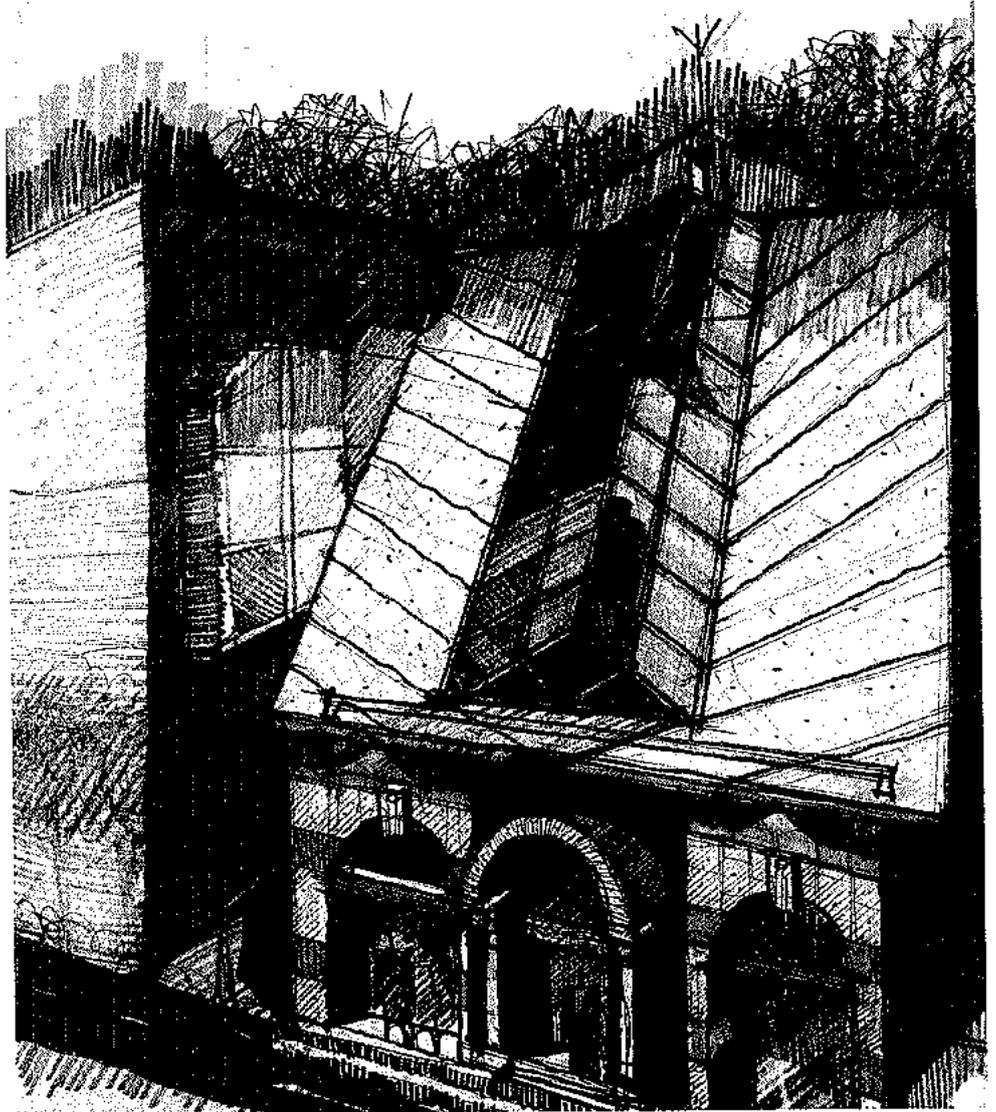
말과 같은 氣魄과 偉容으로 우리의 目標을 향해 揮然-體가 되어 힘차게 달려갑시다.

이 한 해에도 여러분의 事業과 家庭에 하느님의 祝福과 幸運이 함께 하시기를 祈願하면서 이만 新年辭에 갈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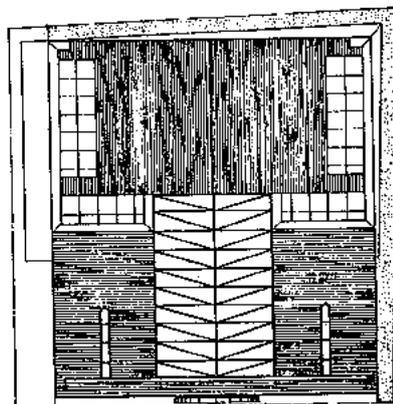
1990年 1月 1日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基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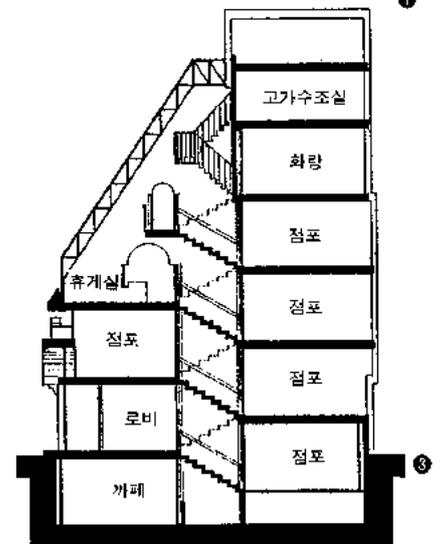
# 패션하우스 “에포드” *Fashion House “Ep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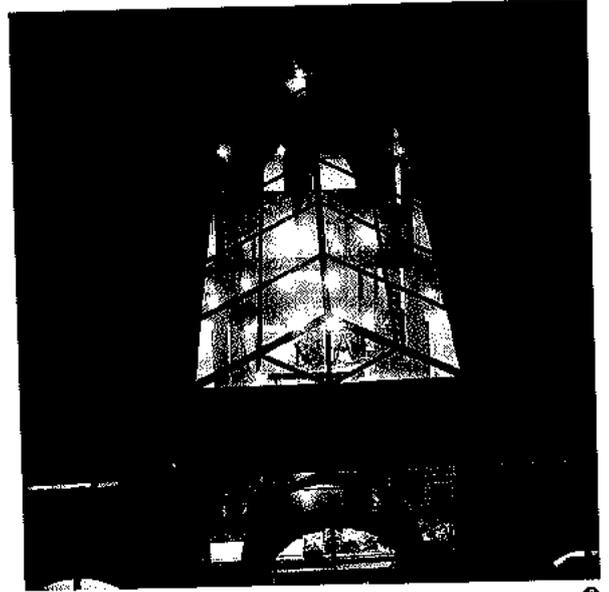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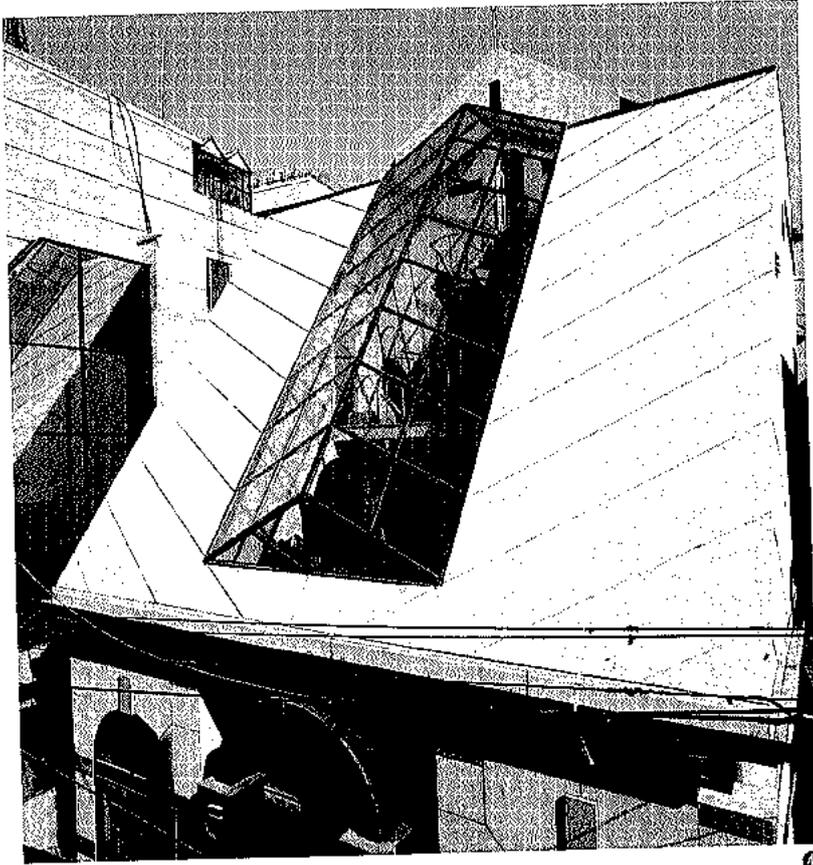


대지위치/부산시 중구 대청동  
 대지면적/162㎡  
 건축면적/115.06㎡  
 연면적/568.43㎡  
 건폐율/71.03%  
 용적률/350.88%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화강+콘크리트제물마감



金仁喆/종합건축사사무소 인재건축  
 Designed by Kim, In-Chul





### 설계 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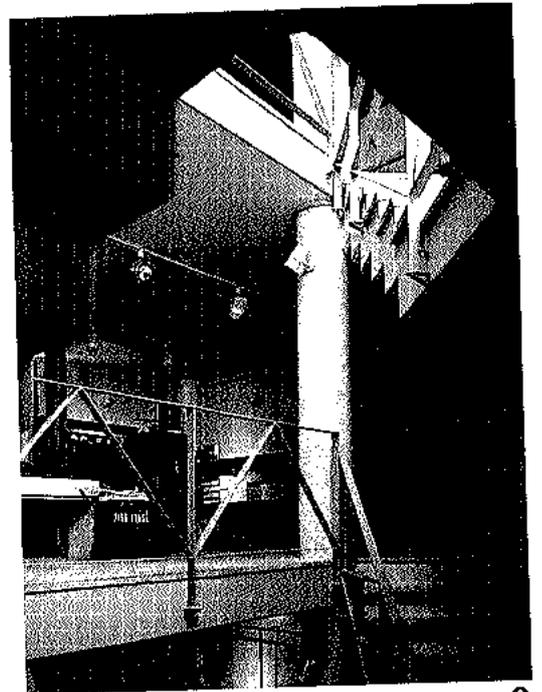
용두산 부산타워를 옴고 용두산공원은 부산의 중심이다. 바다를 향해 솟아오른 공원 기슭으로 광복동, 남포동, 중앙동, 대청동의 거리들이 엮인다. 서쪽으로 경사진 공원의 한끝에 놓인 자리는 공원에서 내려다 보이지도 큰길에서 들여다 보이지도 않는 웅색한 구석이지만 올라다 보일 타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골 목 대청동에서 광복동으로 내려가는 어귀 화염병 맞았던 문화원 뒷골목은 작은 카페와 아구찜과 튀김집등등으로 여수선하게 번잡스럽다. 큰길의 화려함이 좀처럼 연결될 것 같지 않은 건재상 자리에 패션하우스를 짓는다. 50평이 채 안되는 공간에 빠듯이 들어 앉기 위해 빈곳을 남기지 않도록 찻수 매김에 애쓰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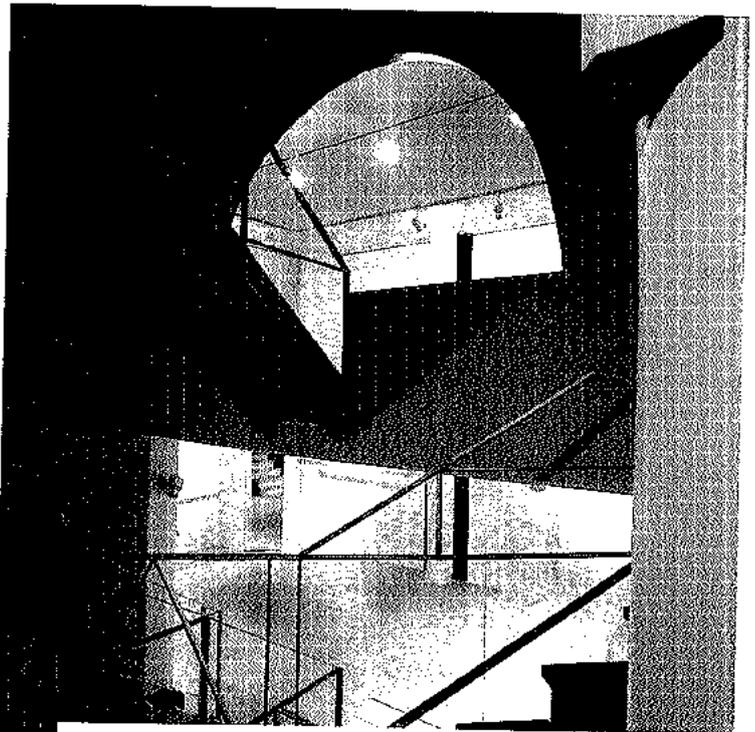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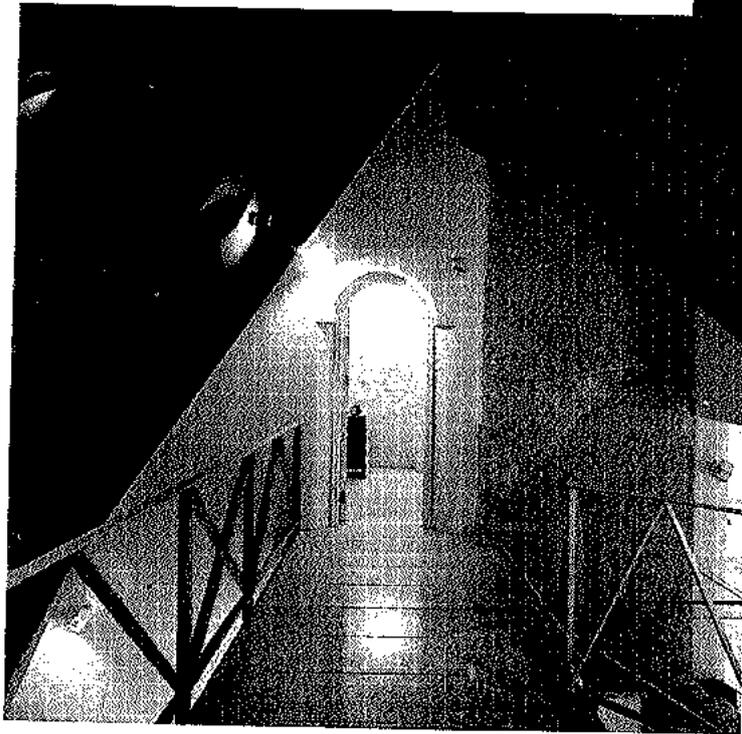
사선제한 4m도로의 조건은 이미 여유가 없다. 이층이 겨우 만들어진다. 그다음은 하늘을 위해 비겨서야 한다. 조건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경사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조형적 요소로 삼는다. 벽의 양감을 압도하는 지붕을 꾸민다. 하늘을 위해 물러선 곳에서 하늘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상하다. 지붕을 뚫어 내부 깊숙히 하늘을 끌어 들인다.

계 단 좁은 공간을 좁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간의 영역을 흐트러 버린다. 층과 층을 정확한 구분없이 애매한 형태로 엮갈리게 된다. 하나의 레벨은 두개의 다른 레벨과 관련된다. 따라서 계단의 개념은 층과 층의 수직적 연결이 아니라 공간의 수평적인 연계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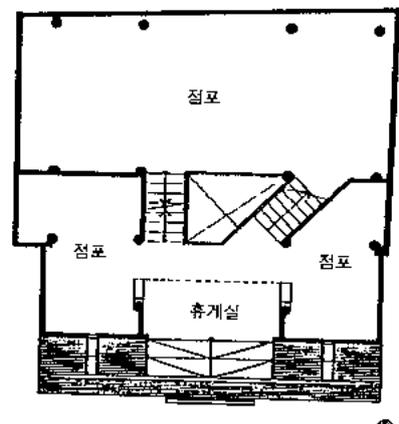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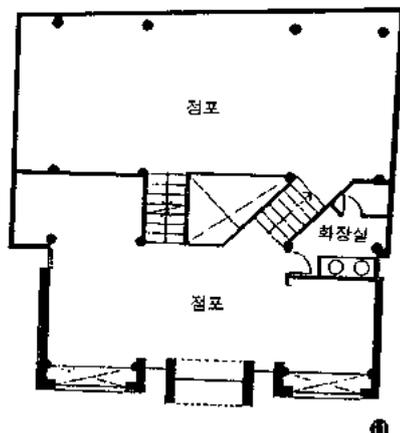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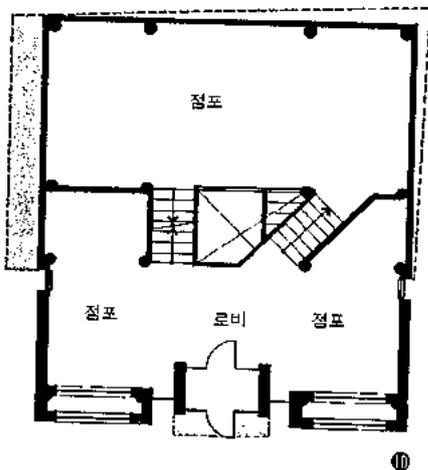
색 감 내부공간을 꾸미기 위해 덧붙이는 것은 낭비가 된다. 노출된 구조를 내부조형의 요소로 삼으려던 처음의 의도는 시공의 서두름으로 막혀버리고 만다. 가장 얇은 마감은 Painting이다. 이왕에 칠을 한다면 표정을 주고 싶다. 그림과 의상에 간섭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색깔을 선택한다. 그러나 색깔의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할 감각적인 부분에는 적극적인 느낌을 이루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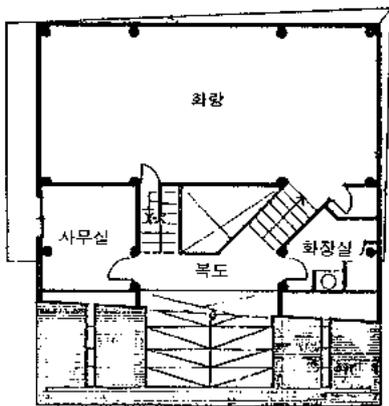


- ① 스케치 전경
- ② 배치도
- ③ 단면도
- ④ 화강석으로 마감된 지붕과 천장
- ⑤ 야경
- ⑥ 2층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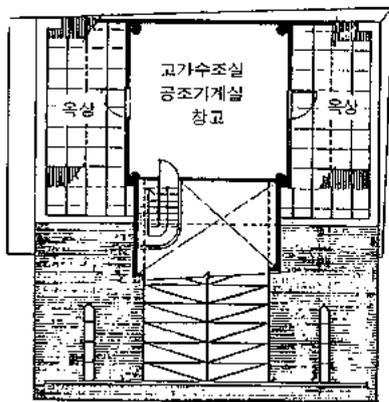


- ㉗ 3층 내부
- ㉘ 4층 내부
- ㉙ 3층 집포에서 본 휴게실과 천장
- ㉚ 1층 평면도
- ㉛ 2층 평면도
- ㉜ 3층 평면도
- ㉝ 4층 평면도
- ㉞ 옥탑층 평면도
- ㉟ 입면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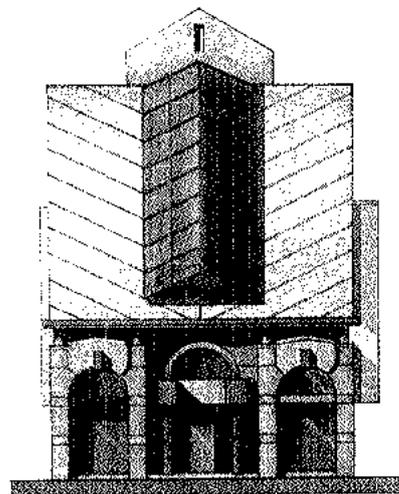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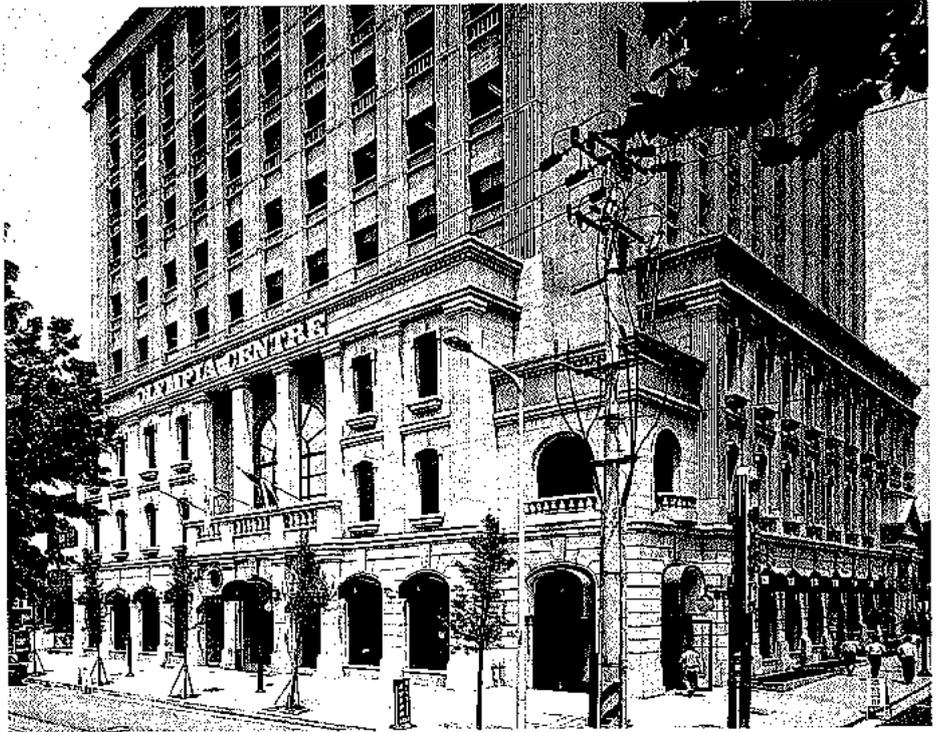


3

# 올림피아센터

## Olympia Centre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8-10  
 지역, 지구/주거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시장용지  
 대지면적/3,322.04㎡  
 건축면적/1,385.68㎡  
 연면적/18,112.8㎡  
 규모/지하 3층, 지상 10층



### 설계 소묘

본 건물은 판매시설과 업무시설기능을 수용하는 복합건물로서, 건축주가 구상한 건물이미지는 이미 식상해 버린 기존건물의 단순한 외형의 재현이 아닌 서구풍의 고전적 건축개념이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건물형태였다. 한국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건축적으로 표현하려는 주변의 작지 않은 노력을 접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건축계획이란, 순수예술의 성격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제한된 여건 속에서 여러가지로 내재하는 모순을 최소화하려는 의지행위」라는 소극적 정의에 바탕을 두고 건축주의 요구조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획에 임하였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서는 무엇보다도 매스와 입면구성에 있어서 고전적 건축요소가 가지는 본래의 성격과 스케일(비례)이 원형 그대로 충실하게 적용되도록 하며, 인접보행도로로부터 인지되는 건물이미지는 상업건물로서 대중에 대해 친밀감을 부여한다는 두 가지 과제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에 임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고층부를 후퇴 배치시켜 저층부와 고층부를 수직적으로 매스분절하였다. 즉 저층부는 「보다 상세한 고전적 모티브」를 원용할 수 있으며 접근시 시각적으로 축소되는 인지범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작은 스케일(Human Scale)」로 느껴지도록 의도하였다. 또한 수평, 수직의 구조적 힘의 전달요소인 상부의 'Entablature', 2~3층을 연결하는 'Gigantic Order' 그리고 각 층선을 지나는 'Cornice' 및 'Rustication'의 변형이랄 수 있는 강한 줄눈 돌쌓기 외장처리로써 각 부분의 상대적 비례감을 고려 입면처리를 꾀하였다. 그리고 고층부는 각 층 단위사무실에 연결되는 Utility Shaft 를 외부에 두어 저층부의 Gigantic Order 의 이미지를 Scale up 시켜 표현하였으며, 상부에는 주두 및 Entablature 로 마감하여 한 건물에 동일 요소의 반복 사용으로 건물전체의 통일성을 유도하였다.

건물의 배치는 대지의 3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는 관계로 건물의 볼륨감을 최대화하였고, 3방향의 정면성을 지니고 있어 상업건물로서의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가 있었다.

한편 평면구성은 복합용도건물로서의 성격상 우선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며, 공통적인 단위공간이 되도록 9m×9m의 구조적 모듈로 출발하였다. 도로측의 출입구와 주차장측의 출입구를 연결하는 내부의 동선흐름은 장방향공간의 방향성 설정이라는 기능적 측면외에도 외관이 갖는 고전적 대칭성의 중심축과도 일치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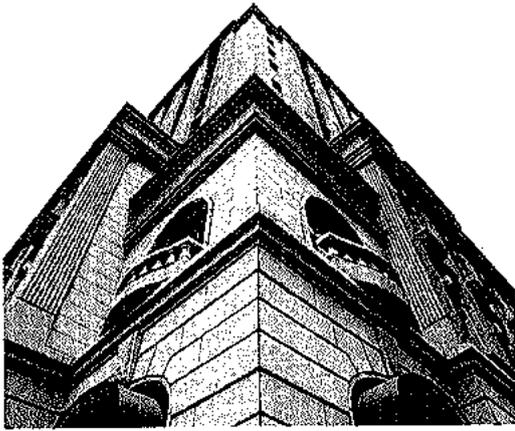


- ① 교차로에서 본 올림피아 센터
- ② 전경
- ③ 북동측 전경
- ④ 단면도
- ⑤ 외부 모서리상세
- ⑥ 주출입구 상세
- ⑦ 내부상가
- ⑧ 1층 평면도
- ⑨ 고층부 평면도(7~10층)

朴相敦+姜基世/종합건축사사무소 (주)빔건축

Designed by Park, Sang-Don & Kang, Ki-Sea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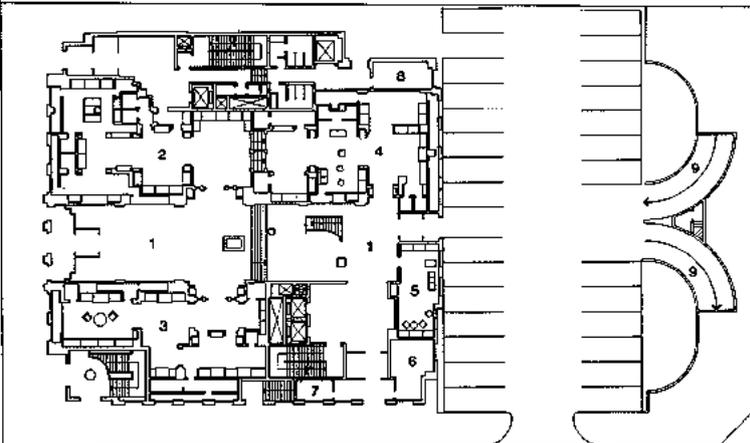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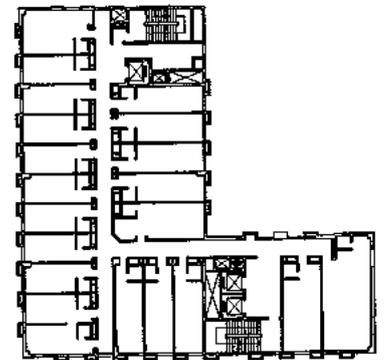


7

- 1 홀 2 남성의류매장 3 여성의류매장 4 아동의류매장  
5 휴게실 6 화방 7 문구점 8 방재실 9 경사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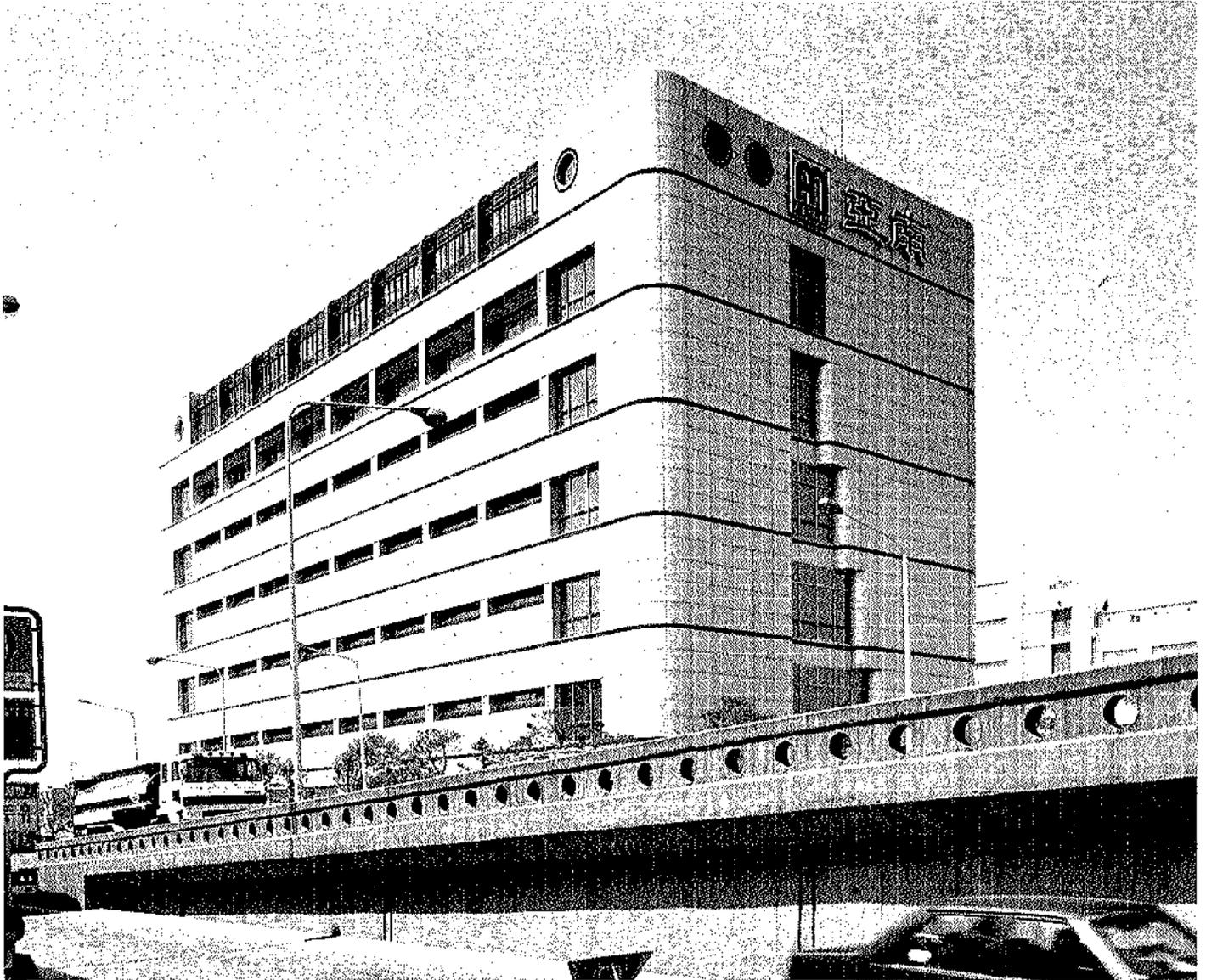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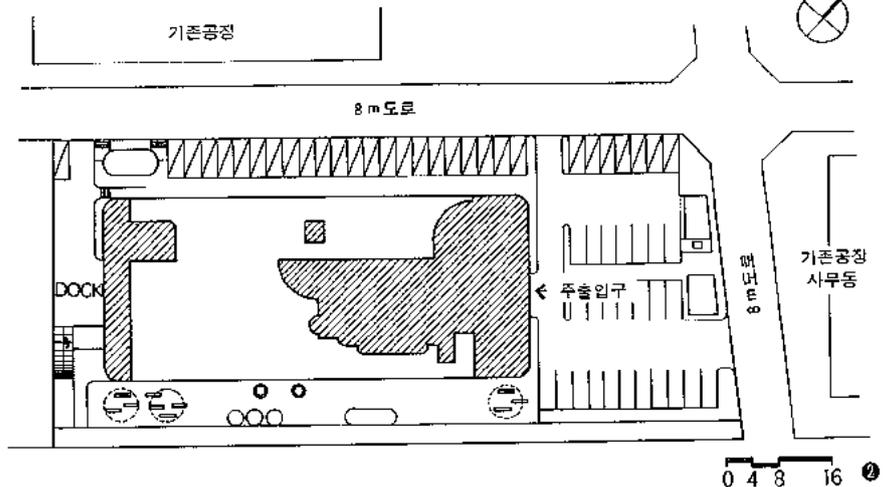
9

# 아남산업(주)반도체공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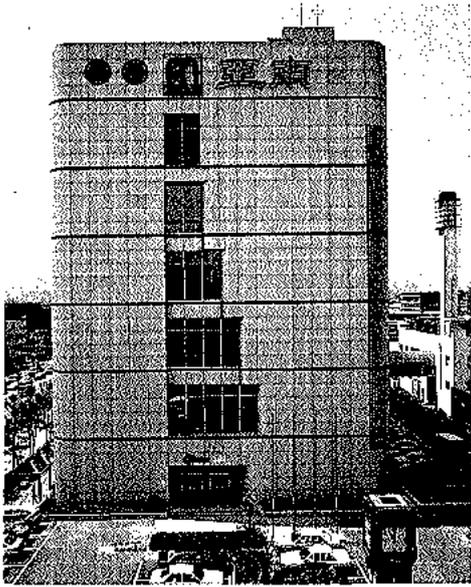
## Anam-Amkor's New Semi-Conductor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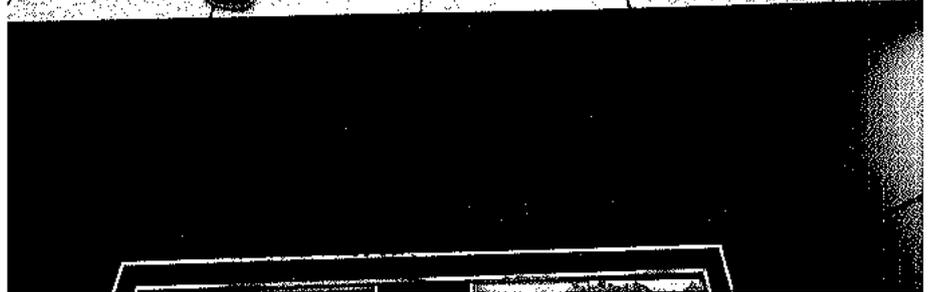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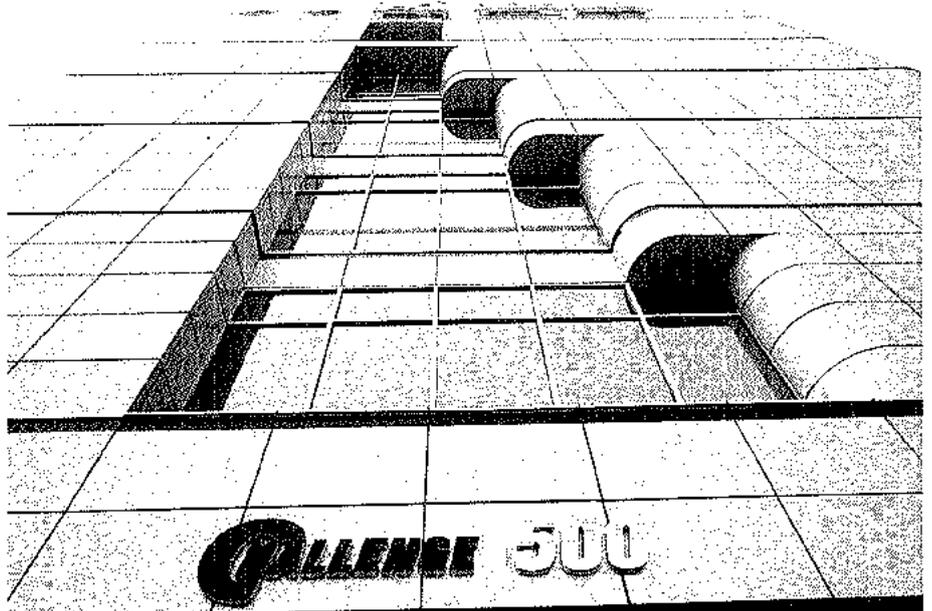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성동구 화양동  
 지역, 지구/준공업지구 · 4종미관지구 ·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6,667.4㎡  
 건축면적/1,803.05㎡  
 연면적/11,241.15㎡  
 건폐율/27.04%  
 용적률/168.25%  
 규모/지하 4층, 지상 7층  
 구조/R.C(무진동 구조)  
 외부마감/알루미늄패



金正湜/(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ung-Sik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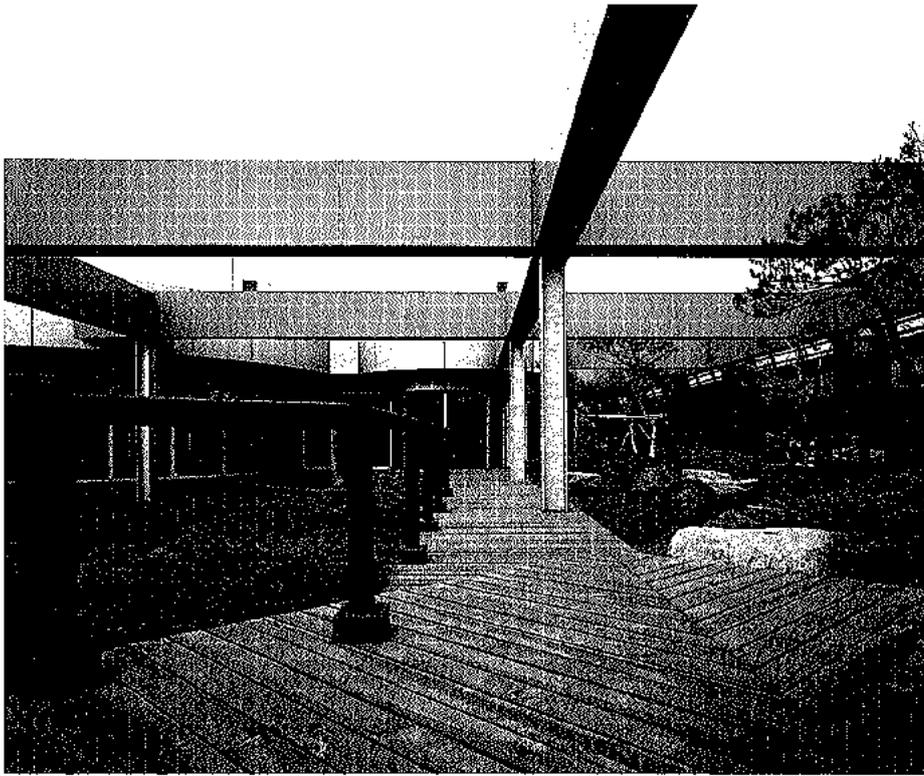


④



⑤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주출입구측 전경
- ④ 주출입구측 외벽상세
- ⑤ 7층 내부
- ⑥ 옥상 정원
- ⑦ 7층 평면도
- ⑧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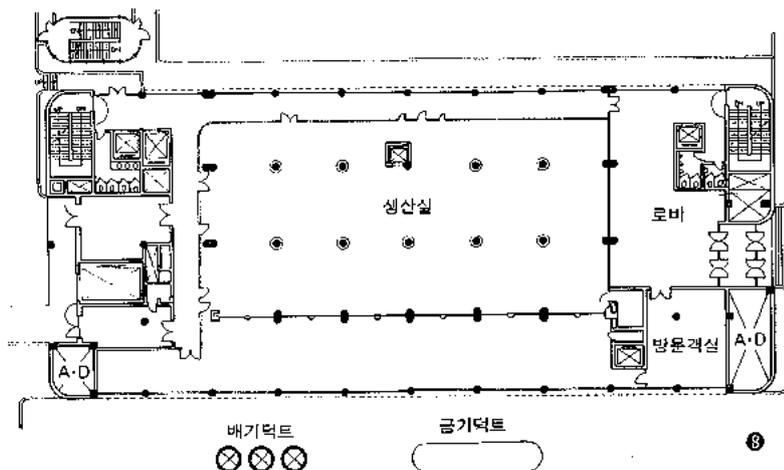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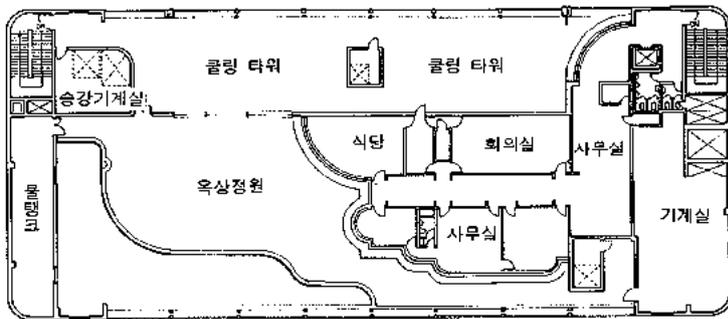
### 설계 소묘

최첨단 산업의 꽃이라고 하는 반도체 생산의 선구자인 건축주의 High Technology 와 그들의 진취적인 기업정신을 외관으로서 이미지화해야 한다는 명제설정 후, 명상과 고뇌의 교차 끝에 과감히 시도한 것이 Classic Silver 를 하이테크의 심볼 컬러로 바탕에 깔고 빨간 잉크로 Stripe 을 친 것이었는데, 의외로 우리 모두에게 공감을 주게 되었다. 또한 건물의 형태는 물론 파사드의 형상을 현재와 미래에까지 만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미래에 가서 다시 생각하며 바라보아야 할 숙제는 남아 있는 것 같다.

Roof Garden 을 포함한 옥외공간의 구조물과 조정치리는, 건축가와 노신사(건축주측)와의 토론 중 노신사에게 양모한 결과인데, 못내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특히 어느날 갑자기 요청받은 기존건물과의 Connection Bridge 는 처음부터 Glass Tube 로서 착상을 하였는데, 그 형태만은 실현시킨 후까지 전혀 후회가 없는 부분이다.

- 건축주의 기업정신과 신뢰성 표현
- 각 스페이스별 용도의 완벽한 기능과 동선처리
- 새로운 도시미관 형성
- 내외부가 사계절과 조화되는 구조와 형상의 실현

등의 몇가지 디자인 요소들이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위치와 주변상황의 오염과 문제점 때문에 설계 착수시부터 우리를 시달리게 하였다. 또한 생산시설은 도심에서의 건립이 금기사항으로 되어 있었으나 무공해 도시형공장을 실현시키겠다는 건축주의 의욕과 이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주변환경이 크게 개선된 본보기가 되어 앞으로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도시미관 및 환경을 보다 더 우리 모두가 바라는 곳까지 승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므로, 이제는 경쾌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음미하도록 하여 준다.



# 성동구민회관 *Seongdong-gu Inhabitants Hall*



대지위치/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44-17  
 대지면적/8,355.08㎡  
 건축면적/1,062.08㎡  
 연면적/3,685.58㎡  
 건폐율/12.59%  
 용적률/34.17%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외부마감/타일 및 수성페인트,  
 16mm페어글라스 및 일부 18mm반사유리

## 설계 소묘

한 지역의 주민이 자주적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시설인 구민회관은 지역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의 관료적 건물과는 달리 주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고 개방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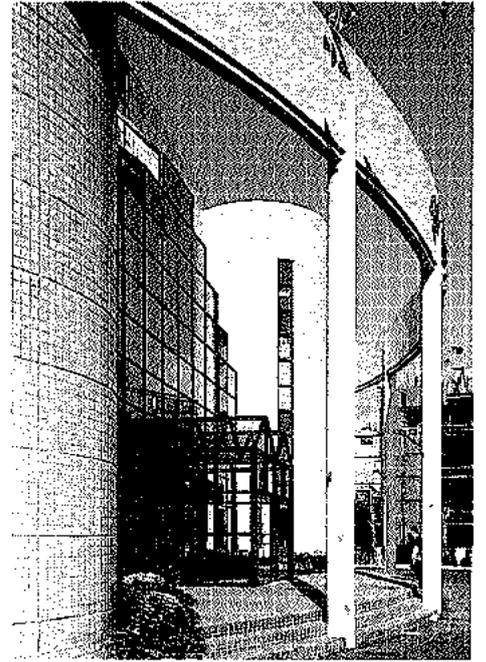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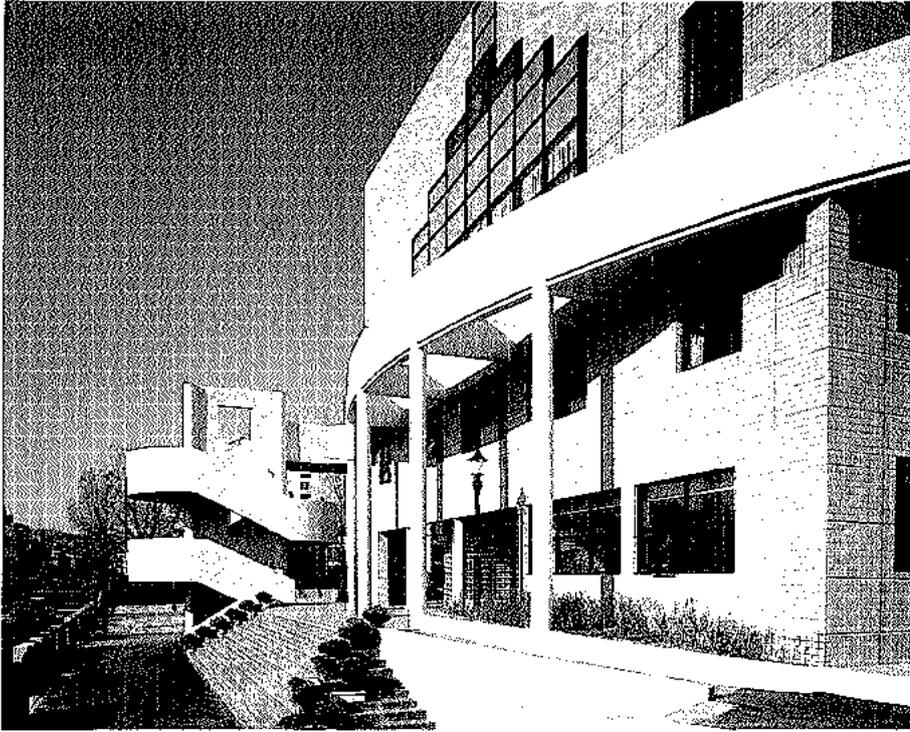
본 대지는 과거 서울시 배수지로서 35m와 10m 도로에 직접 면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 등으로 이용되기에는 위치상 부적합하며 넓지 않은 대지의 후반부는 차후 시설물을 위하여 유보지로 남겨 두어야 하는 특수조건을 안고 있다. 이러한 부지조건으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배치라고 할 수 있는 대강당과 본건물의 분리배치가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해결에 노력하였다.

- ① 대강당 진출입공간의 별도 처리
- ② 거대한 메스가 도로변에 면하게 될 때 주는 위압감의 해소
- ③ 도로측의 불확실성에 대한 방향성의 정리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건물의 외곽부에 회랑을 설치함으로써 도로면에서의 방향성과 위압감을 없애고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3층의 대강당은 옥외에서의 직접 진입이 가능하도록 대형의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대단위 동선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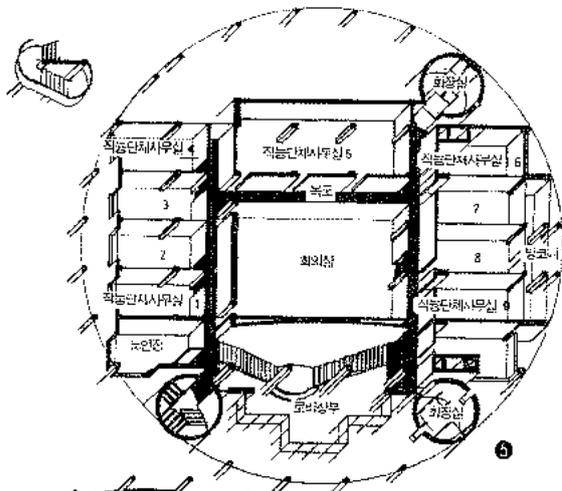
외부마감재로는 타일·페어글라스·반사유리를 혼용하여 친근감있는 지역의 상징성이 표현되도록 기대해 보았다.

韓忠國/종합건축사사무소 (주) 전양건축  
 Designed by Han, Choong-Ku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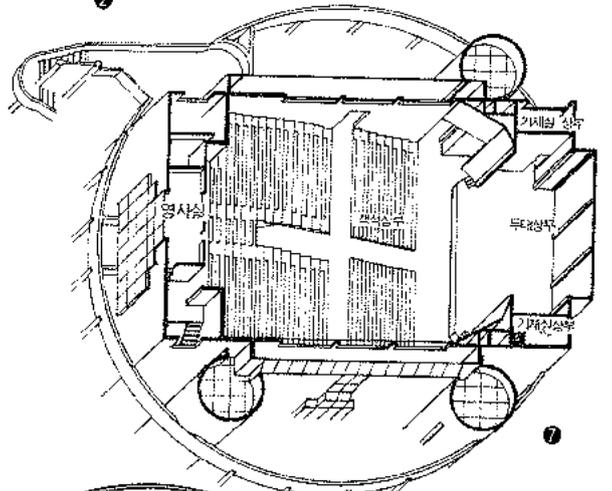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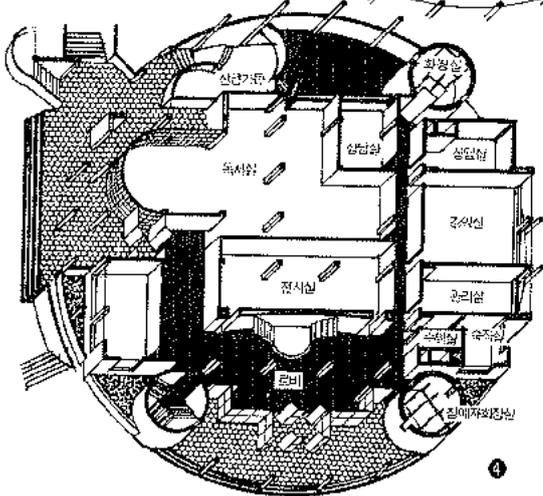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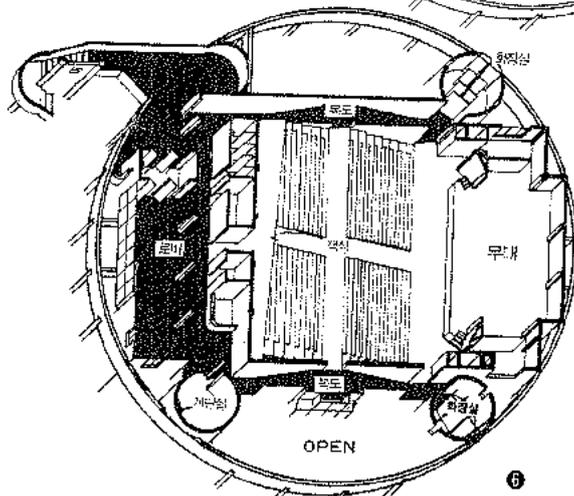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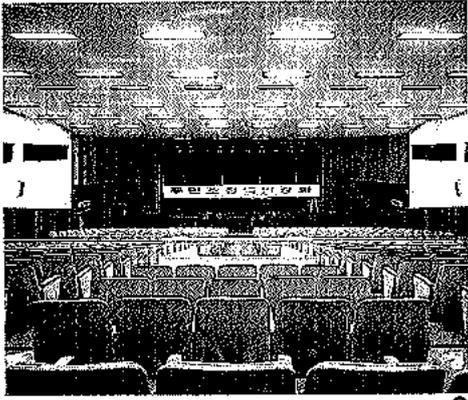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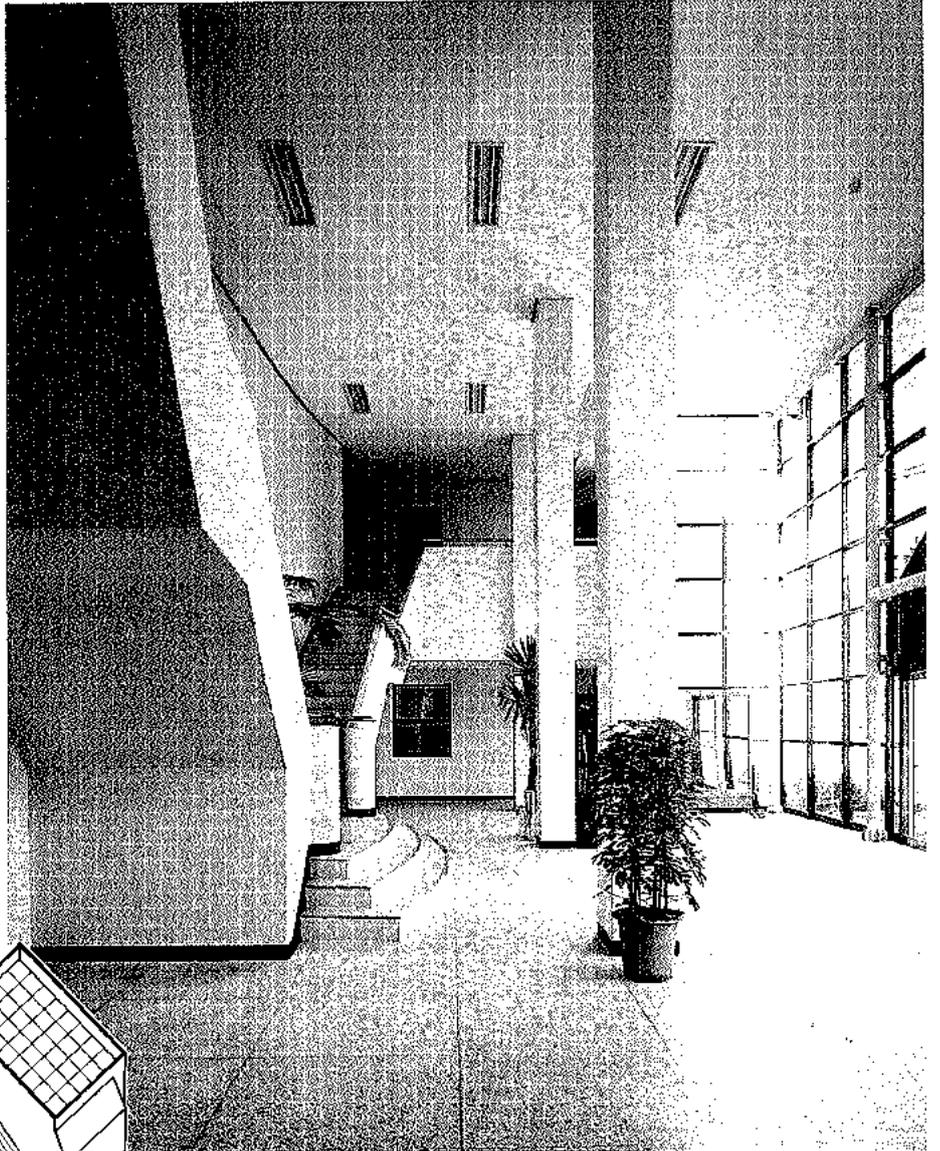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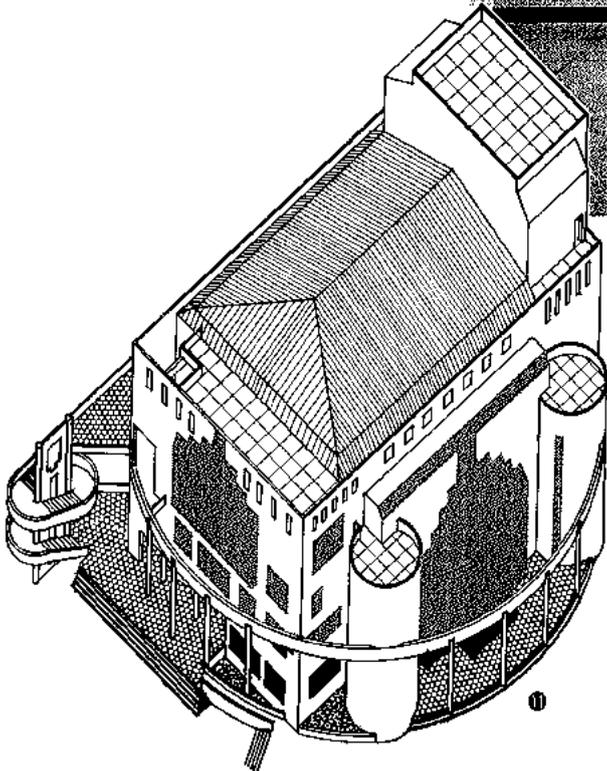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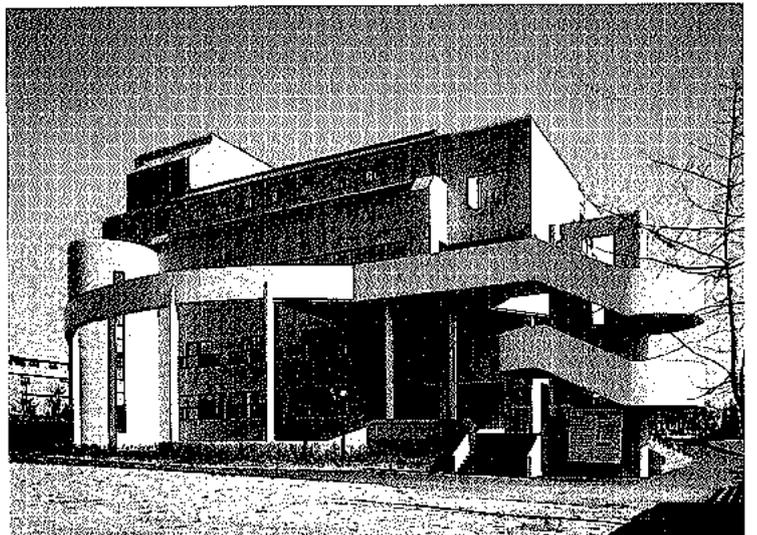
- ① 전경
- ② 측면전경
- ③ 주출입구측 상세
- ④ 1층 평면도
- ⑤ 2층 평면도
- ⑥ 3층 평면도
- ⑦ 4층 평면도
- ⑧ 강당내부
- ⑨ 1층 로비
- ⑩ 배면전경
- ⑪ 아이소메트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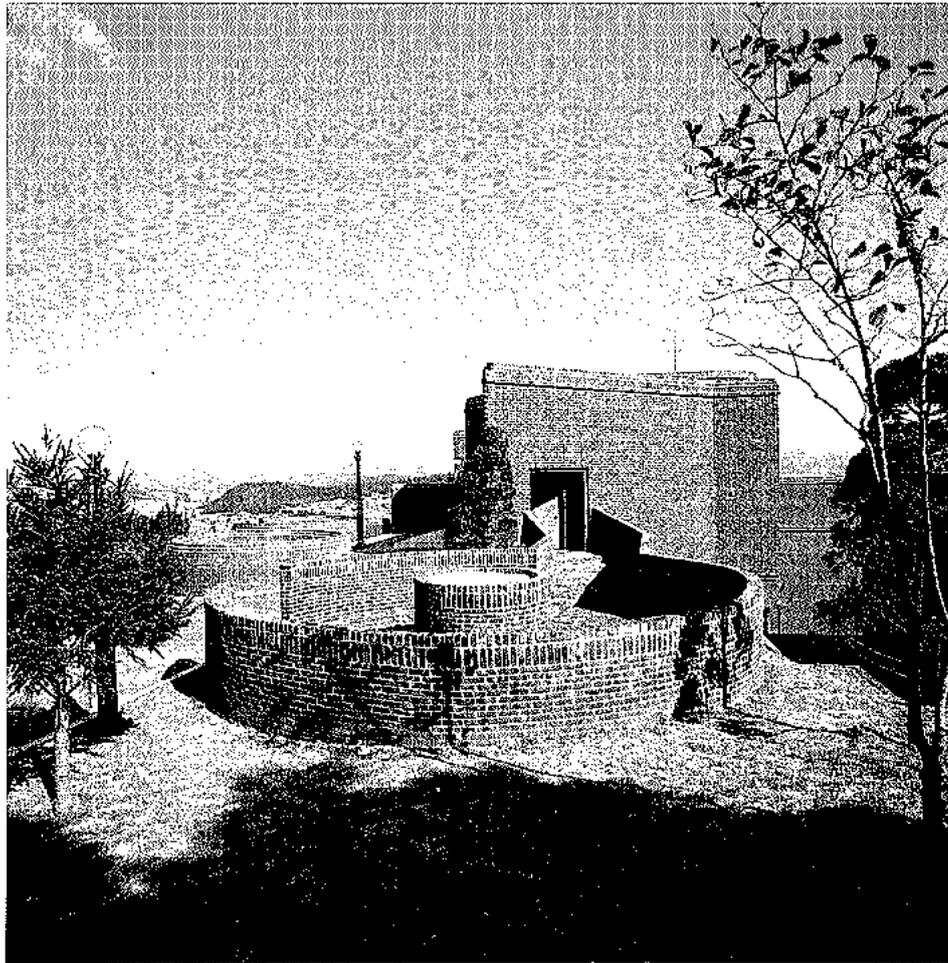
4



1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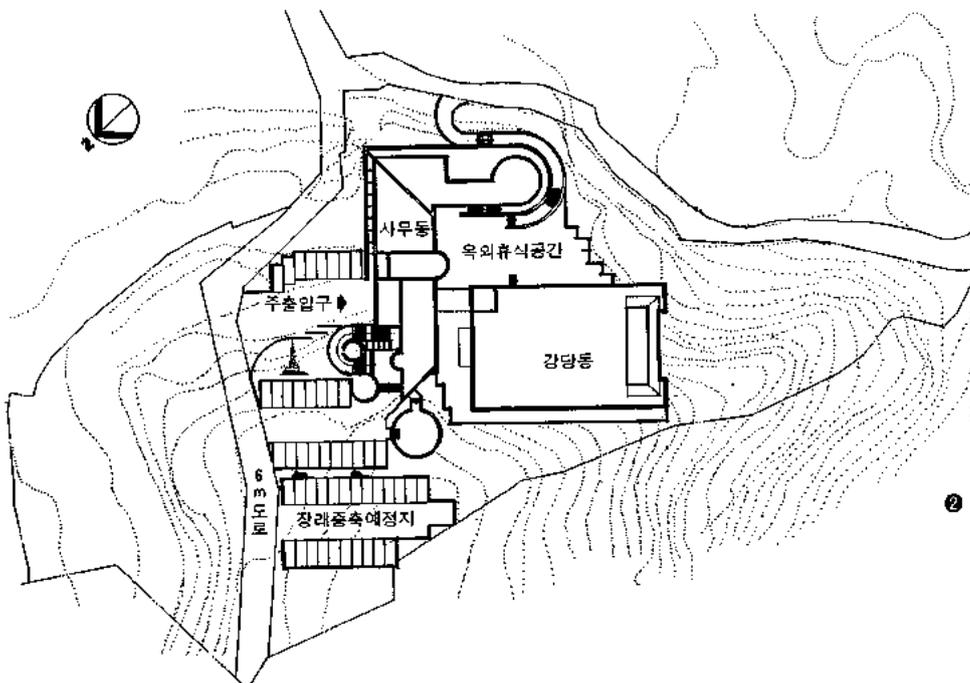


# 성북구민회관

Seangbuk-gu  
Inhabitants Ha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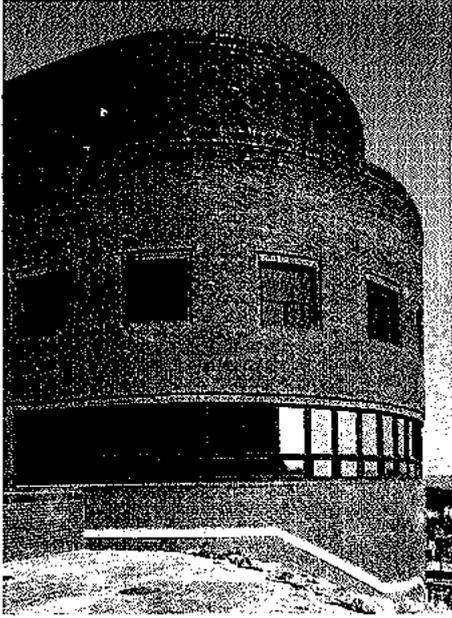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616  
 대지면적/13,691㎡  
 건축면적/2,136.95㎡  
 연면적/3,862.53㎡  
 구조/철근콘크리트조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외부마감/붉은벽돌치장 쌓기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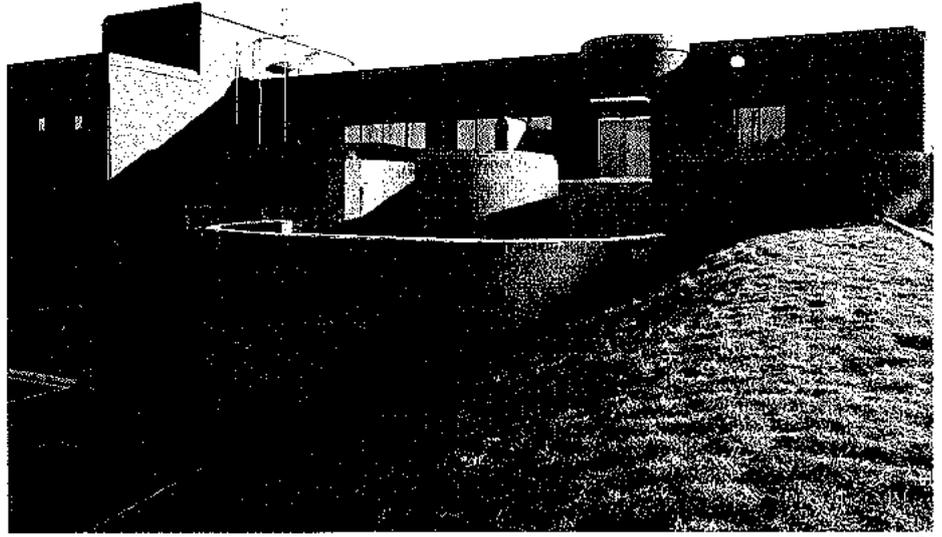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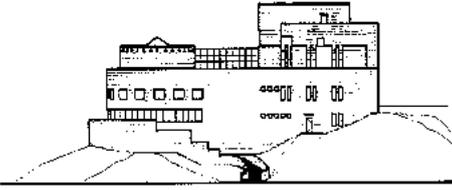
金基雄/(주)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  
 Designed by Kim, Ki-Woong



3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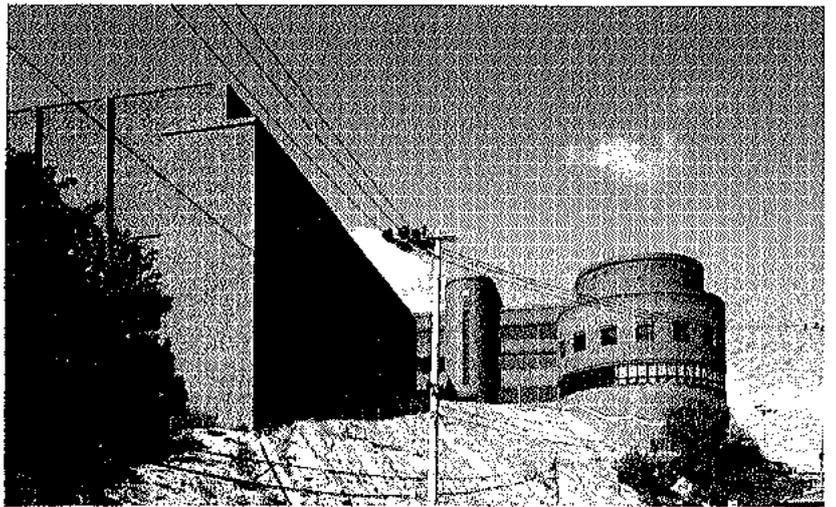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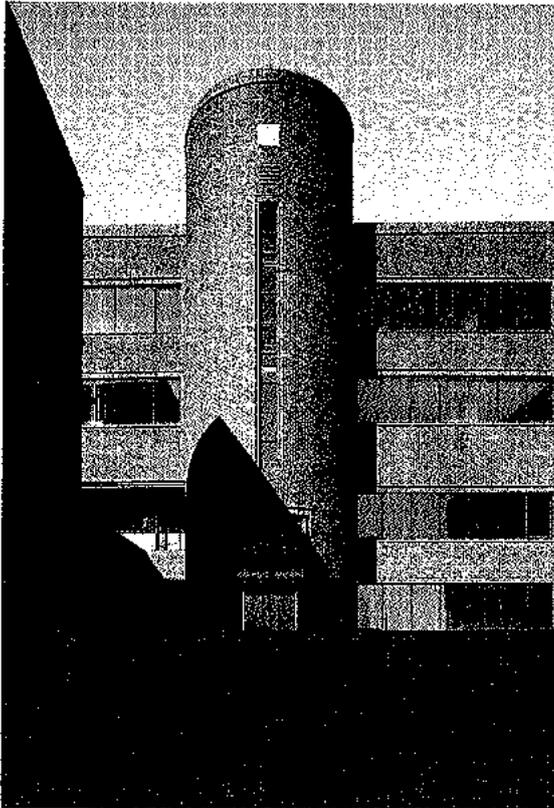


6

- 1 3층 외벽상세
- 2 배치도
- 3 사무동 외벽상세
- 4 동측입면도
- 5 서측 전경
- 6 정면 전경
- 7 3층 부분전경
- 8 외벽상세
- 9 남측전경
- 10 2층 평면도
- 11 1층 평면도



7



### 설계 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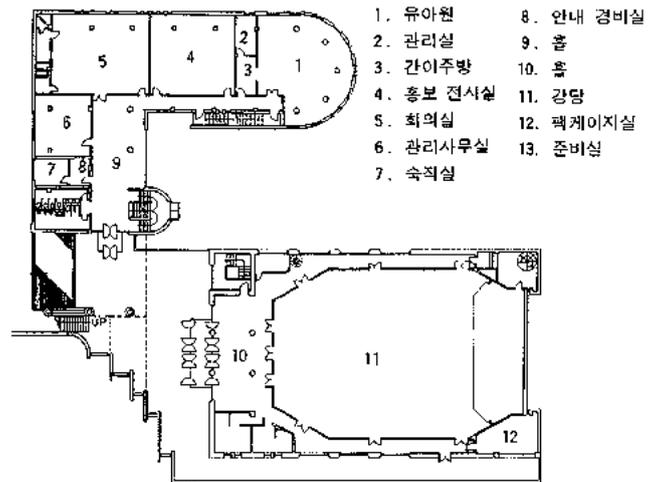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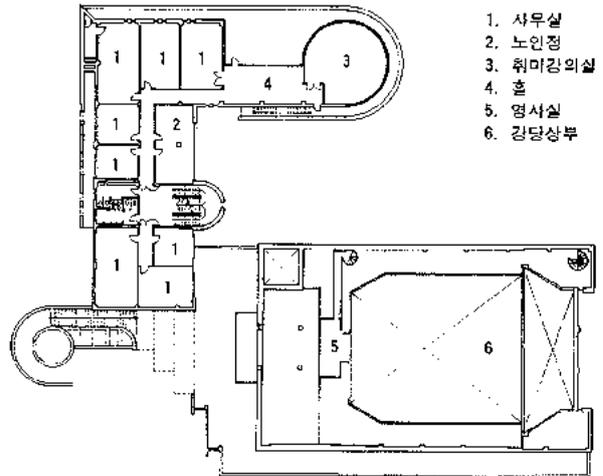
성북구민회관 설계에 있어 계획방침은,

- ① 쾌적한 구민회관으로서의 환경조성
- ② 주거환경과의 조화
- ③ 기능별 독립성 유지와 융통성의 동시 고려
- ④ 건물의 공공성 확립
- ⑤ 공사비의 경제성 등을 염두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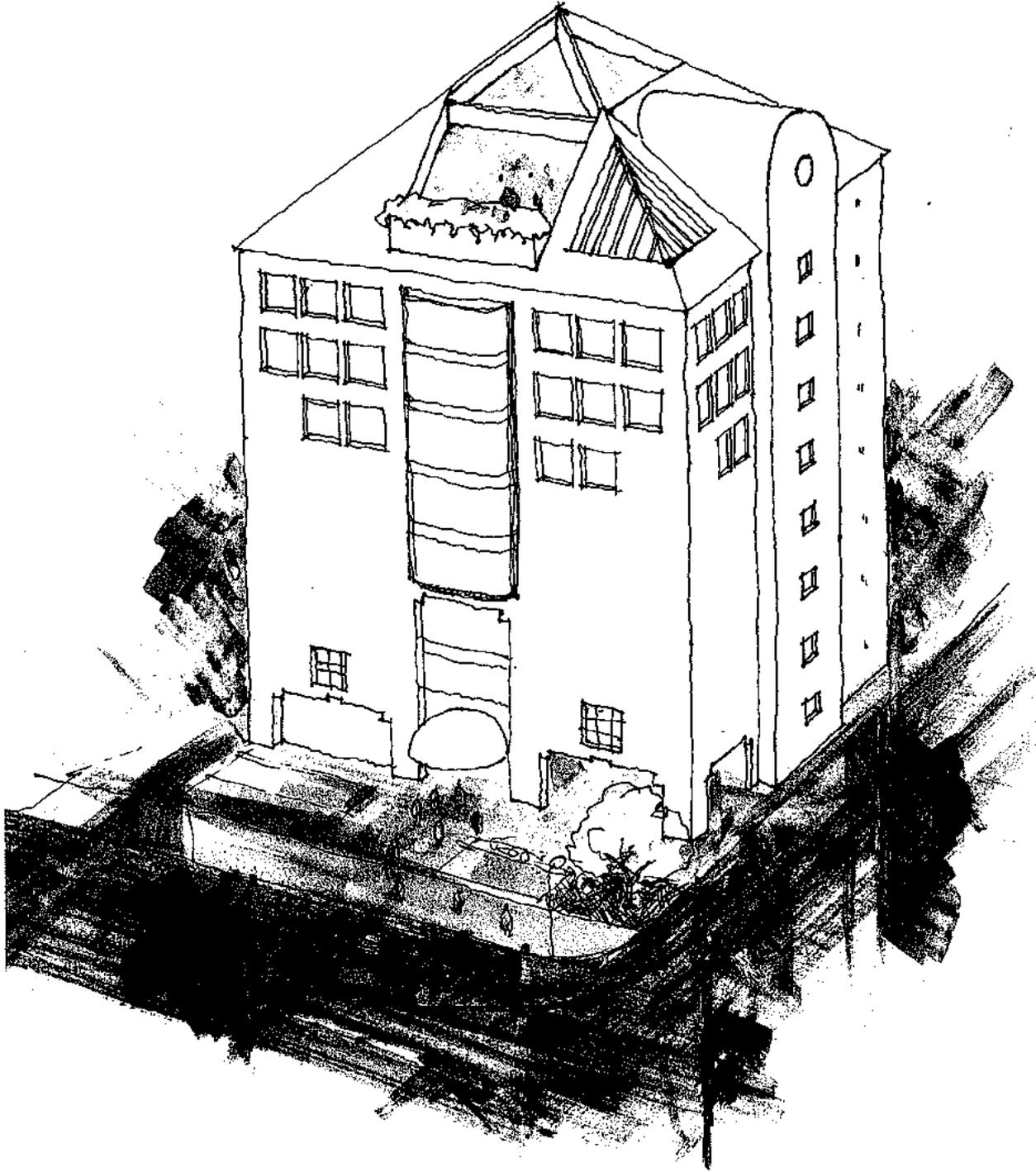
배치계획에 있어 주안점을 둔 것은, 지형과 지세(地勢)를 최대한으로 이용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기존 자연수목림을 최대한으로 활용 및 보존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휴식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문제, 그리고 강당등과 사무실을 분리하여 배치한다는 점등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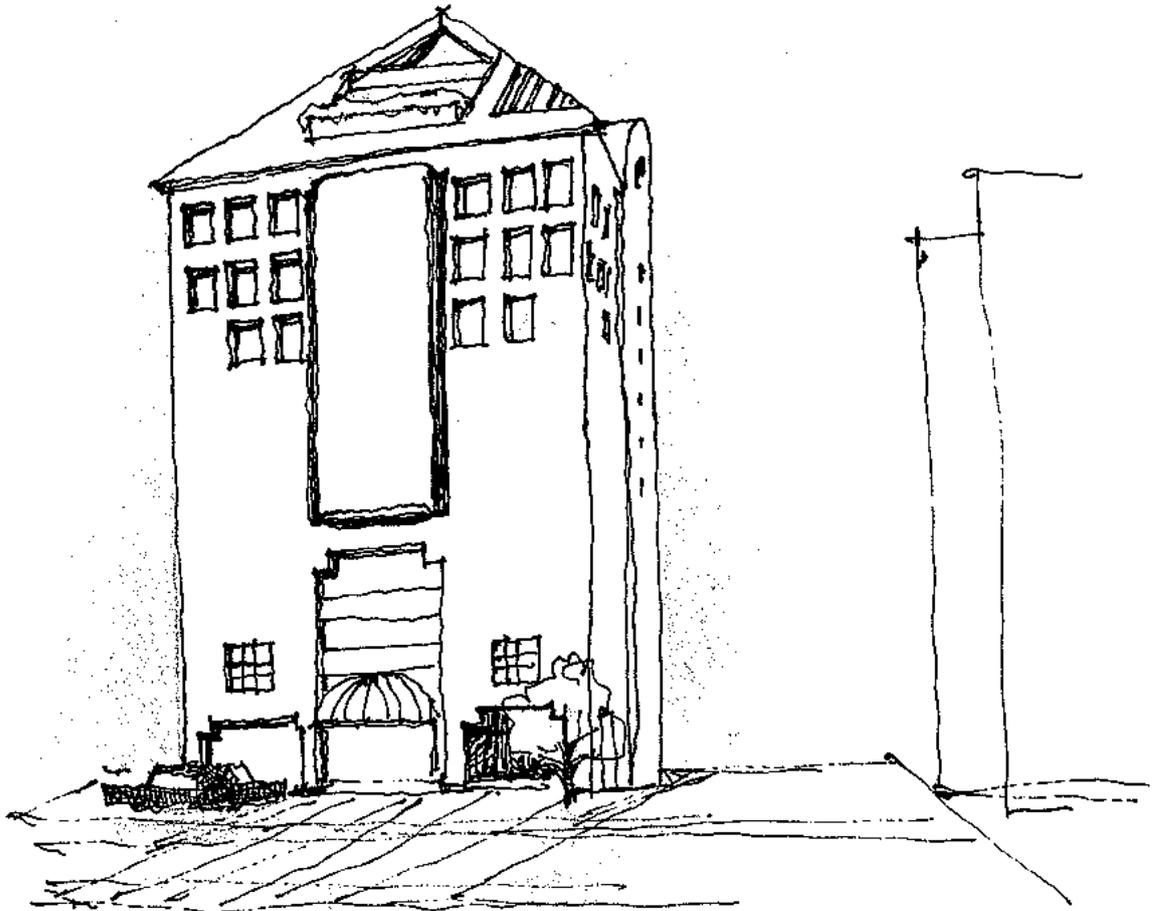
평면계획에서의 기능별 Grouping 으로 원활한 동선의 흐름과 단축을 꾀하였다. 즉, 강당과 행정동의 분리로 원활한 동선 유도, 보행자와 차량동선의 접근 분리 및 입구의 분명성 부여 등이라 하겠다. 그리고 레벨차를 고려한 진입방법을 도모하였으며, 또한 외부공간과의 연결과 자연채광 및 활용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입면계획에서 붉은 벽돌을 사용하여 친숙함을 주도록 하였고, 휴먼 스케일의 식용과 입구의 개방성 부여를 꾀하였다. 그리고 레벨 차 이용으로 변화있는 입면구성을 시도하였다.



# 나의 스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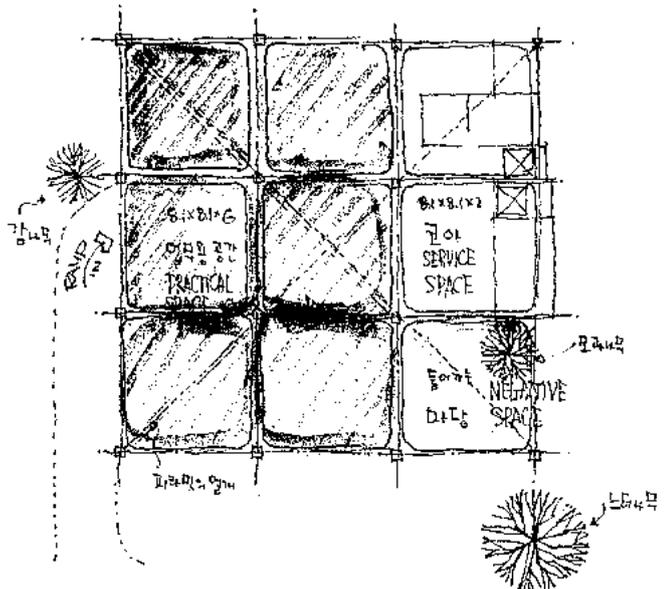




그 동안 꾸준히 추구하여 오던 공간의 개념을 중형 오피스건물에 적용하여 본 실례이다.

이 건물은 외부적으로는 완성된 도형을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있는 반면에, 한국전통건축의 단순한 칸살잡기 개념이 평면구성에 사용되어 있다. 음(negative)의 공간이 작은 마당의 형태로 매스안에 숨겨져 있으며 이 공간은 건물의 내외부에 걸쳐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不可解한 공간의 유니크한 역할이 동양적 공간의 빛남이며, 이것은 서구적 논리 안에 포용되어 어떤 내면적 즐거움을 현상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金琪碩/종합건축사사무소 이현광장  
 Designed by Kim, Ki-Suk



# 90년대의 建築士와 建築 모럴

金樂洙/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국

1990년, 庚午年 새해가 드디어 밝아왔다.

격동의 80년대를 보내고 90년대의 부푼 가슴으로 21세기를 향한 巨步를 시작한다.

지난 80년대가 온통 갈등과 모순으로 얼룩졌던 것만큼, 새로이 맞이한 90년대는 더욱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역사감각일 것이다.

시간은 시대를 만들어 흘러 가면서 역사 속에서 또 사라져 간다. 그러나 역사는 순환하는 것이든 아니든 발전하는 것이든 간에 그 흔적을 남기게 된다.

우리 建築士도 '65년 법제정 이래 4반세기의 역사를 지켜온 영욕의 명암들을 잊을 수가 없다. 평가야 어떻든 훌륭한 도시와 아름다운 건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고,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성장이 극대화의 길을 걷던 시기에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의 역할과 소임도 남들 못지않게 진력해 왔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룩해 놓은 사회적 결실만큼 국민들의 신뢰와 행정부의 협조가 미약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대국민 홍보와 업적은 우리의 책임 몫이 크다고 하더라도 건축행정의 沒理解와 無後援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풍미해 온 권위주의와 非民主의 소산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 관한한 협회가 중심점이 되어야 하고 회원 모두의 뒷받침이 필요했던만큼 양자 모두 마음일 뿐 실천면에서는 불합격선에 머물고 말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젠 이런 낡드리와 잔재들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역사의 순리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리 건축사의 位相을 재정립할 때가 왔다. 바로 21세기로 가는 길목의 90년대가 또 다시 失機의 어리석음을 개헌해서는 안되는 그야말로 계획과 설계, 행동과 실천의 10년이 되어야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80년대에서 넘어온 문제점들의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첫째는 강압적이고 강권적인 건축사법과 불신과 부자유의 건축관계법 개정작업이다. 사무소 폐쇄와 감옥으로 직결된 건축사법 때문에 무참히도 유린당한 우리의 자존심만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하고, 벌금민능과 전과자 양산의 건축법 때문에 무수히도

짓밟혀 온 건축주의 생활권만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확보시켜 주어야만 한다.

그 둘째는 비능률적이고 무기력한 協會像을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소비적이지 아닌 생산적 예산이 협회업무의 기본이 되어야 하고, 감투와 명예가 아닌 봉사과 공적이 협회조직의 根幹이 되어야만 한다.

최소한 이 두가지 숙제만은 90년대 초반에 해결해야 할 숙명적 과업이다.

90년대 중반은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서 世紀末을 장식하는 우리의 도시와 환경에 무리한 가능성을 던져주는 建築士像을 정립해야 한다.

건축사의 고유한 창작행위는 국민과 법의 이름앞에서만은 무제한의 자유와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창작은 건축의 즐거움으로 이어져 문화의 發展軸上에서는 영원한 갈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물론 건축사의 白尊과 良心도 전제되어야 한다. 건축사의 자존은 사회 속에서도 특히 건축주의 존경을 그 바탕으로 하여 얻어지는 것이지만, 건축사의 양심은 건축사 스스로의 존경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 스스로 알고 실천하는 도리 밖에 없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90년대의 후반은 생활전반에 걸쳐 일대변혁기에 접어들면서 첨단산업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 갈 것이란 전망이다. 지구환경의 극심한 오염상태 속에서도 건축자동화시스템과 무인 로보트 만능시대를 체험하고, 나아가 장수를 꿈꾸는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21세기를 준비하는 세기말적 도전과 극복이 함께 자리할 것도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다.

불확실성의 세계와 첨단시대를 리드할 건축모럴 이 생활과 환경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테크노 스트레스」등 첨단산업에서 오는 후유증을 치유하는 건축적 기술과 공간설계가 더욱 필요할지 모른다.

「노스트라담스」가 예언한 「1999년 일곱번째 달」이 지구의 종말이라고 믿는 건축사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기에, 오로지 2천년대를 살아 갈 우리와 후손들에게는 몇몇한 건축적 유산을 물려줄 책임 또한 큰 것이다.

21세기의 발전논리는 정치와 경제 대신에 문화적 측면에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의 건축은 인간과 도시의 발전모형을 제시하고 창조하는 과학과 예술의 최일선에 서게 될 것이다.

현상유지적인 엘리트가 아니라 변혁지향적인 엘리트가 바로 건축사이며, 순환적 역사관이 아니라

건축사의 고유한 창작행위는 국민과 법의 이름앞에서만은 무제한의 자유와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아름다운 창작은 건축의 즐거움으로 이어져 문화의 發展軸上에서는 영원한 갈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발전적 역사관을 실천하는 행동적 지성이 바로  
우리들 건축사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우리의 건축모형은 바로 여기에 그 지표와 근거를  
두고 21세기를 대비해야 한다.

앞으로 10년.

世紀末의 대결단의 와중에서도 21세기는  
틀림없이 우리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자연과 인간을  
가장 사랑하면서 문화를 최고로 즐기는 첨단집단이  
우리 옆에 와 있을 것이다.

이제 2천년대의 갈 길을 밝히는 건축모형은  
필연적인 것이 되고, 도시와 환경을 가장 아끼면서  
건축을 가장 사랑하는 건축사들만의 용기와 두뇌를  
모아 이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기에 21세기의  
창작과 건축도 10년간 꾸준히 계획하고 마련한 그  
集大成을 건축모형으로 삼아, 다음세기의 통일국가를  
열어가는 지도적 입장에 서서 언제나 신신하고  
충격적인 공간을 영원토록 제공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 90년대에 거는 期待

김선양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21세기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좀 멀고  
어찌면 환상적인 느낌마저 들지만 우리에게서 진공의  
특성 때문인지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어 21세기의  
도시에 남게 될 20세기의 유물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짓고 있지 않은가.

인류 역사상 가장 급변하는 세기말에 활약하는  
수많은 건축가들 가운데 우리의 입장은 어떠한가.  
반만년 역사 속에 숨쉬던 우리의 전통건축을 잠재워  
놓은지 수십년, 변명같지만 서구화의 물결에 휘말린  
사회 현실에서 건축문화 역지도 예외일 수는 없었지  
않은가 생각되어진다.

각 분야에서, 선진국은 2천년대에 대비한 연구가  
한창이라고 한다. 우리 건축계도 과거의 많은  
문제점을 분석하여 2천년대의 꿈인 「선진국 대열」에  
서서 세계 속의 한국건축의 도약을 위한 준비가  
부엌보다 절실하다고 본다. 우리 후배  
건축인들로부터 무능했던 선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분야에 비해 낙후된 분야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90년대는 과거의 반성과  
2천년대의 도약을 위한 분기점이 되어 우리 건축계의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10년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과거의 많은 문제점의 지적이 밀거름이 되어 10년의  
각고가 21세기의 선진국 대열의 실체가 된다면 한국  
건축발전의 가장 중요한 모멘트가 되는 보람찬  
90년대가 될 것이 확실하다.

일부, 주관적일 수도 있으나 建築士의 입장에서

학교 교육, 건축사시험제도, 사무실 운영상의  
對官業務 및 협회 업무문제등 몇가지 현실적인  
제도적 문제점들을 기대적인 시각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학교 교육에 있어 21세기의 전반기를 주도할  
건축가가 배출되는 90년대의 건축교육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다른 예술, 체육분야의  
체험에서 처럼 우리 전통건축과 현대건축의 정확한  
접목을 통하여 우리의 전통건축이 백설공주가  
요술에서 깨어나듯 깊은 잠에서 깨어날 날을 기대해  
본다. 또한 학교 교육의 현실화를 통하여 졸업후 다시  
기초부터 배운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産學協同 체계의  
강화로 학생이 졸업前에 이미 각종 실습 및 견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공 직업에 적응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건축사 면허제도에 있어서는 국제화시대에  
맞는 자질 높은 건축사들이 탄생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시험제도를 되돌아 볼 때 개선의 여지가 높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분류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수험자격 : 기술사와 건축사는 같은 경력에서  
수험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어떤 이유에서든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된다. 특혜는 크게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작게는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크나큰 저해 요인은 물론 타전문직중의 면허와  
비교할 때 질적저하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험시기 : 통계적으로 허가건수가 가장 적은  
시기를 정하여 해마다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치루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다.  
20명이 있는 사무실에서 5명이 건축사 시험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년처럼 3월에 시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무실에 양해를 구해 1월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무 발표가 없더니 5월 예정이라고 소문이

났다가 7월 시험이라고 발표했다고 하자. 거기에는 2차 시험까지 합하여 8~9개월을 시달리다보면 사무실은 사무실대로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지치고 업무가 마비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는가?)

**출 제 :** 이미 출제교수가 알려지면서 교수논문중심으로 분제의 성격이 분석되어 「정보전쟁」이 벌어지는 제도는 무언가 진정한 실력평가를 저해하고 있으며 설계문제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서도 소기의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시험제도를 개선하여 순수한 자기 실력만이 성적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합 격 :** 해마다 합격자의 기폭이 너무 심하지 않도록 하고 1차 합격자는 1년후 1차과목중 일부라도 면제해 줌이 당연하다고 본다.

셋째 對官業務에 있어 건축을 위한 각종 심의 및 허가 절차의 간소화는 우리 모든 건축사 사무소의 인력 손실을 줄이는 첫째 요소가 된다. 관청은 허가를 위한 협조 분위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협회와

협동으로 허가권을 가지는 것도 바람직하다. 모든 처리는 전담부서에서 한번 접수하면 신속·정확히 며칠후에 체크리스트를 통한 검토에 의해 허가 혹은 보완 통보해준다면 진정 선진화된 대관 업무가 될 줄 믿는다. 애매한 반려 보다는 친절한 보완 위주의 체계가 정착화 되어야 할 줄 믿는다.

넷째, 협회 업무에 있어 협회는 건축사의 이익을 위한 협조를 주업무로 하여야 할 것이다. 영세 건축사 사무소를 위한 컴퓨터 협조-구조계산, 내역서 작성 등과 각종 자료의 제공, 건축자제 정보 등 각종 연구도서 발행, 각종 OA 의 임대, 보조원 교육, 신규등록사무실의 운영 협조, 건축사 전용 휴양시설의 확보등 개척하고 협력해야 할 부분이 참으로 많다고 본다.

이제 90년대는 21세기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건축재료, 디자인, 구조, 각종 자동화시스템등에 대한 각 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에게 건축가 2세의 길을 걸어주기를 소망하는 희망찬 1990년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 餘裕의 建築을 위하여

金宇成/(주)아키프랜 종합건축사 사무소

1990년을 맞이하니 “해방둥이”인 나로서는 이젠 45년의 人生경력과 24년간의 건축경력이 되었다.(대학 3학년 이후 부터 계산하여)

선배님들이 보실적에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현재 내 심정으로는 그 정도의 時間이 지났으면 一家見을 人生 및 建築에서는 세워야 할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살면 살수록,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 人生과 建築의 공통점인 것 같다.

끝이 없는 求道者의 길, 正답이 없는 길 그러니까 어렵고 겸손해지고 노력하게 되고 괴롭고 한 것이리라. 모든 일이 어려운데서 고통스럽지만 도전해 보고 싶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리라. 서양속담에 “Easy Come, Easy Go”라는 말과 같다.

人生과 建築에 正답이 있다면 그래서 누구나 目標 달성여부를 재어 나갈 수만 있다면 世上일이 便해지고 단순해지리라. 예를 더 들자면 하느님이 이

世上에서 사탄을 없애버리면 人間의 낙원이 될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人間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극복 및 해결의 즐거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나 자신도 아직 그런 마음의 자세 그리고 여유를 갖고 있는지를 되물어 본다. 設計를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객관적인 평가가 있어서 매년 賞을 주고, 현상설계 경기를 개최하여 당선작을 선정하는 데, 이런 일들도 어떻게 보면 어렵고 괴로운 일들중에 하나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과정을 밟아야 하는 建築活動 중의 하나이다. 참여하는 일 자체가 즐겁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하지만 참여하는 데에, 그리고 어떻게 努力했는가에 意味부여도 중요하니까.

어느 Nobel 賞 수상 작가가 수상 결정 소식을 통보받았을 때 수상을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남들이 알리지 않을 때, 그래서 어렵게 지낼때에 상을 주었으면 많은 도움이 되어 기꺼이 상을 받았겠지만, 지금 내가 이미 有名해진 후에 주는 상이라면 필요없으니 다른 無名의 작가한테나 주시요”라고 했다고 한다. 賞의 意味가 과연 무엇인가하고 생각해 된다.

建築의 分野는 그만큼의 時代超越의인 獨創性을

建築의 餘裕는 마음의 餘裕,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餘裕, 現在가 틀릴 수 있다는 餘裕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소위 政治人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말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아니 꽤 많은 양의 판단의 오차를 예상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오늘에 맞는 옷이 내년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듯이. 그래서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옷을 고를 때에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리고 아무때나 입어도 괜찮은 더럽 잘 안타는 옷을 사 입혔다.

우리가 하는 建築도 그래서 餘裕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현재의 판단과 상황에는 적합하더라도 건물의 목표 수명(10년~50년 이상)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여유의 建築.

“여유의 건축”은 時間性, 場所性, 그리고 각기 다른 사람들의 각 個人性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보완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 우리 建築家들은 너무나 “Minimum”(최소 적정치)에 익숙해 있고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닌지. 설계의 기준을 자료集成(특히 日本의 基準)에 너무 의존하다보니 모든 建築에 여유가 없는 딱딱한 것이 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日本의 建築은 내가 보기에는 “빈틈없는 建築”이 아닌지. 아니 최소한 그를 指向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교한 Detail, 6자 다다미 모듈에 딱딱 들어 맞는 모듈의 건축. 이런 建築을 딱딱한 建築, 긴장의 建築이라면 우리나라의 모습은 “여유의 建築”, 여백이 있는, 푸근하고 넉넉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라고 한다.

이런 建築을 소박하고, 금방 싫증나지 않고 좀 완벽하지 않은 듯 한데서 오는 人間味가 있는 것 같다.

建築의 餘裕는 마음의 餘裕, 그리고 내가 틀릴 수 있다는 餘裕, 現在가 틀릴 수 있다는 餘裕를 가져야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소위 政治人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마음을 비운다”는 말과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것 같다.

너무 적정하고, 완벽하고 자기에게 최적의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과욕이 되어 오히려 잃는 것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建築의 餘裕, 餘裕의 建築은 建築家 自身에서 탈피하여야 한다는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自己의 主觀, 感性, 論理만을 떠나서 남을 생각하고, 경청하고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 “틀림에 대한 대비”를 한다면 되는 것은 아닐지.

新年, 1990年代를 맞이하며, 不足함을 느끼고, 그리고 괴로워하며, 努力하고 또한 즐거운 建築人이 되려고 “마음 먹는다”.

《마음을 먹는다》는 뜻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과 같은 뜻을 아닐까? 마음을 먹어(食) 버리면 없어(無)질테니까.》

## 우리 것에 대한 可能性

承孝相 / 승효상건축연구소

80년대에 일어난 우리네 건축환경의 변모는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성장과 변혁의 규모와 같은 엄청난 것이었음을 회고할 수 있다. 사회의 새로운 기능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성격의 다양화와 더불어, 올림피아라는 이벤트에 맞춘 거대 프로젝트들의 등장 및 기념비적 건축물의 출현, 또한 산업기술의 발전등에서 비롯된 다양한 표현방식의 형성등 한국건축은 그 양적인 면에서 놀라운 성취를 이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다만, 급속히 확대될 수요를 위해서 단순한 물량공급에 급급하여, 한국건축의 방향성을 상실한 채, 無國籍의 표정으로 우리네의 환경을 가꾼 부분도 있었음을 인정해야 하며, 우리네의 位相이 어디에

있는 가도 이제 냉정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특히, 金壽根, 金重業 두분이 남긴 공허감은 두분이 생전에 이룩한 업적 만큼이나 그 크기가 깊은 것이어서, 그 이후 한국건축에서의 지도적 건축가(leading architect)가 뚜렷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욱 우리네 건축문화를 진맥케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될 수 있다.

90년대에는 다시 leading architect가 등장해야 하고, 그 등장을 위해서 활발한 발표와 논의가 진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들에 의해 한국건축의 제보가 다시 쓰여질 수 있어야 하고 뚜렷한 Color와 Tone을 내는 설계집단만이 그 존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환경표정은 불과 몇년 사이에 표피적이고 즉흥적 건축으로 많은 부분이 채워져 있어 이러한 루즈 바론 손색시 같은 표정으로는 세계건축에 끼여들지 못할 것이다.

이 시점이 가장 세계적 건축 걸작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 한다. 즉 수공업사회에서 첨단공업사회의

소위 “韓國學派”가 90년대에는 태동되어 세계의 사상가와 이론가 사이에서 논쟁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의 流派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건축론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고 미궁에 빠질 서양건축이 이로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전환하기 직전의 시점이 그것인데, 선진화되고 조직화된 기계적 요소와 장인적이고 기계적인 인간적 요소를 함께 그 건축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90년대야말로 한국건축의 세계화가 가장 가능한 시기일 것이다.

저널리즘을 통해 입수한 건축정보를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무단 복제 혹은 차용하는 식의 건축제작방식이 더이상 우리 건축계에 통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그런 것들이 더우거나 상을 받아, 우리 건축계가 세계속에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건축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빠른 길 중에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한국성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우리의 세계화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하고 달러로 통화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가 세계에서도 통할 수 있고, 한국 돈도 통용될 수

있어야 하듯, 한국의 건축도 한국정신으로 표현되어 그것이 세계속의 뚜렷한 좌표로 표기되기 시작되어야 한다.

즉 다시 말해, 소위 “韓國學派”가 90년대에는 태동되어 세계의 사상가와 이론가 사이에서 논쟁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의 流派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건축론이 다시 쓰여지기 시작하고, 미궁에 빠질 서양건축이 이로써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70년대에는 오히려 활발했던 우리의 것에 대한 논의가 우리의 경험부족으로 그 이론적 실체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였었던 반면에 80년대에는 변화하는 시대를 배경으로만 왕성한 실험이 행하여졌다고 볼 때, 이 대가온 90년대는 ‘우리의 것’만이 올바른 생명력을 갖고 이 땅위에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庚午年은 되었건만.....

崔昌奎/건축사사무소 新新建築

우리는 흔히 年末年始가 되면 지난해에 대한 아쉬움을 되새기며 새해에 대한 희망이나 예측을 하며 신년계획을 세우곤 한다.

庚午年을 맞으며 나는 80년대 아니 건국 이래 가장 劃期的인 '88서울올림픽을 잊을 수가 없다.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성공적 개최다 해서 찬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찌되었든 무사히 끝나 참으로 다행이다. 건축계에서도 건축인 전체의 참여로 우리의 역량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건축인 전체가 참여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세상이란 모든 면에서 그 분야의 극소수가 참여하여 결정하고, 생색내고 그러면서 그 사회의 상황을 조성해 나가며 어떤 대세를 만들어 사회의 분위기가 그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우리들이 체험해 온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이런 계기에서 89년을 뒤돌아 보면 “하이젠베르크”의 “不確定的時代”에서 말한 바나 “칼세이건”의 “第3의 衝擊”에서 말한 바와 같은 전 인류나 지구라는 단위에서 볼 때 이렇다할 특기할 만한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서울올림픽이라고 해보아야 극소수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나 단체들이 다하고 일반국민들은 올림픽이 끝나면 당장에 先進國이 된다고 해 땀땀은 5백원짜리로 올림픽복권이나 사서 1억원의 상금을 준다는 사행심에 동원되어 부리를 하여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샀지만, 누군가 당첨되어 1억원의 행운을 차지했는지도 알 길 없고 막상 개막식장에는 입장료가 워낙 비싸서 TV 나 보았을 뿐, 그게 고작이었다.

建築界도 올림픽에 직접 참여한 극소수의 건축인이외는 어떻게 설계되고 건설이 되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건축계에서는 有史以來 가장 짧은시간내에 체육시설과 구조물등 올림픽에 관련된 건축물 등이 세워진 일도 일찌기 없었던 한해였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

5共이 사양길로 들어가고 6共이 고개를 들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때이고 민주화와 자율화의 목소리가 각 분야에서 높아만 가는데, 建築分野의 일은 결정권을 가진 소수의 비전문인들에 의해 좌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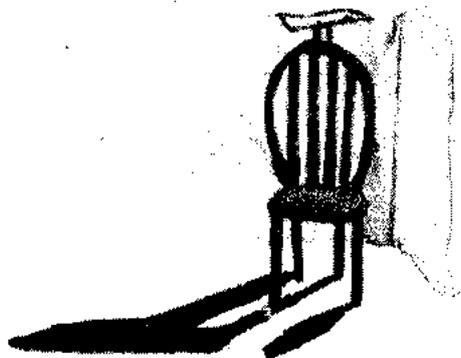
지난 10년간의 건축계의 활동을 회고해 보면 올림픽과 관계되는 이야기로 충분하다. 올림픽이 사상 최대 참가국, 최대의 인원, 최대의 시설, 최대의 기록, 최대의 흑자를 냈다고 하니 우리 일반국민은 그런가 보다 할 뿐이다. 국민 앞에 언제 올림픽백서를 제시한 적도 없고 결산서를 공개한 적도 없으면서

많은 후자가 났다면서 국민의 동의없이 상당액의 상여금을 종사자들에게 배분했다는 소문도 들었지만, 그것이 어느 부문에서 후자를 낸 것이고 얼마의 후자며, 얼마씩 배분해 가졌는지는 국민들은 모른다.

국민들은 모르면 의심을 가지게 된다. 더우기 과거부터 부정이나 비리가 없었던 바도 아니어서 安保라는 美名하에 만사 비공개리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는 전문분야라고 자처하는 우리도 어안이 병병할 뿐이다.

요즈음 政界의 비묘한 움직임이나 경제계의 불안한 분위기, 학생운동의 문제, 노사문제 등의 산적된 연말의 제반문제들 속에서 건축계란 그들에게는 하찮게 보이는 문제에 지나지 않을 것이어서, 올해의 예측이나 희망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미사여구를 나열해도 그 허구성은 自明한 것이다. 왜냐하면 얼마전 신문과 TV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부산, 대구, 광주, 대전등의 建築士들에게 설문한 결과가 기가 막힌다. 이들이 건축허가업무에서 준공까지 업무의 원활을 위해 건축직공무원에게 떡값(?)을 주었다는 회원이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보아 왔다. 한나라의 공직사회가 부패한 나라의 패망을! 월남의 티우정권, 필리핀의 마르코스정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 중국의 천안문사태 등도 공무원의 부패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보아왔다.



86%나 된다고 한다. 나머지 14%는 설문에 차마 표현을 안했을 뿐이지 결국은 전부가 공무원에게 공공연하게 상당액의 돈 쓰지 않으면 일이 안된다는 결론이다. 이런 일은 비단 설문을 실시한 4개 도시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니고 전국적인 실정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줄 안다.

이렇게 쥐꼬리만한 재량과 권한을 가진 그들이 그러한데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들은 어떨지 의심이 간다.

며칠전 도로건설 수의계약서의 비리보 건설부의 국장급이 구속되는 장면을 보며 다시 한번 탄감이 교차했다.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보아 왔다. 한나라의 공직사회가 부패한 나라의 패망을! 월남의 티우정권, 필리핀의 마르코스정권,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정권, 중국의 천안문사태 등도 공무원의 부패가 그 직접적 원인이었음을 보아왔다.

별 도리없이 두뇌가 이미 비리의 침해를 받은 공무원들이 비전문분야까지도 자기네가 생각하는데로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당장 멸망하는 줄 아는 무식과 독선이 있는 한 90년대가 되어도 무엇하나 희망적인 예감이나 기대해 볼만한 생각조차 없다. 그러나 싫든지 좋든지 내 祖國이라 가만 있을 수는 없다. 영국의 석학 "그레고리 베이튼"의 "마음의 생태학"(Steps to an Ecology of Mind)을 전 공무원들에게 독서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80년대의 건축이든 '90년대의 건축이든 간에 건축이란 그 사회 상황속에서 생성되는 것이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상황을 조성하는 전체 국민의 5%에 지나지 않는 그들이 조성하고 이끌어 가게 되어있는 체계적인 것을 "마음의 생태학"으로 是正하기 전에는 이 사회는 可望이 없다고 본다. 規定이나 시행령, 조례는 물론 母法까지도 그들 마음대로 될 뿐 아니라, 건물의 외양도 통제가 되는 느낌이다. (예로 사당동 남태평 밑에 "만사드"양식의 주택군을 보라) 따라서 모든 권한도 법규도 비리의 공해에 침해된 그들의 두뇌에서 표출되는 바에야 우리가 무슨 희망이나 계획 등을, 1년이란 단기간을 놓고 운운할 수가 있겠는가?

冬至가 지난 요즈음의 서울은 스모그 현상이 매일 일어난다. 침울한 연말 연시요, 불확정적 90년대를 맞이해야만 하는가?

그 옛날 滿登하고 아름답던 하늘이 그리워지는 이때에 말이다.

# 주택단지의 설계 혁신이란 : 올림픽 선수촌 입주 1년후

*Innovation in Housing Design:  
One Year after the 88Olympic Village's Occupancy*

## 90년대-주택단지 건설의 열기

대단위 집합주택단지건설의 열기는 다시금 주택개발계를 휩쓴다.

2백만호 주택건설을 성취하기 위하여 분당,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중동 등의 신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서울시 안의 대단위 택지개발 지구들과 부산시의 외곽 시가지개발 등 대규모 주택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천의 매립지개발, 부산시의 해상도시, 또한 2천년대를 향한 산지·구릉지개발등의 계획이 추진중에 있다. 분양가 연동제 및 건축비의 현실화 실시, 옵션제 도입등으로 민간부문에 의한 주택단지 건설이 다시금 붐을 이룰 추세에 있다.

한편 주택단지설계를 변화시킬 여러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건설기술의 발달, 고급화 지향추이는 분당시범단지를 본격적인 시발점으로 하여 초고층 아파트, Home Automation 등이 보편화될 조짐이다. 분당 시범단지에서는 다소 유행적인 포스트모던적 시도에도 그친 감은 있으나 지붕이 있는 아파트로써 기존의 상자곽 아파트에서 벗어나 스타일의 변화를 꾀하는 시도가 받아들여지고 수요자의 기호에 따라 넓게 확산될 움직임도 보인다. 또한 "특별주택사업지역에서의 계획적 개발"이라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주택지 개발에 기존 건축법규를 완화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부문에서 설계개선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표면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수도권외의 5개 신도시들에 대해서는 중심지뿐 아니라 주택지구를 포함한 전체도시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적용함으로써 주택단지의 질을 높이려는 의지가 제도화되고 있다.

건설 붐이라는 기회와 설계개선에 대한 기대는 분명 희망적인 상황전개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목할 만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연 주택단지에서 어떠한 환경의 질을 찾고 기대하며,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 그러한 환경을 만들며, 결과적인 환경의 모습이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생활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나 가치기준이 우리사회에 뚜렷이

존재하는가에는 회의적이다. 앞으로 전개될 건설붐에 직,간접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나 건축계, 행정계, 또한 일반인들이 주택단지환경에 대한 가치기준을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우리사회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건설이 추진되어온지 30여년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주택단지란 아파트 건설로 직결되고 아파트 건설이란 행정계에는 주로 주택공급물량을 채우는 수치로서 인식되고, 일반인들에게는 내집마련이라는 소박한 기대와 함께 투자와 투기심리가 뒤섞여 있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주로 강조된다. 더욱 문제시 되는 것은 계획계와 건축계에서의 불분명한 소신과 국한된 설계어휘들이다.

우리의 계획계나 건축계에서 주택단지에 대한 설계어휘는 풍부하지 못하고 도식화되어 있다. 환경은 표현하는 단어들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수준에 그칠 뿐 결코 물리적인 환경으로 표현되어 생생한 체험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계획목표로서 수시로 등장하는 조화성, 상징성, 통합성, 연계성, 균형성, 다양성 등등의 단어들, 계획개념으로 자주 제시되는 보차분리, 녹도, 오픈스페이스의 연계, 근린주구형성, 통과교통 억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의 단어들은 매너리즘적인 수식어에 그쳐버리는 경향이 짙다. 이러한 단어들이 결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수식적 단어의 실천적 의미를 명확히 하고 물리적 환경으로 구체화하는 설계기법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있어 우리는 아직 취약하다.

계획목표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관념적인 낱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체험과 실천적인 설계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추상적인 관념성과 구체적인 체험성을 연결하는 고리를 풀어나가는 철저한 설계작업이 요구되며 이러한 작업이 있을 때 비로소 주택단지의 설계혁신이 가능해 진다.

올림픽 선수촌 1년 후

金鐘愛  
주택연구소 선임연구원  
by Kim, Jn-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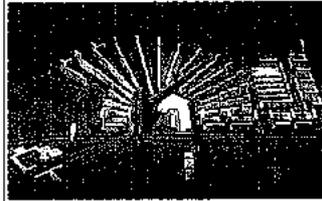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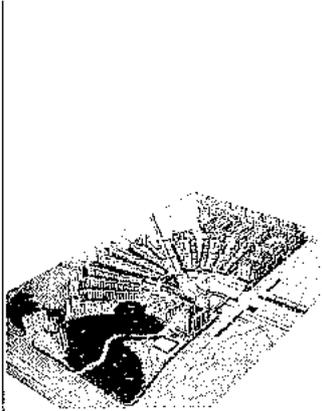
올림픽 선수촌, 이제 입주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주택단지, 5천7백여호 규모의 대단위 단지, 아시아 선수촌과 최근의 분당시범단지 등과 더불어 현상설계를 통해 건설된 예로서는 희귀한 주택단지, 이삿짐센터에게는 가장 곤돌라 쓰기가 힘들다고 악명높은 단지, 복층형 아파트개조로써 아파트 내부구조변경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게 한 단지, 차도 폭이 좁다고 불평을 받는 단지, 그런가 하면 서울에서 최고로 좋은 단지라는 입주자들의 자랑도 되고 있는 단지, 이렇게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는 올림픽 선수촌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글을 전개하는 데 있어 네가지 측면으로 올림픽 선수촌을 보자. 첫째는 주택단지 설계접근방식으로서 올림픽선수촌 설계에서 취해진 일관적인 주제에 대해서이다. 둘째는 이러한 접근방식의 귀결로서 만들어진 결과적인 환경의 특징들에 대해서이다. 세째는 약간 측면을 달리해서 올림픽선수촌 설계와 연루된 논란의 대상들을 풀어내어 보고, 마지막으로 올림픽선수촌에 대해 향후 바라는 바를 제시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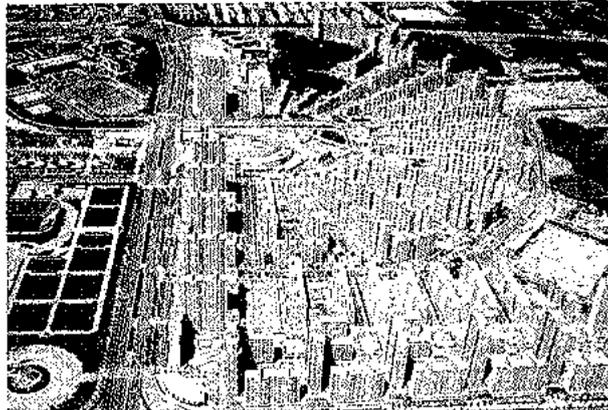
글의 전체로서 다음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올림픽선수촌은 그 결과적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주택단지의 설계접근방법에 있어서 투철한 설계혁신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주택단지 설계사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더구나 올림픽선수촌은 기존의 제한적인 건축법규의 테두리내에서 기존의 건설기술을 개선, 적용하면서도 총체적인 설계개선을 성취하였다는 점에서 설계기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시 말하자면 선수촌 설계는 설계혁신을 추구함에 있어 첨단기술도입이나 법규완화가 촉매역할은 될지언정 결코 필요불가결한 선행조건은 아님을 확인하는 프로젝트로서 환경설계전문인들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 올림픽 선수촌 단지 설계의 접근방식 : 일관된 주제

먼저 올림픽선수촌의 단지설계의 접근방식을 분석해 보자. 선수촌은 일견 특이한 외양을 보이고 있어 그 접근방법이 형태적 구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선수촌의 표면적인 이해일 뿐이다. 선수촌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방사상과 격자망의 혼합구성, 건물단차에 의해 방사상의 중심부로 갈수록 낮아지고 외면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구성은



① 올림픽 선수촌 설계초기모델스터디 (설계현상안 제출시)  
② 최종모델  
③ 전경



결코 형태적인 구성효과만을 강조한 접근방식의 산물이 아니다. 이는 형태적 구성과 함께 조직적인 구성 또한 맥락주의적인 접근방식이라는 단지설계를 접근하는 세가지 주요방식을 종합하여 만들어 낸 산물이다. (그림 1, 2, 3)

올림픽 선수촌의 단지설계 접근방식의 해석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세가지 주요접근방식의 차이를 분당시범단지의 현상설계 당선안들의 특성들과 대비하면서 설명해 보자.

첫째, 형태적 구성(Compositional Approach)이란 단순히 모더니즘적인 단지계획의 산물로서 땅과 건물이 연결되어 생략되기 보다는 건축물 구성의 독자적인 논리가 우세한 오브제적인 접근방법이라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도시를 이루는 근간인 도로와 구성의 대상인 건축물이 유리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건축물의 구성은 시각적 인지대상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따라서 구성의 시각적 효과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모델스터디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추구하는 형태구성적인 효과에도 비유될 수 있다. 분당 시범단지의 1등 당선안은 이러한 형태적 구성 접근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초고층 건물의 군집이 유사한 건물이 군집된 배치를 배경으로 하여 대비되는 극적 효과를 강하게 추구하고 있다. (그림 4)

기실 형태적 구성방법은 아직도 우리의 단지설계를 지배하는 접근방식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접근방법이 가지는 힘이란 건축물의 입체적 구성을 통한 드라마틱한 효과로서 건축에서 필히 추구되는 연출방법이다. 올림픽 선수촌 현상설계 당시의 2위안(그림 5), 분당 시범단지설계의 가장작안(그림 6)등은 이 접근방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예들이다.

둘째, 조직적 구성(Organizational Approach) 접근방식은 건축물과 건축물, 건축물과 도시요소가 구성하는 조직논리가 강조되는 접근방식이다. 이 경우 건축물의 개개적인 특성이나 시각적인

효과보다는 도시집합체를 이루는 요소로서의 건축물의 기능과 장소적인 효과가 강조된다. 분당 시범단지 현상설계의 3위안(우성건설)은 열린 중정식 배치 건물군을 가로망의 열개로 짜는 조직적 구성방식을 최대한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림 7)

세째, 맥락주의적인 구성(Contextual Approach)은 앞서의 조직적 구성과 궤를 같이하는 점이 있으나 조직적 구성이 도시적 맥락을 강조한다면 맥락주의적 구성은 보다 땅과 자연의 특색을 강조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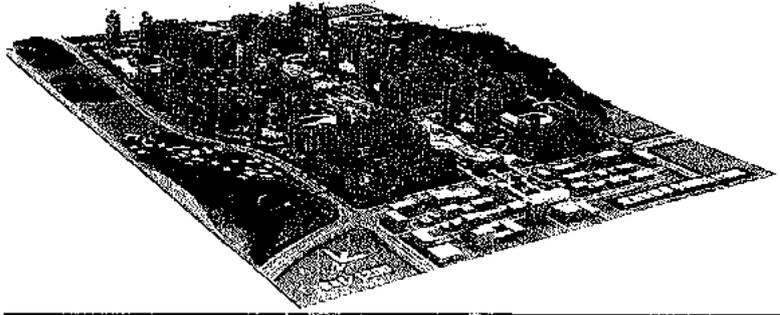
점에서 차이를 둘 수 있다. 분당의 2위안 (삼성과 한신공영 공동안)의 단지설계는 지구내에 탁월한 자연지세인 4개의 언덕들의 존재를 어떻게 살리고 건축물을 이에 순응시키느냐에서부터 출발했다는 점에서 맥락주의적 성격이 두드러지는 안이 되고 있으며(그림 8) 유사한 접근방식이 올림픽선수촌 현상설계시에도 등장했었다.(그림 9)

사실 이러한 접근방식의 구분과 분당시범단지 당선안들과의 대응은 단순화, 개념화된 정리일 뿐 어떠한 단지설계에서도 이 세가지 접근방식의 융합은 다각도로 추구된다. 다만 관건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들 접근방식의 통합을 이루고 세련화시키느냐가 단지설계의 충실성과 완성도를 가능히는 열쇠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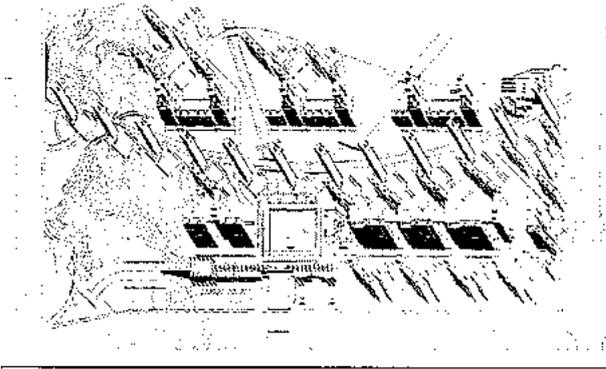
올림픽선수촌의 단지설계가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한 것은 바로 이 세가지 접근방식이 총체적으로 융합되면서 설득력있는 형태로 구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올림픽 선수촌의 전체적 효과는 각각의 접근방식이 극한적으로 추구되면서도 서로 상충되지 않고 일관된 주제로서 통합되어 있음에서 비롯된다.

천착해서 설명하자면 맥락주의적 구성은 단지의 내부를 관통하는 Y자형의 물길의 형태에 대한 순응, 단지내 남동측 부분에 있는 보존녹지의 자연스러운 포용, 단지 너머 남한산 산록의 배경적 효과를 이용한 건물배치에서 나타난다.(그림 10) 조직적인 접근방법은 방사형 부채꼴 형태에서는 하나 하나의 부채살의 조직에서, 대로변을 구성하는 격자형 형태에서는 긴밀한 중정형 조직으로 구성되어 전체적으로 일관된 구성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그림 11, 12, 13) 또한 형태적 구성면에서는 단차를 이용한 구심성과 2층 초고층을 정점으로 한 방사형 외곽의 정리, 또한 격자형에서는 각 격자에 6층과 15층, 24층을 배치하는 원칙을 새움으로써 단지내 길에서의 스케일감과 중정내에서의 개방감, 또한 단지 외곽 대로변에서의 뚜렷한 방향성을 이루고 있다.(그림 14)

올림픽선수촌의 형태적인 명쾌성은 단지설계를 전체에서부터 부분까지 엮는 일관된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따라 건축물의 배치원칙, 건축물 높이의 배치원칙, 공간구성 및 가로공간설계의 원칙이 연역적으로 풀어져 나오는 논리적인 명쾌성의 귀결이다. 이러한 논리적 설계전개방식은 우리사회의 단지설계의 짧은 역사에서 희귀한 사례이며 설계접근 방법으로서의 시범성이 강하다. 설계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선수촌의 설계가 주제에 의한 연역적 전개로 이해되지만, 실제로 설계자가 설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는 연역적 방식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끊임없는 귀납적인 실험들이 수반되었음에 틀림없다. 즉 부분적 요소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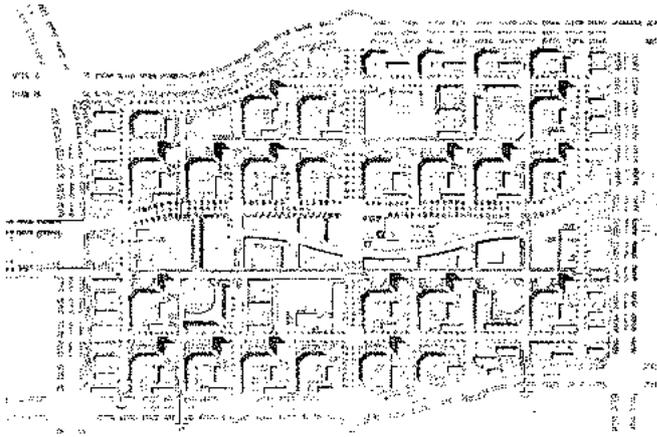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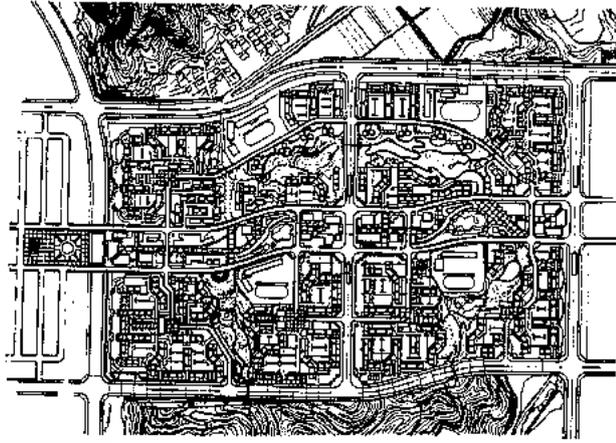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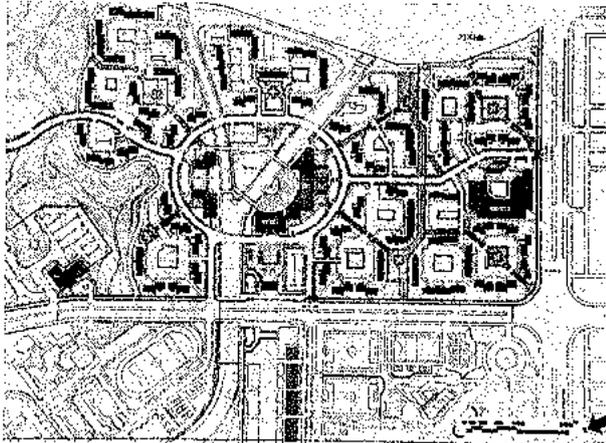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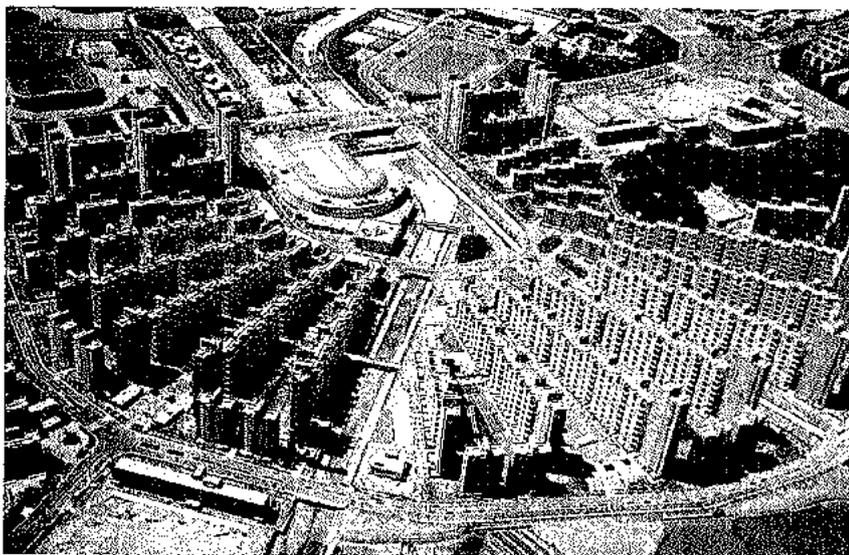
- ① 분당시범단지 현상설계 1 위안 (현대산업개발)
- ② 올림픽 선수촌 현상설계 2 위안
- ③ 분당시범단지 현상설계 기작안 (현대건설)
- ④ 분당시범단지 현상설계 3 위안 (우성건설)



8



9



10

- 8 분당시범단지 현상실계 2위안 (삼성과 한신공영 공동안)
- 9 올림픽 선수촌 현상실계 입선안
- 10 올림픽 선수촌 전경 : 외곽에서 중심부로

통해 전체의 주제를 더욱 선명하고 강하게 하는 작업, 또한 다시 역으로 전체의 주제에 따라 부분요소들을 선명히 하는 순환적인 실험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체의 윤곽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밟았을 것이다. (그림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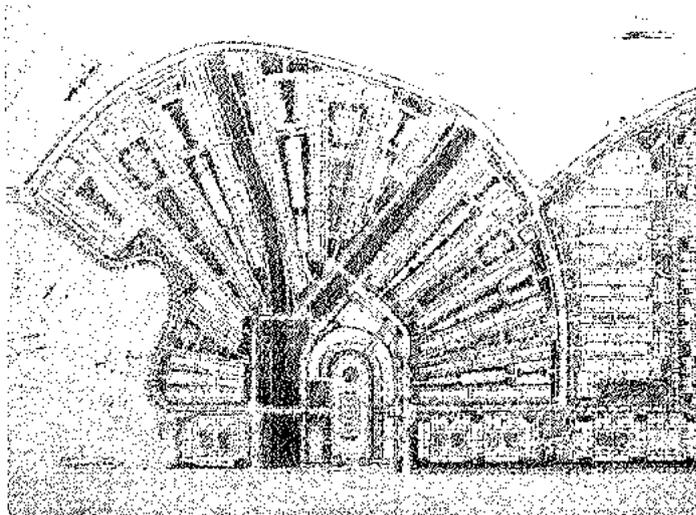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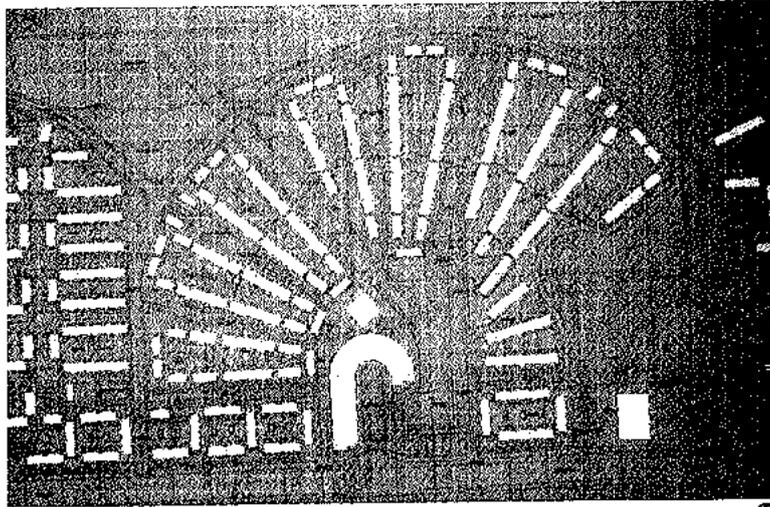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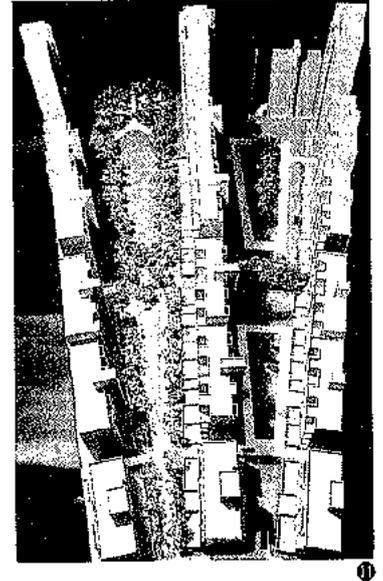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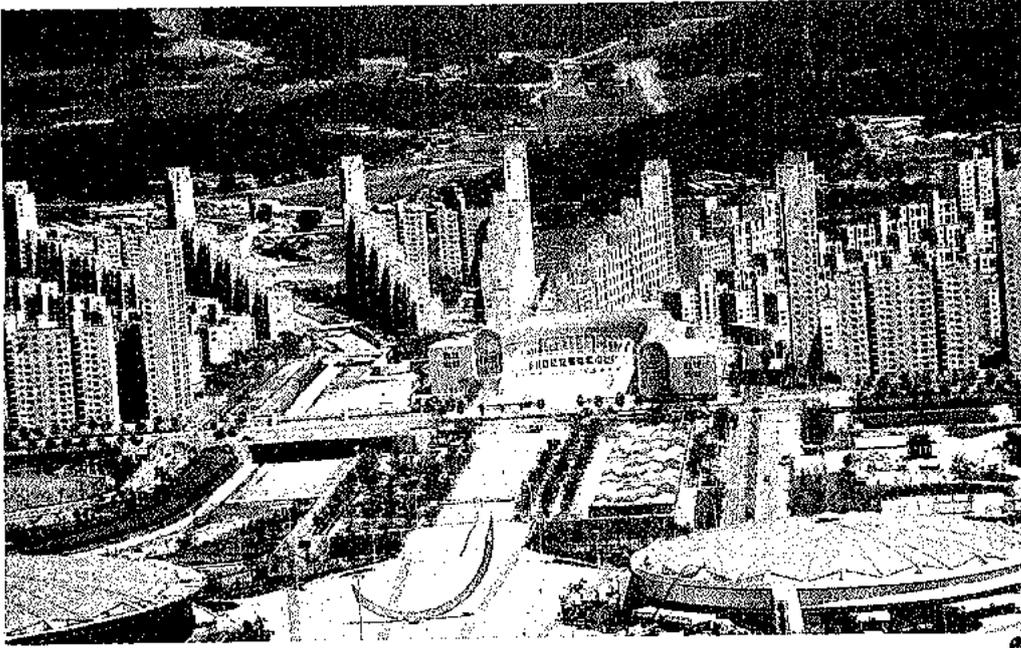
**올림픽선수촌의 결과적 환경 :  
풍부한 공공공간 어휘와 도시적 환경**

합리적인 설계논리전개가 자칫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위험이 있으나, 올림픽선수촌은 설계의 철저한 논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뚜렷한 형태적 성격이 강할 뿐 아니라 요소 요소에 풍부한 장소적 체험이 가능한 것이 강점이 되고 있다. 물론 5천7백호의 단지가 일괄 설계되고 단기간에 건설되는 데에서 오는 한계를 피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단지의 각 부분이 다양한 건축적 표현력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 다채롭기 보다는 순수주의적 건축구성논리가 지배적이라는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선수촌은 풍부한 공간어휘를 구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림픽선수촌의 외부공간은 각기 특색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림 17) 단지내 외곽 순환도로는 차량소통의 주요구실을 담당하면서도 자연녹지와 단지내 구릉지와 연결되면서 한가로이 거닐 수 있고, 좋은 자전거 코스가 된다. 단지내 내부 순환도로는 차량 동행으로 바쁜 도로이면서도 상가에 연결되어 있어 혼잡스럽기는 해도 활발한 길이다. 방사상 배치의 처리부분을 주행하는 보행순환도로는 가장 활발하여서 자전거, 조깅, 산보로 쓰이고 아파트 벽을 이용하여 테니스를 치기도 하고 가로수와 벤치가 있어서 쉬기도 좋은 다양한 공간이다. (그림 18, 19)

이렇게 획적인 공간들이 연계성이 강한 반면 각 건물군들과 중심상가를 연결하는 종적인 공간들은 기능적이면서도 기능적이지만은 않도록 배려가 되어 있다. 방사상 배치에서 한 줄은 보차공용의 길로서 심장모양의 일방통행을 이루면서 중간 부분의 광장, 일방도로 사이에 배치된 어린이 놀이터, 운동장 등으로 활기롭다. 다음 한줄은 주차공간이면서 차량통과는 가능하지 않으므로 낮에는 어린이들이 세발자전거도 타고 공놀이도 하는 공간이다. (그림 11) 격자형 배치에서도 결절부분마다 광장공간들이 설정되어 있어 차량과 보행, 놀이 공간이 같이 모여있어 활발하다.

이러한 외부공간 구성에도 명확한 원칙이 존재한다. 즉 모든 선형공간들의 연결성이 강조되고 선형공간이 만나는 결절부분에는 광장이 설정되며



- ① 방사상조직 스터디모델 : 가로축과  
중정축
- ② 방사상조직 항공사진
- ③ 방사상조직 : 외곽에서 중심으로
- ④ 중심으로의 구성성
- ⑤ 조직구조 스터디
- ⑥ 공공공간 스터디
- ⑦ 외부공간들
- ⑧ 보행순환도로
- ⑨ 내부순환도로
- ⑩ 중앙광장 (올림픽 플라자)
- ⑪ 수로변 고수부지
- ⑫ 시각적인 중첩효과
- ⑬ 1층부문의 마당과 담장효과

보차구분은 없되 차도는 좁게 하고 볼라드와 높은 조경담, 또한 굴절차도로써 자연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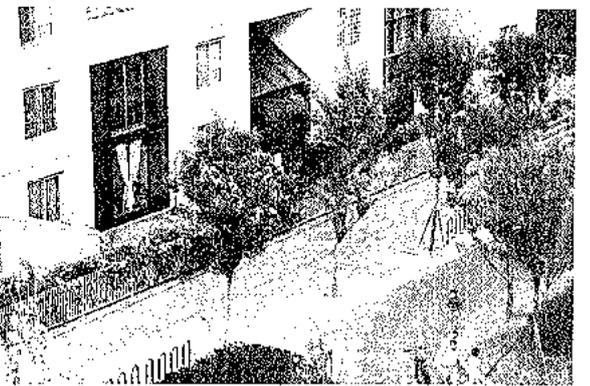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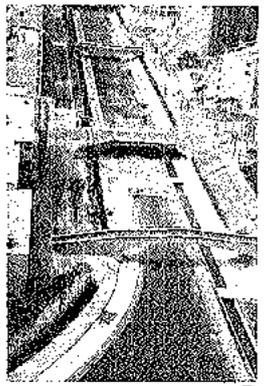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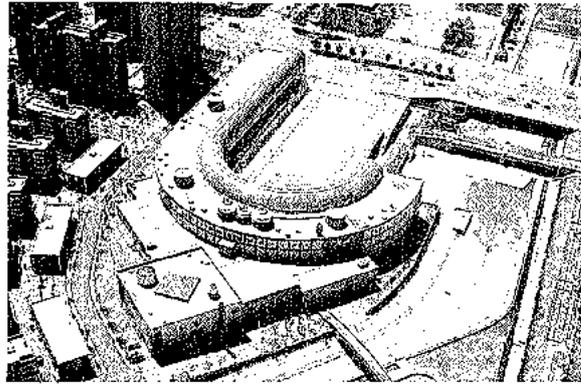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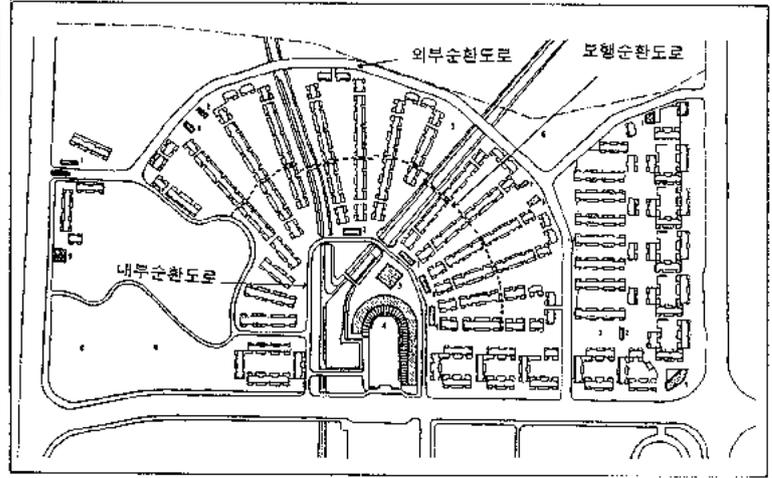
올림픽선수촌에서는 순환도로의 차선 수도 적다. 외곽순환도로가 4차선, 내부순환도로가 2차선이어서 여느 단지와 비교하여, 단지 내도로 차선 수가 적은 편이다. 실상 입주후 주민들, 특히 방문인들의 불만은 차도가 좁다는 데 있었고 실제로 볼라드가 넘어지고 조경벽의 모서리부분이 깨져나가는 사태도 벌어졌으나 확실히 차량속도 억제효과는 뚜렷하며 점차 주민들도 적응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적 공공공간의 골격에 첨가하여 올림픽선수촌은 중심상가의 광장과 개천 양변의 고수부지와 중앙 풀이라는 특색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다. 중심상가의 광장은 여느 주택단지에서 보기 힘든 규모의 광장으로서 자전거, 소형전자자동차, 롤라스케이트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고수부지는 그네, 연날리기등으로, 중앙 풀은 대부분 건조한 상태로 있어 축구, 야구, 자전거 타기등 다채로운 활동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림 20, 21)

올림픽선수촌의 환경의 또 한가지 특색은 철저히 도시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공간의 연계성과 분절성이 강조되는 한편 건축을 배치에 있어서 방시상과 격자형태 때문에 여느 단지와는 달리 열려있는 공간보다는 긴밀하게 한정된 공간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러한 배치 때문에 외부이던 또는 내부에서건 단지 어느 곳에서 보아도 경관은 중첩되면서 펼쳐진다. 건물과 건물이 겹쳐지면서 인식되고 특히 다양한 층고를 가진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식되는 경관은 어느 지점에서도 다르다. (그림 22)

따라서 올림픽선수촌의 공간체험은 결코 단순하지 않고 복잡적이다. 전체적 공간구성의 질서는 단지 외부에서 뚜렷이 느껴지고 단지 내부에서는 오히려 전체적인 질서보다는 부분적 장소의 질서가 더욱 강하게 인식된다. 선수촌에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에 의한 가로벽의 효과, 또한 1층부분의 담장으로 인한 한정적 효과, 출입부분의 돌출부와 대문모양의 가 게이트(gate)를 통한 장소의 한정 효과등은 부분적인 장소의 질서를 만드는 장치들이다. (그림 23 ~ 26)

또한 올림픽 선수촌의 공간체험은 여느 단지에 비해서 입체적이고 공간들간의 관류성도 강존되고 있다. 조망적인 체험에 있어서는 다양한 층고의 건물때문에 입체적 효과가 뚜렷하며 가로 부분에서는 단지내의 경미한 고저차를 이용한 지하차고 및 인공데크가 만들어져 있어 입체적인 체험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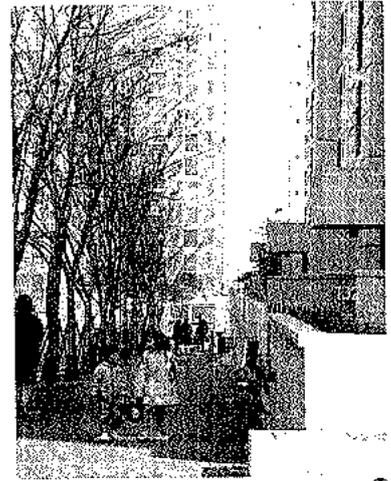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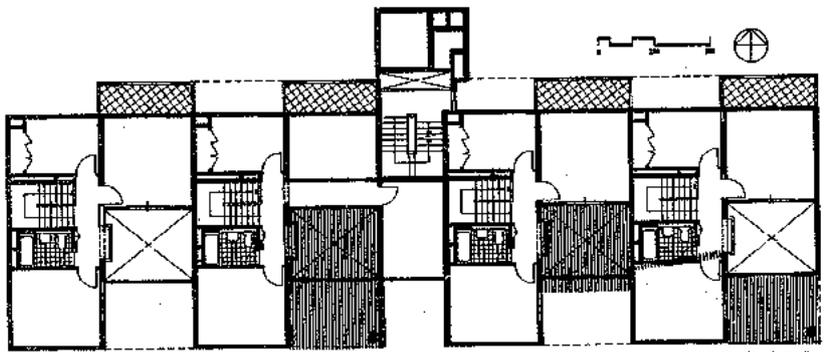
24



2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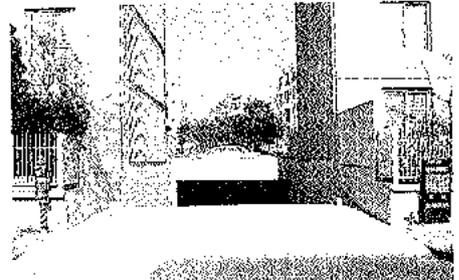
개조전

발코니+거실상부개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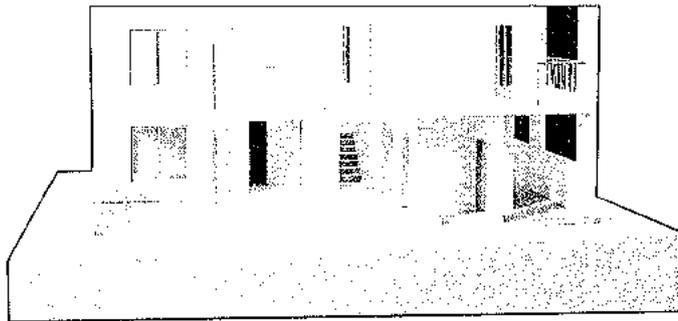
거실상부개조

발코니 상부개조

27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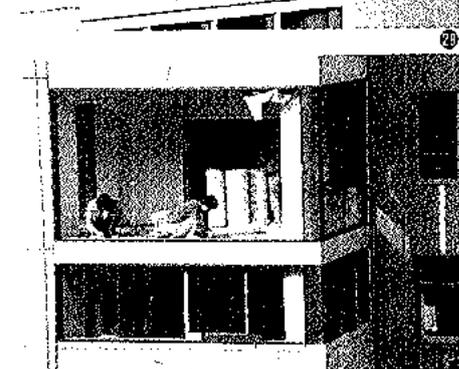


29



30

- 24 가로역 마당축 : 담장효과
- 25 가로 및 광장 : 보차공존
- 26 가로역 출입구축 : 출입구리듬 및 담장효과
- 27 지하주차장입구 : 입체적 효과
- 28 개조하지 않는 복층아파트 외부
- 29 복층아파트 개조공사
- 30 복층형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의 유형들
- 31 복층형 아파트 내부 스튜디오 모델
- 32 입면 스튜디오도면



33

이러한 도시적인 공간채형이 입주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결과는 없으나 주목할만한 연구대상이 될만하다. 선수촌이 여느 단지들의 명확한 병렬배치, 수직배치들과는 다른 공간질서를 가지는 데서 오는 체험의 차이가 과연 인식되고 있는지, 과연 다양하게 느껴지는지 혼돈스럽게 느껴지는지 궁금한 일이다.

### 올림픽선수촌 설계에 관한 논란 : 변화에 대한 적응

건축물이 완성된 후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완전한 예측을 하면서 설계로써 대응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주택단지와 같이 입주자의 구성이 다양하고 담는 생활의 폭이 넓은 환경에서는 입주후의 변화를 완전히 제어하기란 어렵다. 아파트 입주후에 노점상가가 들어서서 옥외공간의 성격이 바뀌고 시설물들이 대치되고 외벽색채가 바뀌는 등은 흔히 있는 일이다. 다만 관건이 되는 것은 초기의 설계가 이러한 변화의 폭을 얼마나 현명하게 수용하면서 원래 설계개념의 가치를 시간이 지나면서도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 올림픽 선수촌은 입주 1년밖에 안되긴 했으나 얼마나 유연하게 생활의 변화를 포용하고 있을까?

선수촌에서의 변화는 입주시에서부터 불법아파트 내부구조 변경이라는 사안으로 나타났다. 전체 아파트 호수의 20%에 불과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인 복층형 아파트 도입이 이루어 졌던 선수촌에서 개조가 먼저나갔다. 단순히 이층 아파트일 뿐 아니라 한옥의 중정식 구성에서 설계아이디어가 얻어졌던 복층아파트에서 이층 높이의 거실과 발코니에 이층을 만들어서 평수를 늘이는 개조가 입주초부터 문제시되었다. 강력단속과 벌금부과등의 조치가 행해졌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발코니에 창문을 해서 내부공간화하지 않은 집은 손꼽힐 정도이며 발코니와 거실 이층, 발코니의 이층, 혹은 거실의 이층바닥을 만든 집은 전체의 3/4은 된다고 한다. (그림 28, 29, 30)

여기서 개조의 합·불법성이나 개조 논란시에 거론되었던 서양식 취향의 공간구성때문이라는 등의 개조명분론은 논외로 하고 다만 이 개조의 설계적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자. 사실 복층형 아파트의 내부 평면규모는 메조네트를 수용하기에는 너무 적어서 이층 높이의 거실은 (4.2m × 5.4m × 높이 5.2m) 깊은 우물같이 공간감이 있어 너무 협소하고 발코니 부분에서도 너무 깊어 불안한 공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조의 설계적 원인이 존재했다. (그림 31)

개조로 인한 건물외부의 변화는 당초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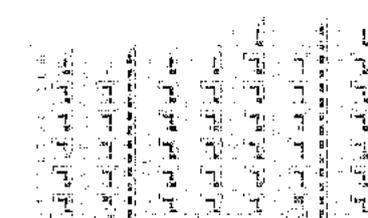
설계의도와는 판이하다. 설계의도는 이층높이의 깊은 개구부에서 떨어지는 음영으로서 건물입면의 조소적인 효과를 높이고 여기에 지주색의 원형기둥이 리듬을 부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32, 33)

그러나 결과적으로 변화된 건물입면은 오히려 당초의 설계의도 보다 더욱 다채로와져서 당초 건물입면 설계의 단조로움을 극복하고 있다. 각 집마다 원하는대로 발코니 창문 프레임의 색채를 검정, 브라운, 흰색, 금색등으로 정하고 창문 분할도 취향대로 나누고, 내부 커튼과 브라인드도 취향껏 골라서 오히려 다양한 외관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림 34)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났고 또 일어나고 있는 곳은 중심상가이다. 지팡이 모양의 중심상가의 설계핵심은 3층높이의 유리천정으로 덮힌 아케이드이다. 당초의 설계는 이 공간이 공공공간으로서 넓직한 사교공간으로 의도했으나(그림 35) 실제로 일어난 것은 점포를 뺄뺄히 늘여서 이 공간을 점유하게 된 결과가 되었고(그림 36, 37, 38) 더 나아가서 중앙광장의 외부 아케이드까지도 내부공간화하여 점포시설공사중에 있으며 전면 임대가 끝난 상황이라 한다. (그림 39, 40)

이러한 상가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당초의 설계요류로 인한 변화인가 아니면 수요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보아야 할까? 후자의 해석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삼년전 설계당시의 마케팅 조사에 의하면 부근의 롯데월드등의 대규모 상업시설 때문에 선수촌의 중심상가 규모는 대폭 축소 조정되었었다. 실제 운영을 하면서 상업수요가 기대보다 많음에 따라 여유공간을 활용하는 적응방법으로서 유효하다고 본다. 특히 옥외 아케이드에 점포를 내는 것은 예견된 상황으로서의 중앙광장의 활성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특히 밤시간의 활기를 부여할 것으로 본다. 애초에 중앙광장이 선수촌보다는 올림픽공원의 존재로 의식하고 방향성이 정해졌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외부상가의 설치는 이를 교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중심상가 건물의 건축적인 완결성은 유리지붕의 세련된 형태로 인하여 강조되고 이러한 완결성이 주택단지의 상업지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다만 선수촌의 중심상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규모가 한정되고 임대료가 높아져 학원이나 독서실같이 수익성이 제한된, 그러나 필요한 시설들의 입주에 제약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선수촌은 전체의 공간배치의 완성도가 높아서 시설수요의 변화를 기민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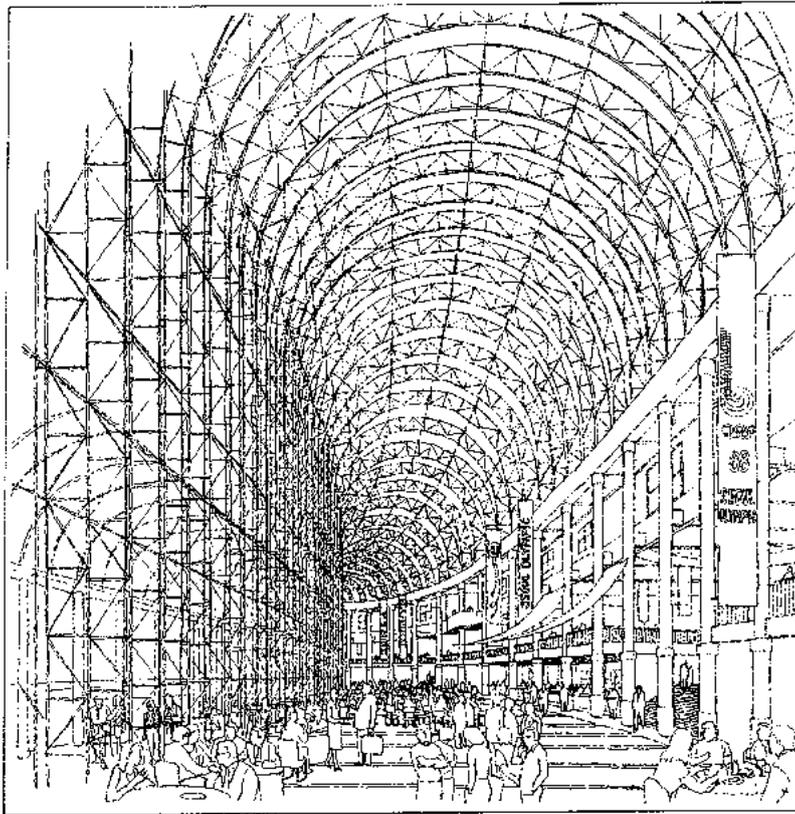
### ◆ 김진애

- 현 주택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도시 및 단지계획실장
- 서울대 건축학과卒業후 美 MIT 건축석사 및 도시계획 박사
- 1988년 17회 밀라노 트리엔날레 국제전시회 서울관 기획 및 설계 담당



㉑

㉒



㉓

- ㉑ 특층 발코니의 깊은 음영 : 내부구조 변경전
- ㉒ 내부구조 변경후의 입면효과
- ㉓ 중심상가 아케이드 이용 설계의도 스케치
- ㉔ 중심상가 내부 : 준공직후
- ㉕ 중심상가 내부 : 점도에 의한 점유
- ㉖ 중심상가 내부 : 점유후 3층에서의 전경
- ㉗ 중심상가 외부아케이드 : 준공 직후
- ㉘ 중심상가 외부아케이드 : 점포점유로 변경공사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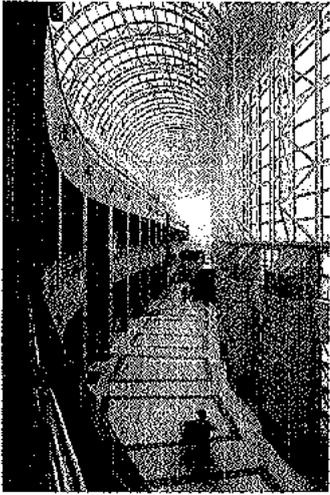
### 올림픽 선수촌의 향후기대 : 보다 풍부한 환경표현

명료한 논리적 설계의 결과로서 형성된 올림픽선수촌은 결과적 환경에 있어서 구조적인 명료함과 명쾌한 공간조직에 힘입어 다양한 성격을 가진 외부공간들과 도시적인 환경의 그릇을 갖추고 있고, 1년 남짓의 변화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변화를 수용하면서 전체적 설계개념은 유지하는 유연한 틀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틀 속에서도 선수촌에 결핍되어 있는 요소들로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두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선수촌을 구성하는 다양한 성격의 공간들은 보다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도록 다양한 시도를 행해 볼 만하다. 아직도 선수촌의 환경은 중성적으로 느껴지고 표현적인 다양성이 부족하다. 유사한 성격의 공간이 반복되면서도 각자 특이한 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디테일들이 필요하다. 조경설계에서 가로수의 수종을 정하는 등의 원칙은 정해졌으나 가령 벤치의 색조라던가 아파트 하부벽의 수퍼그래픽, 출입구의 조형물들, 블라드등의 변화가 가미된다면 선수촌은 훨씬 색채가 강한 환경으로서 부분적인 장소성이 더욱 뚜렷이 체험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선수촌이 워낙 공간적 구성의 주제가 강하고 또한 건축적 표현에서는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조형의 도입은 더욱 효과를 발휘하리라 본다.

또한 선수촌의 방향 감각을 돕기 위한 환경요소들이 적극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방문객들 뿐 아니라 입주자들에 대한 방향 감각을 보완할 그래픽요소들이 현재의 선수촌에서 취약한 부분이다. 보다 대담하고 분명한 표지판, 싸인 시스템, 색채등의 소프트웨어가 보장될 필요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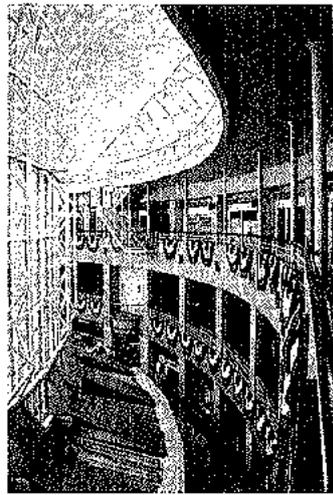
이러한 보완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입주자들이 직접



46



47



48

만들어야 하는 환경의 표현요소들이다. 입주자들이 각자의 집에 투자하는 노력이 공공공간으로도 확대될 때 선수촌은 더욱 풍요로운 환경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 주택단지의 설계혁신 : 생활의 체험

비록 여러면에서 한계는 있지만 올림픽선수촌은 주택단지설계에 진일보한 접근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일관된 주제를 논리적으로 설계에 발전시키고 세부적 사항들에 전체적 주제의 맥락을 반영시키는 설계작업이라는 점에서 선수촌은 시범적인 설계접근방법이다. 이러한 설계방식은 딱히 설계혁신을 이루려는 의지에서라기 보다는 생생한 생활의 체험에 근거하고 그 체험을 물리적 환경에 구체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서론에서 지적되었듯이 우리는 보다 생생한 생활환경의 체험이 필요하다. 공허한 계획개념보다 오히려 상식과 체험에서 우리나라, 현실적이자 상상력으로써 풍부해지는 설계가 주택단지 설계에 필요하다.

두말 할 것 없이 주택단지만 생활을 담는 곳이어 사는 주민이 편하고, 애착이 가고, 자랑스러운 곳이 되어서, 직장인은 출퇴근이 의미있고 새벽이면 달리기라도 할 수 있고 주말이면 에들과 거닐 곳도 필요하다. 주부들은 쓰레기 버리기 쉽고, 비 안새고 시끄럽지 않고 애들이 나가 놀아도 차 걱정 안해도 되면 좋다. 학생들은 나가 뛰놀데 있고 친구들과 물러다니며 세상을 구경할 기회가 있으면 좋다. 더 나아가 나무가 있고 물이 있으면 더욱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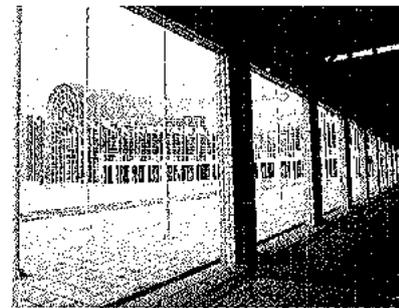
주택단지란 건설부터 관리까지 경제활동의 장이기에 건설비용은 절감되고, 관리비용은 적게 들고, 많은 집이 지어지고, 상업시설 분양이 잘되고 장소도 잘되어야 한다.

주택단지란 결코 그 안에 사는 사람들만의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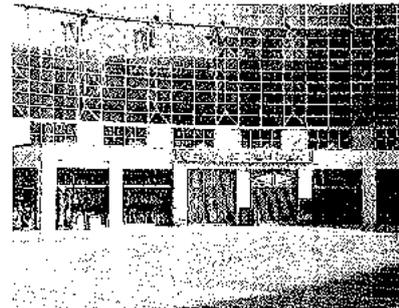
아니고 도시생활의 한부분이므로 외부순님이 드나들면서 잡잡기 쉽고 자기 동네와는 다른 분위기를 맛보기도 하면 더욱 좋다.

주택단지에서 바랄 수 있는 것은 이들 외에도 더욱 많은 것이며 주택단지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건설하고, 살고, 관리하는데 개입되는 모든 이해집단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다. 하나의 주택단지에서의 모든 이해집단이 자기 위치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성취시키기가란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어느만큼이나 선택과 타협이 그러면서도 제약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만드느냐, 그리고 주택단지에서 추구될 수 있는 생활상을 풍부하게 담느냐가 주택단지를 설계하는 전문인들의 역할이며, 어떻게 이를 지속적인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 환경으로 승화시키느냐가 전문가들의 고유기능이다. 올림픽 선수촌은 생활을 풍부하게 담으면서도 건축적인 고유의 지향목표, 즉 추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에 소기의 목적을 성취한 작품이며, 단지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풍부한 환경으로 성숙할 수 있는 건축적 그릇을 제시한 설계로 평가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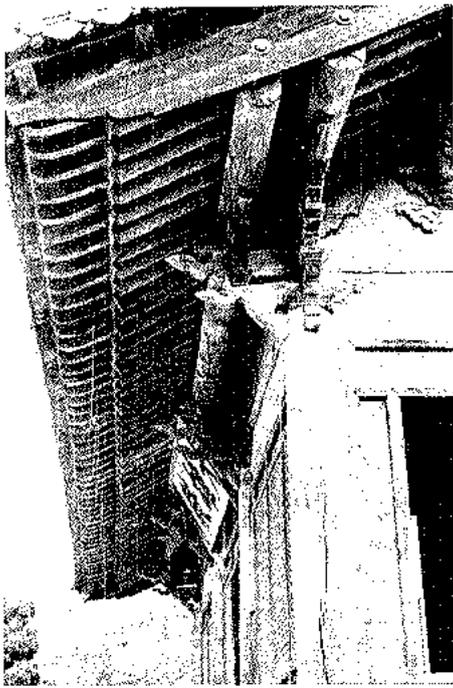
필자는 선수촌의 입주자로서 선수촌설계의 성과를 두가지 에피소드로써 전하고 싶다. 10살된 딸이 입주직후 학교가는 길이 즐겁다는 말이 인상적이었고, 방과후에 밖에서 노는 시간이 많고 친구들과 중심상가에 가서 기웃거리기도 하고 중앙광장을 열바퀴씩 돈다는 말에 반갑기 그지없다. 입주후 열린 반사회에서 선수촌이 앞뒤로 출입문이 있어 관리가 어려우니까 길쭉의 문을 폐쇄하지는 의견이 대두되어 필자는 나름대로 열심히 설득하다가 결국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양쪽 문이 그대로 열려 있어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으니 설계혁신이란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말임에 틀림없다.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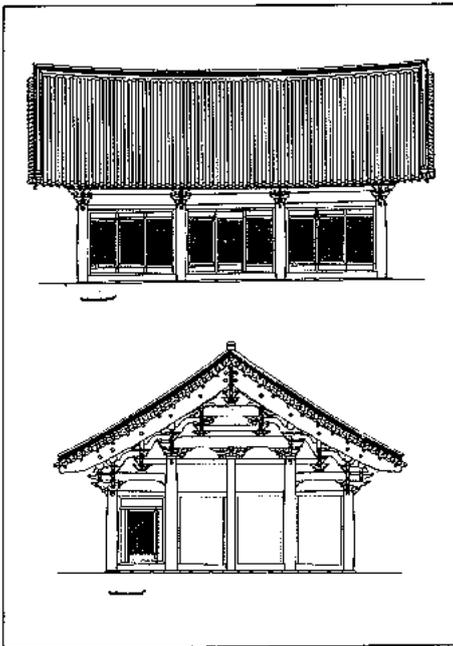
40



# 高麗 시대의 建築

## Korea Architecture History of the Korea Period

張慶浩 / 문 화재연구소장  
by Chang, Kyung-Ho



- 修德寺 大雄殿
- ① 전면공포 상세
  - ② 정면도(上)와 동측면도
  - ③ 전경
  - ④ 측면
  - ⑤ 배면 窓戶
  - ⑥ 평면도
  - ⑦ 종단면도
  - ⑧ 내부기구

- 成佛寺 極樂殿
- ⑨ 기구와 단청
  - ⑩ 종단면도

### 4. 高麗의 木造建築

#### 4. 修德寺 大雄殿

수덕사는 전하는 말로는 백제 枕流王代(383년)에 인도 중 摩羅漢 陀가 東晉으로부터 들어와서 백제의 불교를 전하던 자리라고 하나 믿을만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三國遺事』에 보면 백제승 해현에 대한 기록에서 '北部修德寺'란 절의 이름이 나온다. 이 절은 지금 忠南 禮山郡 德山面 斜川里에 있는 수덕사로 비정되고 있다.<sup>2)</sup>

수덕사 대웅전은 1937년 해제수리시에 장혀와 화반 밑에서 발견된 墨書銘에 따라 至大元年(1308)에 건립된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이 건물은 조선시대와 해방후까지도 수차에 걸쳐 보수공사가 있었다.

이 건물은 사찰 경내에서 가장 높은 대지에 남향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면기단은 장방형의 화강석을 바른층 쌓기로 6단을 쌓아 10尺 높이를 이루었으며 후면은 2단쌓기로 하고 전면의 양측에는 계단을 설치하였다. 건물은 정면이 3칸, 측면이 4칸인 네 평면으로 보아 전면과 측면의 비가 1:1.315가 되어 전면이 긴 장방형의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柱心包系의 맞배지붕을 한 佛殿이다.

건물의 전면에는 빗살의 문을 매칸 3매씩 달고 측면에는 각 1매씩 출입문을 달고 있다. 또 후면에는 원래 각 칸마다 두 짝 板門을 달았던 흔적이 보이나 현재는 중앙칸에만 판문을 그대로 두고 양측칸은 벽으로 막았다. 또 건물의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나 비교적 마루널이 긴 장마루

형식으로 깔고 천장은 아름다운 지붕 구조가 잘 노출되도록 연등천장을 하고 있다.

초석은 주로 자연석 주초를 사용하였으며 일부 주좌를 마련한 초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기둥은 강한 배흘림을 두었고 기둥의 배열은 내부 전후에 高柱 즉 內陣柱를 2개씩 세워 전후퇴칸 형식을 이루었고 外陣柱 즉, 평주 위에는 주심포계 형식에서 주로 볼 수 있듯이 평방없이 창방만을 돌리고 이와 같은 높이에서 헛침차(기둥머리 주두 밑에서 밖으로 내민 침차)를 두어 퇴량뿔목인 제2齧工과 행공침차를 받도록 하였고 이것은 든보 머리와 단장혀를 받아 외목도리를 받치고 있다. 柱料와 소로의 굽은 내반된 曲을 이루고 있으나 입면으로 보아 완전한 곡선을 이룬 것은 아니고 둔각의 형을 이루고 굽받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주두나 소로에 굽받침이 있는 것은 이미 기술했듯이 고구려 벽화 고분에서 볼 수 있었고 또 백제건축의 영향을 받아 세워졌다는 일본의 法隆寺 金堂이나 5重塔 등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古式의 것으로 믿어지는 형식이다. 이 헛침차와 初齧工의 내부 끝단은 唐草文樣을 摹刻한 보 밑을 받치는 樑奉으로 되고 또 퇴량 위에는 화려한 波蓮文 장식의 화반이 든보를 받치고 이 위에는 주심도리에서 중보 밑까지 등이 굽은 보인 牛尾半樑을 3조씩 양측으로 두고 있다. 또 중보 위에서는 波蓮의 조각과 包作을 이용한 파련 包齧工을 하고 곡을 이루는 '人'자 대공도 결합하여 사용하므로써 9梁架를 이룬 古代式의 건물이다.

이 건물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둥에 배흘림이 뚜렷하고 평주의



3

4

높이는 11.5尺인데 상부의 지름이 1.15尺 하부의 지름이 1.48尺, 최대의 지름이 1.72尺으로 후술할 江陵 客舍門에 이어 2번째의 뚜렷한 배흘림을 나타낸다. 2. 주두와 소로의 굽이 둔각의 曲을 나타내고 그 밑에 받침을 두고 있음이 浮石寺 無量壽殿의 것과 같다.

3. 공포는 헛침차를 두고 첨차끝은 약간 경사지게 잘리어 雙S字形의 새김이 있고 공포의 짜임은 전술한 봉정사 극락전이나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이 평면으로 보아 '十'자형을 이룬 것이 아니고 건물 내부에서 외부로 돌출시키는 살미형 부재가 두드러진 형식이다.

4. 도리 밑에 받쳐진 장치는 短장형이고 행공첨차는 소위 一斗三升식의 기본형을 이루어 전술한 다른 고려 북조건축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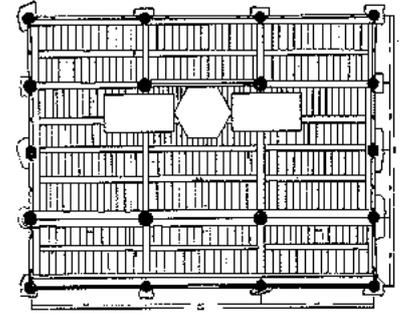
5. 종도리 밑에는 파련 포대공을 받치고 겸하여 曲을 이룬 '人'자 대공을 두고 주심도리에서부터 宗보 밑까지 우미량을 걸치고 있음은 전술한 고려건축 부리와는 또다른 특색이라 할 것이다.

6. 보의 단면은 항아리의 입면과 같은 上厚下狹의 단면을 나타내어 전술한 건물들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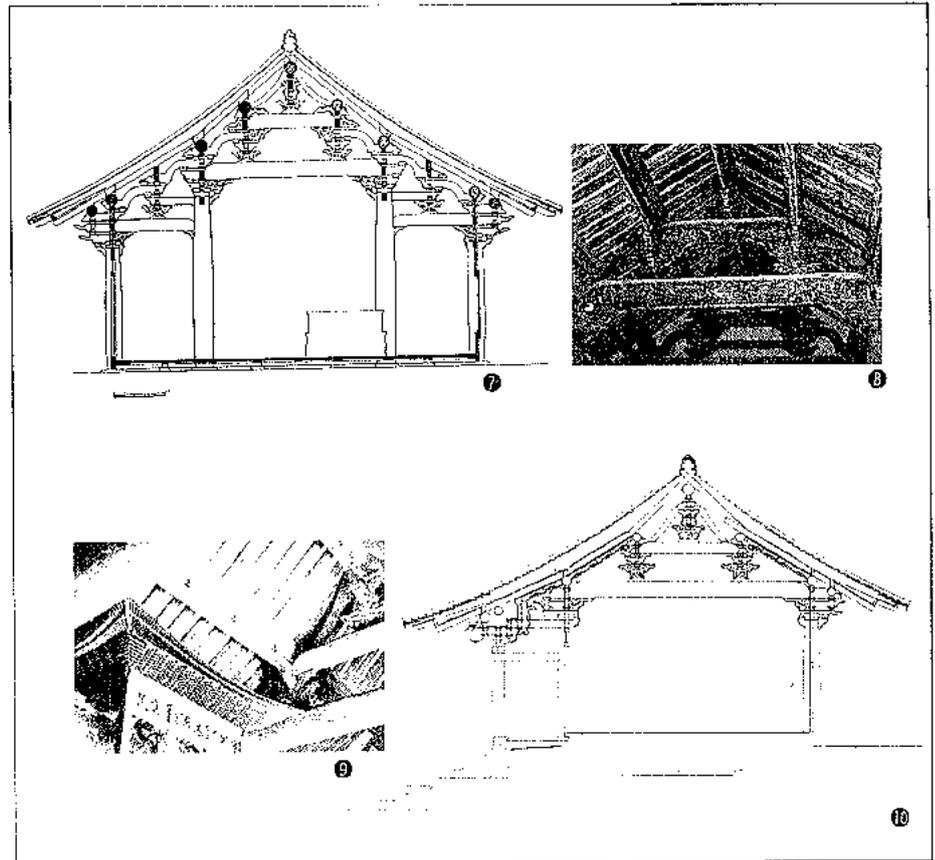
이상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특히 장식적이고 화려한 조각과 아름다운 곡선을 보이는 부재 등은 다른 건물에서 볼 수 없는 예다.

이 건물은 包作의 流麗함과 대공의 화려함은 조선초기 건물인 전남 강진 無爲寺 極樂殿과 헛침차의 有無는 다르다 하지만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또 이와 맥을 같이하는 건물로서 지금은 북한땅에

있는 成佛寺 極樂殿을 들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수리할 때 기와 등판에서 기록이 나와 1321년~23년 사이에 세웠음을 알 수 있는데 건물 전면의 후대에 첨가된 듯한 퇴칸을 제외한다면 기둥의 배흘림과 헛침차를 둔 것 그리고 주두나 소로에 굽받침이 있는 것과 투각에 가까운 당초문 화반, '人'자 및 파련 포대공 등 고려시대의 수석사형식의 건물이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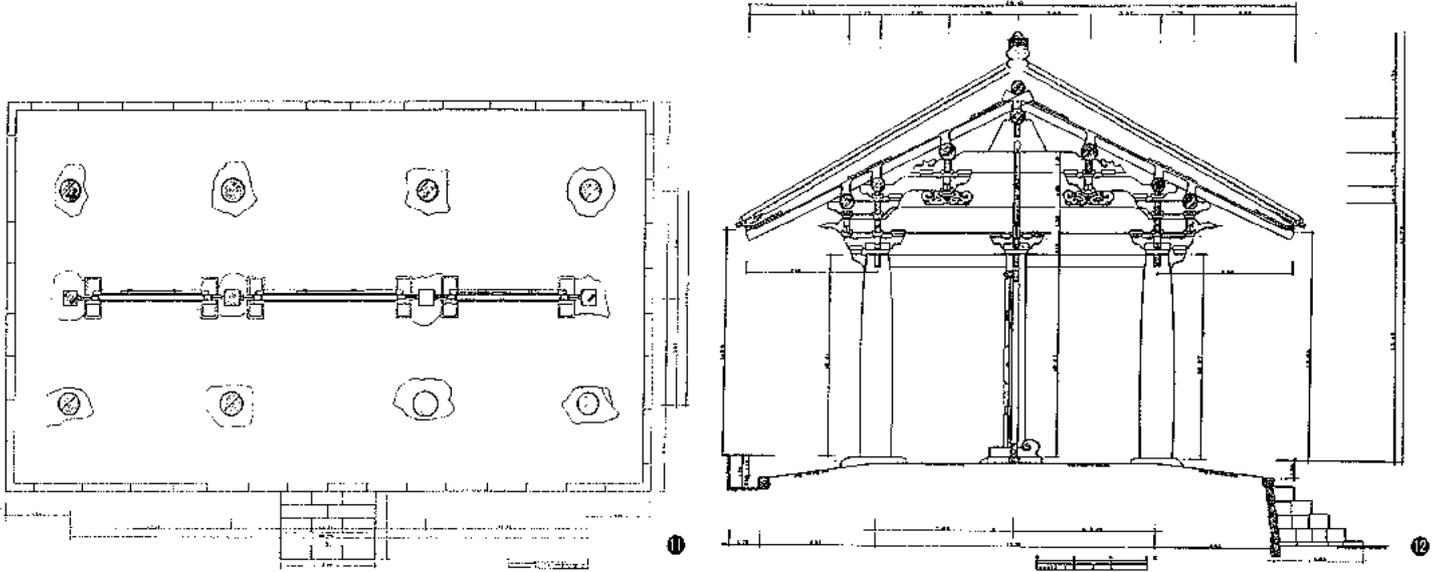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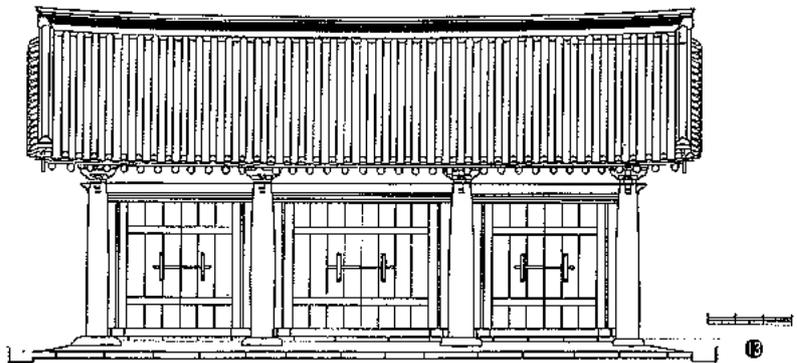
8

9

10



- 江陵 客舍門
- ① 평면도
  - ② 종단면도
  - ③ 배면도
  - ④ 전경
  - ⑤ 전면 공포 상세
  - ⑥ 측면기둥 내부전경
  - ⑦ 후면 木門
  - ⑧ 전면의 배흘림 기둥



### 5. 江陵 客舍門

江陵市 龍岡洞에 위치한 이 객사문은 監藏誌에 의하면 고려 태조때(936년) 본부 객사로 임영관을 창건하고 殿大廳九間, 中大廳十二間, 東大廳十三間, 廊廳間六間, 西軒六間, 月廡三十一間, 三門六間 등 총 83칸이 있었다고 기록되고 또 공민왕때(1366년)에 臨瀛館이란 관액을 왕이 친필로 썼다고 하는데 이 관액이 현재 객사문 앞에 걸려 있는 현판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위에 기록된 이들 전각들은 그 후에도 여러 번의 중수를 통하여 보존되어 오다가 1929년 일정대에 강릉공립보통학교 시설로 인하여 헐리고 객사문만이 남게 되어 지금까지 보존유지되고 있다.

이 건물 역시 주심포계의 맞배집으로서 정면이 3칸, 측면이 2칸인 三門구조이다. 기단은 전면과 측면만 단을 두어 쌓았는데 원래는 흙이 낮고 납작한 성곽돌 같은 돌을 층 바르게 쌓아, 맨위에는 장대석으로 감석을 놓고 중앙에는 계단을 놓았는데 후에 수차의 보수를 거쳐 지금의 모습으로 된 것이다. 화강석을 거칠게 다듬은 초석은 비교적 능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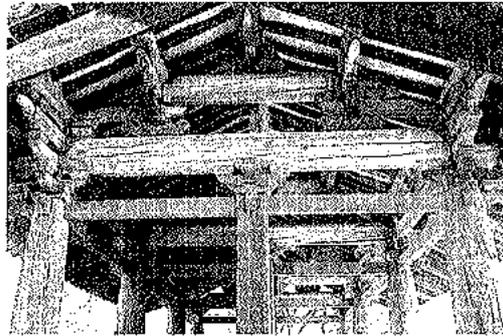
모양을 하여 주좌를 이루듯 하고 그 상면을 평평히 하여 기둥을 세웠는데 전후열의 邊柱는 엔타시스가 뚜렷한 圓柱이고 판문이 달리는 중앙열의 기둥은 빈흘림의 네모기둥을 세웠다. 이 네모기둥 옆에는 板門이 달리는 곳에 각각 信枋木과 門地枋을 받쳐주는 막이들을 배치하여 이 위에 문설주와 뒤편 등을 자았다.

柱間은 그간의 보수로 약간의 변동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고려시대의 營造尺을 사용하여 정면은 중앙칸 14尺, 협칸 양쪽은 다같이 12尺, 측면은 7.5尺씩 2칸으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변주의 엔타시스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목조건축 유구 중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것으로 대체로 기둥 높이의 3분의 1되는 지점이 가장 굵고 여기서 상하향으로 체감이 되어 결국 기둥 頂部에서 가장 가늘게 되며 그 직경의 차이가 약 4寸 이상 된다. 이 기둥 상부에서는 四掛를 파서 창방을 돌려 짜았고 이 창방이 외부로 뻗어 나가서 나올 때는 주심포의 헛참차로서 그 위에 頭工을 받들게 된다.

기둥 위에는 주두가 놓이는데 內反曲을 이룬 굽과 굽받침을 새긴 修德寺 大雄殿의 것과 같은 류의 주두를 사용한 古代式의 형식이다. 이 주두 위에는 두공을 짜서 올려 놓았는데 이 두공과 보의 사이에는 굽받침이 있는 소로를 끼워 받쳤고, 두공은 수덕사 대웅전과 같이 건물의 내외로 뻗는 살미형 첨차가 더 길게 짜여 외부로 행공첨차를 받들고 이 위에서 보머리와 함께 단장혀와 도리를 받고 있는데 보머리는 柱心위치에서부터 흠이 낮아지고 수장쪽으로 좁아져 외부로 뻗은 쇠서를 이루고 있다. 이 보의 단면 역시 향아리의 입면과 같이 상후하협의 형태를 보인다. 또 살미형 첨차(出拱)의 內측 끝은 그 마구리를 경사지게 자르고 그 밑에 쌍 S자형 새김질을 하여 전기 수덕사 대웅전의 당초부늬 양봉형과는 다르다.

문이 있는 네모 기둥을 위에서도 주두와 첨차를 놓아 내들보를 받들고 문인방위 보와 보 사이에서는 불을 짜아 살을 좁은 간격으로 세워서 끼고 그 밑은 판문을 달았다. 대들보 위에는 중보를 얹기 위한 화반 및 포대공과



우미량을 짜서 종보를 올려 놓고 종보 위에는 간단한 사다리꼴의 판대공을 두고 그 위에 종도리를 올려 놓았다. 지붕은 양측에 긴 서까래 1本을 종마루에서 처마 끝까지 놓이도록 하고 있어 구배는 그리 심하지 않다.

건물 측면의 가구에서는 종도리와 종도리 밑에서 받치고 있는 장혀의 뿔목이 쇠서의 모양을 새김하고 주심도리 밑의 포중방 뿔목 역시 침차 형태를 새겨 장혀를 받치고 있다.

판문은 넓게 놓은 신방목 내부측에 지도리 구멍을 파서 여기에 지도리 장부를 꽂고 또 상부에는 인방뎡테를 가로 질러 이 뎡테에 문짝이 의지하여 돌도록 축을 두었다. 문널판은 두께 약 3cm인데 축이 있는 널판은 두께 9cm나 되는 투박한 부재이다. 판문의 상하부에는 띠장을 가로대어 판넬을 변탕붙임으로 짜았다.

이상 이 건물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기둥의 엔타시스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현저하다.
2. 보의 단면이 다른 고려시대의 건물과



같이 뚜렷하게 밑이 좁고 위가 넓은 항아리 입면형을 하여 다른 고려 목조건축과 같으며 특히 종보의 보머리는 당초문의 새김을 하여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3. 공포는 헛첨차가 있는 주심포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두와 소로의 곁에는 굽받침을 갖고 있고 살미형 천차의 쇠서의 초기적 형태를 나타낸다. 공포의 짜임은 평면으로 보아 건물 內外로 거처지는 부계를 많이 사용한 소위 '+자형 평면이 아닌 수덕사 대웅전 형식의 공포이다. 또 행공첨차 위에는 굴도리 밑에 단장혀를 사용했다.

4. 대들보 위 종보 밑에는 투각된 화반과 포대공을 짜서 수도리를 받고 있다.

5. 지붕은 맞배에 흘처마이다.

이상 강릉객사문이 건축형식의 특성은 후에 좀 발전·변형되었지만 全南 靈巖에 있는 조선초기의 도감사 해탈문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기술한 修德寺 大雄殿과 江陵客舍門은 前號에서 기술한 鳳停寺 極樂殿이나 浮石寺 無量壽殿과는 또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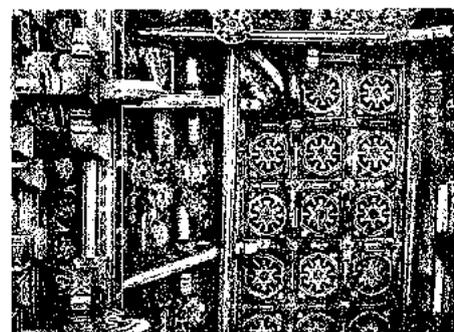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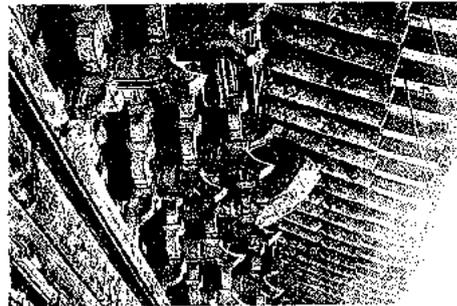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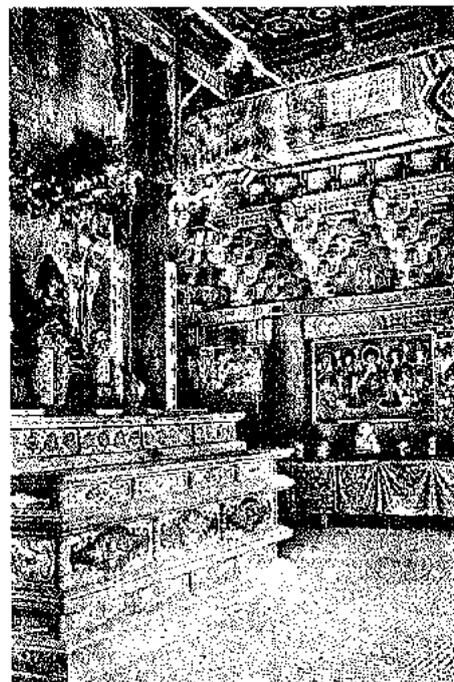
특징을 보이는데 첫째, 공포의 짜임이 전호의 것과는 달리 평면으로 보아 주두 위에서 '+'자형으로 짜여지지 않고 살미형 첨차를 더 현저하게 꾸민 구조를 가지며 여기서는 첫첨차를 사용하고 있고 둘째, 전호에 기술된 건물은 비교적 도식적이고 규범적인 부재와 장식을 꾸민데 비하여 여기서는 가구의 장식이 流麗하고 곡선적이며 거의 투각한 화반 등을 장식했다. 셋째, 전호의 건물들은 우미량 대신 직선적 뜬보를 걸구하는데 여기서는 우미량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역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이 되고 후술할 고려 석탑의 특징이 지역적으로 新羅型과 百濟型으로 구분되듯이 신라와 백제의 건물형식을 영향받은 특징일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라의 미술과 백제의 미술품이 구분되는 것과 같이 건축에 있어서도 그 系譜를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신라의 미술품과 백제의 미술품 중 가장 그 특징을 잘 보여주는 유물을 소개한다면 왕릉에서 출토된 金冠의 장식을 들 수 있다. 즉 신라의 금관은 그 분양이 기하학적이며 도식적이데 비하여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백제의 금관은 유려하고 자연곡선적인 문양을 보인다. 이것은 건축에 나타나는 문양과도 상통됨이 있다고 보여진다.

### 6. 心源寺 普光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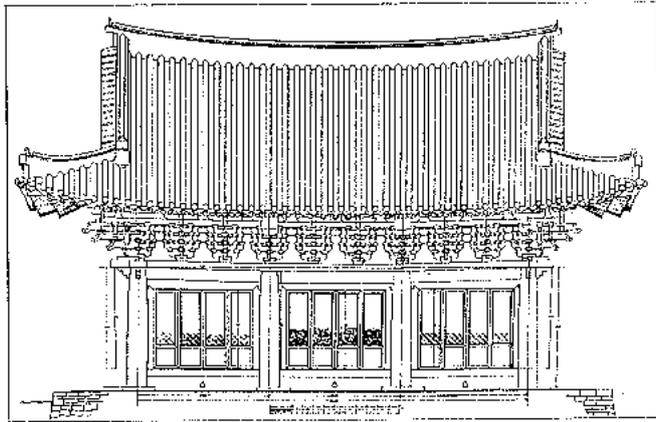
지금 북한에 있는 심원사 보광전은 2개인데, 그 하나는 평안북도 박탄군(해방전에는 정주군 고안면임)에 있는 深源寺 普光殿이고 또 하나는 황해북도 연탄군 연탄읍(전에는 황해도 황주군 주남면임)에 있는 여기서 다루려는 건축이다. 이 절은 언제 창건되었는지 알 수 없고 사찰비의 기록에 의하면 보광전은 1374년에 중창하고 그 후 여러 차례 보수한 것이라 한다.

정면이 3칸, 10.98m 이고 측면이 3칸, 7.55m인 팔각지붕 다포계의 건물이다. 기단은 자연석을 잘 맞추어 비교적 높게 쌓았다. 건물 전후면의 楹間은 매칸이 다같이 3.66m로 같고 측면에서는 중앙칸이 양 협칸보다 훨씬 넓다. 이렇게 전후면의 주칸이 매칸 같은 것은 鳳停寺 大雄殿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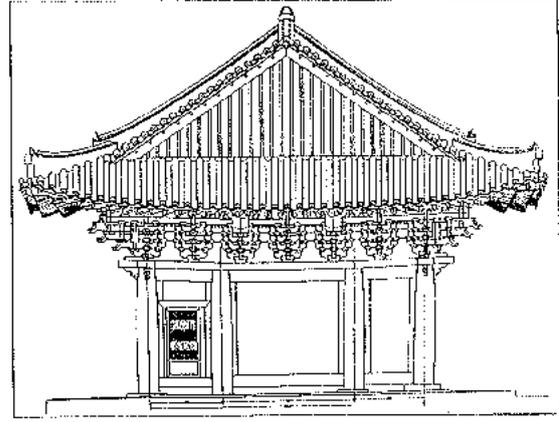


心源寺 普光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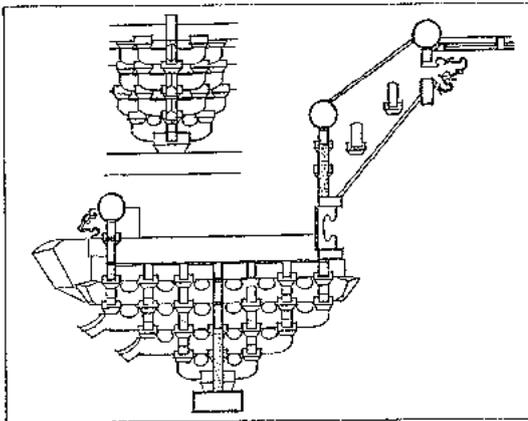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내부
- ③ 전면공포
- ④ 측면공포
- ⑤ 천창
- ⑥ 정면도
- ⑦ 등측면도
- ⑧ 공포 상세
- ⑨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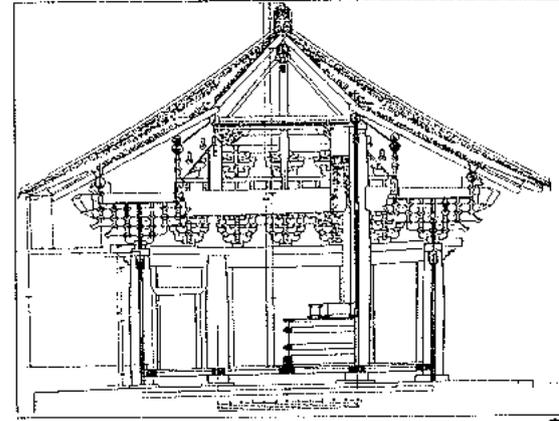
22



23



24



25

淸平寺의 文殊院址 등 고려시대에 近似한 다포계의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기둥에는 배흘림을 두고 꺾기둥은 다른 평주보다는 훨씬 굵은 것으로 사용하고 귀솟음을 두었다. 건물 내부 후측에는 고주 2本을 두어 후불벽을 마련하고 그 앞에 불단을 꾸미었다. 건물의 전면에는 4분합문을 달고 있는데 중앙칸의 것은 모란과 연꽃 등 꽃무늬를 조각한 꽃살문으로 이러한 사실적 꽃무늬의 조각은 淨水寺 法堂의 정면 문에서 볼 수 있는 그리 흔하지 않은 것이다.

공포는 内外 3出目的 7포형식으로 正面에서는 柱心包作을 기둥상부에 올려 놓고 柱間에는 空間包를 2구씩 놓아 通例와 같이 구성하였으나, 側面에서는 포작의 배열이 기둥의 直上部를 고수하지 않고 주심을 버려 배열하여 보머리가 기둥의 적상부가 아닌 비긴 위치에 있음은 다른 건물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다. 두공은 교두형이고 제2와 제3의 살미는 외부로 강직하게 하향한 쇠서로 꺾었으며 이 위에 있는 한대나 보머리는 3분두로 꺾어 외부로

노출되었는데 그 특징은 안동 鳳停寺 大雄殿의 공포와 근사하다. 특히 귀공포에서 외목도리 밑에 장식된 8각短柱와 외목도리 왕찌 부분에 응크리고 앉아 추녀를 받고 있는 동자상은 강화의 傳燈寺 大雄殿과 유사한 것이다. 이 건물 내부의 천정은 주변에 빗반자와 중앙에는 높은 우물반자를 짜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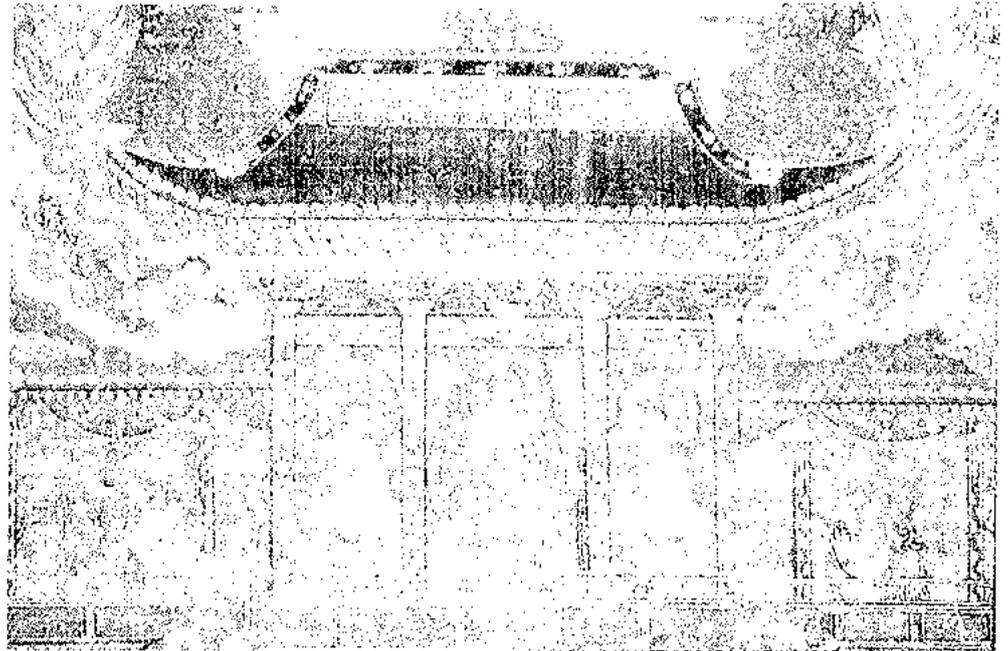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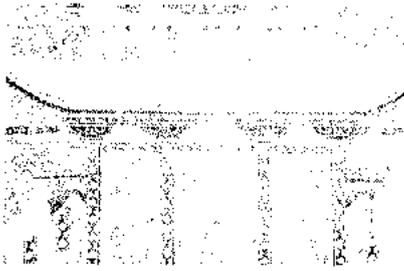
이 건물은 비록 고려시대의 건물로 알려지긴 하였지만 공포의 출목수가 많고 포작의 배열이 기둥과 잘 맞지 않은 점, 또 중앙칸은 꽃살문의 시대가 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 시대적으로 복합된 요소를 보이는 건물로 믿어진다. 그러므로 이 건물의 시대성에 대하여는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만약 이 건물이 고려 다포형식의 건물이라면 봉정사 대웅전도 고려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왜냐하면 봉정사 대웅전은 이 보광전 보다도 간결하고 짜임새 있는 구조를 보이며 첨차나 살미의 특징은 이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확실한 고려시대의 다포건축은

경북궁내에 있는 敬天寺址 十層石塔의 모각된 김형태나 공포로, 또 고려 佛龕인 四福寺 觀經變相圖에 나타난 집의 형태에서 그 특징을 연구할 수 있는데 경천사지석탑에서는 2층목의 교두형첨차와 교두형살미를 두고 또 변상도에서는 쌍S자형에 근사한 첨차와 쇠서를 내려 뺀 살미 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 다포계 형식의 포작은 교두형 첨차를 사용한 경우와 쌍S형 첨차를 사용한 경우가 있고 살미는 외부끝을 쇠서로 내뺀게 하여 행공첨차를 받치는 경우와 교두형으로 내밀어 행공첨차를 받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봉정사 대웅전에서는 상기 변상도에서 나타나는 쌍S자형 첨차와 굽받침 주두가 활용되어 주목을 끈다.

### 5. 高麗時代 木造建築 樣式의 特徵

이상의 고려시대 목조건축의 기술로 그 양식의 특성을 논할 수 있는데 크게 나누어 4가지 형식을 들 수 있다. 즉 첫째 그 先代인 통일신라의 목조건축 양식을 이어 받은



신라계의 형식이고 들깨로 백계의 목조건축 형식을 이어 받은 백제계의 형식, 셋째로 이들을 혼용하여 새롭게 독자적인 형식을 이룬 혼용절충형식, 그리고 넷째 이 시대 중국의 遼, 金, 元 등의 영향을 받고 또 한편으로 통일신라계의 것을 발전시킨 형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위의 3개의 양식은 소위 杼心包系의 형식이고 넷째의 것은 多包系의 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들 4가지 형식의 특징을 기술한다면 다음과 같다. 단 이들의 복조형식을 양식으로 부를 것인가 하는 것은 별도로 연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1. 신라계의 주심포형식

이것은 앞의 예 중 봉정사 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 조사당과 같은 것이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통일신라시대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2. 주두의 굽이 입면으로 보아 내반된 곡선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굽받침이 없고 (부석사 무량수전의 굽받침은 절충한 것으로 봄) 불국사의 석조난간이나 안압지 출토 주두와 같은 류의 것.
3. 기둥 위의 두공이 평면을 보아 규격과 형태가 같은 첨차가 '+'자형으로 짜여지는데 첨차의 모양이 兩斷의 밑을 동글게 굴린 교두형과 쌍S자형으로 한 것 등을 혼용함.

4. 包作은 평방없이 주두의 위에서만 짜여지는 주심포계 형식인데 경우에 따라 동자주형, 또는 '人'자형과 간단한 공간포를 둠.

5. 기둥에 배흘림이 뚜렷하고 보의 단면이 항아리 입면과 같이 밑이 좁고 위가 넓은 아름다운 형을 함으로 이러한 구조를 볼 수 있게 반자를 두지 않음.

6. 짧은 장혀를 사용하고 종도리 밑에 '人'자 대공과 포대공을 사용함.

7. 지붕은 맞배와 팔작, 우진각 지붕을 사용하나 맞배지붕을 많이 사용함.

이상의 특징 외에도 세부적인 특징이 있겠으나 더 이상의 고증이 어렵다.

### 2. 백제계의 주심포형식

이것은 신라계의 것과 유사하다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이 다른 점이라 하겠다. 그 예로서 수덕사 대웅전, 강릉객사문, 성불사 극락전 등이 있다.

1. 두공의 짜임이 평면으로 보아 '+'자형 보다는 內外로 뻗는 살미형 첨차를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사용하고 있다.
2. 주두의 굽받침이 있고 헛첨차를 두는 경우가 많다.
3. 포작이 곡선형이고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 牛舌, 波蓮대공과 牛尾椽 같은 곡선계를 많이 사용한다. 이것은 신라계보다는 도형에서 벗어난 예술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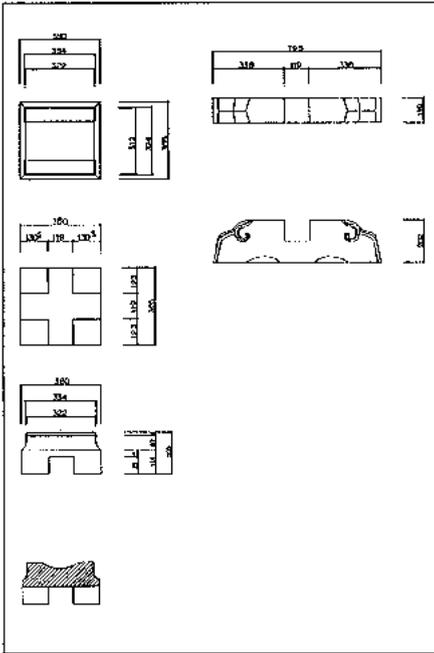
### 3. 혼용절충형식

이 형식은 앞의 2개의 형식을 서로 절충하여 사용한 형식으로 예를 들면 부석사 무량수전에서 주두의 굽받침이나 조사당에서 헛첨차 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 대공도 波蓮대공과 包대공을 겸하여 사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주심포 건물에 다포형 락칸틀 두는 예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전술한 고려불화의 변상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다포계와 같이 공간포를 평방 위에 두면서 첨차의 모양이 양단밑을 쌍S자형으로 새김절한 것을 사용한 예도 이러한 혼용절충형식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4. 다포계형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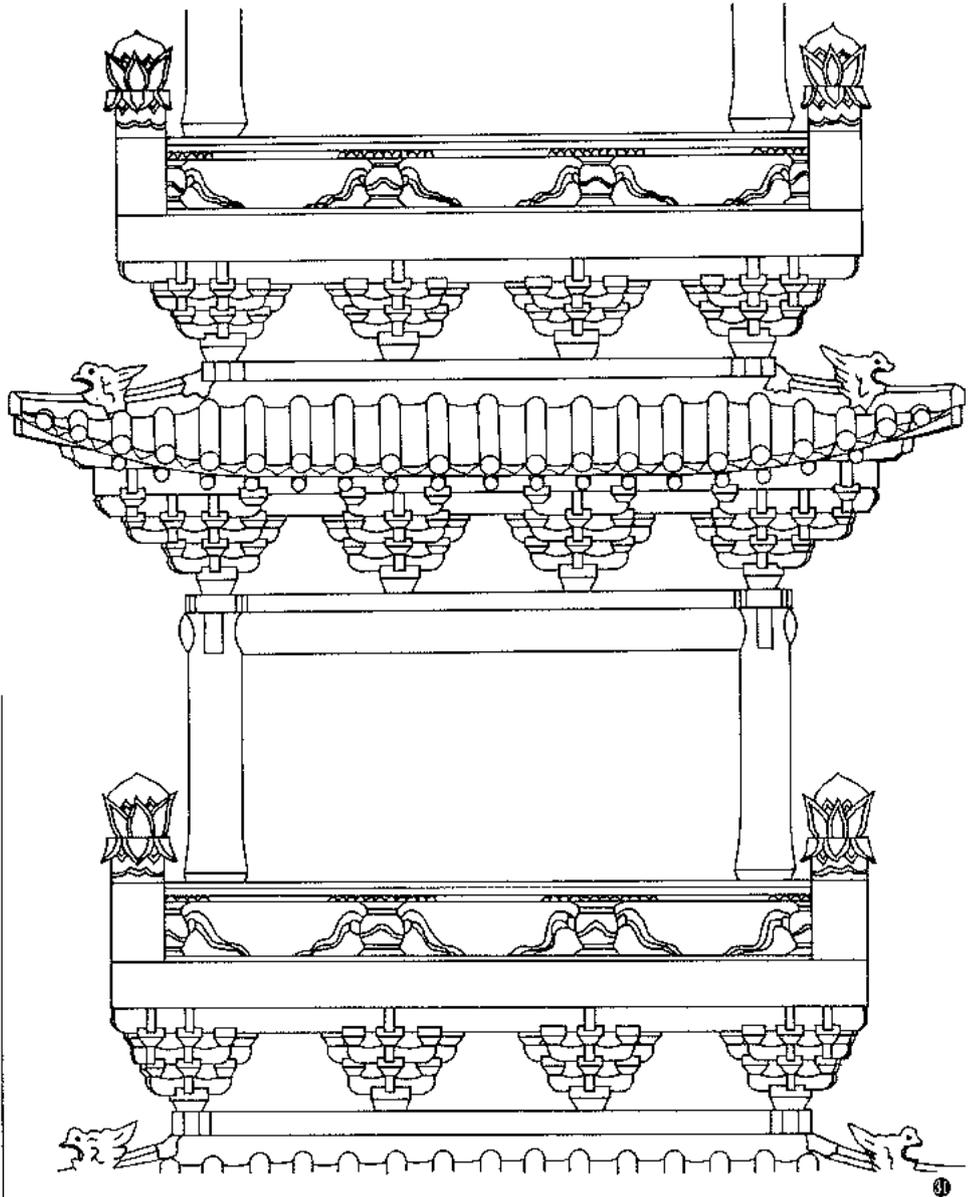
이 형식은 경천사지 10층석탑이나 심원사 보광전, 그리고 고려 불화변상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심포계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

1. 包作이 기둥 윗부분에만 짜여지지 않고 기둥과 기둥사이 공간에도 공간포를 1組이상 배열한다. 그러므로 창방을 보강하기 위하여 창방 위에 평방을 더 올려 놓는다.
2. 첨차는 대부분의 경우 교두형을 사용하나 경우에 따라 쌍S자형으로 짜일 경우도 있다. 또 첨차의 외단은 쇠서를 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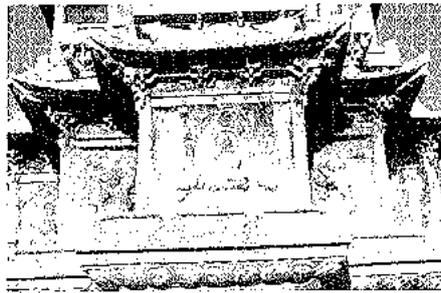


⑩

경우와 교두형으로 古式인 것이 있다.  
 3 기둥에 배흘림이 심하지 않고 기구의 아름다운 곡선형 새김이 줄어든다. 즉 부재가 규격화된다. 그러므로 건물내부에는 반자를 두어 이 가구를 가린다.  
 4 화려하고 위엄이 있는 팔작지붕을 많이 하였다. 따라서 추녀를 걸기 위한 주칸 배치를 하여 건물 정면의 협칸과 측면의 협칸의 간섭이 같게 하였다.  
 고려 목조건축은 이와 같이 삼국시대의 형식을 기반으로 통일신라시대의 화려한 의장과 구조형식을 계승하여 아름다운 架構와 建築美를 강하게 나타내는 특성을 갖고 주심포와 다포의 대별되는 양식분류의 바탕을 마련한 건축이다.



⑪



⑫

註)

- 1) 三國遺事 卷第五 避隱第八惠現求靜條.
- 2) 李殷昌, 瑞山 龍賢里出上 百濟金銅如來立像考, 百濟文化 第三輯, 公州師範大學校, 1960, 註10).

- ⑫ ⑬ 西福寺 觀經變相圖 상세
- ⑭ 鳳停寺 大雄殿 주심도리 받침으로 쓴 舊材
- ⑮ 敬天寺址 十層石塔 7층 옥신 상세
- ⑯ 敬天寺址 十層石塔 1층 옥신 상세



# 複合用途 建築物의 發展傾向(Ⅱ)

## — 독일의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추세 —

### *Planning Tendencies of Mixed use Complex in West Germany*

#### 1. 머리말

지난 호의 첫 원고에서는 복합용도 Complex의 건립배경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개관하여 보았다. 그 다음 순서로서 현대적인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내용과 실제의 건설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외국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는 바 본 원고는 1. 첫단계로서 전통적인 복합용도 건축물이 발전계승되어 내려온 유럽대륙의 발전상황을 독일을 연구사례 대상으로 선택하여 파악해 보았다. 독일을 인구대상국으로 선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기인된다. 독일의 경우 전통적인 도시구성의 패턴이 기존 도시내에 잔존하고 있었지만 이들의 대부분이 2차에 걸친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버렸다. 지난 반세기를 거치면서 그중의 일부는 원상대로 복원되었지만 대도시의 경우 많은 건축물들이 새로이 건설되었는데 이러한 건설의 과정에서 "새로운 건축적 요구와 전통적인 도시맥락의 유지"라는 두가지의 이질적인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다각도의 검토와 시행상의 착오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방향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선진국의 발전경향을 검토해 보고자 하는 우리로서는 매우 흥미있는 연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원고는 독일도시의 복합용도 Complex 계획패턴의 변화과정을 도시계획적인 요구, 시민들의 의식변화 그리고 건축가의 계획개념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본 후 건설후의 상황까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적어도 복합용도 Complex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에서 지향하고 있는 고층형 개발패턴에서 대부분 영향을 받고 있는 국내 대도시 복합용도 Complex 개발의 현 위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본원고의 의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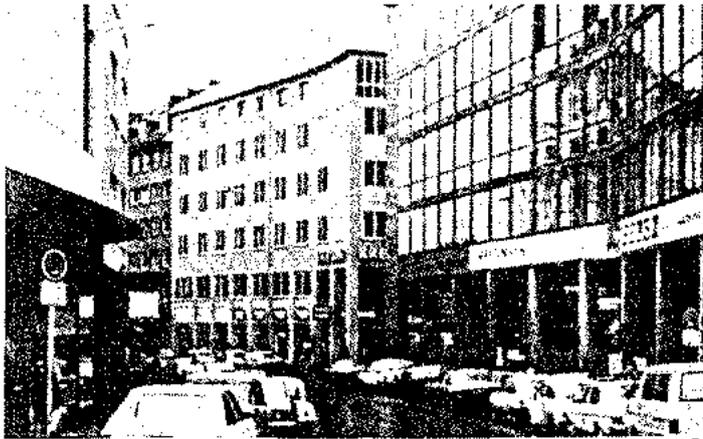
#### 2. 도시블럭내의 복합용도 건축물

복합용도 건축물의 역사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유럽의 도시들은 대부분 200~500년 이상 유지되어온 도시공간내에 전통적인 도시블럭이 존재해 왔다. 독일의 경우 두차례의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대부분의 도시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버렸지만, 건축물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기존도시의 역사적인 맥락(historical context)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가와 도시당국(Planungsamt) 그리고 건축주의 상호협동 및 타협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었다. 특히 독일의 지방정부는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에서 엄격한 지구상세계획(beanspruchungsplan)을 입안하여 건축물의 계획방향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변 건축물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물 파사드(facade)의 처리를 세밀히 감독하였다. 즉 새로 지을 건축물의 외관계획에서 도시블럭내 이웃 건축물의 층수나 성격을 수용하는 한도 내에서 새로운 건축물 계획이 신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 또한 야무리 혁신적인 설계내용을 담고 있다하더라도 최소한 도시블럭의 다른 건물군과 연계되어야 하며 지구상세계획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건축기능을 담고

吳德成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Oh, Deog-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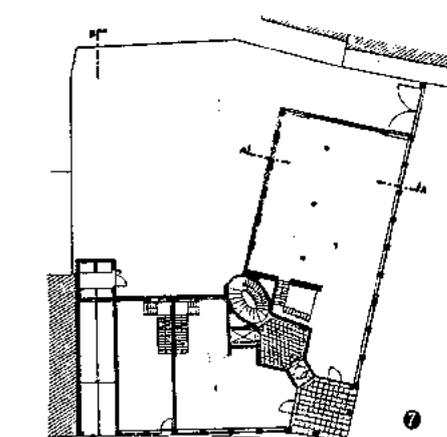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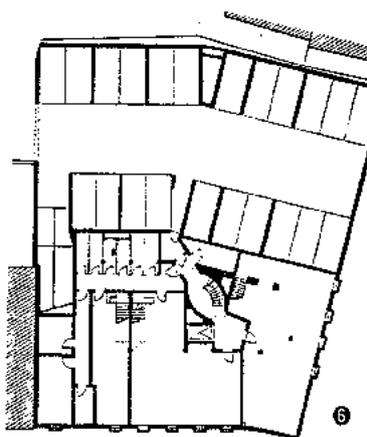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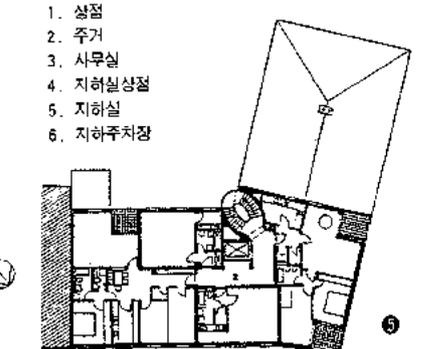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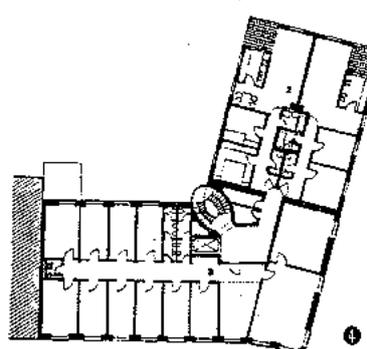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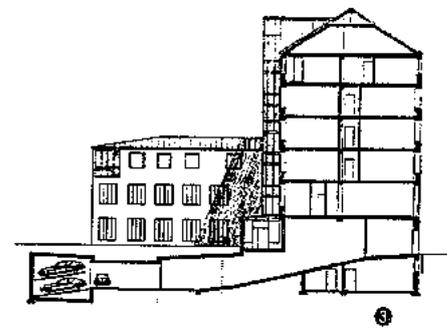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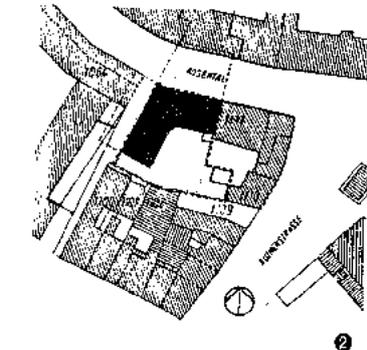


도 1. 뮌헨시가지의 Heinz Hilmer의 복합용도건물  
(H. Hilmer, C. Sattler 설계)

- ① 건물전면
- ② 배치도
- ③ 단면도(B-B)
- ④ 3층평면도
- ⑤ 옥상층평면도
- ⑥ 지하층평면도
- ⑦ 1층평면도

있어야만 했다. 따라서 복합용도지역( *mischgebiete* )으로 개발되어 있던 기존 도시블럭내의 신축건물은 자연스럽게 복합용도로 처리되어 1층에는 상점, 2층 이상은 사무소나 아파트가 배열되는 중층형 복합용도 건축물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러한 건축 유형은 새로운 발전이라기 보다는 역사적인 발전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 실례로 (도1)은 독일 내도시의 도심부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중층형 복합용도 건축물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언뜻보면 뚜렷한 특성을 느낄 수 없지만 건물 Facade 의 처리에서 이미 상이한 용도의 복합이 나타나 있다. 즉 1·2층에는 아케이드내측으로 소매점포들이 배열되어 있고 그 상부에는 3개층의 사무소 부분이 배치되었으며, 최상층과 막공으로 처리한 지붕층에는 매조네트 형식의 도시형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본 건물은 뮌헨( München )의 구시가지에 있는 기존도시블럭의 한 모퉁이에 신축되었지만 기존의 건축물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도록 처리되어 있으며 그를 통해 블록내의 반공용중정( *halböffentliche Innenhof* )가 형성되었다. 이것은 독일의 구 시가지내에 지어진 건물에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서 1950~60년대에 걸쳐 채용되었던 복합용도 건축물의 일반적인 유형이다.

Berlin 의 도심근교 주거지역에 지어진 또 하나의 복합건축물인 Kurfürstendamm 모퉁이 복합상가(도2)에서도 유사한 계획개념이 나타나고 있다. 본 건물이 건설된 도시블럭인 Kurfürstendamm 74번지는 이미 1909년에 4층 높이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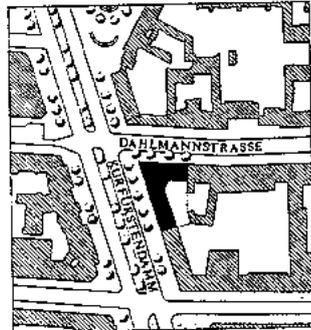
- 1. 상점
- 2. 주거
- 3. 사무실
- 4. 지하실상실
- 5. 지하실
- 6. 지하주차장

복합건물이 세워졌고 1923년에 지붕층이 증축되었는데 본 설계는 블록의 모서리에 위치한 노후건물부분을 헐어내고 새로운 건물을 설계하여 끼워 넣어 넣은 것이다. 건물의 외형은 판넬의 사례와 많이 다르지만 본 건물 역시 1층에 상가가 배열되어 있고 2층 이상은 사무소와 주거가 배치되어 있다. 흥미있는 사실은 도시 가로변 임에도 불구하고 각 세대별로 비교적 넓은 발코니를 대로변 방향으로 마련해 주었는데 그 외부는 칼라유리로 덮어서 발코니 내부를 가리도록 처리하였고 단위주호계획에서는 거실부분 외곽에 식재공간을 확보하도록 배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건물모서리 부분은 4층부분부터 커튼월로 덮어서 온실형의 로지아(loggia)를 조성해 줌으로써, 외관상으로는 자칫 흉해지기 쉬운 예각의 도시블럭모서리 부분을 자연스럽게 해결하면서 건물의 식별성을 높여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 건물의 옥상부는 눈썹지붕으로 처리하였는데 그 동기는 단순한 평지붕의 처리만으로는 주변건물의 박공지붕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기존의 지구상세계획에서 경사지붕으로 처리도록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시당국과의 중간 타협안으로 눈썹지붕을 모서리의 로지아 부분에 잇대어 배치하였던 것이다. 지붕과라팻 내측에는 옥상정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한편 건물안쪽 부분의 빈땅 블럭전체의 중정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당 블럭주민이 함께 중정을 사용할 수 있는 반공용공간(half-Öffentliche Bereich)으로 조성하였다. 본 건축물은 주거공간 위주의 도시형 복합용도 건축물의 실례로써 도심근교의 주거지역에서 유사한 형식의 건물이 많이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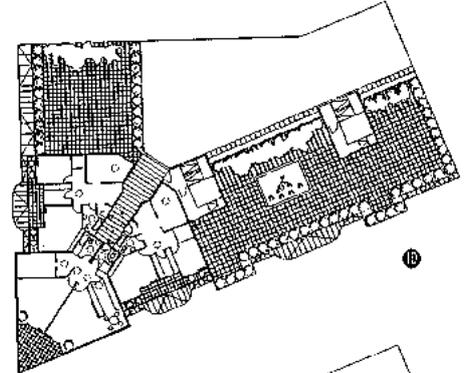
또하나의 흥미있는 실례로서 이 건물은(도3) 블럭상의 일부에 끼워 넣은 소규모 복합용도 건축물들중에서 지구상세계획제도에 따른 외관구성의 제약조건을 건축가의 역량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처리해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본 건물은 1980년 초반에 주정부의 발주로 전국에 현상공모되었는데 기존건물들로 인해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설계상의 제약조건을 지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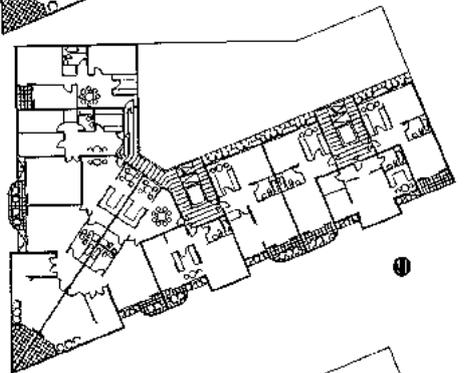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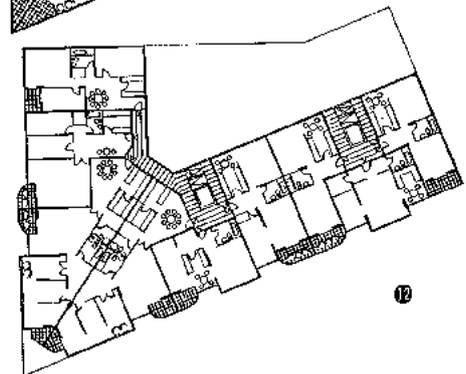
9



10



11



12

도2. Berlin Kurfürstendamm모서리 복합건물 (설계: Öfele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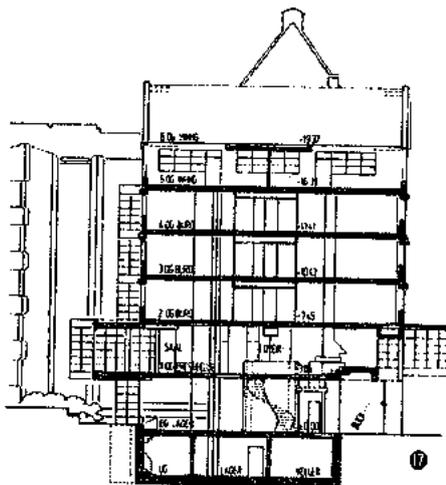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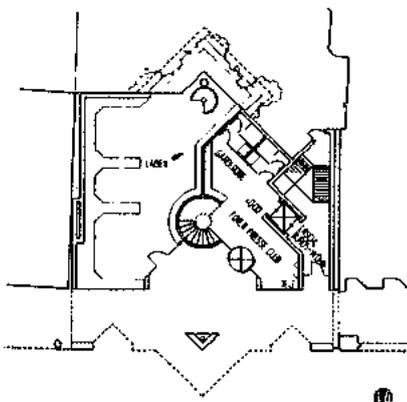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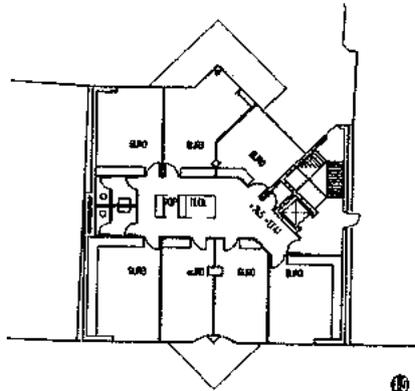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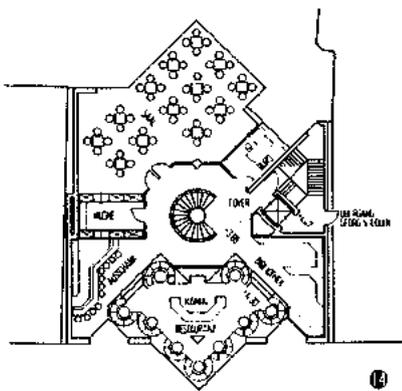
- ① 전경
- ② 배치도
- ③ 옥상층평면도
- ④ 주거층(4~6층) 평면도
- ⑤ 사무소층(2~3층) 평면도



있었다. 건물이 들어설 양측에는 전혀 이질적인 두개의 건물이 이미 들어서 있었는데, 그 좌측에는 70년대 건설된 특징없는 5층의 호텔, 우측에는 100년이 넘는 바로크풍의 7층 건물이 배열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 건물의 설계를 통해 양측건물의 극단적인 이질적 특성을 완충해 줄 수 있는 건물외관의 처리와 함께 상가, 기자클럽, 사무소 및 주거를 수용한 매력적인 모습의 복합용도 건축물을 세워보자는 것이 주정부의 계획의도였다.

7개의 세출 작품 중에서 선택되어 건축가의 설계의도대로 건설된 본 건물의 계획 (Kleiner 부부의 설계안)에서 다음과 같은 작가의 조심스러운 접근방법을 엿 볼 수 있다. 우선 양측건물의 높이차를 완충시키기 위해 건물높이를 양측건물의 중간높이로 설정하고 건물중심에 대칭축을 잡은 후 두건물을 수평으로 연계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건물 파사드에서는 우측건물의 박공부분을 암시하는 듯한 지붕층의 삼각 박공부분 처리와 좌우대칭의 창문배열등은 매우 흥미를 끄는 접근방식이다. 그와 더불어 양측건물의 1층부분을 연계시키기 위해 좁은부지이지만 1층은 2m이상 후퇴하여 상가를 배치하고 아케이드로 처리한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내용이다. 다소 복잡하게 처리되어 있는듯 하지만 좌우의 기존 건물 개구부 배열방식을 감안하여 일단 2층부분 창선에서 좌우 건물의 창선과 일치시키고 그 상부는 우측 바로크풍의 건물과 연계시킨 창문의 배치패턴 역시 건축가 Kleiner 의 역량을 엿보게 하는 처리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도시블러상에 끼워 넣은 단위건물형의 복합용도 건축물은 그 역할이 우리나라의 상가병용주택처럼 도시주변에서 흔히 눈에 띄고 실제로도 많이 건설되고 있는 건축과제로서 소규모의 복합용도 건축물 계획방향과 관련하여 시사해 주는 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주의를 기울여서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 유형이다.



도 3. Hannover am Markt 11번지의 복합건물 (Kleiner 부부설계)

- ⑮ 중앙건물 입면도
- ⑯ 2층(클럽) 평면도
- ⑰ 3~4층(사무소) 평면도
- ⑱ 1층(상점) 평면도
- ㉑ 단면도

### 3. 대규모 고층형 복합용도 Complex 의 발전

#### 1. 도시재개발 Project 로서

##### 복합용도 Complex 의 의의

전후의 복구단계를 거쳐 기적적인 경제 부흥과 함께 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독일의 도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건축경기도 매우 호전되어 일명 최고의 건설붐( Bau-Boom )이라는 말이 탄생할 정도로 활발한 건축활동이 이루어졌다. 이시기에 또하나의 흥미있는 사실은 도시구조의 재편이 이루어져 도심근교의 공해공장들이 외곽으로 이전되고 공장들이 철거된 넓은 부지위에 대규모의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시행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웃의 서유럽 주변국가, 특히 네덜란드나 영국의 대규모 복합주거단지 개발프로젝트에서 자극을 받고있던 독일의 건축가들은 도시계획가들과 손을 잡고 도심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도심 형성을 위한 지구개발의 필요성을 제창하였는바 그 방식으로 과거의 전통적인 도시블럭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접근방식의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의 대부분은 여러개의 고층 Tower 를 Base 위에 올려 놓은 듯한 모습의 대규모 고층형 복합 Complex 유형이었다.

1970년 초반부터 이러한 대규모 복합용도 Complex 의 건설의의와 계획개념에 대한 타당성 여부가 계획가들 사이에서 논의되었는 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Adrian 교수의 고층형 복합용도 Complex 의 건설낭위성과 계획타당성에 대한 주장이다. 유명한 건축도시관련 전문잡지인 Bauwelt 의 편집위원이며 Hannover 시의 도시국장과 Hannover 대학교 도시계획 연구소 초빙교수직을 맡고 있어 있었기 때문에 실무와 이론을 겸비하고 있는 학자로 평가받고 있던 그는 아래와 같은 관점에서 복합용도 Complex 의 건설의의를 설명하였다.

첫째, 고층형 복합용도 Complex 는 특수한 도시적 매력을 이끌어 내는바, 한편으로는 다양한 용도의 건축기능을 수용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계적

동선처리(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등)와 중앙 집중식의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처리를 통해 대규모의 계획부지 전체에 편의성과 쾌적성을 제공해 준다. 특히 하층부는 Deck 로 처리하여 차량동선과 완전히 분리되는 보행자동선을 확보하고 실내에는 식재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얼마든지 쾌적한 자연환경을 도심부근에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둘째, 도시미관의 관점에서도 고층형 Complex 는 외부의 입면처리에서 단위건물들의 높이를 다양하게 처리함으로써 Complex 외관 실무업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는 뷰음식 고층건물집단의 아름다움으로써 일정한 높이의 전통적인 도시블럭형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건축미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부지역에 지어지고 있는 개별적인 고층건물들만으로는 도시의 다양한 기능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이는 개개의 고층건물은 인접건물과 너무 이질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으므로 자칫하면 주위환경에서 소외되어 버리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고층건물을 저층의 베이스( base )로 묶어주고 각기 다른 기능을 수용함에 따라 얼마든지 도시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기능수요를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적어도 일정규모의 지구단위 도시블럭 내에서는 건물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네째, 도심부에서 밀려나가는 주거기능을 Complex 내의 고층아파트에 수용하고 양질의 주거공간을 확보함으로써 현대도시의 문제점인 도심공동화현상을 막을 수 있음으로 도시계획적 의의를 함께 기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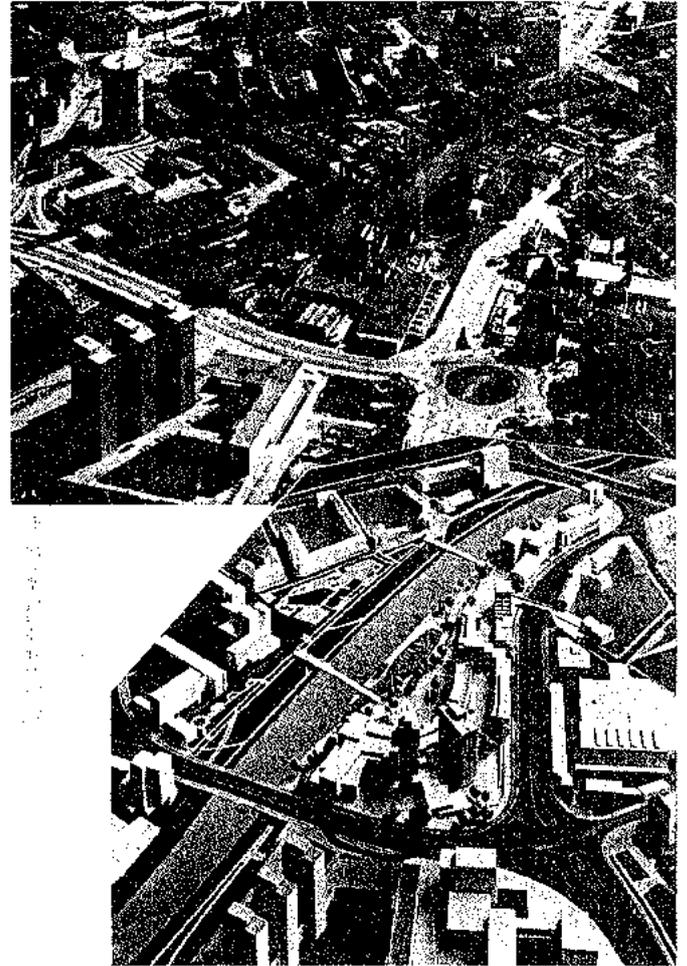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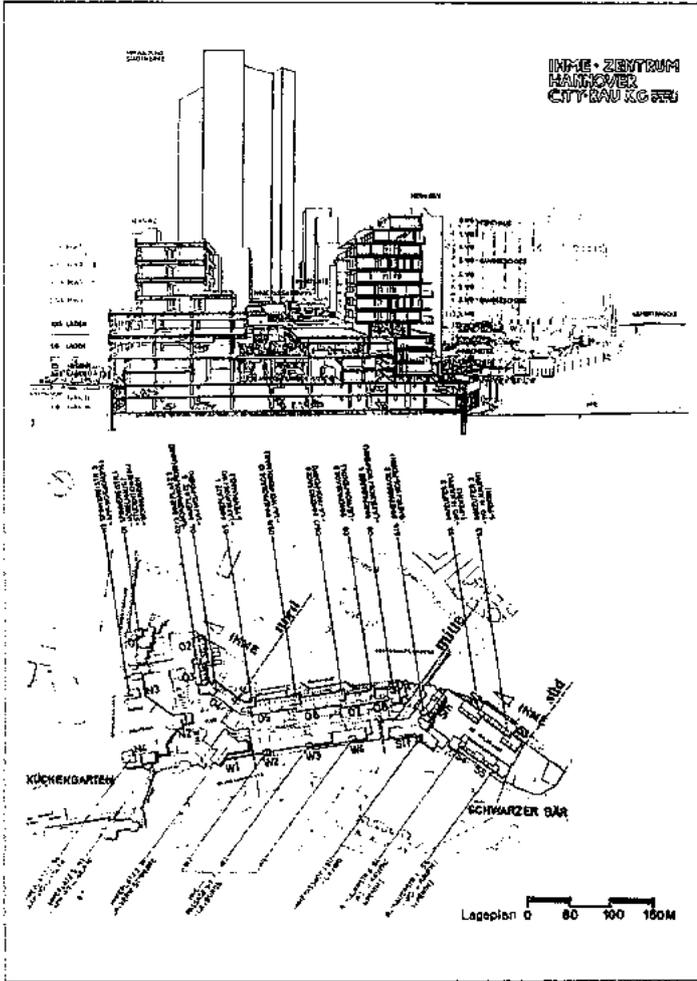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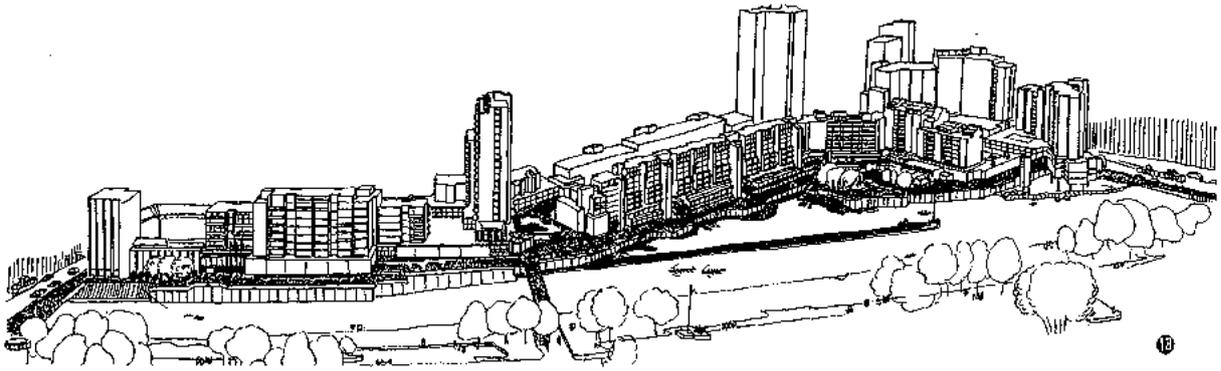
다섯째, 종래의 전통적인 도시가구 구성패턴에 비교하여 고층형 Complex 는 높은 건축밀도(용적률)를 확보할 수 있어 토지이용상 이점이 있다.

여섯째, Complex 건설부지의 지하를 이용한 공용주차장의 확보는 넓은 주차공간의 확보를 통해 도심이나 도심근교 지역의 주차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주차장상부의 저층부 Base 에는 쇼핑센터나 백화점과 같이 자연채광이 필수적이 아닌 용도공간을 배열함으로써 폭이 넓은 건축물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며 그위에 설치된 주거 및 업무용 고층타워는 적당한 간격을

따위줌으로써 충분한 자연채광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점 역시 기존의 도시가구에 지어진 중층의 사무소나 아파트에 비해 훨씬 쾌적한 사무 및 주거공간 구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실제로 이와같은 건립타당성을 기반으로 하여 독일내의 많은 도시에서는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로서 고층형복합용도 Complex 를 채택하게 되었는바, 주로 도심부나 도심근교 지역중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하철, 전철등의 결절점에 대규모의 복합용도 Complex 가 건설되었다. 다소 극단적인 설애가 되겠으나 Adrian 교수가 일하고 있던 Hannover 시의 경우 도심과 주변의 6개 지역을 고층형 Complex 로 재개발하려는 도시재정비계획안이 도시당국에서 입안되었고 그중에서 2개의 설계안은 실제로 당해 지역에 건설된 바있다.

#### 2. 대표적인 고층형 Complex 의 건축실예와 계획내용

Hannover 의 도심근방에 건설된 Ihmezentrum 은 독일의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로 이루어진 복합용도 Complex 의 효시라 일컬어 진다. 본 지역은 1960년대까지 Hannover 시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Ihme 강변을 옆에 끼고 대규모의 방직공장들과 관련업체들이 입지되어 있었는데 큰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과 도시공해의 문제를 해결키 위해 시당국은 공장을 도시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그부지를 매수하여 두었다. 여러해에 걸친 기본계획의 작성 및 검토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Leberkusen 의 City-Architekten 그룹에 의해 고층형 Complex 가 설계되었다. 본 Complex 는 도시형 고층아파트(2천4백인 수용)와 사무소, 2개의 백화점 및 쇼핑 Mall 로 구성되며 이들 고층타워를 묶는 저층베이스는 공용주차장, 스포츠시설, 공공편익시설이 들어오도록 처리하였다. 강변을 끼고 평행으로 배치된 도시형 고층아파트는 원래 전망이 매우 좋은 위치였는데 이 장점을 더욱 살피서 숲과 강으로 둘러싸인 느낌을 주기위해 강변의 좌측은 공원과 녹지를 보강하고 세개의 오버브리지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따라서 주민들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수월하게 Open Space 에 접근하여



도 4. Ihmezentrum (설계: Adrian+ City-Architekten-gemeinschaft)  
 ⑬ 전체 개관  
 ⑭ 단면투시도(上)와 배치도(下)  
 ⑮ 건립이전의 상황(上)과 건립계획모델(下)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공장과  
 채료하차장 뿐이었던 과거의 Ihme 강변만을  
 알고 있던 인근주민에게는 놀라운 변화였다.  
 한편 구도심에서 전철로 10분 정도 걸리는  
 입지이점 때문에 도심지내의 협소한  
 주차공간과 번잡한 인파를 피해서 한가롭게  
 쇼핑을 즐기기를 원하는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당국에서는 Base 상부의  
 Deck 에 도심형 쇼핑 Mall 을 조성하고  
 Complex 양단에 2개의 대형 전문백화점을  
 배치하여 Complex 전체에 활기를 주려고  
 노력하였다. 15층의 고층사무소는 60만  
 인구규모인 Hannover 시의 경우 대규모  
 사무소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감안하여 시립전력공사인 Stadtwerk 본사를

시정부의 유도로 그곳에 입주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곳은 1천2백여명의 사무원의  
 일터인 동시에 그 불중 일부는  
 Complex 내에 주택을 임대받아  
 직주근접(職住近接)을 지향토록 계획가와  
 도시당국의 협조가 이루어졌다. 특히  
 흥미있는 일은 본 프로젝트의 계획과 건설을  
 책임 맡고있던 Adrian 교수 자신이  
 Complex 의 고층아파트 최상층으로  
 이시하여 고층주거의 매력을 도시민들에게  
 몸소 입증해 주려했던 점이다.  
 Ihmezentrum 이 건설된 후 본 프로젝트에  
 대해서 찬반의 여러가지 논쟁이 있을 즈음  
 1970년 대 중반에 또하나의 대규모  
 Complex 가 북부독일 항구도시인

Bremerhaven 에서 이루어졌다.

Bremerhaven 시는 2차대전중 영국공군의 공습을 받아 도심부가 거의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린 지역으로서 1950년 대말 도시활성화를 위해서 독일의 기타 도시들을 앞질러서 구도심의 고층형 개발지침을 도시계획으로 확정지은 바 있다. 본 계획지침의 시행에 대한 찬반논쟁으로 20여년이 경과한 후 1975년에 독일연방지역 건축가에게 현상설계를 내걸어 복합용도 Complex 의 전형(prototype)을 제시하려 하였다. 심사위원회의 열린 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선택된 안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서 흥미를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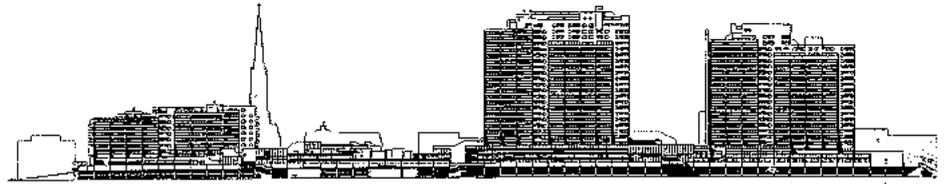
첫째, 새로 건설된 고층형 Complex 가 5~6층으로 건립된 기존의 구도심상가블럭과의 연계성을 지니도록 하기위해 Complex 저층부의 Base 높이는 기존의 도심건축물 높이 까지만 구획하고 일정기간을 뒤로 후퇴시킨 후 3개의 진입부분으로 연결시켜줌으로써 기존상가 Block 뒷편에 세워진 Complex 는 마치 도시블럭 뒷편에 숨어있는 모습으로서 고층건물에 민감한 도시민들은 구도심에서는 대규모의 고층 Complex 를 느끼지 못하도록 처리하였다.

둘째, Complex 좌우측에는 이미 두개의 민영백화점이 입지하고 있었는데 새로 건설된 Complex 베이스부분의 보행자 동선축을 양측의 백화점과 직접 연결시켰으며, 본동선축의 좌우에는 상가를 배열하여 쇼핑Mall 을 형성하여 주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양측백화점 사이를 통과하면서 시가지의 일반 쇼핑가를 걷는 듯한 느낌을 기쁨은 물론 세지역의 물건값을 비교하여 합리적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천창을 Toplight 로 처리한다든가 분수를 배치하고 앉아 쉴 곳과 수목을 배열하는 등 미국의 Shopping Mall 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건축적 처리를 통해 Mall 의 분위기를 높여 주었다.

셋째, 상가 및 사무소 이외에 고층아파트 거주민에게 일반 주거단지의 주민들과 똑같은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스포츠시설(실내수영장)과 문화시설(소규모전시장, 음악당등) 이외에 건물의 관리 및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서 및 관공서, 유치원, 경로당등이



①



②

Complex 내부에 함께 배치되어 있어 Complex 의 공익성을 높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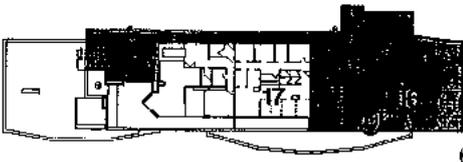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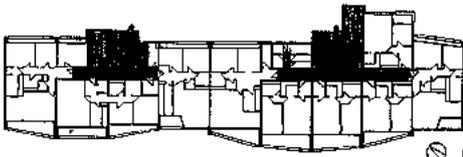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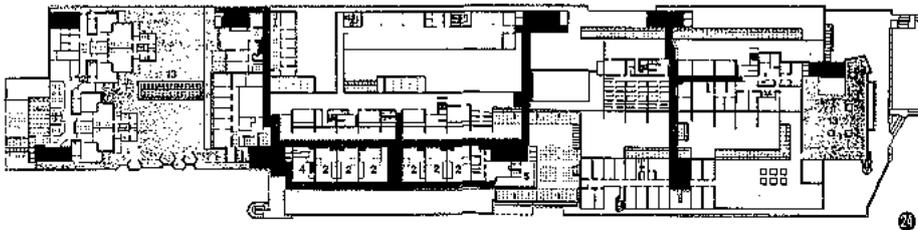
넷째, 구도심의 주차문제를 해결기 위해 쇼핑Mall 하부 Base 부분 2개층을 4개의 주차 Level 로 분리한 후 전체를 공용주차장으로 확보하였고 이들 주차장으로의 접근은 Complex 전면의 구도심블럭과 후면사이에 별도의 차량통행로를 배열하여 줌으로써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Complex 후면의 흑해측에서 차도가 노출되는 것을 지양하였다.

본 프로젝트가 실현된 후 인구 5만의 항구도시인 Bremerhaven 시에서 상업 및 서어비스분야의 성장이 괄목할 만큼 이루어졌으나 도시전체의 사무공간의 요구가 비교적 적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Complex 의 주요기능은 상업기능 위주가 되어버렸고 본 프로젝트를 실현하는데에 저축되었던 건설비용을 뽑아내기 위해 아파트의 임대가를 일반주거단지의 국민주택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수

없었으므로 아파트 임대에 난점이 있었다. 한편 초기에는 고층건물의 새로움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왔던 일반 도시민들이 점차 전통도시 블럭과 역사발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서 20층에 가까운 본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증대되었다. 그 결과 계획초기에 제시되었던 단계별 확장계획안은 일순에 부처지고 Complex 좌측의 장래 확장부지에는 현재 해양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 3. 고층형 Complex 건설후의 문제점

두 실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제개발 프로젝트로 시행된 고층형 복합용도 Complex 의 건설은 1970년 후반을 접어들면서 초기의 계획단계에서 생각지 못했던 몇가지의 문제점이 대두되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들중 대표적인 문제로는 고층형 Complex 와 기존도시의 조화문제, 고층주거에 대한 싫증과 고층아파트의 임대상의 문제점, Copmlex 내 상가의 영업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초기의 계획단계에서



- |            |               |
|------------|---------------|
| 1. 쇼핑몰     | 9. 카페         |
| 2. 상점      | 10. Tonstudio |
| 3. 보행자 브릿지 | 11. 양로원       |
| 4. 스낵바     | 12. 유치원       |
| 5. 레스토랑    | 13. 놀이터       |
| 6. 백화점     | 16. 수영장 사우나   |
| 7. 안내      | 17. 미사시설      |
| 8. 시민대학    |               |

도 5. Columbus-Center, Bremerhaven.

- ㉑ 전경
- ㉒ 입면도
- ㉓ 쇼핑물(2층) 평면도
- ㉔ 공용시설 및 편의시설(3층) 평면도
- ㉕ 좌측주동 고층아파트 평면도
- ㉖ 우측주동 고층아파트 평면도

설비공급을 중단 하는등 과거의 고급형 「상가+주거」의 개념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고층아파트에 살면서 중앙난방과 편리한 설비여건을 통해 쾌적한 실내생활만을 즐기던 주민들도 점차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의 완속기로 접어들면서 「일주일 5일 근무제」에 따른 개인생활 시간의 증대는 일상생활의 사이클을 바꿔 주어서 「한주일의 노동을 위한 하루의 휴식」이라는 종래의 생활관습과는 달리 작업시간의 비중만큼 개인 취미생활내지는 가정생활의 확보에 관심과 시간의 비중을 두게 되었다. 따라서 휴식시간 내내 아파트안에 갇혀지내는 일은 더이상 주민에게 참기어려운 입장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더우기 개인승용차 보급율의 상승과 도시주변지역의 지역난방 공급의 확대, 자기집소유와 정원에 대한 바램등은 종래의 Complex 내 고층주거의 이점인 편리한 주거생활공간, 직주근접에 따른 개인시간의 확충 등을 앞지르게 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선택을 고층주거에만 묶어 두는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중산층이나 사무종사자들이 주류를 차지했던 Complex 내의 거주인들은 도시근교로 이사해 버리고 새로 이사해오는 주민은 생활수준이 낮은 제조업관련 노동자, 상인등이 대부분이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모습도 점점 눈에 띄이게 되었다. 이들은 Complex 전체의 청결유지나 쾌적한 환경확보에는 무관심하며 질서의식도 비교적 약해서 Complex의 질적상황은 점점 저급화 되어갔다.

현재, Hannovex 등 일부대도시의 경우 15년 이상이 된 대규모 Complex를 어떻게 수선하고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을 높여줄 것인가에 대하여 건축가와 도시계획가들 사이에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기대하였던 효과인 여러개의 고층건물을 베이스로 묶어주되 건물구성의 변화를 주고 기계적인 동선처리에 따라 내부순환의 효율성을 높임은 물론 건축공간 끼리의 효율적인 연계성을 확보하려던 계획방식은 건설후에 기존도시의 구조와 충돌하면서 문제점에 봉착되었다. 우선 몇 백년이나 유지되어 내려오던 도시계획상의 위계질서인 도심중앙의 대성당을 중심으로 전면에 광장을 배치하고 주변에 4~5층 정도의 전통적인 도시블럭이 수용됨으로 건축물간의 엄격한 위계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도시구성의 패턴이 10층 이상의 고층타워가 주변에 배열됨으로써 심각하게 흐트러지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전통적인 도시 Sky-line이 파괴되고 도시실루엣이 질서를 잃어버렸다는 점을 전문가 뿐만이 아니라 도시주민들까지 느끼게 될 정도가 되어버렸던 것이다. 한편 거대한 건물군은 설계단계에서는 최상의 공간계획으로서 기능의 체계적인 배치와 유관기능을 묶어서 내부순환 동선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도시공간의 변화와 사용자의 새로운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는 마치 거대한 포유동물 맘모스가 기후나 자연환경의 변화에 적응치 못해 쇠퇴해 가는 듯한 양상과 비슷하다. 특히 70년대 후반후부터 시행된 도시의 재정비계획에 따라 차량통행로가 폐쇄되고 보행자 공간이 확보되면서 도심소재의 상점가나 백화점들이 활기를 띠게 되었으며 지하철의 연결망이 강화되면서 도심은 새로운 활성화의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대도시 도심근교의 쇼핑센터는 박리다매의 중급 내지 저급품상점으로 바뀌어야 했는데 이 경우 이익이 적은만큼 시설투자는 점점 빈약해져서 쇼핑 Mall의 구매환경이 질적으로 하락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영업부진으로 인해 문을 닫는 일부 점포는 곧 바로 새로운 점포가 들어서지 않고 몇개월씩 비어있던지, 전기의 절약을 위해 실내조명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실내 공용 위락공간의

이와같은 상황 하에서 새로운 고층 Complex 의 계획타당성은 시장국이나 계획가들이 거론하기에 매우 어려운 입장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독일의 고층형 Complex 의 건설후 상황변화는 도심지의 재개발에서 고층 Complex 의 건설계획을 입안하고 있거나 혹은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시사해 주는 점이 매우 크다 하겠다.

#### 4. 불력형 Complex 의 발전

##### 1. 도시불력의 수용과 새로운 형태의

##### Complex 계획요구

대규모 도시재개발 프로젝트로 시행된 고층형 복합용도 Complex 의 퇴락과 함께 전통적인 도시불력의 유지와 기존도심의 복합기능수용요구가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던 방식은 전통적인 도시불력 구성 기법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자형 건축물군 (Randbebauung) 과 중심부의 공용중정 (Öffentlicher Innenhof), 그리고 지하부의 공용주차장 확보방식이다. 이때 건축물군 내에는 복합용도를 수용토록 시도하였는데 과거 고층형 Complex 가 잉태했던 문제점들을 지양하기 위해서 층수, 건물높이, Facade 구성방식등이 주변의 기존건축물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예쳤으며 동시에 전통적인 외장요소들을 수용하려고 노력하였다. 한편 기존의 고층형 개발에서 채용된 바 있는 「지하공용주차장 처리」는 본 방식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는데 부지전체를 몇층의 지하층으로 파내고 지하주차장을 확보하여 당해 주민 뿐만이 아니라 일반도시민에게도 개방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불력형 Complex 계획에서는 기존도시구성 패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가 엄격히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각각의 도로변에서는 건물의 한면만이 외부인들에게 노출되므로 건물 파사드 (Facade) 의 처리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된다. 따라서 파사드의 처리에 있어서 기존도심의 가구불력에서 채용하고 있는 층별 창문의 위치와 크기 및 형태, 개구부의 처리수법 등을 신축 건물의 외관에 수용하되 단조로워지기 쉬운 건물의

입면처리가 건축가들의 역량에 따라서 제한된 범위내이지만 건물의 세부설계에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추구해 나아갔다. 건축 외장재료는 과거 콘크리트면이 노출되는 PC 판넬이나 Glass Curtain Wall 처리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적 도시민에게 친숙한 벽돌, 석재등으로 외장을 치장하거나 스테코로 마무리해 주는등 일반인의 호감을 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인다.

한편 이들 불력형 Complex 의 입지는 대규모 고층형 Complex 의 경우와는 달리 구시가지내의 노후지역 일부를 재개발하는 경우나 도심의 재래시장광장 인접지역 등과 같이 그 위치상 일반 도시민들에게 확연하게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당국으로서는 건물외관에 상당히 신경을 썼던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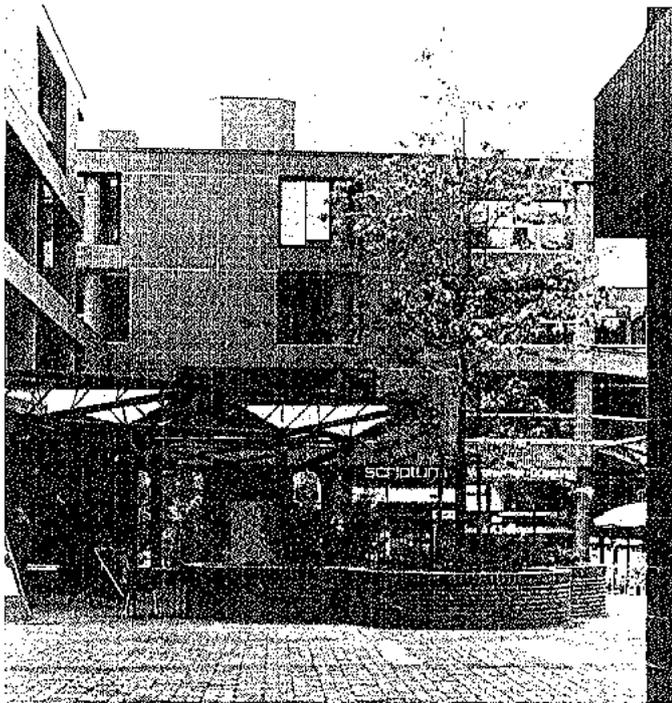
##### 2. 불력형 Complex 의 계획 실어와 향후의 발전추세

불력형 Complex 의 개발추세를 분류해 보면 대략 두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기는 불력형가구의 확보와 복합용도의 수용에 집중하는 시기이며 이 시기는 '□'형의 건물군, 중정 그리고 지하주차장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건축패턴을 이루고 있다. 후기는 변화성있는 접근을 시도하는 단계로서 도심내 시장광장 주변의 빈 땅을 개발할때 건축가 자신의 역량을 나타내보이는 다양한 건축적인 처리기법과 보수적인 시장국의 지침인 낡은 건물과의 연계를 유도하는 지구상세계획개념 사이에서 상호타협점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특히 시정부가 이들 프로젝트에 구체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의 경우 본 프로젝트들이 시의 발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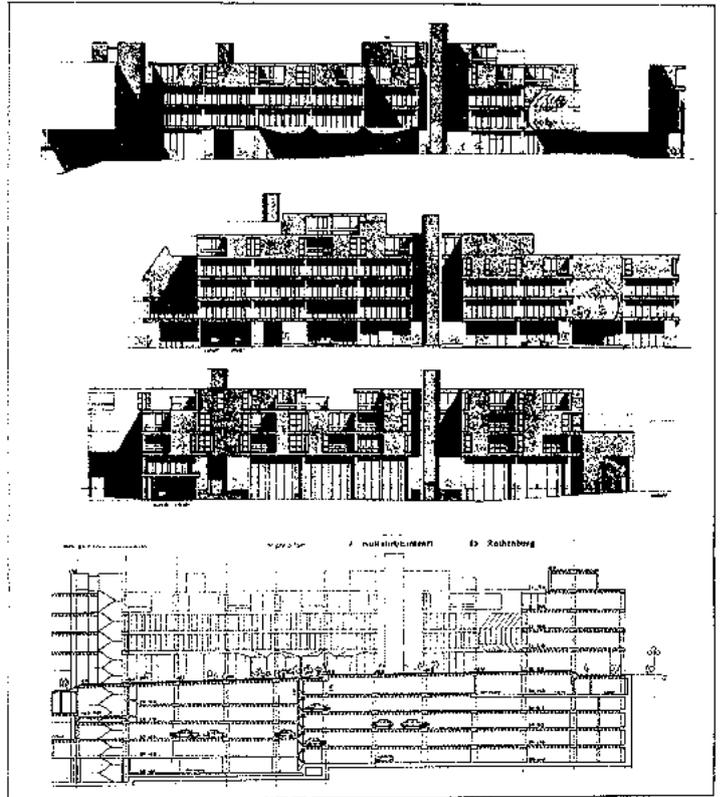
70년대 말에 시작되어 불력형 개발의 시초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던 개발사례로는 독일 서북부 Münster 시의 Aegidimarkt 를 들 수 있다. 본래 이 지역은 Münster 시 구도심 주변에 정기재래시장이 열리던 지역으로서 평시에는 빈터를 노상주차장으로 개방하였고, 일주일에 한번씩 재래시장이 열리던 장소였다. 본 계획의 발단은 이곳에 도심부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0년대 초반에

주차건물을 세우려는 계획에서 비롯되며 이 계획은 Münster 시장국에 의해 입안 되었다. 본 계획에 대해 찬반의 논쟁이 끊이지 않던중 70년대 말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타협점이 모색되어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보내되 기존에 계획한 주차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하 8m 까지 파 들어가 5개층의 주차공간(주차대수 : 796대) 06 을 확보하고 주차공간의 상부는

「상점가+사무소+주거」의 복합용도 Complex 를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Complex 의 중앙부는 공용중정을 확보하여 도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건물층수는 기존사가지의 건물 높이에 맞추어 5층으로 제한하였는 바, 1·2층에는 상가와 음식점등의 서어비스시설이, 3층은 사무소·개인병원등을, 최상부의 2개층은 메조네트형의 아파트를 배치하였다. 한편 Complex 의 공익성을 감당키 위해 계획부지의 높은 땅값에도 불구하고 시립시민대학 (VHS) 과 소규모 미술아틀리에를 Complex 내에 배치하는 것을 건축가 Dieter 는 잊지 않고 있다. 계획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상이한 기능간의 동선 분리를 위해서 건물 네모서리 계단실 부분은 현관을 상층부의 주거와 업무 공간에서만 개폐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고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연결된다. 반면에 상업 및 기타 서어비스시설은 각 건물변의 중앙부 계단을 통해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1층의 상점가는 각각 네모퉁이마다 3스팬이상 띄워서 도시간선도로의 4방향에서 이용자들이 수월하게 접근하도록 처리하였으며 건물블럭간을 연결하는 오버브리지 (Over Bridge) 는 유리 Box 로 처리하되 단순한 복도가 되지 않도록 일정한 폭을 확보했기 때문에 Snack Restaurant 을 그안에 배치할 수 있었다. Complex 부지 내부의 중정이 주민이나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건축물 주변은 입체트리스를 걸치고 그위를 착석유리로 덮어줌으로써 그늘을 제공하였고 중정바닥은 포장벽돌로 마감하되 부분 부분마다 나무를 심어줌으로써 사용자들이 쾌적하게 쉬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본 프로젝트는 크게 성공을 거두어 1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에도 임대가가 높은 고급형의 Complex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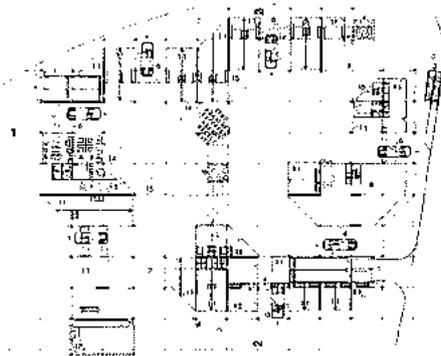
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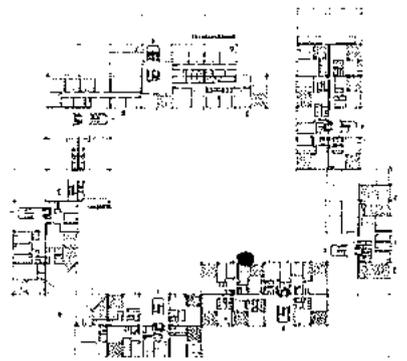
㉘

도 6. Aegidimarkt, Münster (Dieter 설계)

- ㉗ 1층중정
- ㉘ 위로부터 남측입면, 동측입면, 서측입면, 주단면도
- ㉙ 배치도
- ㉚ 1층평면도(중정+상점가)
- ㉛ 4층평면도(좌측 주거, 우측 사무소)
- ㉜ 지하층평면도(주차장)
- ㉝ 2층평면도(아파트+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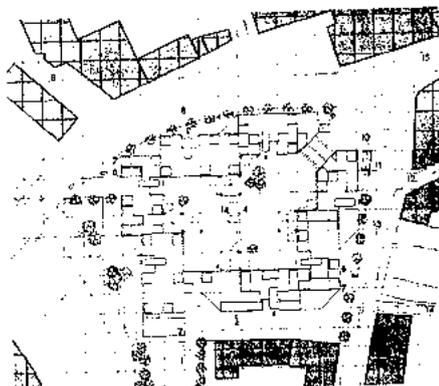


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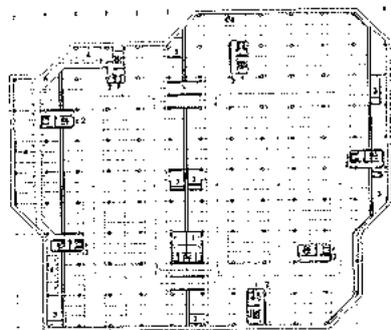


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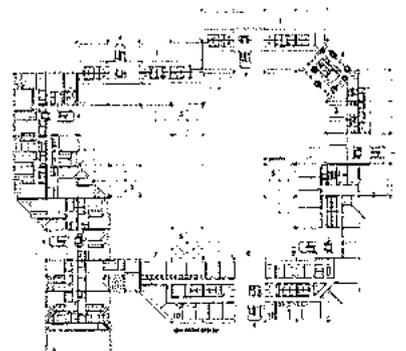
- 1. 벤트하우스 2. 중정 3. 사무소
- 4. 카페 5, 6, 7, 8. 의원



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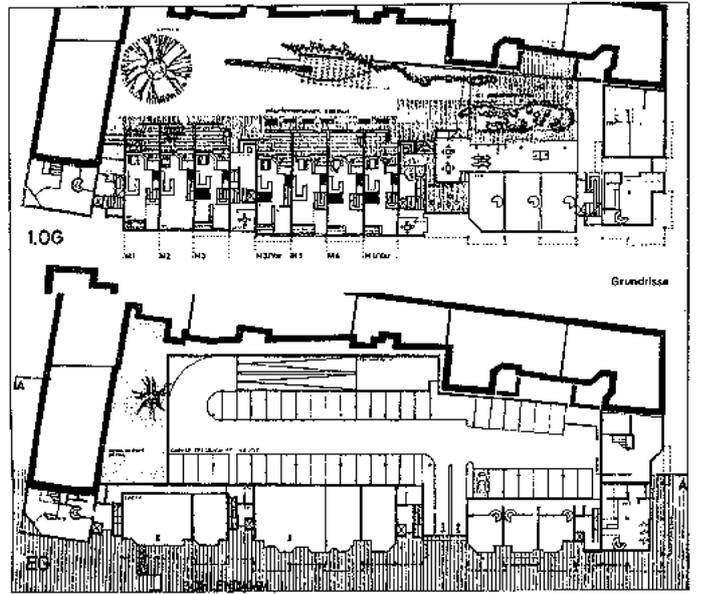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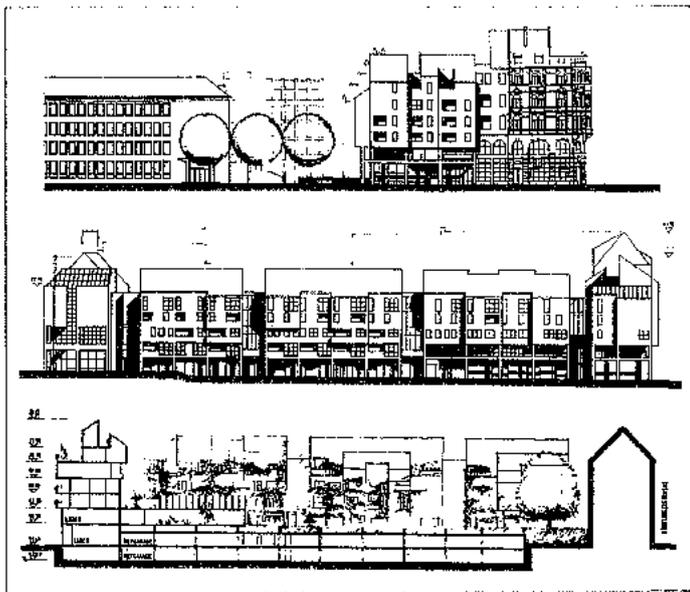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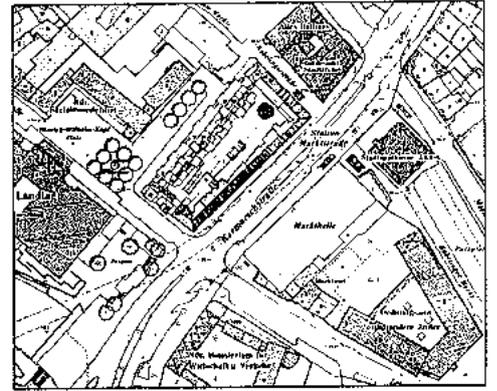


㉝



㉞

- 1, 2. 사무소 3, 4. 정객입소
- 7, 8, 9, 10, 11. 개인의원 및 진료실



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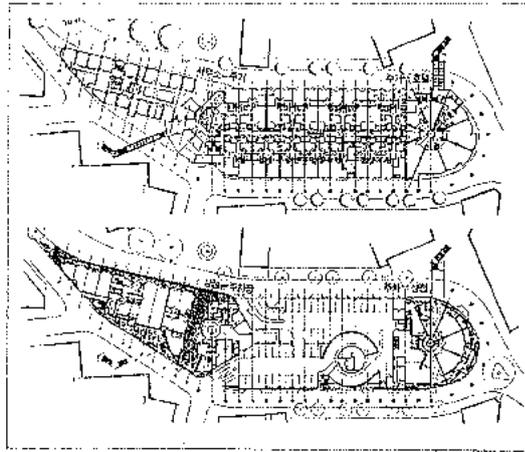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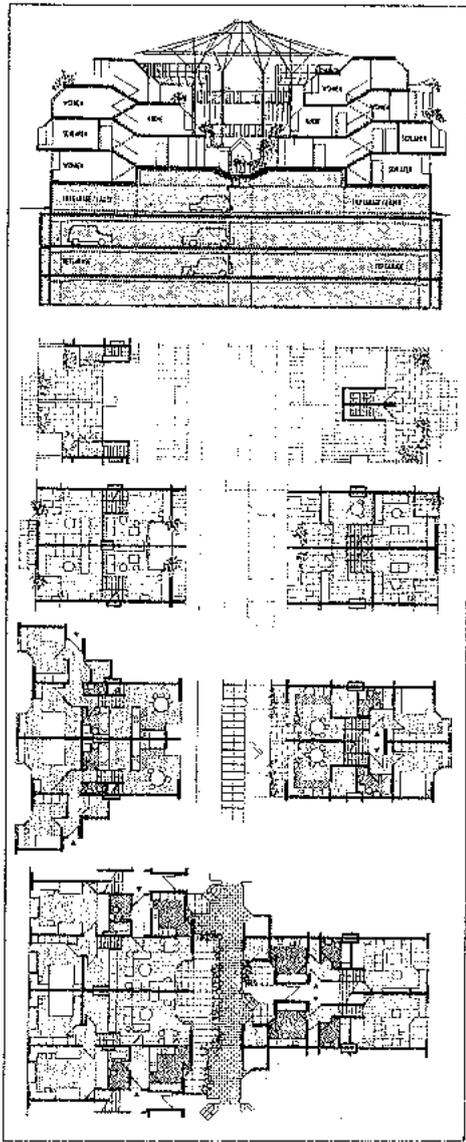
비슷한 유형의 개발사례로서 Hannover 구도심부 Bohlendamm 에 지어진 불럭형 Complex 개발사례가 있다. 본 설계 Project 역시 현상설계로 공모되었는데 현상 설계지침에서 이미 엄격한 구도심의 전통적 지역특성의 반영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계획 부지는 북부독일 Niedersachsen 주지방의회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입지상황이어서 타지역에 비해 사무실의 수요가 비교적 크고 동시에 구시가지의 전문소매상가와 연결되어 있는 입지이점 때문에 고급품 위주의 상업 수요도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 이러한 「사무소+고급상가」의 요구와 더불어

도심부내에 설치할 수 있는 양질의 주거를 본 Complex 에 존속시킴으로써 도심공동화를 방지키 위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시도하였는바 이는 복합용도 Complex 의 도시계획적 의미를 돋보이게 하는 사항이다.

한편 본 도시블럭의 한쪽에는 이미 오래된 도심형 복합용도 건물이 서있었기 때문에 새로 지어지는 본 건물과 연결시켜 'U'자형의 불럭을 완성시키려는 계획의 전체가 깔려 있었다. 따라서 1·2층의 아케이드 배치와 6층부분의 막공처리 및 경사지붕내의 다락방배치는 피할 수 없는 계획과제였으며 이 과제를 계획가 Bollmann 은 무리없이 수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럭형 개발사례와 같이 1층에는

상점이 배치되고 3·4층은 사무실이 배열되었고 특이한 점은 2층에 신문기자클럽과 소규모의 아트리에가 배열되었다는 점이다. 최상부 2개층에는 넓은 발코니를 지닌 메조네트식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으며, 지하는 2개층 깊이로 파서 공용주차장을 설치하였고 그 상부에 흙을 덮어 수목을 심은 반공용의 중정(halböffentliches Innenhof)으로 처리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건설도 계획단계에서 기대한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로써 몇년후에나 지어질 수 있던 건물뒤쪽의 증축부분까지 공기를 앞당겨 모두 완성되어서 불럭형개발의 성공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후반기의 발전단계에서는 보다 다양한



건축적인 접근의 모습을 살펴 볼 수 있는데 그 방식은 초기단계에서 수용하고 있는 인접건축물의 외형적 요소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개구부의 위치를 연계시켜 준다거나 하는 비교적 소극적인 접근방식에서 탈피하여 건축가의 역량이 프로젝트에 따라서 솔직하게 노출되는 시기이다.

독일 북서부의 도시인 Osnabrück 에 건설된 Nicoai Centrum 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서 원래 분 부지는 도심부내의 교회광장 부근의 좁고 길다란 모양의 버려진 땅과 같은 곳이었다. 도시당국에서는 분 부지내에 건축물 볼륨을 조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오랫동안 도심내의 빈땅을 공용 Bus 의 순환로와 주차장으로만

사용되었다. 70년대 후반을 접어들면서 이곳도 이웃 Münster 시의 경우처럼 도시당국이 도심부 주차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용 주차건축물을 계획하였으나 본 계획의 집행이 논의되는 단계에서 건축가 Schneider-Wessling 이 기본계획의 책임을 맡으면서 그 성격이 바뀌어졌다. 그는 다른 건축가와 시당국자들을 설득하여 주차공간은 지하에 내려 보내고 상부에는 복합용도 Complex 를 계획하였는데 부지여건이 워낙 특이하였기 때문에 심각한 부지분석과 건축물의 배열을 검토하던중 최종적으로 지하 4층의 주차장위에 물고기 모양의 Complex 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건축가의 탁월한 능력이 엿보이는 점은 좌측의 호텔과

도 7. Bohlendamms 복합용도Complex, Hannover (건축가 Bollman, Krüger)

- ㉑ 중점
- ㉒ 배치도
- ㉓ 위로부터 남측입면도 서측입면도 단면도
- ㉔ 1층평면도(上)와 지하층평면도

도 8. Nicoai-Centrum, Osnabrück시 (설계 Schneider-Wessling)

- ㉕ 위로부터 단면도, 4, 3, 2, 1층 단위주호평면도
- ㉖ 2층평면도(上)와 지하층평면도
- ㉗ 배치도
- ㉘ 전경

우측의 사무소 부분이라기 보다는 중앙부의 주거블럭의 처리기법으로서 Schneider-Wesling 은 일반 단독주택의 접근근거를 본 Complex 내에 배치한 아파트 부분에서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즉, 좁은 부지상의 2층상부 Deck 중앙에 보행로를 만들고 유리지붕을 씌우는 한편 양측에는 수목을 배열하여 좁으므로 주민은 주택가의 골목을 통해 나무가 심어있는 자기집 문앞에 도달하는 듯한 느낌을 갖도록 시도하였다. 본 방식은 당연히 Complex의 거주인에게 큰 환영을 받았으며 많은 건축가들에게도 아파트의 새로운 설계기법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건물 Facade는 시공의 용이성과 건축물의 식별성확보라는 두가지 목적을 달성키 위해 통상적인 P.C 판벽을 사용하되 단위 Module에 따라 벽과창호를 연결시켜 구획하고 외장을 청회색으로 마감처리하여 좁으므로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1층 부분은 두터운 필로티를 노출시켰고 고객들은 내측의 아케이드를 통해 비를 맞지 않으면서 아이쇼핑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본 프로젝트의 건설에 즈음하여 보수적인 Osnabrück 시민의 반응에 대해 시장국은 많은 신경을 썼지만 오히려 건설 후에는 이러한 염려는 소리없이 사라지고 본 건물이 도심부의 성장과 함께 시의 명소로 여겨졌음은 물론 일반건축가들에게도 독일내의 손꼽히는 설계사례로 각광 받을 수 있었다. 이는 다분히 건축가 Schneider-Wessling의 건축적 역량에 기인한 것이다.

또하나의 유사한 접근방식의 실례로서 Oberfranken 시의 Marktredwitz 복합용도 Complex를 들 수 있다. 본 건물이 지어진 도시는 인구 2만 정도의 소도시로서 좁은 도시간선 도로와 시장광장이 마주치는 도시중심지역에 복합상가를 지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본 설계의 단서로서 매우 조심스러운 제약요건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것은 새 건물로 인해 기존 소도시의 도시성격을 깨뜨려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계획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지역 역시 1976년의 도시재정비 계획에서 도심중앙에

공용주차건축물이 지어지도록 결정되었으며 공용주차장 확보가 본 프로젝트의 건설의의와 예산확보의 근거가 되어 있었다. 따라서 건축가 Otto Steidle은 공용주차장과 복합용도 Complex를 여하히 조화롭게 연결시키되 건축물의 외형처리에서 소도시 광장과 기존건축구성의 맥을 깨뜨리지 않는가에 신경을 썼다.

실제로 본 프로젝트의 건축용적은 3만9천㎡로서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이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기존 도시의 스케일을 손상시키지 않고 있다. 즉, Winkel 광장측의 시장광장 전면에는 4층의 「상가+주거」용 건물을 배치하되 경사층 지붕을 1개층반까지 내려뜨리고 두터운 목재기둥으로 지지시켜좁으므로 주변의 건물들과 어울리도록 처리하였다. 본 건물 역시 1·2층은 아케이드 형식의 상점가를 배열하고 외부 노출계단에서만 접근되도록 하였으며 그 상부층에는 메조네트식의 아파트를 배열하였다. 한편 광장반대편의 도심봉과 간선도로인 Leopoldstraße 측에는 5개층에 해당하는 높이에 주차건물을 배열하고 주거 및 상가 부분과 묶어 주었고 Complex의 중심부에는 중정을 배치하여 시장광장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처리하였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간선도로변 이외의 지구내 3개도로변과 광장측에서 경험되는 본 건축물의 느낌은 인접한 도시건축물과 조화되어 시민들이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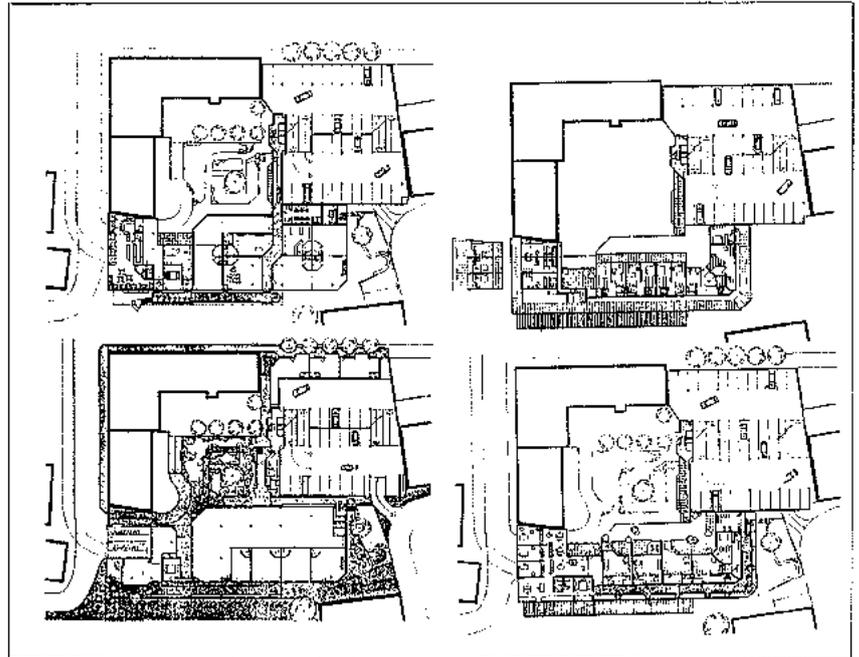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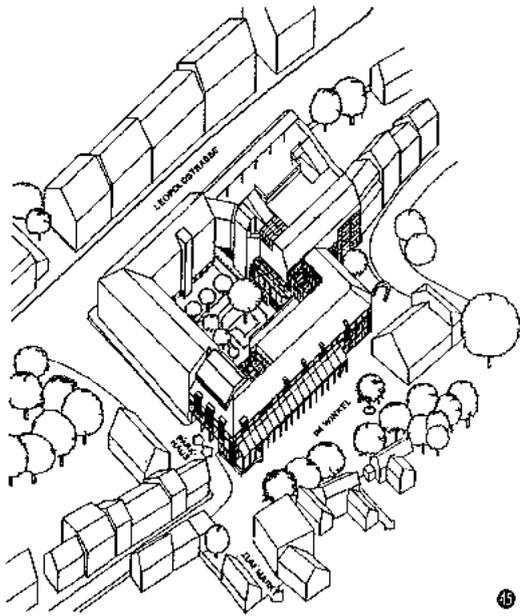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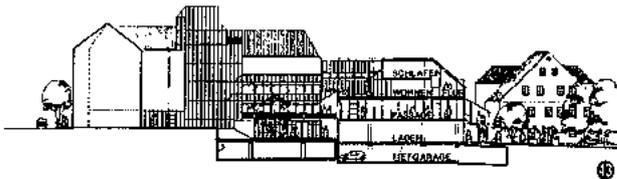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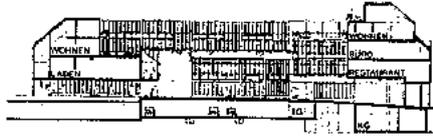
이상에서 열거한 몇가지의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즉, 고층형 Complex에 비해 블럭형 Complex의 건물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최소한 한개의 도시블럭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일반건축물에 비하여 당해 건축부지의 규모는 결코 경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다. 또한 건물규모에 어울리게 충분한 공용의 Open Space(중정)를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주고 건물부지 전체를 파내려가서 지하주차장화함으로써 도심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 특히 여러종류의 공공편의시설(학교, 아틀리에등)을 계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블럭형 Complex의 공익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블럭형 Complex 계획방식이 독일의 대부분 도시에서 긍정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도시블럭의 실제요소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주변의 기존건물과 조화를 이루어 낸다는 점이며 이는 고층건물이나 고층형 Complex에 비해 도시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고 보수적인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친밀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블럭형의 Complex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며 도시의 블럭형 개발사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5. 소 결

지금까지 독일의 복합용도 Complex의 발전경향을 대표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파악해 보았다.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방향은 대략 3단계의 발전추세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째, 기존의 역사적 건축유형의 성격을 담고 있는 도시블럭내에 끼워 넣은 복합용도건축물계획, 둘째, 60년대의 건설붐과 함께 진행되었던 도시재개발 Project로서의 고층형 Complex의 건립, 셋째, 블럭형 Complex 계획개념형을 수용하되 전통 도시블럭의 개념을 그안에 집어 넣으려는 방식이 그것이다.

이와같은 일련의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중요한 사실은 건축가와 도시당국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통도시의 구성개념을 유지하면서도 건축가 자신의 역량에 따라서 건물의 특성을 개별건물에 내보일 수 있었다는 점이며, 이것은 독일지역에 복합용도 Complex의 건설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었던 주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복합용도 Complex를 단순히 고층의 대규모 Project로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독일의 발전추세와 각 발전단계 별로 노출되었던 문제점들은 장래의 복합용도 Complex의 계획과 관련하여 국내의 건축가와 도시설계자들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호에 계속될 미국의 발전추세와 더불어 상호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계획좌표를 설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H. Adrian, Zur Diskussion der Innenstadt, Stadt Hannover, 1972
2. CITY-ARCHITEICTENSGEMEINSCHAFT, Das Innezentrum, 1970
3. Innezentrum in Stadt Hannover, Informationsblatt von Planungsamt
4. L. Bass, Columbus Center, Neue Heimat 877
5. J. Dieckmann, Wohnen am Aegidimarkt um Mitnster, Bauwelt Heft 34, 1980
6. Rump, Nicolci-Centrum, Bauwelt Heft 19, 1982
7. Wohnen und Geschäft am Nicoleilot, Projektbeschreibung, 1984
8. M. Schonlau, Wohnen und Geschäftshaus it Parkhaus in Marktedwitz, Bauwelt Heft 19, 1982
9. F. Spengelin, Wohnen in den Städten, Lamspringe verlag, 1985
10. Oh, Deog-Seong Funktionsgemischte Komplexe, Diss, Universität Hannover, 1989
11. 木村觀光外, 유럽의 都市再開發, 李東根譯, 技文堂, 1988

도 9. Marktredwitz, Oberfranken시

(설계: O. Steid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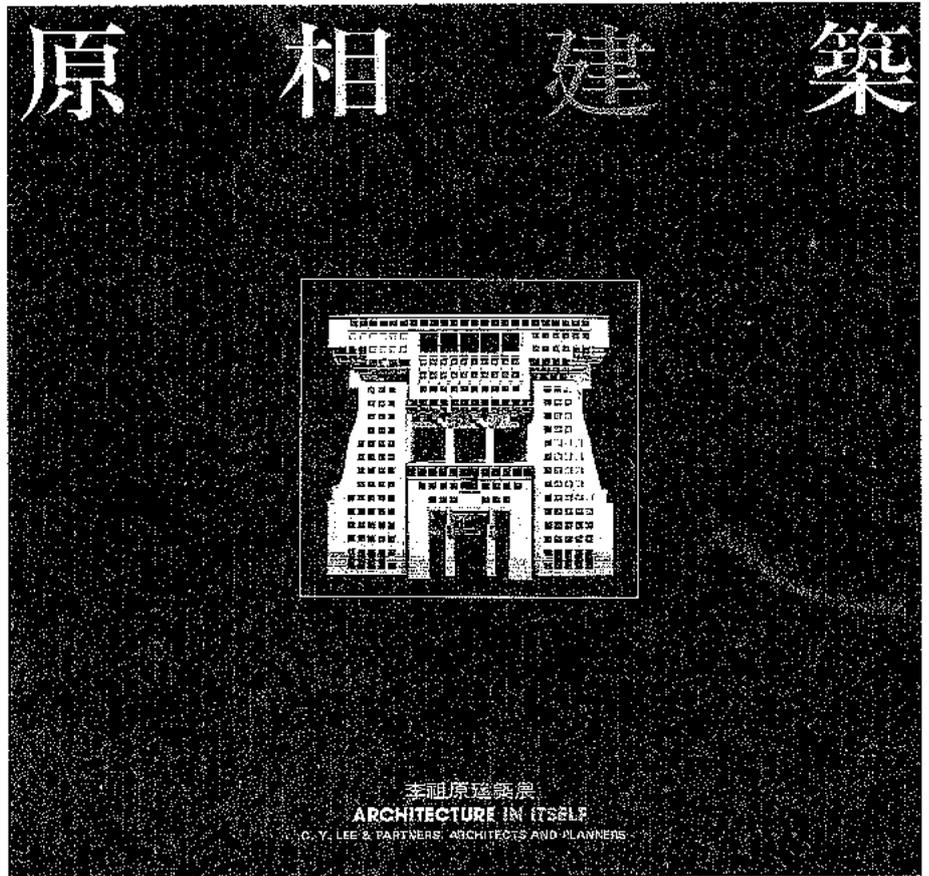
- ㉑ 동서측단면도
- ㉒ 남북측단면도
- ㉓ 전경
- ㉔ 아이소메트릭
- ㉕ 左下부터 시계방향으로  
1층(상가+주차), 2층(상가+주차),  
4층(주거+주차), 3층(주거+주차) 평면도

# 寶島의 建築家

China Taipei's Architect: Lee, Jo-Won

## ■ 李祖原

- 民國 27年(1938年) 12月 30日 廣東省揭陽縣에서 出生
- 成功大學 建築工程系 졸업후 美國 Princeton 大學에서 建築藝術 碩士학위를 취득하였으며
- 1965년 Fulmer & Bowers, 建築師事務所 設計師
- 1966년 Nolen, Swinburne & Associates, 建築師事務所 設計師
- 1967년 美國 Boston 都市設計計劃發展研究所 建築師
- 1968년 中華工程顧問公司 建築顧問
- 1970년~75년 中國都市計劃設計中心 主任設計師 등
- 1976년 William L. Preira, 建築師事務所 副總裁를 거쳐
- 1978년부터 현재까지 李祖原建築師事務所를 운영하고 있으며,
- 1962년부터 東海大學 建築系(62), 中國文化大學 觀光系(70), 中原大學 建築系(71), 中原理工學院 建築系 兼任副教授(71)로 講壇에 서기도 했다.



지난 10월 7일 台北市立美術館에서는 台灣建築界의 조그만 바람이 일어났다. 그것은 台灣의 지명한 건축가 李祖原의 작품전시회로 台灣 최초의 建築展이기도 했다. 台灣의 대표적인 일간신문 「中國時報」에서도 커다란 지면을 할애하여 그에 대한 石山修武(日本 甲稻大學建築系 敎授 겸 건축가)의 『건축에 생명을 불어 넣는 마술사』라는 題下의 특집기사를 다루었다. 이 전시회는 11월 5일까지 거의 한달에 걸쳐서 전시되었는데 남녀노소, 전문가와 문외한을 막론하고 많은 호평과 감흥을 불러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그의 작품에 대한 설명과 그의 건축 개념을 독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주로 미국과 유럽, 일본을 위주로 한 현대건축의 이해에서 작은 중국, 또 다른 중국으로 일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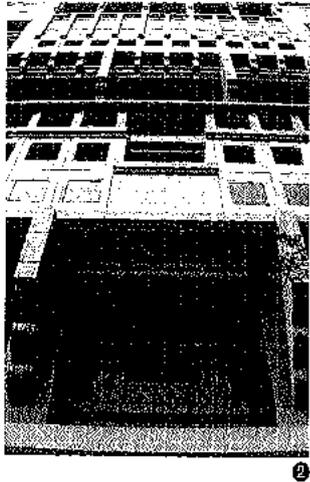
어지는 台灣의 현대건축을 이해하여 폭넓은 건축의 동향을 받아 드라는데 도움이 되게 한다.

이 글에서는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와 그에 대한 비평은 전혀 들어가 있지 못함에 대하여 먼저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따라서 이 글은 전시회의 상황과 石山修武의 李祖原論 요지, 그리고 그의 작품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사진을 덧붙일 뿐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만의 건축설계방면의 수준은 세계정상과 어깨를 겨룰 정도의 상당한 단계에 올라가 있으며 우리나라 建築界와도 활발한 교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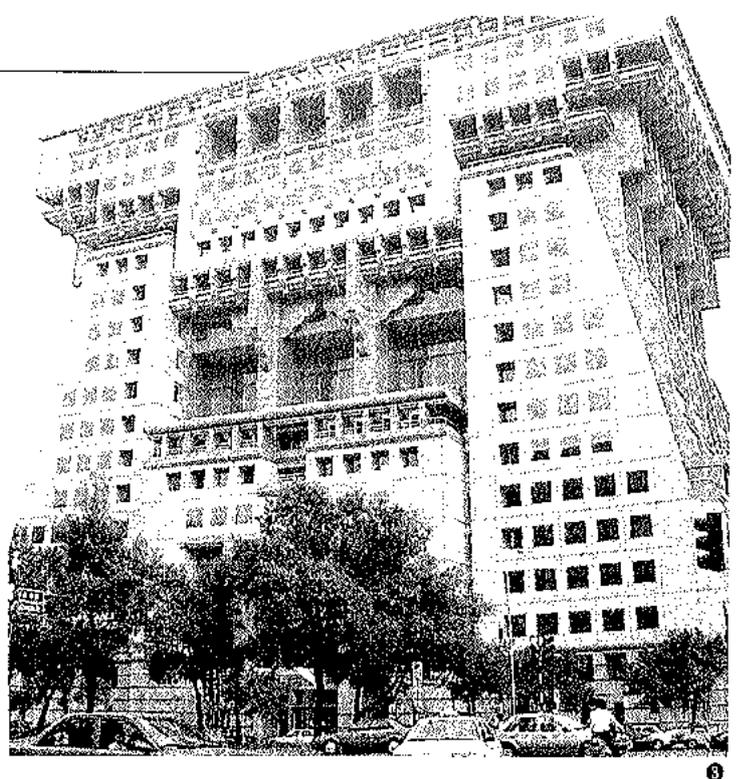
■ 筆者註 ■

韓東洙/國立台灣大學 建築與城鄉研究所

\* 寶島: 台灣의 별칭으로 영어로는 Formosa라는 이름도 갖고 있으며 美麗島라고도 한다.



① 원상건축전 카디로그  
 ② 宏國敦北빌딩  
 ③ 宏國敦北빌딩전경



## 1. 原相建築-李祖原 建築設計展

전시회는 1989년 10월 7일부터 11월 5일까지 台北市 中山北路 三段 181號에 위치한 台北市立美術館 지하전시장에서 열렸다. 전시회의 테마는 과거 10년간 李祖原이 설계한 건축작품 속에 내재된 그의 건축이념인 「原相建築」이라고 붙여졌다. 전시물의 대부분은 정교하게 제작된 건축모형들이었고 약간의 스케치와 평면도가 곁들여졌다. 특이한 것은 전시장 전체가 하나의 환상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관람자로 하여금 視覺의 경이로운 여행을 하는 것 같이 느끼게 한 것이다. 이러한 전시 공간은 이조원건축전의 일부로서 관람자가 전체를 한바퀴 돌아보고 나오게 되면 그들로 하여금 原相建築에 대해서 觀念과 視覺上的 이중적 탐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었다. 또한 이조원 건축어휘의 근원인 중국의 전통적인 호리병 곡선이 공간을 장식하고 있었으며, 중국의 전통 書法과 山水畫의 색채가 조화를 이루어 일종의 관념적이고 고정된 전시방법에서 탈피하여 신선하고도 획기적인 전시방법을 추구하고 있었다.

전시된 모형의 대부분은 초고층빌딩이었고 약간의 고층아파트와 연립주택 大學 Master Plan, 公共建築(예를 들어 台北기차역계획안, 中央研究院 등)들이 보조를 이루고 있었다. 소개된 대표적인 초고층 빌딩으로는 高雄의 世貿聯合國(長谷建設, 50층), 東帝士빌딩(82층), 台北의 花開富貴빌딩(126층, 계획안)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병행된 것은 石山修武의 李氏 작품에 관한 강연으로 슬라이드를 사용하여 李祖原 작품의 경향과 그 내용에 대한 설명, 현대 건축의 흐름과 관련지는 비평형식의 강연이었다.

다음은 石山修武의 강연 내용이다.

## 2. 石山修武의 李祖原論

동일한 시대에 살고, 또 건축가라는 동일한 직업을 갖고서 李氏같은 건축가를 평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다. 특히 그에 대해서 형식상의 찬미를 한다거나 세속적인 안목에 의존하여 그에게 全 台灣建築界에 있어서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현대의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건축가로 볼 의도는 없다. 李氏는 생각하는 목표가 원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서서 李氏 및 李氏의 작품을 평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자신이 없고, 또한 스스로 냉정하고 정밀하게 이 모든 것을 비평할 방법은 없는 것 같다.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본인이 단지 그의 친구라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의 건축 및 건축에 대한 그의 견해를 알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게다가 일상생활 혹은 건축방법을 막론하고 李氏는 모두 나의 대선배인 까닭에 본인은 그에 대해서 줄곧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바로 李氏의 현재 작업 근거지이다. 왜냐하면 台北와 東京 사이에는 불편한 국제관계 외에도 거대한 바다, 심지어 時差까지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피차의 거리는 결코 가깝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의 현대건축가들 거리상으로 더욱 歐美의 건축가들을 오히려 가깝게 느끼는데 이것은 그들이 歐美의 건축정보에 대해서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이고, 거리상으로 더 가까운 한국 및 대만의 건축가들에 대해서는 마음속에 생각하고 빈민하고 기대하는 바의 모든 것을 냉정한 태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벗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젊은 대만의 건축가들도 마찬가지로이다. 사실상 몇년전까지 줄곧, 또 본인과 李氏가 서로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와 같았다.

李氏의 개성은 충분히 매력적이고, 성실하고 조금도 교만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대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미국에 건너가서 건축수업을 받고 그곳에서 상당기간 활동을 하면서 미국의 人文主義 영향을 받은 탓인 것 같다. 그는 전 세계를 향해서 國際性과 本土性의 문제를 깊이있고 조금도 편벽됨이 없이 드러내는 극소수 아시아 건축가의 한 사람이다. 아울러 李氏는 중국사회 및 그 유구한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歐洲의 世界史와 서로 대항하기에 충분하고 그가 더 한층 깊은 국제문화를 계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일본의 현대건축가들 중에 약간의 사람들을 李氏와 비교해 보면 국제성과 본토성의 문제에 더욱 침예하게 정력을 쏟고 있는데, 공정한 입장에서 서서 보면, 그들은 모두 李氏의 깊이에 미치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깊이라는 것은 당연히 경제나 기술상의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 속에 내재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있는 모든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시아나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건축가인 李氏가 각 방면에서 갖고 있는 역량을 따져보면 우선적으로 세계의 영광은 응당히 그에게 속하지 않을 수가 없다. 李氏가 서 있는 곳은 바로 문제의 重心이다.

내가 처음으로 李氏의 存在를 안 것은 결코 오래 전의 일이 아니고 1985년 台北에서 개최된 東京 및 台灣의 젊은 세대건축가들이 참가한 토론회의 석상에서였다. 회의 이후의 성과는 상당히 풍성했을 뿐만 아니라 전람회도 거행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나와 일본의 다른 건축가들은 똑같이 李氏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남기게 되었다. 그 중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끈 것은 바로 충만한 창작정력이었고 아울러 놀라움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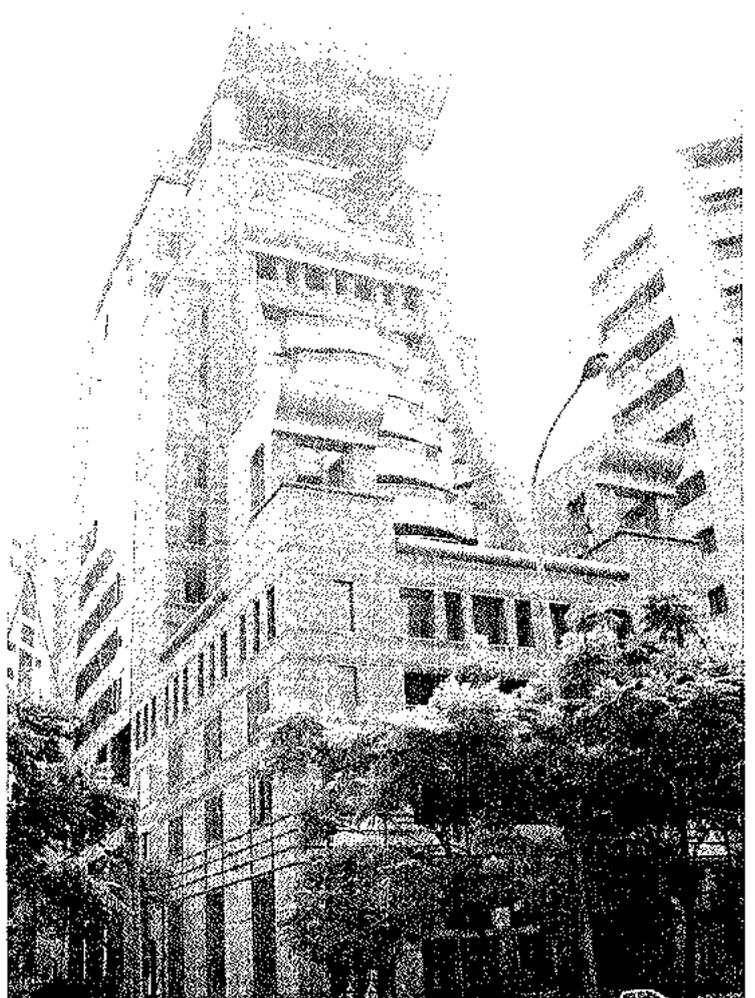
台北市的 國民住宅11은 아주 논쟁이 많은 건축인 것 같았는데 논쟁을 일으킨 것은 결코 시공의 조형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생각이 나는 데 李氏는 그러한 주택의 윤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집착을 갖고 있는 듯 하며, 이것은 바로 그 창작에너지의 소개지이기도 하다. 그는 台灣의 전통조형장식을 지붕위에서만 아니라 주택의 지붕을 설계하여 하늘을 두개의 반원형상으로 나누는데까지 이르게 하였는데 이것은 李氏의 억제할 수 없는 본능에서 나온 문제의식을 나타낸다. 그는 비록 미국에서 건축수업을 받았지만 항상 자신이 중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외부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우리로 하여금 크게 감동받게 하는 일이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갖고 있는 技術이 결코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깊이 체험하게 한다. 그것의 좋은 예는 바로 國立藝術學院으로, 이 건물은 國民住宅의 지붕윤곽이 흘러가며 날아가는 듯한 운동감과 좋은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정숙하고 대범한 力量을 표현하여 냈다. 평면구조의 線은 내부공간과 연속되어 하나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어느 한곳을 막론하고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져, 입구의 거대한 牌樓(牌樓)<sup>2)</sup>에서부터 작은 계단과 中庭·연못을 거쳐 직접 옥상의 정원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 과정은 단 한곳도 폐쇄되지 않고 원만하고 자유스러운 공간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감각은 動에서 靜으로, 靜에서 動으로 옮겨 가고, 건축공간의 관계에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품과 다른 작품과의 관계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 그 창작의 에너지와 脈動은 그의 모든 작품을 꿰뚫고 있으며 동시에 本土風味를 가장 잘 갖추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中國의 風味인 것이다.

李氏가 설계한 건축물의 외관은 國際性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本國(中國)의 風格을 계승하고 있는데 中國式의 장식과 외형을 채용하는 것 이외에 현재 공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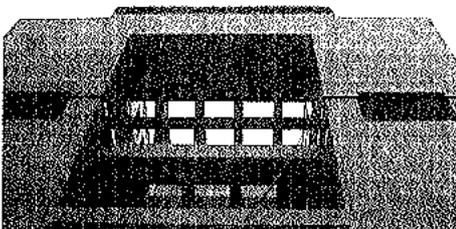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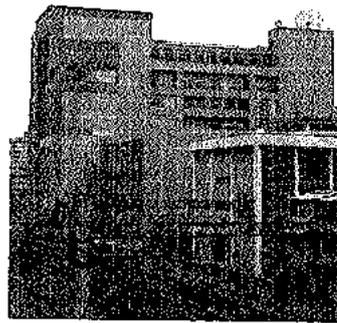




구조를 각 작품과 연관 짓고 외관상에서 더 한층 깊게 표현하고 있다.

李氏 본인 및 그 작품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台北를 방문한 흥미는 한층 더해간다. 어떤 때에는 李氏와 동행하고, 어떤 때는 혼자서 몰래 李氏가 책임을 지고 있는 건물의 공사현장을 순시했다. 李氏 건축의 관찰과 그가 마음 속에 생각하고 동경하는 사물을 상상해 보는 것은 종종 나를 격려할 수 있을 뿐이었지 어지껏 실망시켜 본 적은 없다. 특히 그가 일을 할 때의 그 매력이라는 것은 나에게 극도의 전율감을 가져다 준다. 얼마전 歐洲에서 돌아오는 길에 台灣에 들려 李氏의 작품을 보게 되었는데 그의 작품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금씩 조금씩 완벽을 향하여 완성되어가고 있었고 나 자신을 더욱 격려하고 있었다. 여러 차례 歐洲에 가서 그곳의 현대건축 및 고전건축을 경험하고, 어쩌다 회교건축을 배우러 가서 그것에 깊이 빠져버려 패배와 좌절의 심정을 안고 아시아로 돌아온 후에 李氏의 작품을 보면 또 새로운 투지가 생겨난다. 확실히 아시아는 아시아 특유의 風格과 手法이 있고 이러한 것은 바로 서구와 대항할 수 있고 그 위에 올라설 수 있는 힘으로, 李氏의 건축작품 및 그 작업태도가 나를 여러차례 격려할 수 있었던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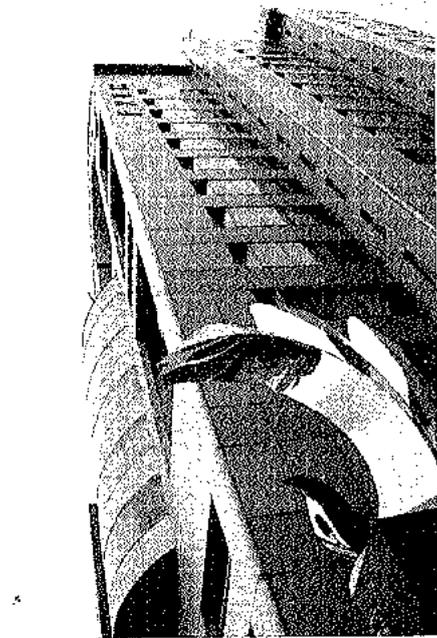
台北市內에 있는 東王漢宮과 三商빌딩은 李氏의 건축이 이미 세계 수준에 이르렀던 시기의 대표작품이다. 이 일을 인정하기 위해서 나는 「C.A」의 二川幸夫氏와 함께 李氏의 모든 작품을 한바퀴 순시를 한적이 있는데 사실 여러 독자들도 알고 있겠지만 二川幸夫氏는 금세기 건축평론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가 건축을 관찰하는 안목은 가히 세계 일류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그가 3일의 시간을 소비하여 李氏의 건축작품을 보고 난 이후 말하기를 「石山, 상당히 괜찮은 작품들인데! 금후에



- ④ 環亞호텔
- ⑥ 福邦빌딩
- ⑦ 大安國民住宅
- ⑧ ⑩ 中國時報빌딩



12



13

12 13 三商빌딩

만드시 두드러질걸세」라고 하였다.

李氏의 창작에너지는 2가지 방향에서 동시에 발전하고 있는데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것은 바로 그의 특색이다.

이러한 점에 관해서 三商빌딩과 東王漢宮은 유감없이 재료사용 방법을 드러내고 있는데 전자는 金屬嵌板을 쓰고 후자는 벽돌식 타일을 쓰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한편으로 고도의 과학기술적인 국제성 건축재료를 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급한 과학기술적 本土式 건축재료를 쓰고 있다. 그러나 두 건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양자 사이에는 공통적인 특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東王漢宮의 독특한 지붕조형은 바로 李氏의 독창적인 설계인데 이것은 곧 台北市 國民住宅의 윤곽에서부터 그후 점차 발전해 나온 심혈의 결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전은 國立藝術學院의 독창적 지붕으로 발전해 나왔다. 그러나 만드시 주의해서 관찰해야 할 것은 이 건축물 내에 있는 입체적인 開放空間들과 공간의 틈이 만들어내는 공간인 것이다. 李氏는 건축물 전체로 하여금 활력이 충만한 선을 가져오게 하는 것 이외에 그 중심에 의도적으로 개방된 큰 공간을 남겨둔다. 예를들어 三商빌딩의 중심에 있는 수직상태의 개방공간이 바로 그것이다.

李氏의 건축작품은 중국식 조형과 격조를 역력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찬탄을 마지않게 하고 현대 水墨畫의 경계 속으로 빠져들어 가게 한다. 그가 묘사해 내는 수묵화의 경계 속에서 그

건축작품의 독특한 風格을 시원스럽게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流動力(氣勢)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墨色의 농담표현을 빌어서 이러한 기세를 무한의 공간 속으로 휘몰아 들어가게 하고 아울러 畫布 위에 불가사의한 무수한 공백을 만들어 낸다. 이것이 바로 李氏 건축작품의 독특한 기본특질인 것이다.

李氏의 작품에서 구체적인 장식성의 조형을 모아 보면 그것이 갖추고 있는 순수한 전통주의의 風格을 알 수 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상업주의라고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표피적인 안목에서 본 것에 불과하다. 일단 이러한 관점으로 그의 작품들을 본다면 그 내부의 기존적인 특질들은 투시할 방도가 없다.

아마도 금년 1월인가 보다. 본인이 인도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台北의 李氏 사무실에 들렀었다. 당시 그는 베니스에서 열리고 있는 超高層빌딩계획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으나 나를 위해서 급히 귀국하여 그날 밤 나에게 자신의 최신 작품모형을 보여주고 당시 설계책임 맡고 있던 中國時報 본사현장을 보여 주었다.

台北에 머물던 그날 밤의 인상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행했던 인도에서의 갖가지 인상을 대신하였다. 특히 사무소 한구석에 진열되어 있던 적지 않은 수의 고층건물 모형은 나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 주었다.

금년 봄, 나는 그를 숙이고 몰래 공사현장을 가서 李氏의 강렬한 창작력과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려는 시도를 보았다. 동경에 돌아온 후, 나는 二川幸夫氏에게 말하기를 「CYLEE의 건축작품이 날로 기세를 얻고 있더군요!」라고 했다.

二川氏는 「그 친구 이제는 문제 없어. 어느날 아침에 돌연 국제무대에 두박을 나타낼 걸세! 그러나 자신 만만해서는 안되네!」라고 대답했다.

우리들은 李氏의 작품에서 우리들의 未來와 우리의 夢想을 맡길 수 있을지? 또 李氏가 아시아를 기반으로 하여 國際性의 지평선을 초월하여 하나의 광활한 天地를 개척할 수 있을지? 이 모든 것은 내가 그의 건축에 내 맡길 하나의 夢想이다.

李氏는 유일하게 단시간내에 나의 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건축가이다.

註)

- 1) 台北市 大安區에 있는 國民住宅을 가르킴.
- 2) 牌樓: 현관을 건 입구의 문으로 곧 樓門을 말한다.

## 대법원청사 현상설계공모 수상작 발표

### ■ 공모 개요

서울시 서초동에 세워질 대법원청사의 현상공모 당선작이 지난 11월 24일 발표되었다.

이번 공모에는 총 27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심사결과 원도시건축(대표 : 윤승중+변용)안 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으며, 금성건축(대표 : 한종언)안, 삼우건축(대표 : 김창수)안, 진원건축(대표 : 박영건)안이 각각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원도시건축의 작품은 건물연면적 16,468평의 지하층, 지상7층의 철근콘크리트건물로서 설계내용에 있어 기능면에서 우수하고 자연지형을 잘 이용하였으며, 건물외관이 주변건물등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심사평을 받았으며, 본지에서는 최우수작1점과, 우수작3점의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

심사위원 및 설계지침은 다음과 같다.

#### 〈당선작〉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案

#### 〈우수작〉

- (주) 종합건축사사무소 금성案
- (주)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案
- 종합건축사사무소 진원案

### ■ 심사위원

- 위 원 장 : 김석수(법원행정처 차장)
- 부위원장 : 이임수(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 위 원 : 이광로(서울대 교수)
- 위 원 : 송종석(연세대 교수)
- 위 원 : 이정덕(고려대 교수)
- 위 원 : 김진일(한양대 교수)
- 위 원 : 안영배(시립대 교수)
- 위 원 : 신창동(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 위 원 : 최종영(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신축청사는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에 있어 국회의사당과 대등함이 나타날 수 있어야 함.
- 신축청사는 주변건물등 주위환경을 포용하여 빔조의 중심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어야 함.
- 대법원의 기능과 조직은 현재의 법원조직법을 기초로 하되, 장차 기능상의 변화, 조직증대등을 고려하여야 함.
- 장래의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활용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고려하여야 함.

### ■ 설계지침

#### ○ 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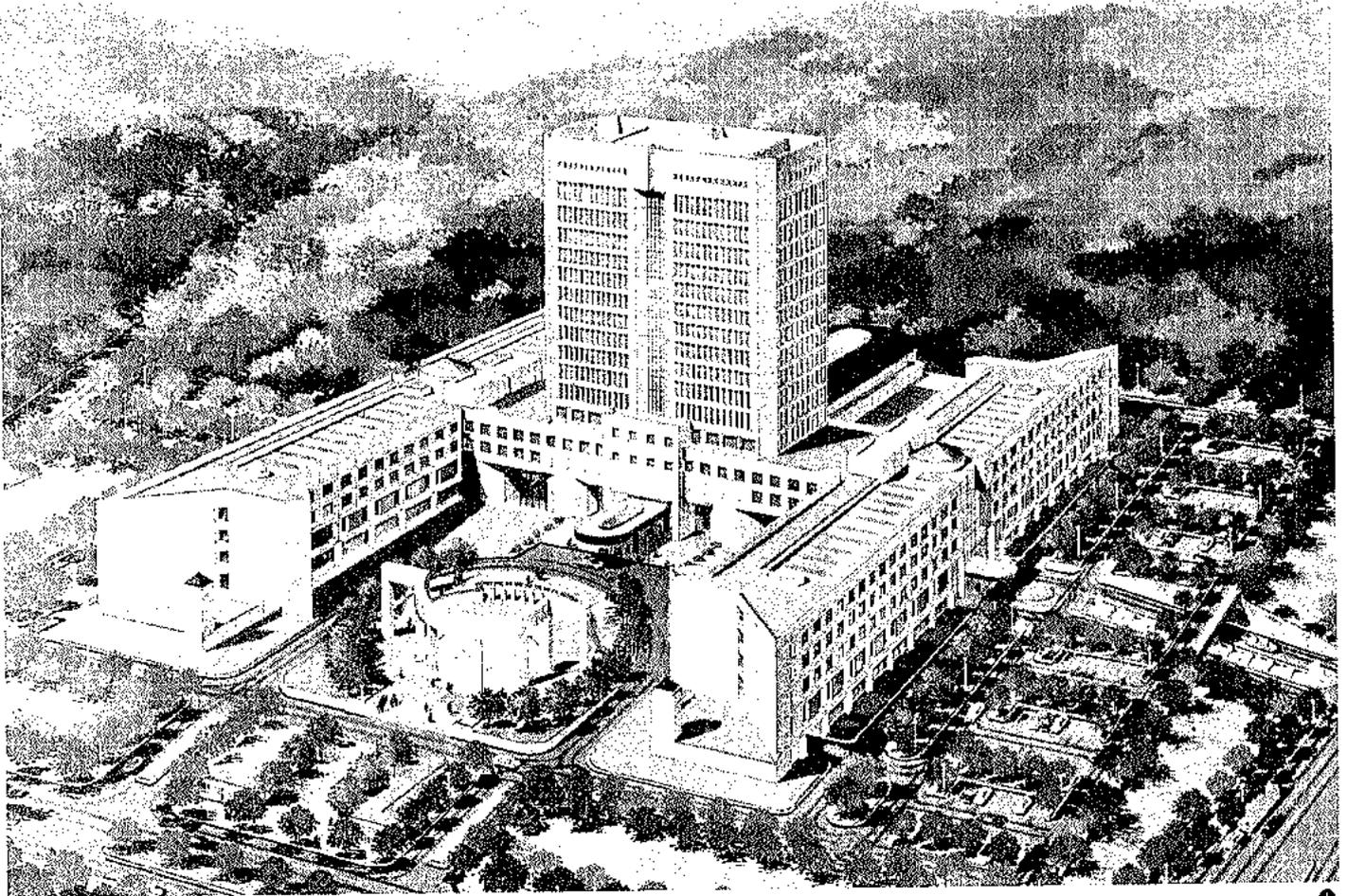
- 신축청사는 후세에 물려줄 사법의 전당으로서 법과 정의의 상징하는 장중한 건물이 되어야 함.
- 신축청사는 사법의 중추임을 형상화 하되, 한국문화의 전통과 예술적 감각을 아울러 갖추며, 이 시대 건축예술의 정수를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함.

#### 〈토지이용〉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번지 일대
- 대지면적 : 56,275 · 1㎡(17,032평)
- 건축규모 : 연면적 49,587㎡(15,000평) ±10%
- 수용기간 :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 소요예산액(추정)  
공사비 : 약365억원  
설계·감리비 : 약10억원

당선작

원도시종합건축案(대표:尹承重+十鎔)



■ 설계개요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  
 대지면적/56,275 · 1m<sup>2</sup>  
 건축면적/8,724m<sup>2</sup>  
 연면적/54,344m<sup>2</sup>  
 건폐율/15.5%  
 용적율/82.4%  
 건축물 최고높이/74.2m

■ 배치계획

• 도시가로축의 순용  
 기존의 도시축은 계획대지의 남쪽을 가로지르는 폭 50M의 테헤란로가 동서로 이어지므로 계획건물의 주입면을 도시축에 맞추어 정면성을 가지도록 배치하여 기존 가로 Image에 순용시킨다. 한편 내지 중앙으로부터 남북으로 가로지르도록 배치주축을 형성하여 청사건물의 상징성을 부각시킨다.

• 한국적 배치개념  
 외부공간(중정)을 둘러싸고 주위에 시설군을 배치하는 전통건축의 일반적 방식으로 배치하였고 여기에서 외부공간은 각 시설군의 중심공간이 될 뿐만 아니라 각 시설군간의 연결점이 되도록

하였다. 배치주축을 따라 상징문-중정(광장)-본관-법정으로 이어지며 주축으로부터 좌우대칭으로 건물군이 배치되는 한국궁궐 건축의 외부공간 배치개념을 구성하였다.

• 기능중심의 외부 동선체계  
 평면 계획에 있어 4개의 건물군을 기능별로 접합시켜 각 Zone 별로 차량, 보행자 서비스 동선 등 각각의 동선을 분리시켜 건물기능에 맞는 독립적이고 자연스런 동선을 유도하며 공간적인 위계 질서를 조성하였고 중앙광장을 매개공간으로 두어 출입자(외부인)의 집중 및 분산에 유리하도록 단지계획의 합리적 질서를 부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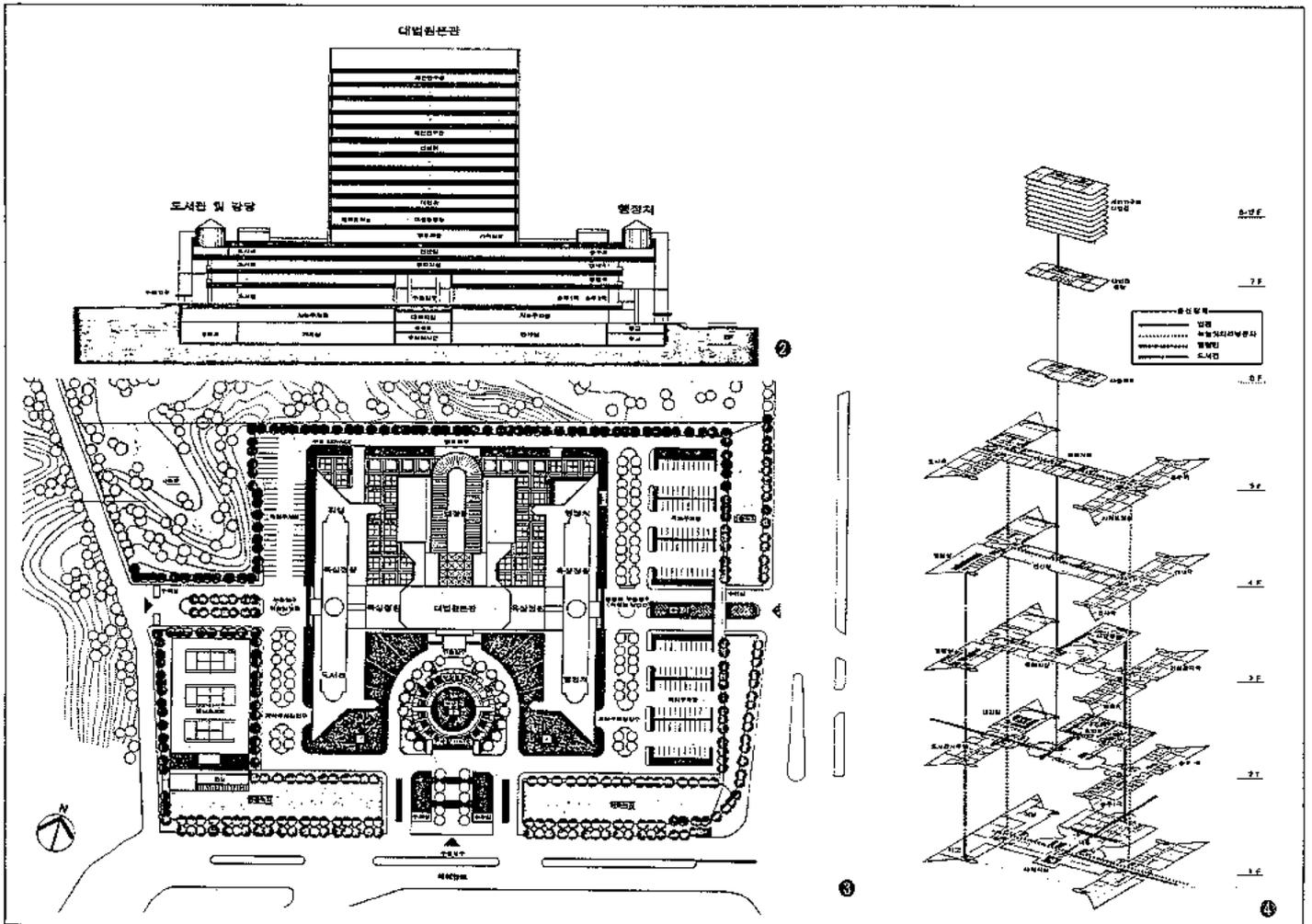
• 토지 이용의 극대화

기존의 지체를 되도록 유지하고 경사도 15%미만의 이용가능한 대지에 시설건물군을 중앙에 집중배치하여 건축면적은 최대한 줄이므로 넓은 중앙광장과 옥외주차 공간 그리고 단지내 최대한의 녹지공간의 확보등으로 이상적인 도시환경의 조성에 힘쓰고자 했다.

■ 평면계획

• 평면 Zoning  
 대법원의 세기능(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을 중앙 1개의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평면상 3개의 Zone으로 크게 나누고 다시 각 영역을 6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며 타 영역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 ① 투시도
- ② 횡단면도
- ③ 배치도
- ④ 내부동선계획



위하여 수출입구를 중심으로 2개의 부출입구를 두었다. 한편 계획 주축을 중심으로 평면을 최우대청으로 배치시켜 균계와 공간구성의 엄숙한 위계성을 나타내었다.

• 동선의 분리

1개의 주출입구와 2개의 부출입구에 의해 법관, 사무직원, 일반인의 내부 동선을 구분하고 지하주차장과 옥외 주차장으로 통하는 외부동선을 연결시키는 한편 기능별로 동선을 구분시켜 놓으므로 각 동선간이 교차함으로써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Service 동선을 저층부, 고층부의 각 Core로 한정시켜 동선의 길이를 단축화하고자 했다.

■ 입면계획

- 대법원이 가져야 할 상징적 성격은 사법부의 독립과 범조의 중심임을 형성화 하기위해 수직요소(고층부)의 도입등으로 기념비적인 스케일을 구사하여 위엄있는 감동을 유발하고자 했다.
- 좌우 내장면은 고건축이 갖는 비례율을 따르며 규범적인 형태 요소를 구사하여 중후한 외관을 형성하며 배치 주축 좌우로 내칭구성함으로써 엄격함, 장엄함의 이미지를 갖는다
-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외벽의 주마감재료를 화강석과 알루미늄을 사용 클래식과 모던을 대비시킴으로서 재료에 의한 건물의 상징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 단면계획

- 저층부에 법원 도서관과 법원 행정처를 각각 좌우에 두고 중앙에 대법원 본관을 돌로써 직능상 위계질서와 저, 고층부의 조화로 안정감있는 비례감을 가진다.
- 기능별 수직 Zone (대법원 본관/법관 Zone), 법원 행정처(사부 Zone), 법원 도서관 Zone, 법정 Zone 으로 기능을 크게 분류하여 각 기능이 혼재하지 않도록 수직으로 분리시켜 각 기능의 독자성을 확보토록 한다.

■ 동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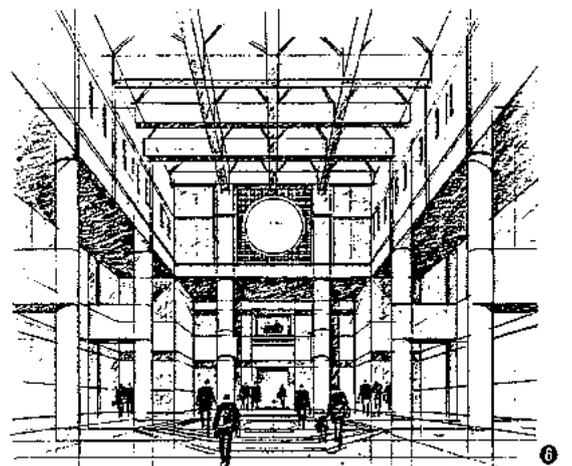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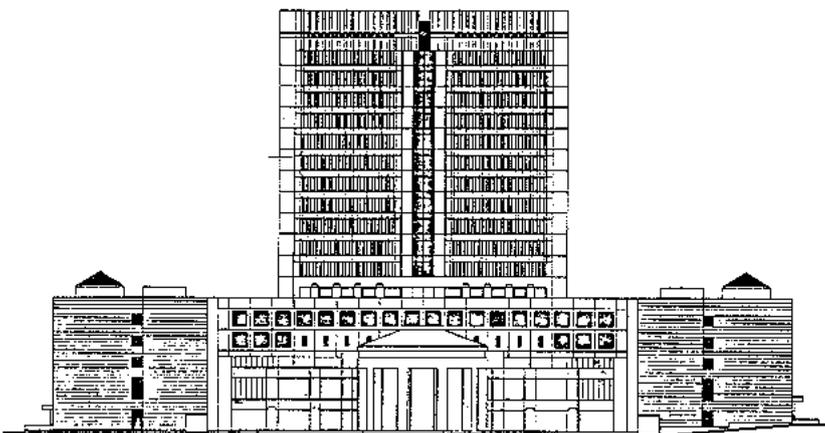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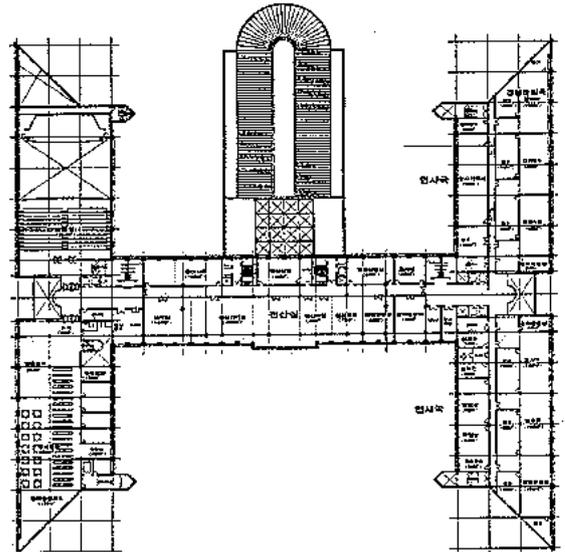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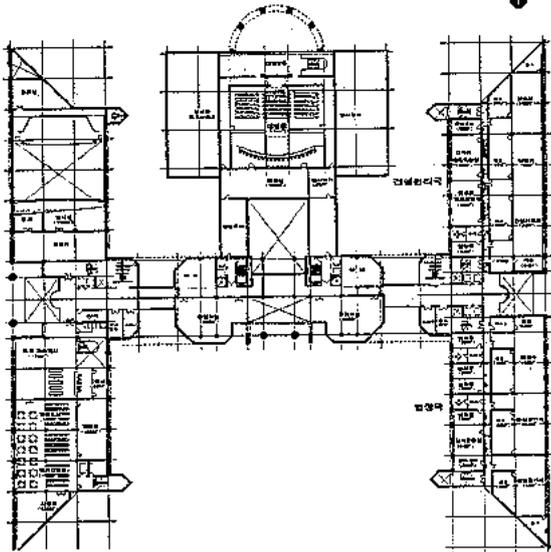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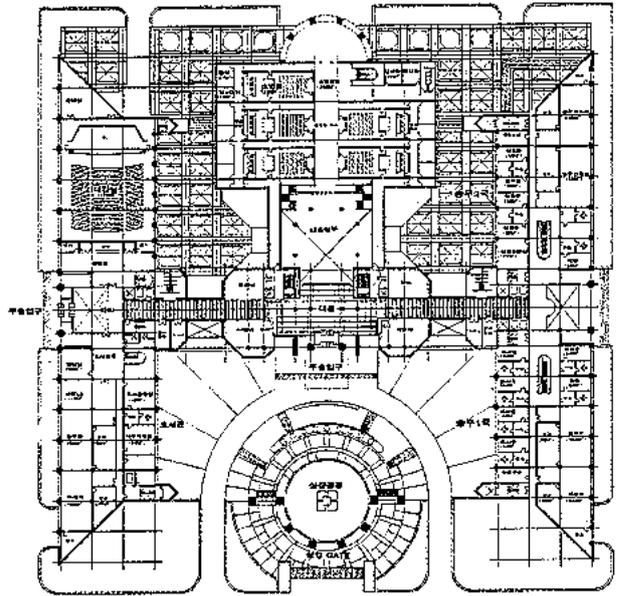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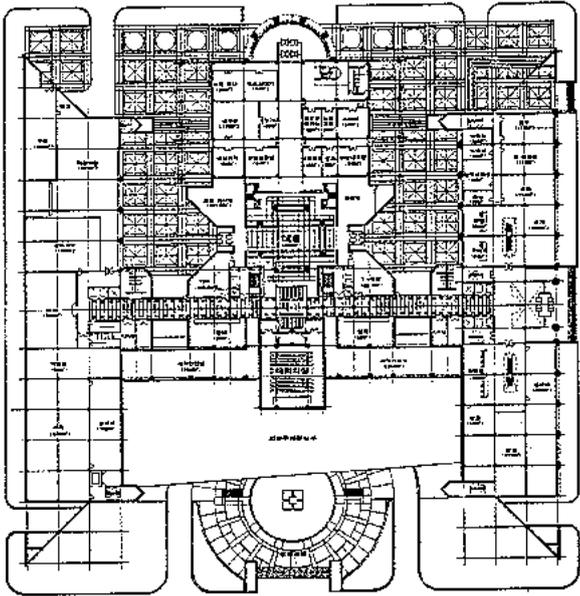
- 외부 동선 체계
- 기능별(법관, 사무직원, 일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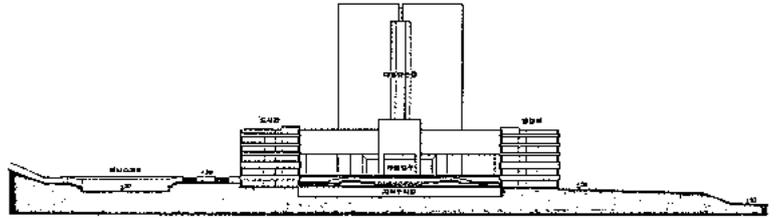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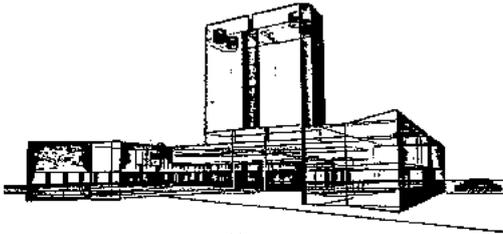
인, 서비스)동선은 각각의 통로와 주차장을 가진다.

- 건물의 외곽부는 자동차, 내부는 보행자 동선으로 원칙적으로 보차는 평면적으로 분리되며 보차의 교차점은 최소로 하고 그곳의 입체적 분리는 지형의 높이차를 이용한다.
-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보행자의 보행거리를 최소로 하기 위하여 부지의 주민 입구에 보행자 통로는 건물의 중앙부 또는 부출입구로 직접 유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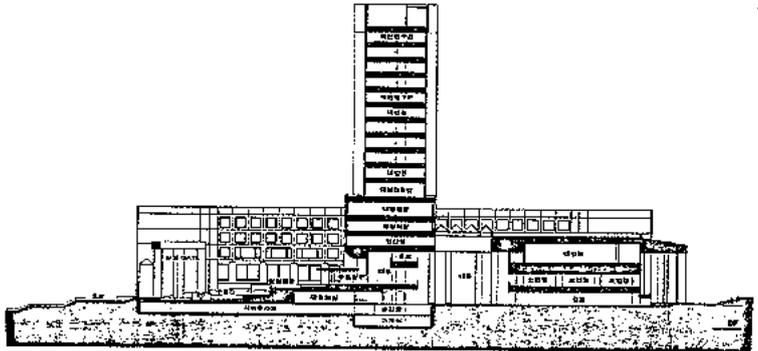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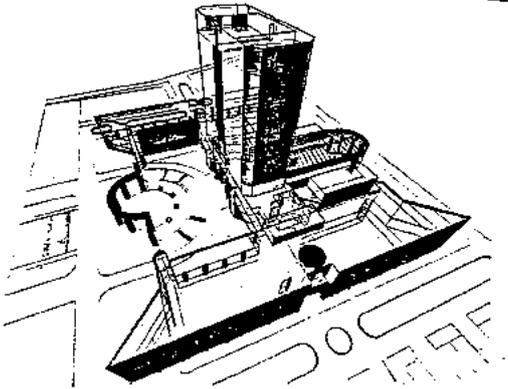
- 내부 동선 계획

- 내부 주요 활동동선은 세가지 동선(법관, 사무직원, 일반인)으로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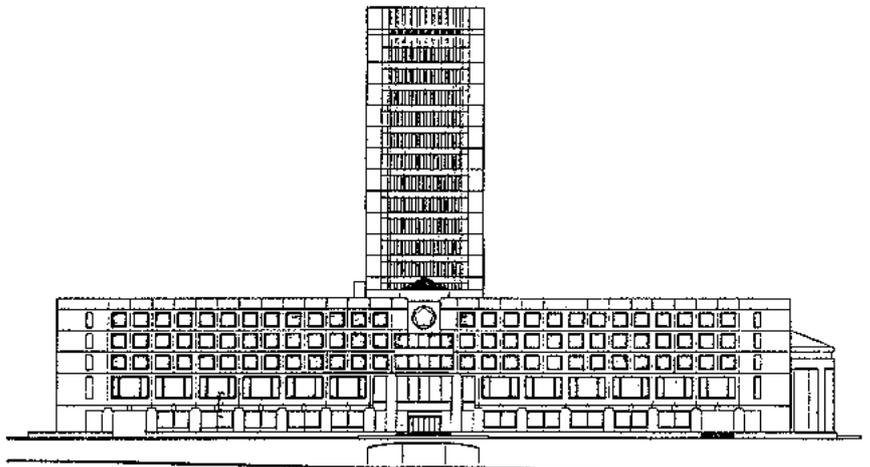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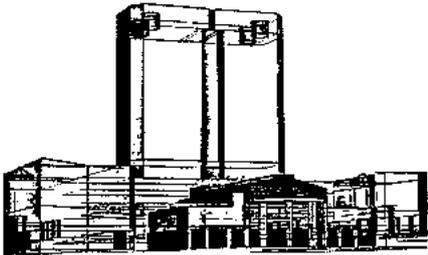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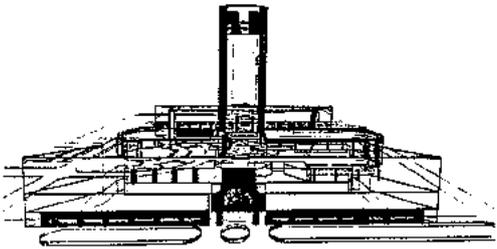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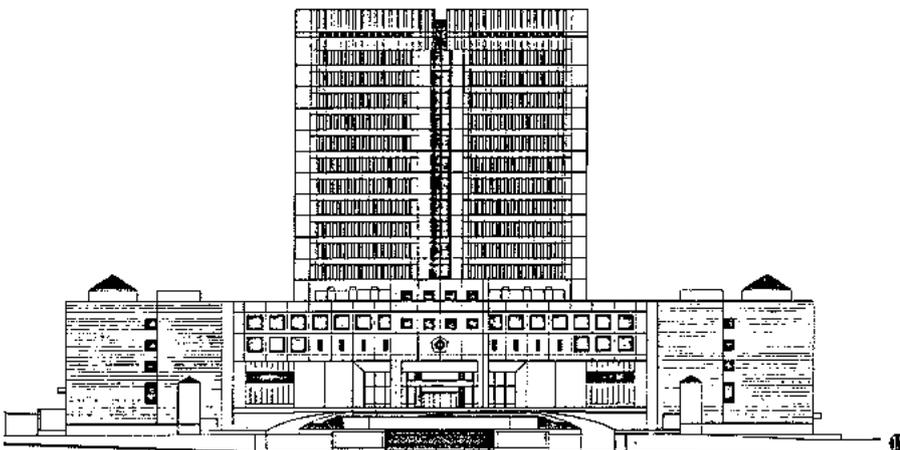
⑥



⑩



⑦



- ① 1층평면도
- ② 2층평면도
- ③ 3층평면도
- ④ 4층평면도
- ⑤ 북측입면도
- ⑥ 대홀 실내스캐치
- ⑦ CAD 투시도
- ⑧ 대지 횡단면도
- ⑨ 종단면도
- ⑩ 동측입면도
- ⑪ 남측입면도

우수작

**금성종합건축사  
(대표 : 韓鍾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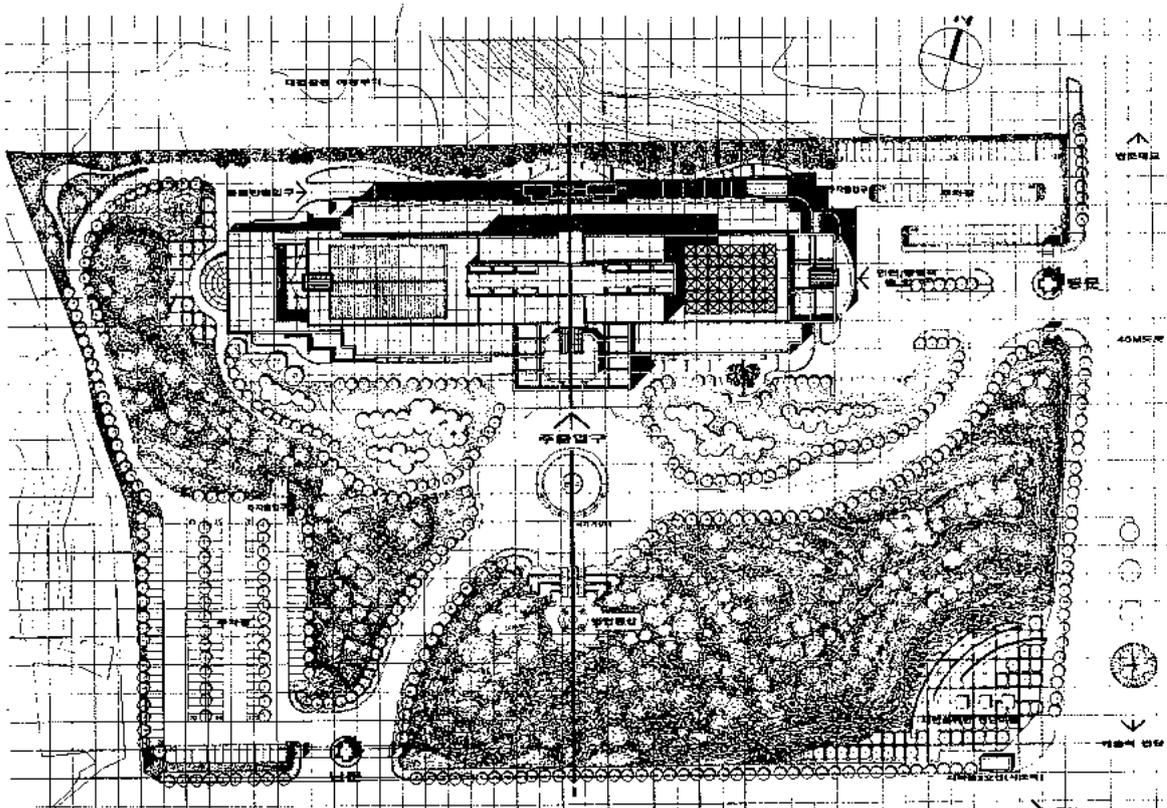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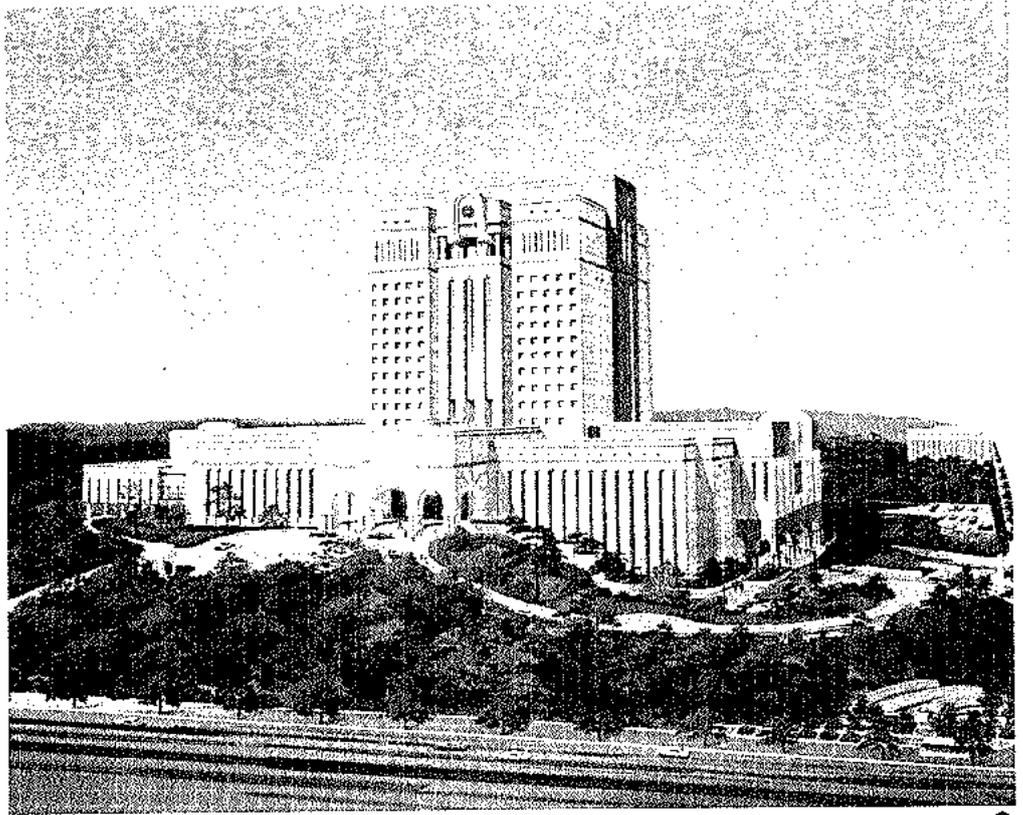
■ 설계개요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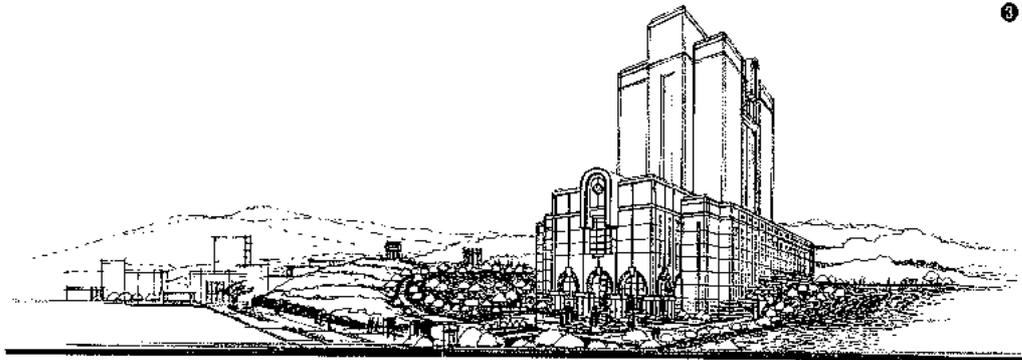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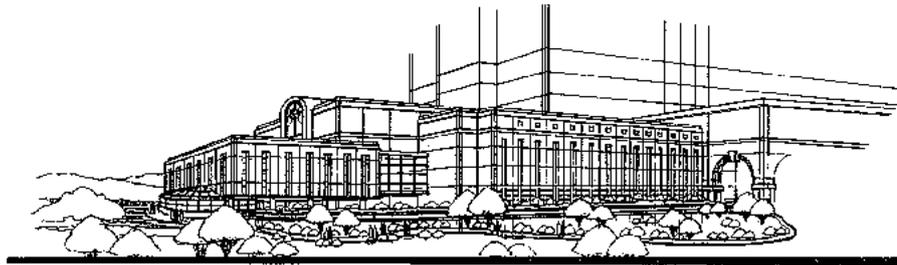
대지면적/56,275.1㎡

건축규모/연면적-489,587㎡

수용기관/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 ① 투시도
- ② 배치도
- ③ 도서관추생동  
부분투시도
- ④ 민원광장  
부분투시도



## ■ 배치계획

### ● 배치 개념

- 계획부지 내의 소음 차단과 조망에 따른 건물 배치로 전원 분위기 조성
- 출입구 분리에 의한 동선의 기능별 분리로 주변 혼잡 완화
- 건물 측면으로 낮게 계획된 민원 업무동을 배치하여 시민의 원활한 동선 유도
- 건물 전면 중앙에 법원 광장을 형성하여 옥외 공간의 연결감과 통일감 연출
- 도시속에 부응하는 축을 설정하여 좌우 대칭적인 외부 형태 표출
- 사선 진입에 의한 한국적 분위기 고양

### ■ 동선계획

#### ● 외부동선계획

- 도로에서의 자연스런 Approach를 기하고, 보행자와 차량의 교차를 최소화
- 일반 이용자 동선과 직원 동선의 분리
- 서비스 동선과 타동선의 분리
- 내부 동선계획
- 각 기능별 동선 분리
- 고층부: 직원 동선과 일반 이용자(민원인, 방청객) 동선의 분리
- 고층부: 직원 및 연구관 전용 Core와 법관 전용 Core분리

### ■ 평면계획

#### ● 평면계획의 개념

- 건물내부 기능이 법정과 사무공간등 복합적이므로, 전체 Mass를 저층부와 고층부로 나누어 명쾌한 기능의 동선 분리로 합리적인 체계수립

- 저층부: 민원 관계실, 법정, 행정처 사무실, 법원 도서관, 대강당
- 고층부: 대법관실, 연구관실

### ■ 입면계획

#### ● 계획개념

- 주변 법원 건물과의 연속성=동질성과 동시에 자립성=이질성을 갖는 외관
- 주변과의 조화 속에서 대법원의 Identity를 한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조형 추구
- 통일감 있는 형태 및 재료 사용
- 건물외관의 이미지
- 안정감, 권위, 형평

### ■ 단면계획

- 계획개념
- 경사진 내지의 순응에 의한 자연스런 진입 해결
- 일반인의 출입 빈도가 높은 민

- 원 관계실 및 법정은 저층에 배치
- 대 SPAN을 필요로 하는 대강당은 저층부의 상층에 배치하여 높은 층고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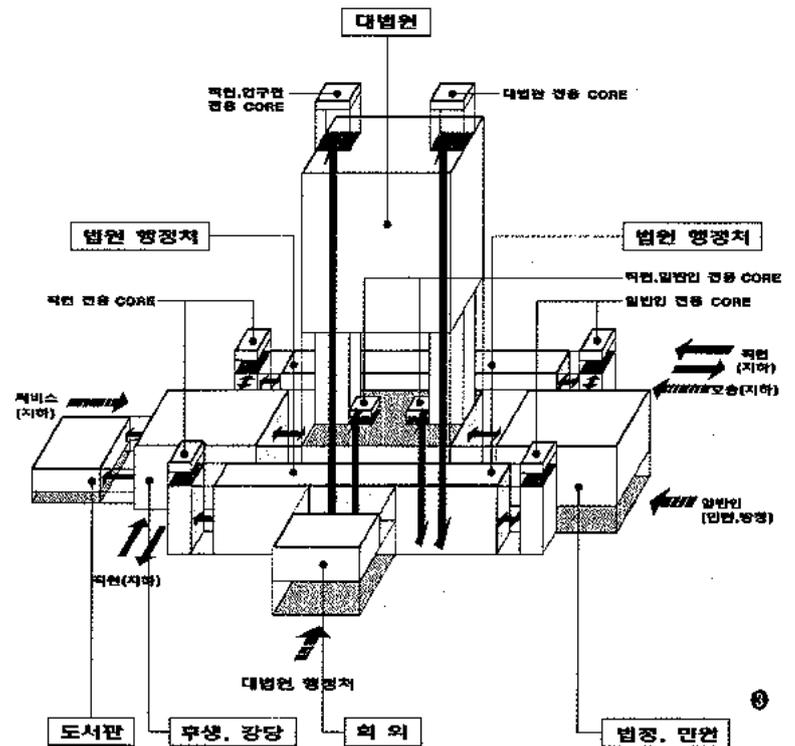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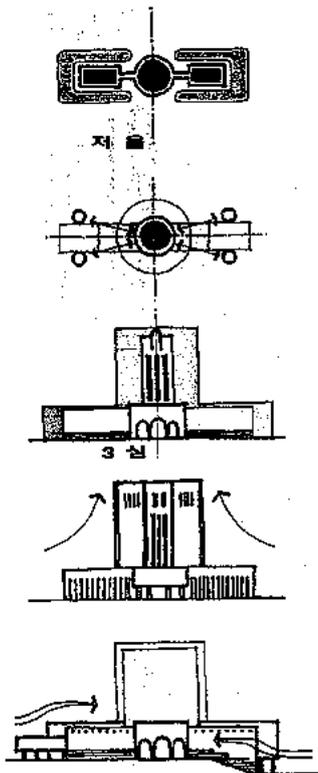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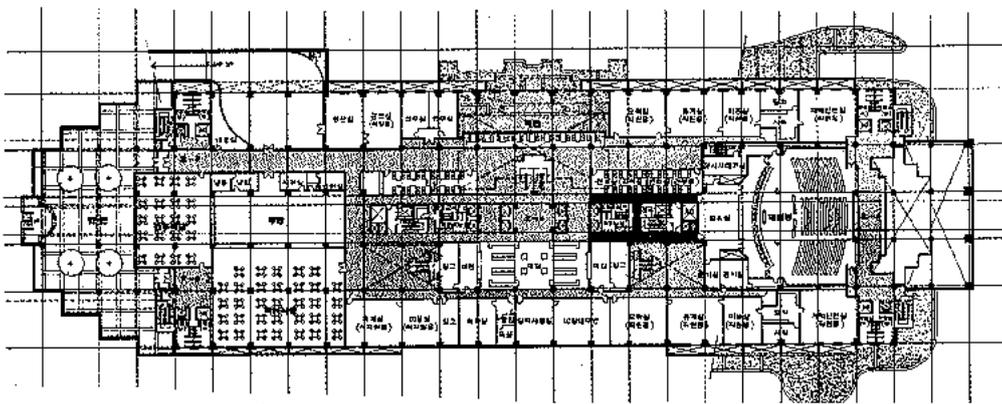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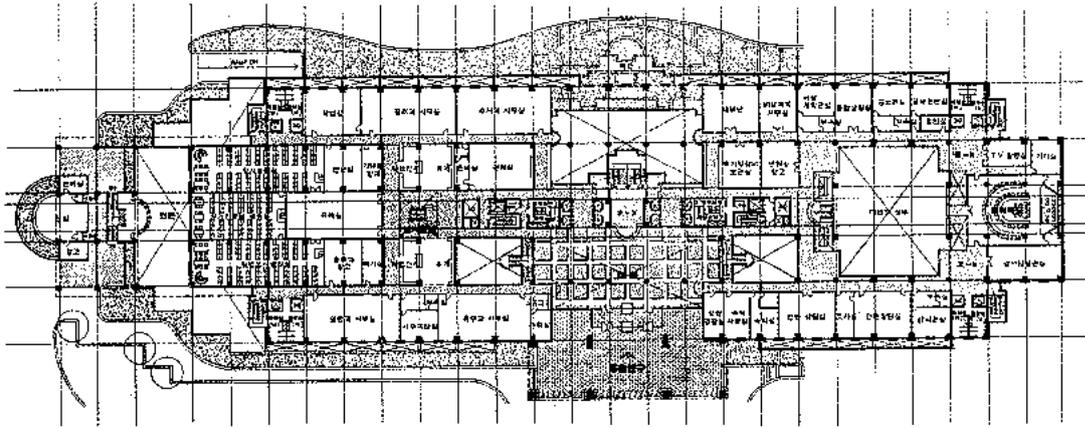
### ● 층고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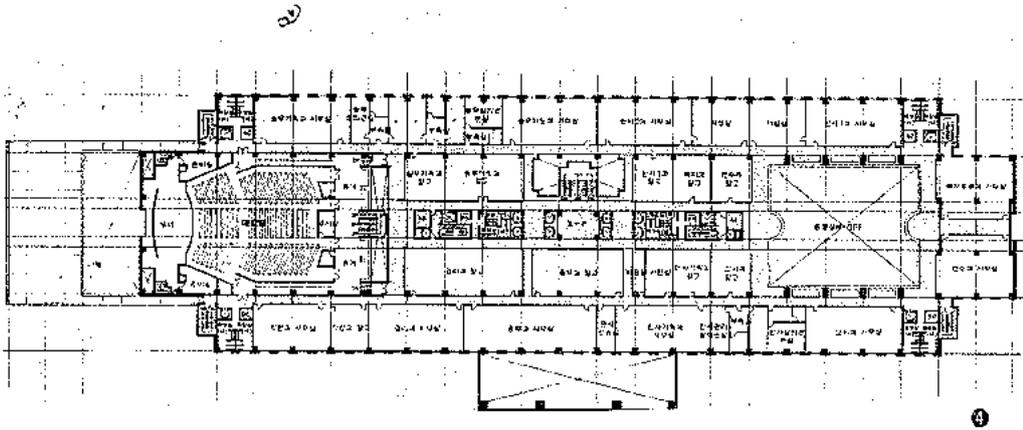
- 저층부: 지하층~1층: 4.5 M, 2층~4층: 3.75 M
- 고층부: 7층~13층: 3.75 M, 14층~15층: 7.5 M

### ■ 조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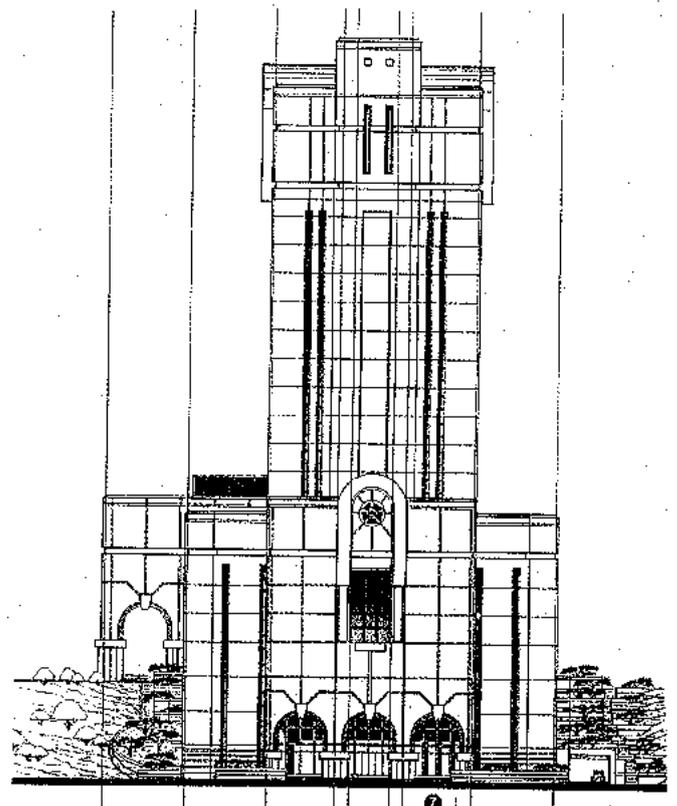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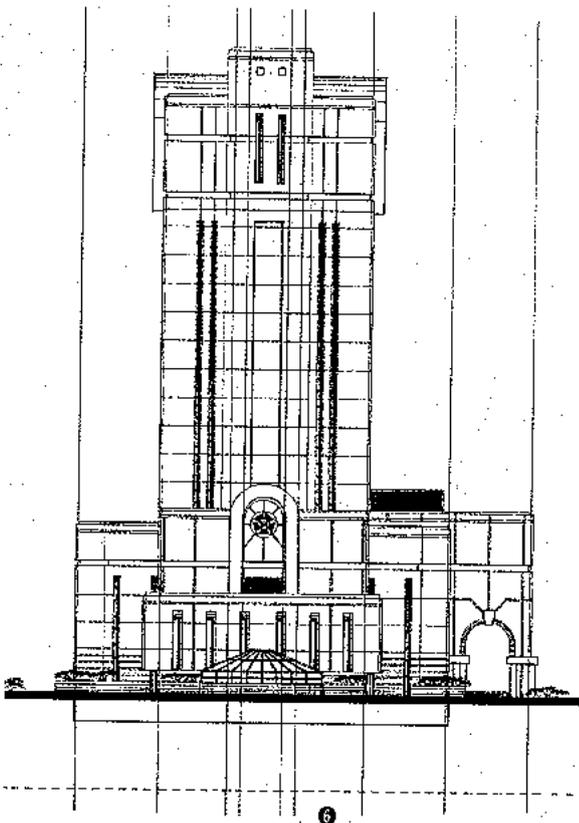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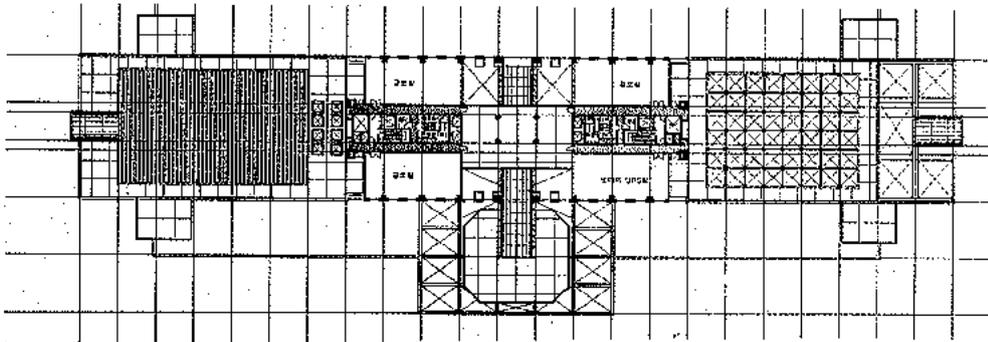
#### ● 조경계획의 원칙

- 자연경관과 인공 경관의 조화 있는 연결
- 대지 내 휴식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
- 조경 시설물과 계절감에 맞는 식재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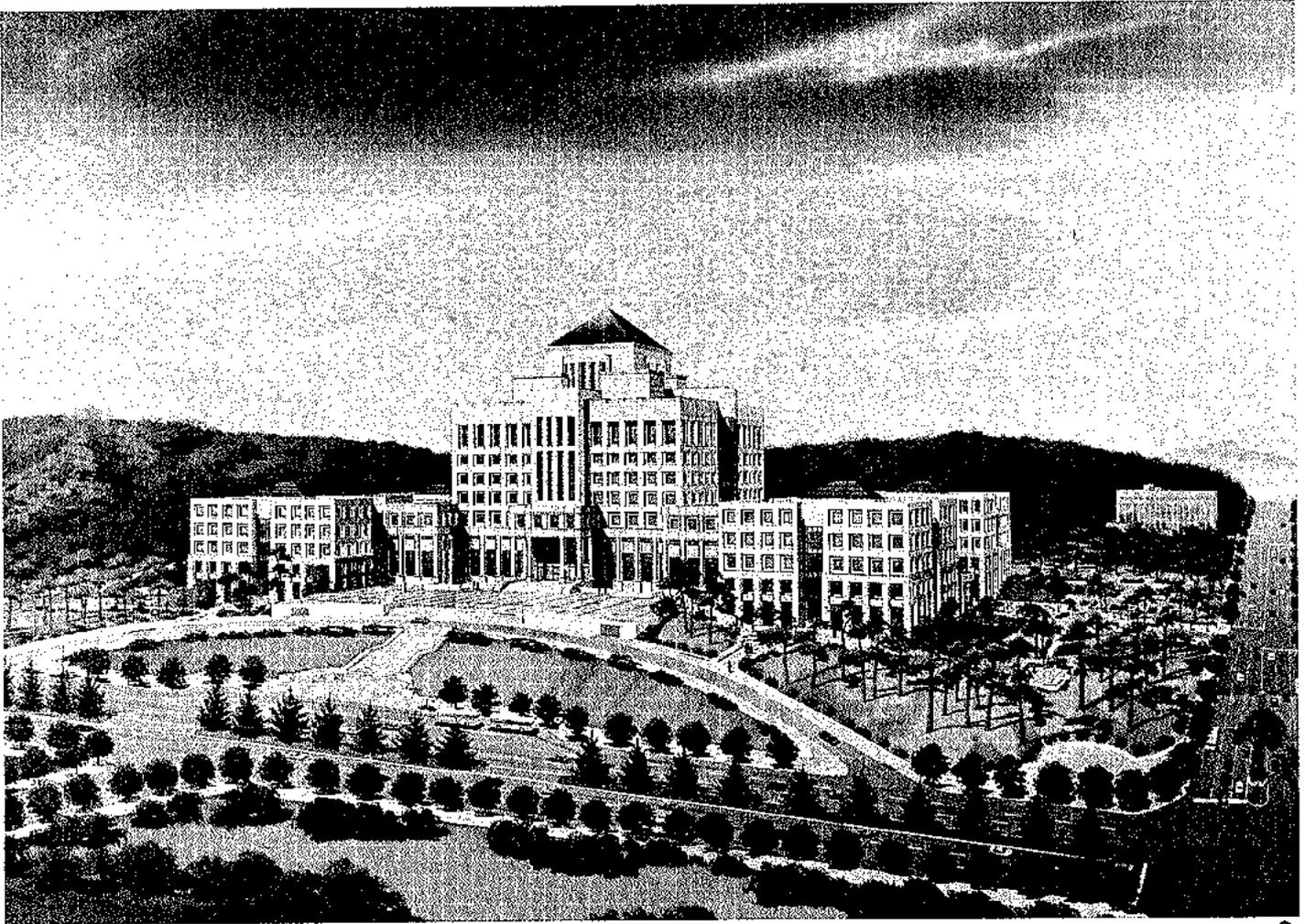


- ① 1층평면도
- ② 지하1층평면도
- ③ 기능체계도
- ④ 3층평면도
- ⑤ 6층평면도
- ⑥ 좌측평면도
- ⑦ 우측평면도



우수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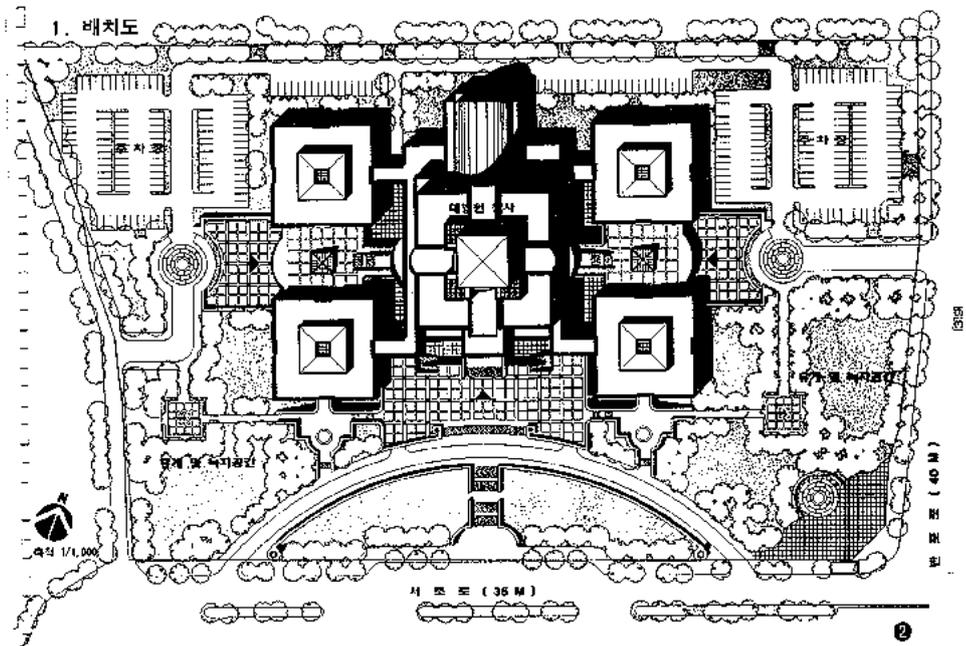
삼우종합건축사(대표: 朴昇十 金昌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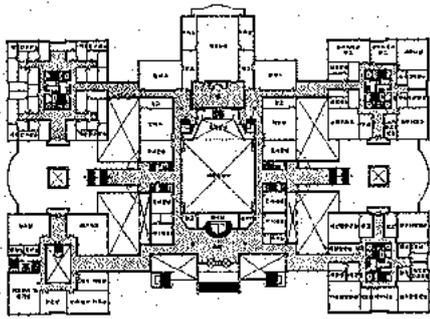
1

■ 설계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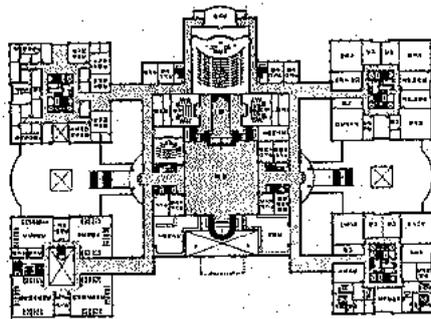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  
 대지면적/56,275.1m<sup>2</sup>  
 건축면적/10,996m<sup>2</sup>  
 건폐율/19.54%  
 연면적/54,333m<sup>2</sup>  
 용적율/58.49%  
 층수/지하2층, 지상7층  
 구조/철근콘크리트 P.S.C Slab  
 과 Girder System  
 외벽마감/화강석  
 주차대수/350대(옥내94대, 옥외 26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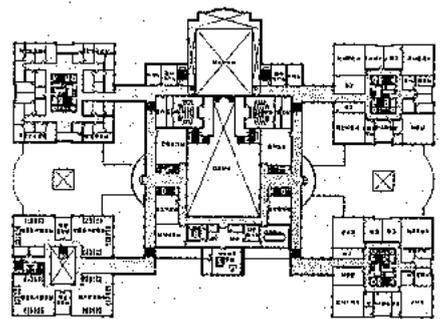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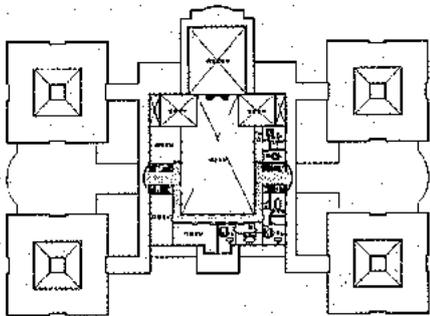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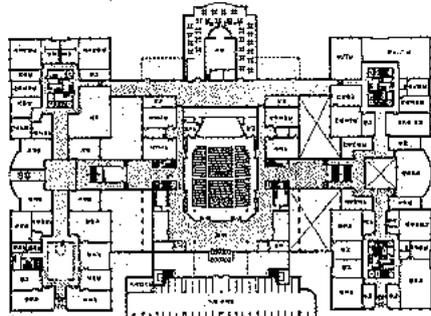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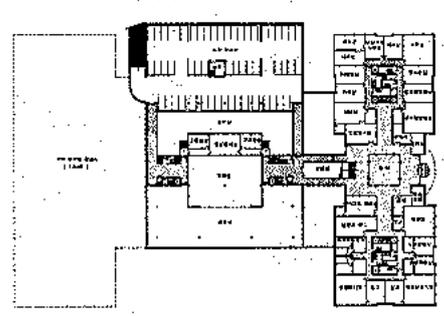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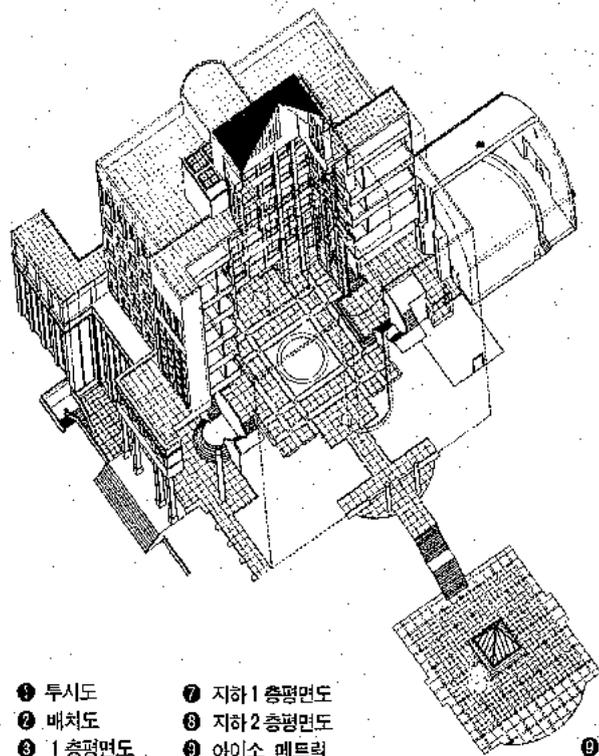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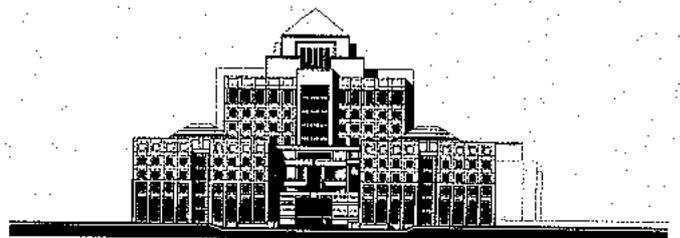
7



8



9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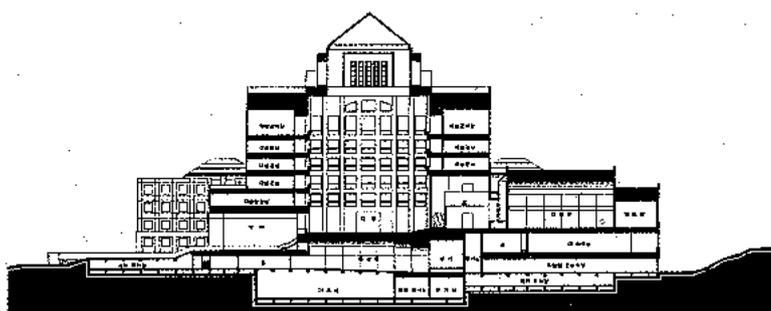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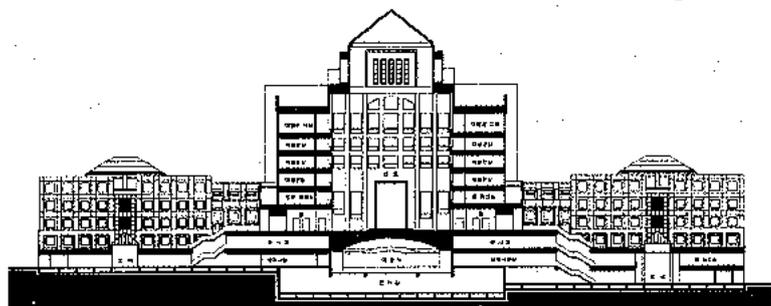
- 1 투시도
- 2 배치도
- 3 1층평면도
- 4 2층평면도
- 5 3층평면도
- 6 4층평면도
- 7 지하1층평면도
- 8 지하2층평면도
- 9 아이소 메트릭
- 10 우측면도
- 11 좌측면도
- 12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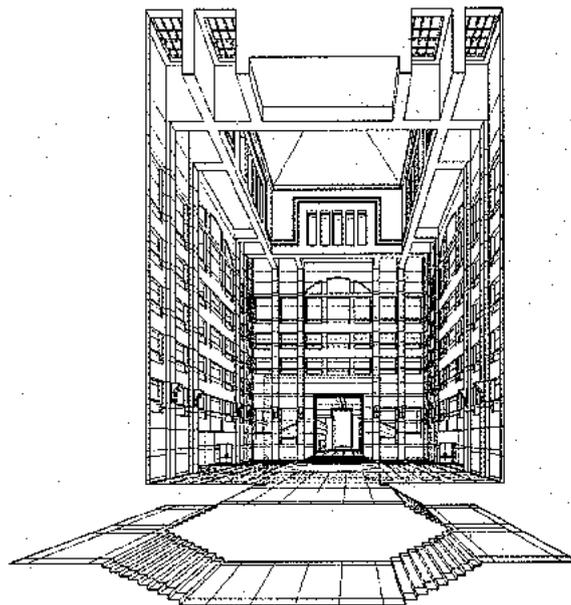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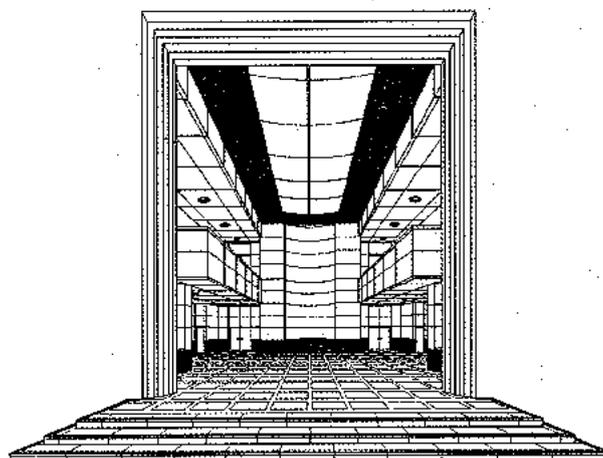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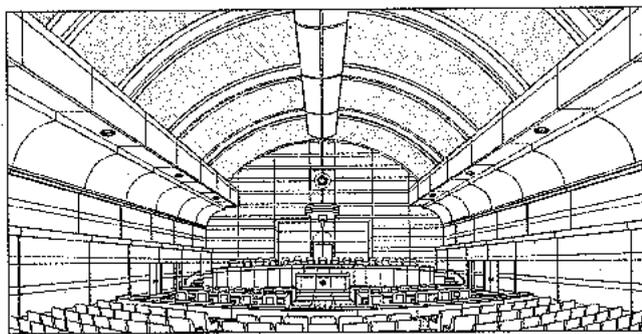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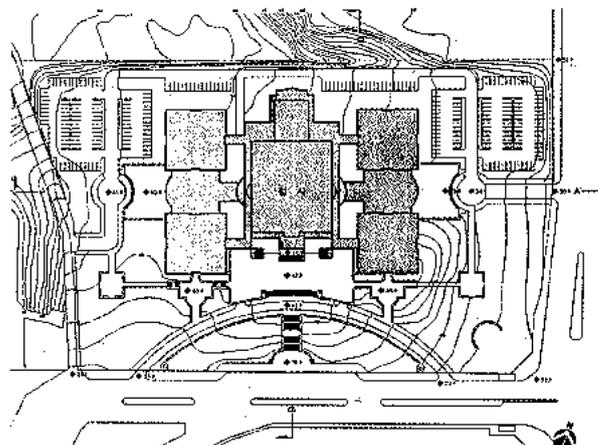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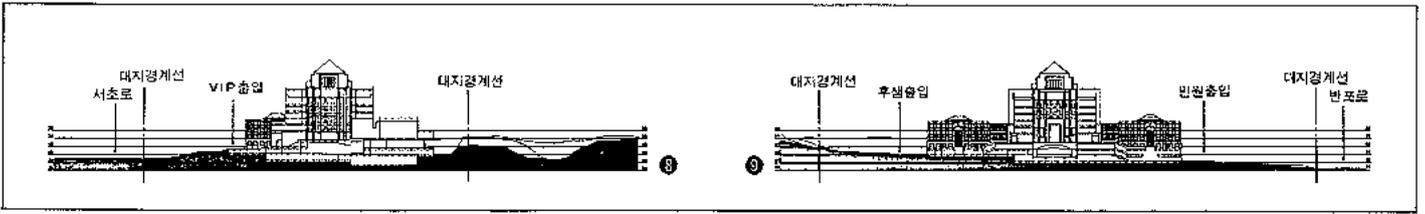


6



7

- 1 배면도
- 2 종단면도
- 3 횡단면도
- 4 대입정
- 5 대홀
- 6 대면정입구
- 7 다지조성평면도
- 8 단면도
- 9 단면도



## ■ 배치계획

### ● 배치개념

- 한국건축의 전통적 수법인 진입공간, 전이공간, 주공간으로 이루어지는 전개 개념에 의해 배치함으로써 공간 상호간의 위계성 및 연속성을 두어 공간의 흐름이 자연에 순응하도록 계획
- 도시축과 법조단지축을 설정함으로써 대법원의 권위를 고양하고 법조단지내 관계시설에 대한 포용성 부여
- 기존 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하고, 대법원 건물을 부지 내에서 가장 높은 중앙에 배치하여 대법원의 권위를 고양
- 중앙에 대법원, 서쪽에 연구법관 및 도서관, 민원인의 출입이 용이한 동쪽에 행정처를 배치
- 대법원의 대법정을 절정으로 하여 법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정면에는 주광장을, 좌우측 테크에 부광장 기능부여
- 건물 전면부에 최대한 녹지 공간의 확보로 건물의 이미지 고양
- 북측에 충분한 추차공간 확보를 전면의 시각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차량 진입 및 서비스 동선의 원활화 도모

### ■ 평면계획

#### ● 평면개념

질서, 균형을 상징하는 정방형으로부터 분절되어 기능상 다섯부분으로 나뉘어지며 위계성이 내포되어 있는 전통적 질서 개념인 五福를 상징하여 계획함.

#### ● 기능별 평면구성

- 대홀을 중심으로 법원 기능의 분할 및 연속
- 대법관 구역, 법정, 재판 연구관동의 연계성 고려
- 행정처의 기능이 대법원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배려
- 후생시설을 기능별로 분류·배치하여 각 공간의 특성 부여
- 회의, 대강당, 민원 시설등의 명확한 동선구획

#### ● 동선

- 기능동선을 최소화 하되 대법관의 법정 진입 과정에 엄숙함 부여
- 대법관, 재판 연구관, 사무직원, 민원인의 명확한 동선구획

#### ● 평면 구성상 위계

- 대법정을 공간감의 절정으로 하여 진입 과정에 위계를 부여함으로써 법의 존엄성을 강조

#### ● 코아의 배치

- 각 공간 규모와 기능에 맞는 코아의 배치로 공간 활용의 최대화 도모

### ■ 입면계획

#### ● 입면개념

전통건축의 입면 개념인 三分의 수직체계로 부터 유추, 적용하며 입면계획  
 上分 - 사법부의 상징인 피라밋형 헤드  
 中分 - 상분의 지지 역할과 수직성을 부여한 벽체

下分 - 중분 및 상분을 받아주는 역할인 1단

- 중앙의 대법원을 부속건물보다 높임으로서 대법원의 권위를 강조하고, 대법원 중앙 대홀 상부에 기하학적으로 가장 안정된 형태인 피라밋형 헤드를 두어 대법원의 권위를 상징
- 중앙의 대법원 건물이 4개의 부속건물을 포용하는 형태로 안정성 고취
- 대법원을 중심으로한 좌우대칭 배치로 고전적 형태미 표출
- 화강석을 외장재료로 사용함으로써 대법원의 장중·엄숙미를 극대화하고, 격자형 그리드의 반복 사용에 의한 입면의 간결성 부여

### ■ 단면계획

#### ● 단면개념

거대한 홀 상부에 천창 및 측창을 두어 쏟아지는 빛의 효과를 주고 어둠속으로 스며드는 빛의 신비로움을 계획함으로써 공간의 절정감을 부여하여 빛에 의한 대법원의 상징성 및 존엄성을 부여 하도록 계획

#### ● 공간의 위계( Hierarchy )

대법원의 진입에서 부터 대법정에 이르는 공간에 위계성을 강조하고, 대홀의 상부를 Void 시킴으로서 수평개념과 수직개념을 교차시키며, 대법정 입구부에는 자연채광에 의한 대법정 공간을 정적인 분위기로 유도

#### ● 단면 조닝( Zoning )

- 대법관 구역을 대법관동의 상부에 배치함으로써 대법관이 법정에 이르는 동선이 일반인 및 사무직원과 교차하지 않도록 고려
- 회의 시설은 대법정 하부에 후생시설은 회의시설 하부에 계획함으로써 대법원동은 중심으로한 좌우의 시설로부터 공통시설의 연결이 편리하게 하며 후생시설중 대법관 및 간부를 위한 시설을 대법원동 상부에 계획
- 대법원동을 중심으로 하여 양쪽 테크 및 소홀을 통해 대홀, 공통시설, 후생시설로서의 유입이 용이하도록 계획

### ■ 동선계획

실내 주요동선은 크게 4가지 동선으로 구분하였다.

#### ● 법관 동선

대법원동 상층부에 법관실을 배치 일반인 동선과 교차되지 않도록

#### ● 연구법관 동선

대법원과의 접촉이 쉽도록 하며 법원도서관과의 연계를 고려

#### ● 사무직원 동선

청사 전구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동선으로 각 부서 상호간의 연결이 용이하게 배치하고 법관과 일반인의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는 구역엔 조성

#### ● 일반인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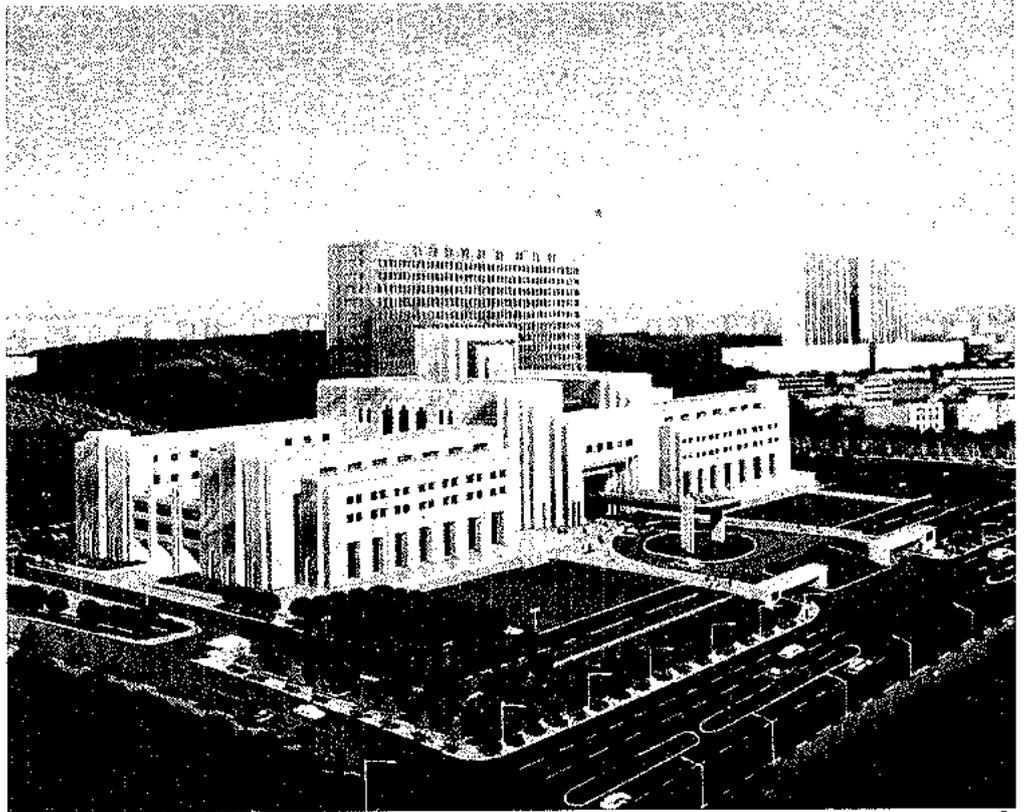
민원 관계 시설 및 법정 방청객 동선으로 법관과는 동선이 분리됨

우수작

진원종합건축사  
(대표 : 朴英健)

■ 설계개요

대지위치/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967  
 대지면적/56,275m<sup>2</sup>  
 건축연면적/54,413m<sup>2</sup>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구조  
 전폐율/16.14%  
 용적율/78.82%  
 건축규모/지하2층, 지상7층



■ 건축계획

- 주 진입의 성격을 갖는 상징적 접근축(Symbolic Approach Axis)과 각 기능별 특성을 연결하는 기능적 접근축(Functional Approach Axis)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배치개념의 전제
- 상징적 접근축(송축) - 주진입축으로서 증첩된 기단식정원으로부터 대홀, 대법정에 이르는 상징축의 설정
- 기능적 접근축(횡축)
  - 외부개방도가 높은 공간으로부터 대법관, 재판 연구관동의 특정지역에 이르는 변화를 갖는 축
  - 외부조경공원과 특성있는 내정(Inner Court)이 다양하게 연결되는 축

■ 평면계획

- 명료한 기능배치와 그에 따른 상호유기적 동선체계 설정

- 특정기능공간을 연결하는 기능 접근축(Functional Approach Axis)의 설정
- 특정기능공간의 Compact 한 처리로 복잡다양한 동선체계의 단순화, 간결화 추구
- 다양한 공간의 위계확립

■ 동선계획

- 대법원 내부동선을 크게 5부류의 활동으로 구분
- 대법관
  - 독립공간 설정으로 타동선 분리
  - 재판연구관과의 접촉은 좌우 연결통로 이용
  - 법정이외의 장소에서의 일반인/피고인 동선과 엄격히 분리
- 재판연구관
  - 독립공간 설정으로 타동선 분리
  - 비교적 접촉도가 높은 송무1국과는 수직 Core 이용
  - 대법관과의 접촉은 연결통로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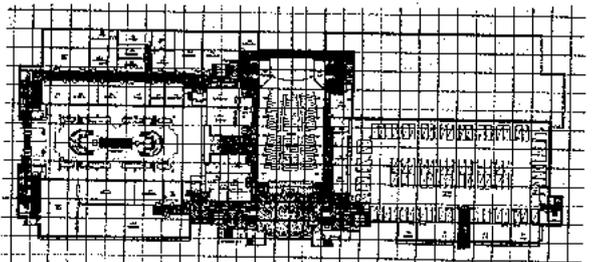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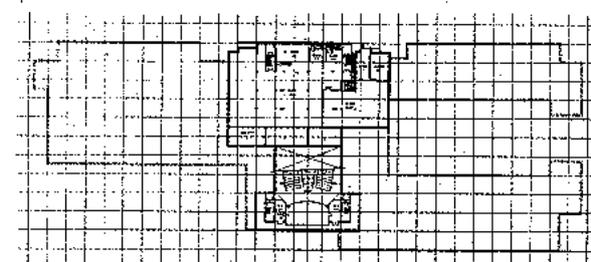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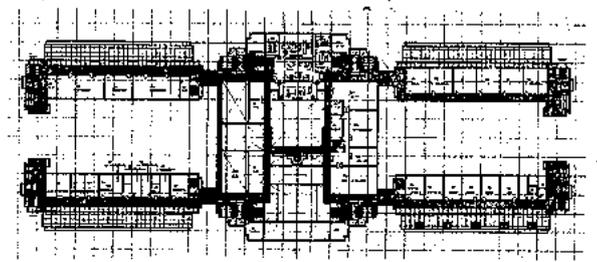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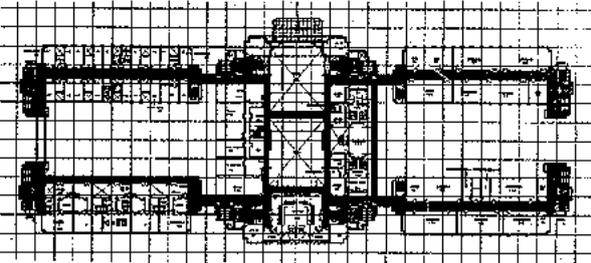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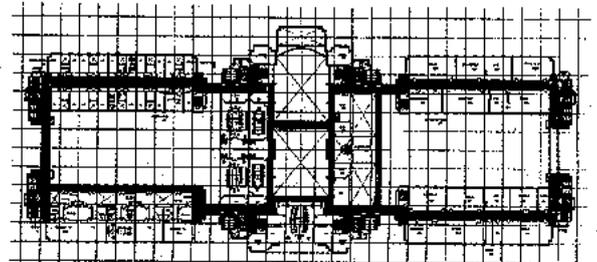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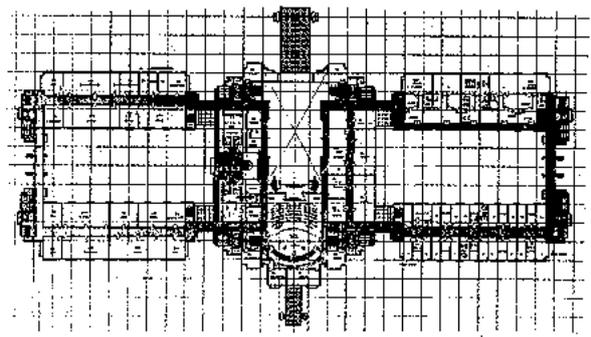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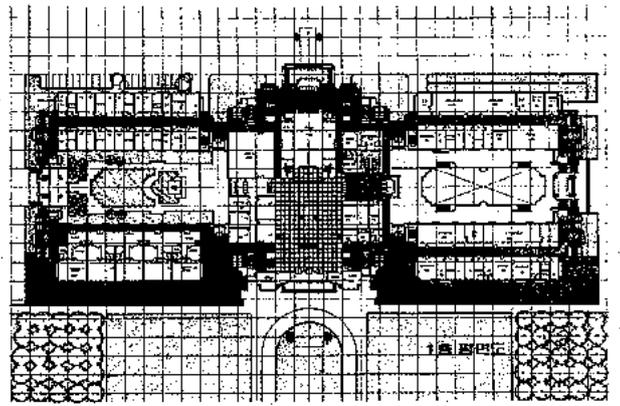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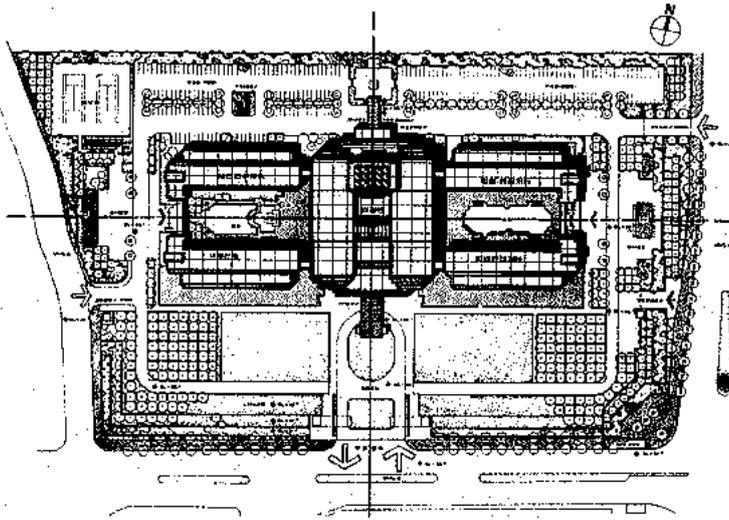
- 사무직원
  - 행정처 전층(全層)에서 활동하는 동선
  - 재판사무/대법원내 행정사무의 주동선으로 법관과 일반인간의 매개동선
  - 부서간 연결은 수직·수평 Core 활용
  - 대민부서의 저층·집중배치로 일반인동선의 원활한 흡수
- 일반인(방청인/민원인)
  - 저층부 민원시설, 후생시설과 방청에 이르는 동선
  - 대법관/재판연구관과의 동선 교차 회피
  - 민원홀의 수직계단을 통해 법정/지하후생시설 이용
- 피고인
  - 피고인 전용수직계단을 통해 법정도달
  - 법정이외의 장소에서는 일반인/대법관과 동선분리

■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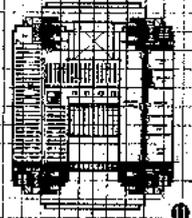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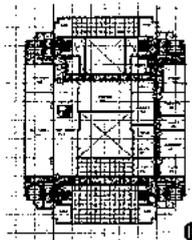
- 대법정을 중심으로 한 대칭적(Symmetrical) 외관구성으로 대법원의 공정성상징
- 전통적인 축의 개념과 화강석에 의한 입면처리로 단순간결한 절제미 추구
- 점진성 갖는 탑과(Stupa)의 조형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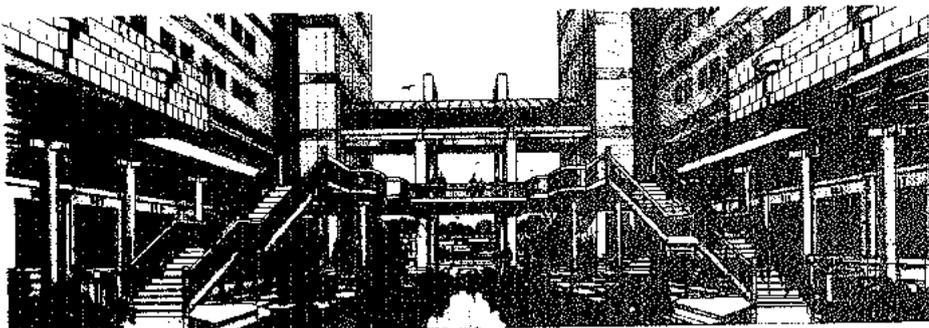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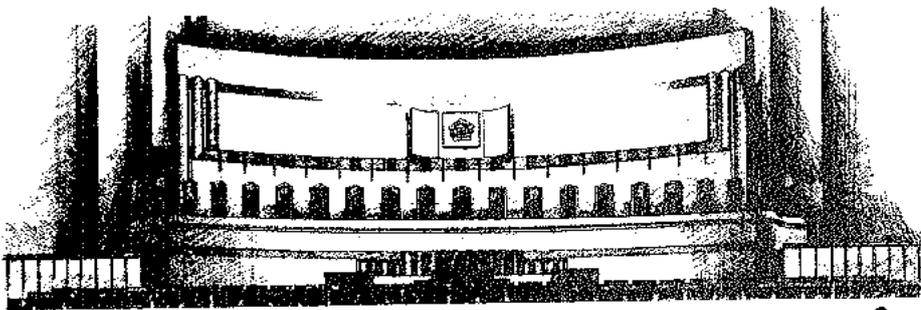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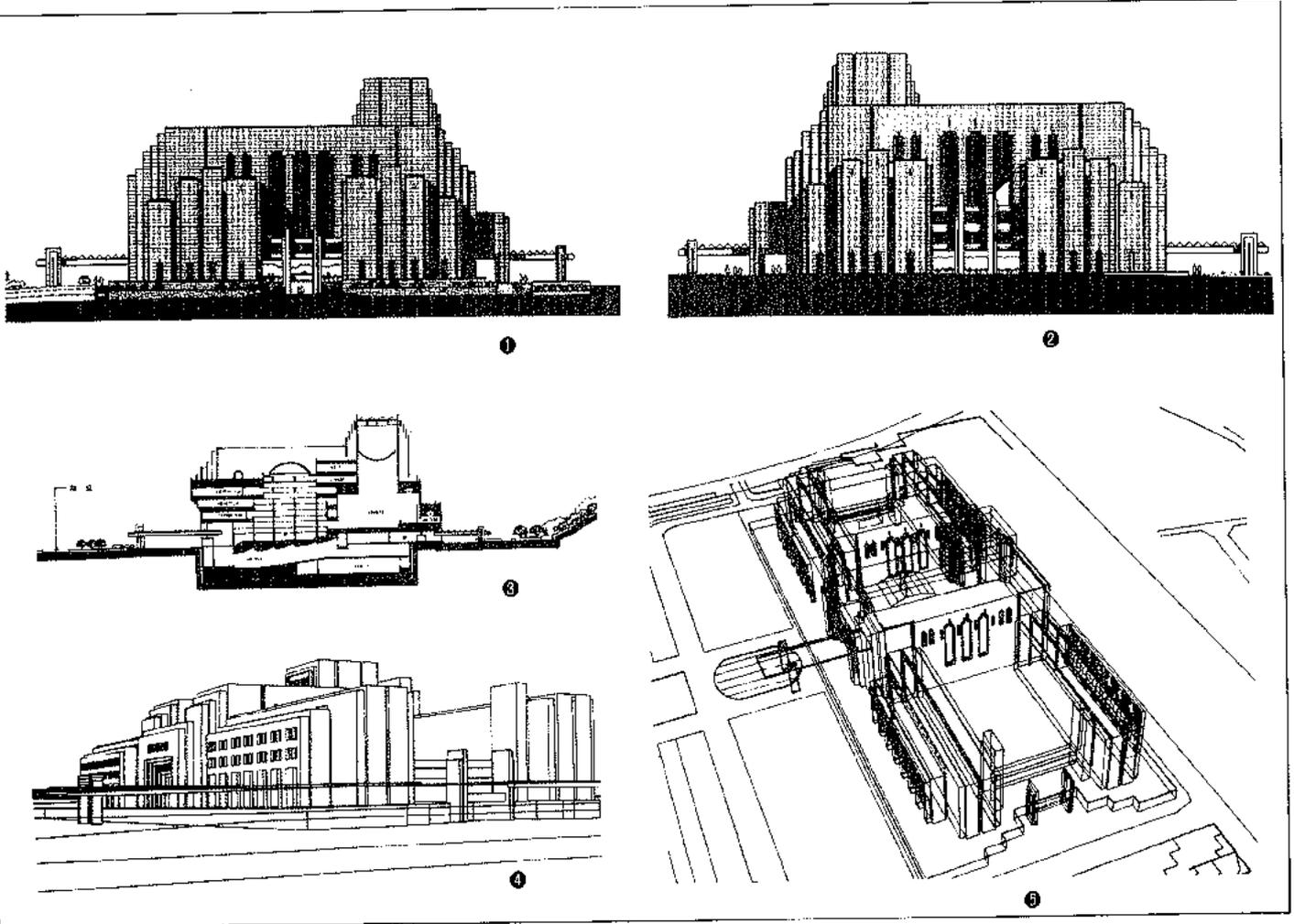
■ 단면계획

- 외부기간, 진입부, 홀 & 대법정에 이르는 공간구성의 연속성
- 연속적인 공간감의 추구로 대법정에 이르러 주축의 Termus(종국)로 승화
- 동일기능의 수직배분으로 타동선과의 교차회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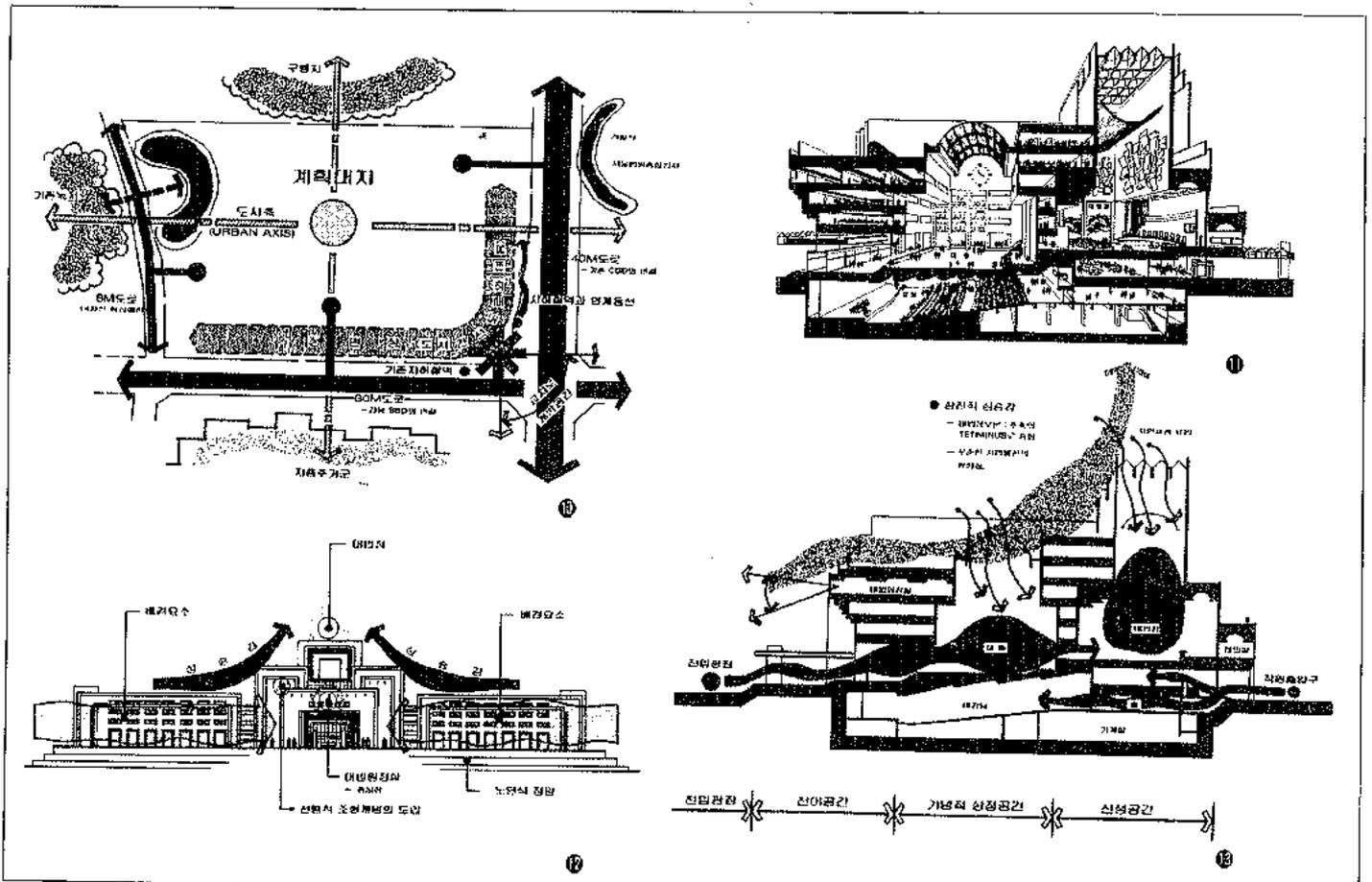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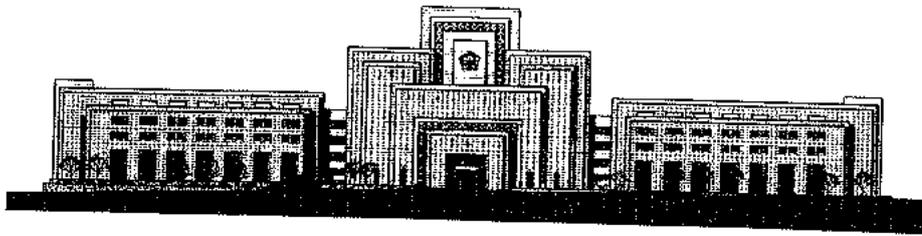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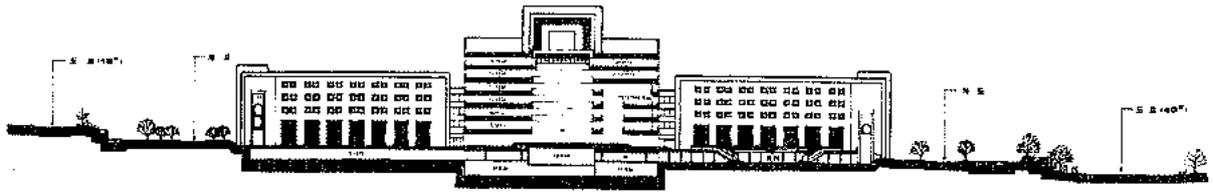


- ① 투시도            ⑦ 지하1층평면도
- ② 배치도           ⑧ 지하2층평면도
- ③ 1층평면도        ⑩ 6층평면도
- ④ 2층평면도        ⑪ 7층평면도
- ⑤ 3층평면도
- ⑥ 4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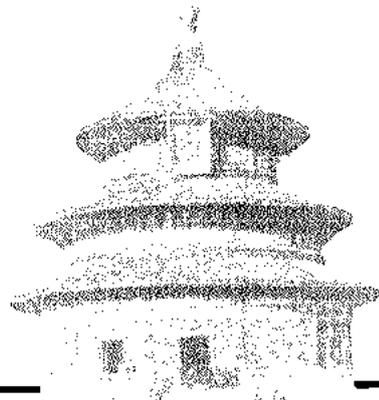


- ① 우측면도
- ② 좌측면도
- ③ 종 횡단면도
- ④ CAD투시도
- ⑤ CAD 투시도
- ⑥ 대법정 및 증정
- ⑦ 종 횡단면도
- ⑧ 배면도
- ⑨ 정면도
- ⑩ 현황분석
- ⑪ 단면투시도
- ⑫ 입면개념
- ⑬ 단면개념



# 中國建築紀行(3)

Tranvels to China



1989. 4. 2일 흐렸다 개임

**아**침 호텔을 떠나 慈恩寺 大雁塔를 가 본다. 자은사는 당나라 고종이 李治 太子때에 그의 어머니 文德황후를 추념하기 위해 648년에 창건한 절이다. 그 때 현장법사가 인도에 17년간 수도하고 많은 범어로 된 불경을 갖고 돌아와 19년간 자은사에 머물면서 불경 번역을 했으며 이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대안탑을 652년에 건립한 것이다.

이 탑은 唐 長安年間(701~704)에 중수되었고 높이 64m 7층의 4각형 각층형의 磨磚築 구조로 견고하며 웅대하고 위엄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 절의 남문을 들어서면 정전에 大雄寶殿의 현관이 붙어 있고 그 뒤에는 阿彌陀殿이 서 있고 그 후면에 높은 基台 위에 대안탑이 높이 솟아 있다. 7층 꼭대기까지 348개의 단을 밟고 올라가서 서안성 일대의 조망을 하는 광경은 장관이었다. 대안탑 서측 闍闍門石에 음각되어 있는 唐代 건축양식을 나타내는 유명한 佛殿圖는 많이 마멸이 되어 있었으며 그 앞에는 철책이 만들어져 자세히 볼 수도 없고 흐리고 어두워서 사진도 찍을 수 없어 매우 아쉽게 생각되었다.

이곳에서 구입한 「大雁塔 導遊」라고 적힌 책자의 설명에는 大唐西域記를 인용하여 雁塔의 명칭이 시작된 유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摩揭陀 나라의 帝釋山 동쪽 한 봉우리 앞에 있는 불사 앞에 한 불탑이 있어 雁塔이라 칭하였다. 전설에 따르면 옛적 이 절에는 小乘의 수도를 경시하여 三淨之食을 시작했었다. 그 후 식사를 때에 맞게 충분히 먹을 수 없게 되었는데 그때 한 종이 지나가다 하늘에 갑자기 거리기 때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농담섞인 말로 “오늘 여러 중들의 점심 식사가 충분치 못한 것을 보살이 잘 알고 계시구나”하고 말하였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거리기 한 마리가 떨어져 내려와 그 중 앞에 투신하여 죽었다.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중들은 슬프게 생각하고 서로 논의하기를 “如來가 설법과 道를 전함은 기회를 따라 하는 것이므로 이 거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를 주신 것이니 그 뜻을 밝히 전하고 그 덕을 선양하자”고 한 다음 그곳에 거리기의 무

덤을 만들고 이 탑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같은 고사에 근거해서 자은사 대안탑이라는 이름이 생기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대안탑을 올라가 볼 때는 우리는 삼장법사 현장(602~664)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는 629년에 장안을 떠나 인도로 유학을 가서 110개 나라를 두루 다니며 659부의 불경을 갖고 돌아왔다. 그가 인도 那爛陀寺에 있을 때 최고 학위를 받고 尊崇을 받았으며 당시 최고학부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훌륭한 설법을 하여 인도에서 명성이 매우 높았었다고 한다. 현장은 귀국한 후에 19년간 범어로 된 불경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75부 1,335권의 불경을 번역 및 저작하였다. 그의 大唐西域記는 서역에 있는 138개 나라의 지리, 역사, 문화, 기후, 풍습 등을 기록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현장은 11년간(648~658) 자은사에 있었으며 여기서 중국의 慈恩宗을 창립하였다. 그는 현재 銅川 서북쪽에 있는 玉華寺에서 身病으로 入滅하였으며 그의 靈樞가 자은사 蓮經堂에 안치되어 있다. 대안탑은 지금도 巍然히 높이 솟아 있어 현장의 불교 진파와 서역 문화교류의 높은 위업을 만고에 길이 나타낼 것이라 생각된다. 대안탑은 매년 1mm씩 서측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며 지금도 앞에서 볼 때 탑 전체가 약간 좌경해 있음을 쉽게 지각할 수 있다.

자은사 대웅보전은 1453년과 1887년에 대수리를 하였다고 한다. “大雄”이란 말의 뜻은 석가모니의 존칭이라 하며 “부처는 큰 힘이 있어 아무 것도 두렵지 않다(佛有大力 一切無畏)”라는 뜻에서 온 것이라고 대안탑 도유에 기록되어 있다. 이 책자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다. 대웅보전 중앙에 法身佛인 毗盧遮那像이 불성의 淸淨之身의 뜻을 갖고 서 있으며 서측에는 報身佛인 盧舍那像이 수도성공한 다음 佛長圓滿之身을 뜻하고 서 있고 동측에서 應身佛인 석가모니불이 중생을 두루 구제하여 可變現幻化之身을 뜻하며 서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三身佛 양쪽에는 석가님의 양제자가 侍立하고 있다. 동측에 있는 것은 迦訶(가협)으로서 불신도들이 처음 會同했을 때 소집자였으며 서쪽에 있는 것은 阿難이며 석가님의 사촌 동생으로 25년간 석가님을 따라다니며 수발을 하였고



尹張燮  
서울대학교 건축과 교수  
by Yoon, Jang-Seob

불신도들이 처음 會同했을 때 불경을 낭송한 사람이라 한다. 중간에 있는 供台 뒤에는 도금한 2개의 보살상이 있다. 보살은 범어로 “菩提薩埵”의 준말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느끼게 한다는 뜻이라고 한다. 서쪽에 交殊 보살이 있으며 이는 큰 지혜가 있어서 지혜를 전적으로 주관하는 보살이라 하며, 동쪽에는 普賢 보살이 있어 大行하여 理德을 전적으로 주관하는 보살이라고 한다. 대웅전 동서측 벽에는 18 나한이 즐지어 앉아 있다. 나한은 범어의 “阿羅漢” 또는 “阿羅阿”의 준말로 소승불교에서 수행의 최고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대웅보전 뒤에는 藏經樓가 있어 蹟砂版 대장경, 藏文 대장경 등의 중요한 경전이 보존되어 있고 누하는 강당으로 신도들의 講經과 설법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아미타불 동상이 있다. 阿彌陀는 범어를 음譯한 것으로 그 뜻은 無量光, 無量壽이라 하며 他說에 의하면 西方淨土로 영접해 가는 능력이 있는 부처로 생각되고 있다고 한다. 藏經樓 뒤의 높은 기대 위에 대안탑이 솟아 있다. 초창 당시에는 높이 180尺 5층 磚表土心이었던 것이 그 후 담에 초목들이 자라 점차 무너지게 된 것을 오래 동안 벗차례에 걸쳐(後唐 長興年間까지) 개조하여서 현재 높이 64m, 7층, 底層邊長 25m, 基台邊長 45m의 탑이 되었다.

대안탑 첫째층 벽에는 중국탑 형식 3가지의 설명도가 게시되어 있다.

- 1) 樓閣式탑 : 그 예로는 應縣木塔, 大雁塔, 舌積寺塔(唐) 등이 있다.
- 2) 密檐式탑 : 그 예로는 嵩岳寺塔(北魏), 少雁塔, 大和塔(宋), 江蘇虎丘塔(五代) 등이 있다.
- 3) 스루파식탑 : 그 예로는 북경 妙應寺 白塔(元), 북경 北海 白塔, 북경 眞覺寺 金剛寶座塔(明), 내몽고 오담사 金剛寶座 舍利塔(清) 등이 있다.

大雁塔를 떠나서 西安城을 가 본다. 현재의 서안성은 明代 1374~1378년에 修築된 것으로 그 평면이 동서로 긴 장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성벽의 둘레는 11.9km로 그 주위에는 넓은 城字가 둘러 있다. 4대문의 문루와 성 중앙에 있는 鍾樓, 鼓樓 등이 잘 보존되어 있다.

西大門의 門樓建築을 가 본다. 이 문루들은 창대(1644~1911)에 재건된 것으로 북경의 문루보다는 적지만 매우 규모가 크고 남당한 외관을 갖고 있다. 건축 양식의 특색을 자세히 살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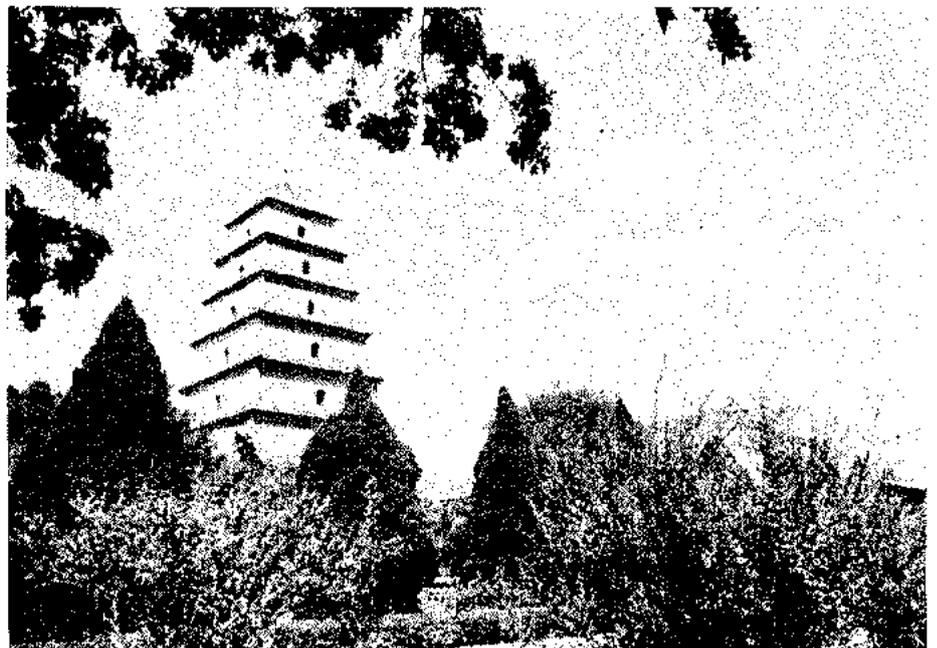
보며 카메라에 담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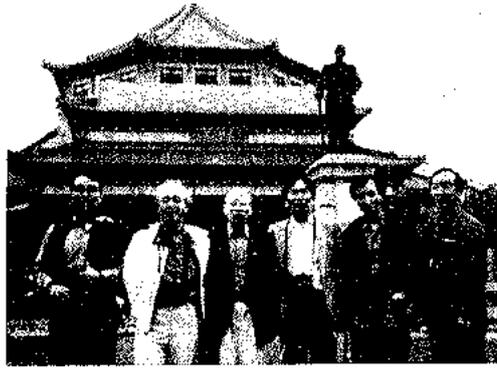
다음에는 城 중앙에 있는 鍾樓 근처에 가서 그곳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을 든 다음 西安공항에 나가서 桂林行 비행기에 탑승한다. 제임스 비행기는 보잉 제트기여서 비교적 좋았다. 하오 4시경 계림에 도착하니 공항 주위에 멀리 늘어서 있는 기가묘한 連山들이 그림과도 같이 아름답고 운치가 있다. 마중 나온 관광버스에 모든 짐들을 실어 놓은 채로 호텔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계림 동쪽에 있는 이 강을 지나서 七星公園을 찾아가 본다.

계림은 기후가 매우 좋고 각종 과일이 많이 생산되며 山水 風景이 중국에서 제일 좋기로 유명하며 큰 鍾乳窟들이 4개나 있고 怪石의 아름다움이 뛰어나고 4시간 걸리는 灑江 船遊의 즐거움은 최상의 것이라고 새로운 안내자가 버스 속에서 열심히 설명한다. 桂林은 廣西省 동북부에 위치한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중국 역사적인 문화의 도시로서 중국의 남방과 북방 문화의 교류 지점이 되며 옛적부터 “山水가 천하에 제일”이라는 칭송을 받아 왔었다. 해발 150m이며 인구가 39만(시가지 내 27만)으로 壯族, 侗族, 瑤族 및 조선족을 포함하여 12개 소수민족이 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空路, 陸路, 水路가 모두 편리하고 사통팔달된 곳이라고 한다. 3억 5천만년 전 이곳은 큰 바다가었는

데 1억5천만년 전 해저가 융기되어서 현재 모양의 아름다운 지형을 이루게 된 것이었다 한다. 이곳 석회암은 그 질이 純厚하고 좋다고 하며 오랜 기간 동안의 溶蝕으로 형성된 각양각색의 峰林, 峰叢, 孤峰, 농갈, 溪流들은 함께 어울려서 奇觀을 이루고 있었다.

七星公園은 제일 좋은 공원이라는 뜻이라고 말한다. 일본과의 전쟁 때는 일본군의 폭격이 심하였다고 하며 그 까닭으로 도시내 시가지 건축의 모습이 수려한 자연미와 매우 대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칠성공원은 도심에서 서북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있으며 100에이커의 면적을 갖고 있다. 우선 이곳의 駱駝山에 가 본다. 산 형태가 신기하게도 우뚝 서 있는 낙타 모양을 하고 있다. 낙타산을 배경 삼아 기념사진을 찍어 본 다음에는 그 앞에 있는 盆景藝苑에 들어가 본다.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분재들이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게 전시되어 있어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분재 기꾸는 방법도 중국이 종주국임을 즉각 느끼게 만든다. 넓은 정원 속에 있는 置石 방법도 매우 아름다웠으며 돌결이 뛰어나게 좋은 연분홍색 큰 花石들이 각양 색깔의 꽃들과 멋있게 어울리게 구성된 치석들은 독특하고 아름다웠다. 壽石들의 전시도 흥미로웠다. 분경예원을 나오면서 매점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大壽星像의 나무 조각과 적은 고물





저울 한개를 기념으로 사 온다. 七星公園에는 1,300년전 隋唐時代부터 관광객들이 찾아드는 종유굴인 칠성굴이 있어서 수많은 전설과 詩文, 記銘이 남아 있다고 한다. 굴내는 길이가 1km가 되며 각종의 진기한 광경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고 하나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 보는 것이 유감스러웠다.

저녁에 계림시내에 돌아와 台聯酒店 호텔에 방을 정하고 잠을 푼 다음에 부근에 있는 식당에 가서 계림식 요리의 저녁을 음미하며 즐겼다. 다음에는 이곳에서 제일 좋은 가든 호텔에 가서 각자 25원을 내고 호텔 안 큰 아트룸(Atrium) 공간에서 공연되는 소수민족들의 가무를 감상하는 것은 매우 흥겨웠다. 제각기 다른 모양의 의상으로 단정한 젊은 남녀들이 무용과 노래로 각자의 민속문화를 선양하는 모습이 훌륭하였으며 특히 조선족의 가무는 의상도 아름답고 춤도 뛰어나며 노래도 정겨웠다. 만리타향에 와서 우리 민족의 가무를 뜻하지 않게 관람하게 되니 참으로 꿈만 같고 기쁘기 한탄 없었다. 지금도 늦은 것이 아니니 우리 韓族이 세계 만방 각지에 나가서 그곳에 뿌리박고 우리 고유 문화를 전하며 번영 속에 살 수 있게 유도하도록 국가적 시책으로 뒷받침해야 하겠다고 절실히 느끼게 된다. 유대민족들은 기원전부터 서방 세계 여러나라 모든 곳에 이주하여 유대인 고유의 정신적 및 지적인 교육에 전념하여 경제적인 발전에 계속적으로 힘을 기울이며 현재에 와서는 그들이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도 그들의 좋은 면들을 본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되새겨 호텔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든다.

#### 1989. 4. 3 월 흐린 다음 개입

**아**침 일찍 호텔을 출발해서 蘆笛窟로 향한다. 이곳은 1959년 발견되어서 1962년부터 관광을 위해 공개된 곳이다. 계림시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위치하며 아침 일찍이 참관하는 것이므로 각자 5원씩 추가해서 입장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자의 설명이었다. 이곳을 본 다음 滿江의 船遊를 하는 것이 오늘과 일정이었다.

진시황 33년(B.C 214)에 靈渠의 운하가 만들어져서 滿江과 萬江이 연결되었고 北京에서 廣州까지 수로로 교통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계림은 남으로 가면 바로 광주로 연결되고 북으로

는 중원에 이르는 “南連海域 北達中原”의 중요한 지점이 되었다. 옛적은 이곳을 始安이라 불렀으나 계림나무가 수많은 숲을 이루고 있어서 唐代이후로 계림이라 칭하게 되었다 한다. 桂花는 가을에 한창 아름답게 피고 가을은 달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추석 때는 이 세상의 계림과 하늘 위의 월궁이 서로 가장 긴밀하게 연결되게 한다고 느끼게 만든다고 전한다. 우리나라 민요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저기 저기 저 달 속에 계수나무 박혔으니...”하는 가사가 생각난다. 어린 시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찌서 桂樹나무인가 하며 생각하던 의문이 이제 풀리는 듯한 감이 든다.

계림의 기이한 모습의 산들, 뛰어나게 아름다운 물, 깊고 유연한 동굴, 아름다운 바위의 모습들은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유객들을 유인했으며 수많은 유명한 시인들이 이곳 경치를 주체삼아 시를 만든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 중에도 당대시인 韓愈의 다음과 같은 시는 유명하다.

“강물은 조용히 흘러 펼쳐 있는 건원의 경치 아름답고 둘러서 있는 산봉우리들은 벽옥으로 된 비녀인듯 뛰어나다.(江作青羅帶 山如碧玉簪)”

계림의 最上酒라고 하며 이곳의 요리로는 돼지 胎兒를 통채 구어 만든 烤兒豬가 유명하다고 한다. 버스가 계림역을 지나서 滿江의 지류인 桃花江을 따라 올라가는 도로 연변 좌우에는 물이 가득 넘치는 논두렁들이 사방에 펼쳐 있으며 토지가 비옥하고 각종 채소류와 과일들이 풍성한 고장이다. 노적굴은 계림 서북쪽에 위치해서 그 구룡이 갈대 밭으로 덮혀 있고 이 갈대로 피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같은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이 종유석굴은 참으로 장관이었다. 규모가 매우 넓고 종유석과 石筍이 모습들도 매우 다양하였다. 1989년 2월 4일 미국 워싱턴 D. C. 에 있을 때 가 보았던 루레이 케이븐(Luray Caven)보다 규모는 적었으나 그 내부 광경이 진기하고 특이하였다. 내부 조명도 비교적 잘 설치되어 있었다. 1978년 2월 22일 일본 야마구찌(山口)를 방문했을 때 가 본 秋芳洞과도 또한 다른 면모를 갖고 있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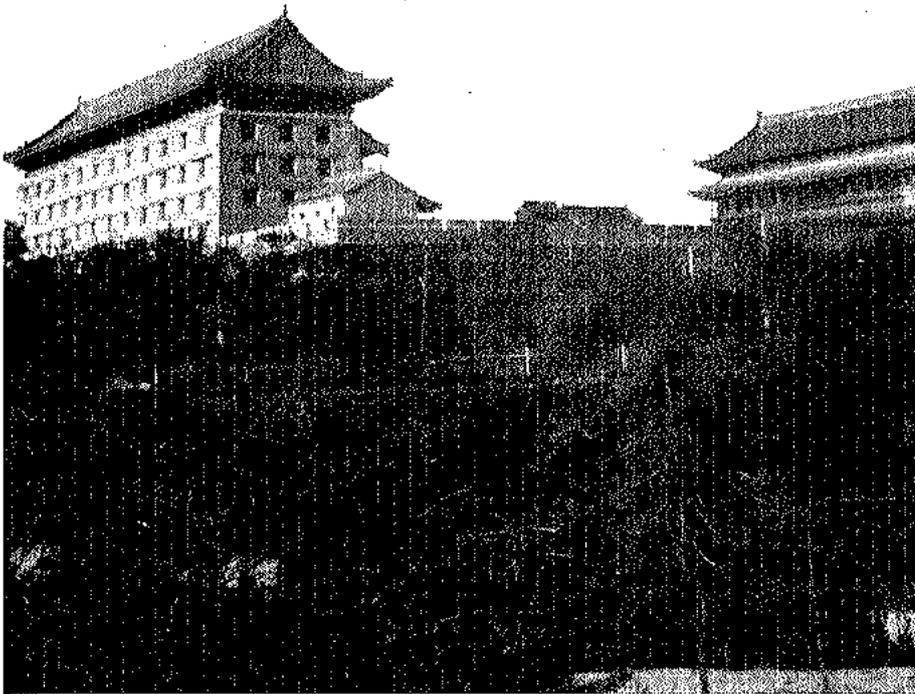
노적굴은 지하수에 의한 석회암 균열부 침투로 인해 용해와 침식이 진행되어 약 1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공중에 달린 종유석과 지하에서 올라온 석순들이 각종의 기이한 모습

을 이루고 있다. 이 속에는 30가지 이상의 기이한 장면들(사자봉 위의 오로라, 불탑상, 원시림 모양, 대사자상, 크리스마스 트리, 산타크로스 모양 등등)이 있다. 한 곳에는 높은 천장을 2개의 큰 기둥이 받치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그 중 한개는 아직 종유석과 석순이 완전히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것들은 100년만에 1~2cm 정도 성장하니까 100년 후에 이곳에 다시 와서 그 성장 여부를 확인해 봄이 어떨까? 나는 안내자의 제의는 유유머가 있었다. 종착점에 있는 매우 큰 공간은 장관이었다. 그 앞에 원경과도 같이 전개된 모습은 뉴욕의 맨하탄섬을 높은 상공에서 내려다 보는 것과 흡사하였다.

노적굴을 떠나서 滿江선유를 하기 위해 선착장에 9시 45분 경에 도착한다. 이곳에는 유람선들이 수없이 줄지어 늘어서 있다. 그중 제일 가까운 곳에 정박한 배에 올라 선다. 10시 15분 경 계림을 떠나 물이 흐르는 방향을 따라 陽朔을 향해 남쪽으로 유람선은 서서히 움직이며 4시간 동안 83km의 유선이 시작된다. 이 강은 남쪽으로 흐르면서 점차로 桂江, 四江, 珠江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고 廣州를 거쳐서 大海에 이른다. 강물은 거울과 같이도 맑고 양쪽 기슭에 연이어 서 있는 봉우리들은 각각각색의 기묘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의 모습과 仙人의 양태를 가진 계림의 산봉우리들, 이 강의 유선 경치는 마치 꿈과 같이 정겹구나(神姿仙態桂江山 如情似夢滿江水)”라는 시를 읊게 만들었다.

강물길 양편에 펼쳐지는 奇觀妙景은 마치도 神仙境을 방불케하고 때마침 운무가 하늘에 가득차서 한층 더 신비감을 자아내게 만든다. 배 갑판에 올라가 이 강 기슭의 절경을 관상한다. 유람선은 象鼻山을 지나 맞은편 산봉우리 위에 육각탑이 서 있는 탐산을 지나간다. 이것은 멀리서 볼 때 마스트가 높고 솟은 큰 군함같이 보인다. 淨瓶이 누워 있는 모습을 한 淨瓶山을 지나 龍門과 奇峰林立 된 곳을 지나간다. 우리가 탄 유람선 주위에는 수척의 유람선들이 앞뒤를 다투는 듯이 줄을 지어 움직여 떠 내려간다.

11시 반 경부터는 점차로 하늘의 운무가 거취기 시작하며 주위 경치는 한층 더 영롱하고 아름답고 船遊의 맛은 한층 더 고조된다. 이윽고 배 속에서 오찬이 준비되어 배 위에서 절경을 바라보며 식사하는 것은 무어라 형용할 수 없



다. “신선이 되기를 원하지 않고 개림에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願作桂林人 不願作神仙)”라는 시구절이 실감나게 느껴진다. 식사 도중 갑판 위에 올라가서 카메라로 아름다운 경치들을 열심히 찍어 본다. 望夫石, 冠岩奇景들과 楊堤라는 총략의 풍경도 아름다웠다. “푸른 연봉리에 사람 사는 집들 있고 그 사람과 집들 모두 그림 속에 있는 듯 아름다워라(碧蓮峰里主人人家都在畫圖中)”라는 시구에 공감을 느낀다. 다음에 전개되는 老人守苹果, 八仙過江 등 또한 기이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九馬灘山은 큰 석벽에 9개 말들이 뛰고 있는 듯한 石紋이 있어 매우 신기하였다.

절경 속에 아름답게 펼쳐진 푸른 초장 위를 유유히 거닐면서 목초를 먹고 있는 말들, 불소들, 배를 노 저어가는 처녀 야가씨, 고기 잡는 어부들 모든 것이 자연과 잘 어울려 참 아름답다.

강변에 서 있는 어선 속에서 魚鷹이란 새를 처음 본다. 강 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독수리라고 한다. 검은 것털에 독수같은 주둥이가 있어 특이하였다. 淸代의 유명한 시인인 袁枚가 이 강의 경치를 읊은 다음과 같은 시가 있다.

“興安에 가는 강물은 매우 맑은데, 수많은 푸른 산들 불속에서 솟아난 듯, 분명히 저편에 청산 봉우리들 보이건만, - 강물에 反影된 山景 때문에 - 마치 청산 봉우리 위를 배가 달리는 듯하여(江到興安最淸, 青山簇簇水中生, 分明看見青山頂, 船在青山頂上行).” 이 시는 이 강 船遊의 감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듯하였다.

하오 2시 10분 경 陽朔에 도착한다. 이 강 양쪽 기슭에 펼쳐 치는 千變萬化하는 아름다운 경치는 무어라 형용할 수 없었다. 그저 감격에 넘쳐서 크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솜씨를 소리 높여 찬양할 따름이다. 한편으로는

- ① 西安 大雁塔
- ② 廣州 中山紀念堂에서의 기념촬영  
왼쪽부터 문제경, 김정철, 신우성, 저자, 윤승중, 김정식 저씨
- ③ 西安城 西門樓

하늘에 산다는 仙人인 天仙보다는 이 땅 위에서 모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며 오래 산다는 仙人인 地仙 훨씬 더 바람직하다는 농양의 옛적 철인들의 말에 한층 더 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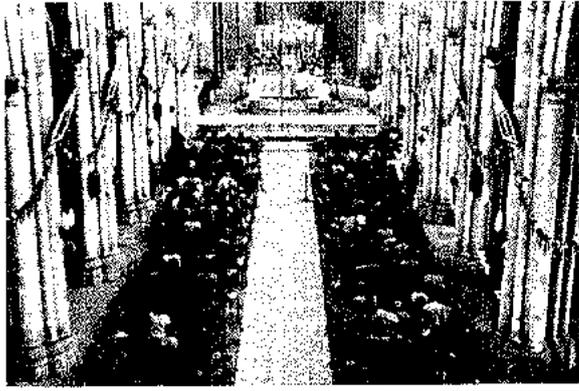
陽朔에서 버스를 타고 桂林으로 향한다. 하늘이 맑게 개였다. 포장이 잘 되어 있는 육로를 달리면서 하오의 햇빛을 받고 영롱하게 보이는 靑山連峯들의 기이한 모습들을 다시보며 즐기는 것도 매우 흥겨웠다. 하오 3시 반경에 제림에 도착하여 友誼공예집에 들러서 토산품들을 구경한다. 모든 상품들이 일본 엔(Yen)으로 가격이 미쳐서 매우 高價한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으며,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이곳에 쇄도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잠자기 소나기가 오기 시작한다. 雨中버스를 타고서 伏波山을 가 본다. 그 산 밑에 동굴로 되어 있는 環珠洞에 들어가 석벽에 조각된 불상을 관람한다. 360여개의 계단을 기어 올라 이 산의 정상에 올라 서면 계림시의 전경을 조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저녁 때는 이곳에서 최근 개업한 규모가 작은 友誼 食堂에 가서 식사를 한다. 식사가 보잘 것이 없어 불만이었으나 그 대신 식사 후 전축 음악소리에 흥이 나는대로 모두 일어나서 함께 어울려 자연스럽게 사교춤과 디스코를 출 수 있어 매우 흥이 나며 재미있었다. 하만씨 부인이 손을 벌리고 나에게 다가와 춤추기를 청해서 손을 마주 잡고 서투르나마 사교춤을 추었던 일은 흥겨운 추억거리의 한도막이 아닐 수 없다. 橫 회장남과 함께 그 안쪽상점에서 淸江山水畫를 선물로 사가지고 온다.

#### 1989, 4. 4. 화 개인 후 흐림

**아**침 8시 반 경 호텔을 떠나서 象鼻山에 가 본다. 이 강과 桃花江이 만나는 곳에 있으며 그 산의 모양이 코끼리 형상과 흡사하다. 코와 앞다리 사이에 해당하는 곳에 큰 洞口가 있어 마치 코끼리가 기나란 코를 강물에 넣어서 물을 마시는 모습을 하고 있다. 산등에는 淸代 만의 寶瓶形的 普賢塔이 서 있다. 그 모양은 마치 칼을 길게 코끼리 등에 꽂아서 칼자루가 돌출되어 있는 모양으로 보인다. 象鼻山은 계림의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한다.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원경으로 몇장 찍고 나서 나 혼자만 입



장권을 사 가지고 들어가 근경을 카메라에 담은 다음 계림의 안내 책자를 사 본다. 계림은 중국의 남쪽 지방의 翡翠요 조국의 明珠란 말로 설명하고 唐代的 유명한 시인인 杜甫, 李勃등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곳을 유람하고 읊은 시들이 열거되어 있다.

象鼻山을 떠나 계림 공항으로 향하는 도중 버스 속에서 안내원은 네가지 유명한 것을 1. 수정 같이 맑은 강물 2. 환상적인 풍유석굴 3. 매력적인 모양의 암석돌 4. 아름답고 푸른 봉우리들이라고 설명한다. 이곳에 국민학교 128개, 중학교 40개, 대학이 6개이라고 한다. 사범 대학생은 국비이고 다른 대학생들은 연간 1,500~750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대졸 1년된 사람은 월수입 100원 정도이며 중간 계층의 수입은 200원이라고 하니 이것을 200배 하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0,000원 꼴이 된다. 물론, 물가지수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액면대로만 비교가 안되지만 대강 생활 정도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 경향이 시작되고부터는 국영기업체에 근무하고 난 다음 저녁 때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작은 규모이나 私企業들이 시작되고 있어 경제적으로 저축을 하며 여유를 갖는 사람들이 점차 생기기 시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계림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안내자 費敬 君(桂林 科技協 國際部 協調人)과 작별을 한 후 탑승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 출발시간을 기다린다. 비행기가 고장으로 수리때문에 3시간 가까이 연발하게 된다. 기다리는 동안 인도 출신인 멀티(Murthy)교수와 인도 종교 문화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것도 재미있었다. 인도교의 비시누(Vishnu), 브라마(Brama), 시바(Shiva)는 트리 멀티(Tri Murthy: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를 칭칭한다고 하며 자기의 姓氏인 멀티도 이것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우리나라 고대 신화에서 나오는 桓因, 桓雄, 桓儼의 이야기를 들려 주며 또한 기독교의 3위일체 神觀과 아울러 생각할 때 세계 각종 문화가 갖고 있는 종교관의 공통점이 많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인도의 俗傳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인도의 서방지역을 여행하였다고 하며 사실상 복음은 인도에서부터 처음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말이 있다고 멀티 교수는 이야기하였다. 예수님은 서인도의 펀잡(Punjab) 지방을 거쳐 들어와서 인도 여

행을 하다. 떠난 곳은 케랄라(Kerala)주해안 항구이었을 것이라고. 이곳은 마드라스(Madras)항구의 반대편인 서쪽 해안의 항구이고 이곳에서 바다 해로를 따라서 예수님이 귀국하였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예수님이 인도를 떠난 후 그곳에 남은 제자들에게 의해 세워진 교회가 2,000년 전 세계 최초에 세워진 것이며 시리아 교회(Syrian Church)라 칭하는데 지금도 현존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준다. 시리아 교회라는 말은 예수님이 시리아 방향에서 온 것을 뜻해서 불인 이름일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JESU KRISHAN 라 쓰고 인도어로는 YESU KRISTA 라고 하는데 인도어의 YESU 는 ISHA 로 轉化되고 이것은 곧 Shiva의 별명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멀티 교수는 또 설명하기를 인도교 사원 건물은 외관을 전부 돌아본 다음에 실내부를 들어가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건물 4면을 돌아 가면서 외관에서 카마(KAMA: 性愛)와 샤프트라(SHASTRA: 科學)가 묘사되어 있다고 이야기 한다. 내가 1981년 12월에 인도의 가즈라호에 있는 시바 신전들과 네팔의 가두만두에 있는 인도교 사원을 찾아가 보았을 때의 광경들이 생생하게 회상이 된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性愛交歡의 수많은 장면을 사실적으로 조각해 놓은 황색 사암의 시바신전의 탐들은 지상의 극락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 같았으며 네팔에 있는 3층탑 형식으로 된 인도교 사원의 지붕을 받치는 버팀대인 대형 목재에 사실적으로 조각해 놓은 성애교환의 모습에는 강렬한 채색을 하여 그 로테스크하게 국부를 나타낸 모습을 신기함과 의아한 생각으로 바라보던 일들이 생각난다.

멀티 교수는 말하기를 불타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언급을 회피하였다고 설명한다. 인간의 인식이 한정되어 있어 하나님을 인식할 능력이 없으므로 보통 사람들의 이해 혼돈을 초래할 뿐일 것이므로 그는 의도적으로 신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풀이를 한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은혜로우신 아버지이라는 것과 야미지를 배반하고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우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사랑과 기쁨으로 두 손 벌려서 우리를 맞이하고 큰 축하의 찬미를 베푸시는 아버지가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우화적인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매우 크

게 대조가 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인도교는 다른 종교에서 개종해 오는 것을 절대로 권장하지 않는다고 멀티 교수는 말한다. 본래 각자가 신봉하는 종교를 믿으면서도 인도교를 수용할 수 있으므로 힌두 부니스트, 힌두 크리스천, 힌두 이슬라믹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다. 이같이 인도교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개방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인도교를 개혁한 불교의 가르침이 모든 만물은 생물과 무생물을 불문하고 그 모두에게 불심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이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인도의 기독교 성자이며 간디의 스승이었다던 산디 썩(Sandi Singh)에 대하여 멀티 교수에게 아는가 물어 보니까 그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오히려 내 곁에 앉아 있던 영국인 플럼(Plum) 교수가 산디 썩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었다.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산디 썩의 가르침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고 멀티 교수는 말한다. 썩(Singh)은 그 이름으로 보아 씨크(SIKH)이었을 것이라고 플럼 교수와 멀티 교수는 설명한다. 씨크주의는 4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힌두교의 한 분파로서 모슬렘교가 인도를 침공했을 때 自衛를 위해 편잡지방 사람들은 가족 중의 한사람을 의무적으로 씨크에 가맹하게 하여 군사훈련을 받게 하였고 인도를 自衛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는 이것이 사회단체화되고 지금은 천만명에 가까운 수가 되어 이 단체를 정치가들이 정치 권력 쟁탈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는 설명을 멀티 교수는 한다.

플럼 교수는 그가 한국을 새롭게 인식하게 한 3가지 일을 든다면 첫째는 6·25사변, 둘째는 88서울 올림픽, 셋째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이라고. 그는 조목사의 영문 저서[四次元(The Fourth Dimension)]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조목사의 저서와 선교 사업이 歐洲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갖게 하였다함은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 비행기 고장 수리를 위해 연발되는 것을 기다리면서 탑승 대기실에서 나누어 주는 점심 도시락을 먹고 나서 쉬는 동안 東西의 종교관을 서로 논하는 것도 또한 재미있었다.

하오 2시 반 경 계림을 떠나서 제트 여객기로 45분 정도 걸려서 廣州에 도착한다. 밖에는 비가 내린다. 雨中에 트랩을 내려 서니 이곳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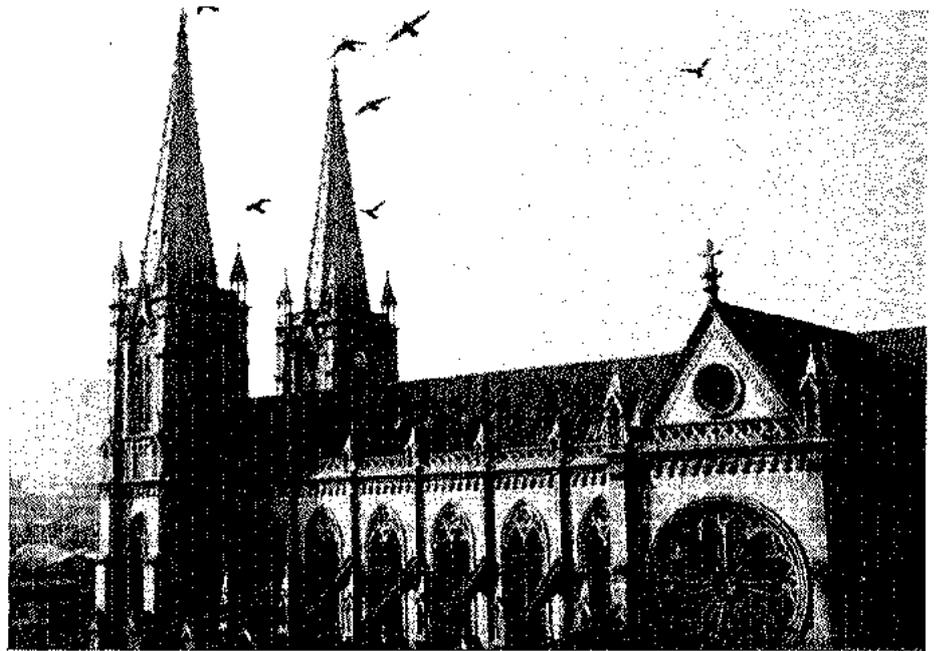
여객기 트랩이 있는 곳부터 자동차 서비스가 있어 비를 안받고 터미널을 올 수 있어 다행이었으며 廣州는 보다 더 국제화된 도시임을 즉각 느낄 수 있었다.

광주 시내에 있는 東方賓館에 와서 체크-인을 하고 나서 陳氏畫院을 가 본다. 이곳은 속칭 陳家祠라고도 하며 1890~1894년에 廣東省안에 있는 72개縣에 사는 陳氏 姓을 가진 사람들이 出捐金을 내어서 건축한 것으로 청 말의 중국 남방건축양식과 그 특색을 두드러지게 잘 나타내는 건축이라고 한다. 그 웅장함과 정교한 장식의 솜씨가 뛰어나며 광동 민간 건축의 예술성을 대표하는 것이다. 前後院과 東四院으로 이루어지며 면적 13,200㎡, 건축면적은 6,400㎡이고 주건물은 정면 5間, 길이 3間이다. 건물 규모가 광대하고 웅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은 1959년부터 광동 민간 공예관으로 사용되어 여러가지 공예품 수집보관 및 연구, 선전을 위해 사용되며 중국 각지의 민간 공예품 전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마침 雲南민족 예술전시가 개최되고 있었다.

廣州市에 처음 들어 왔을 때 인상적인 것은 거리 여기저기에 서있는 木綿花의 큰 나무들이었으며, 잎이 나기도 전에 가지마다 진홍색의 탐스러운 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 것은 매우 특이하고 아름다웠다. 검은 색의 描畵과 나무가지가 무성한 큰 나무에 수많은 잎이 피어난 짙은 빨간 색의 꽃은 그 꽃잎 모양이 목련화 모양과 비슷하였다. 이 목련화는 광주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한다.

저녁에는 100여 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陶陶居酒家에 가서 粵州식 요리를 먹었다. 이곳에서 烤兒猪를 시켜 먹는 맛 또한 특이하였다. 여행 끝날이 다가오자 우리 일행은 더욱더 情誼가 두터워짐을 느끼며 만찬에는 서로 술을 사서 권하면서 건배를 청한다. 하지만서 부부가 독일어로 프로스트(Prost)를 청하는가 하면 네덜란드가 본고향이라는 니일슨씨 부부는 스킨(SKOL)을 청한다. S는 건강, K는 사랑, O는 장수, L은 행복이란 말들의 첫글자를 모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쿠타브씨는 아랍 말로 아다하크(ADHAQ)를 청해서 멀티씨는 인도말로 암세이(YAMSEI)를 청한다. 물론 버틀즈 업(Bottoms up)과 건배 소리도 몇번이고 되풀이되었다.

내일 아침 일찍 그로스만씨 가족과 니일슨씨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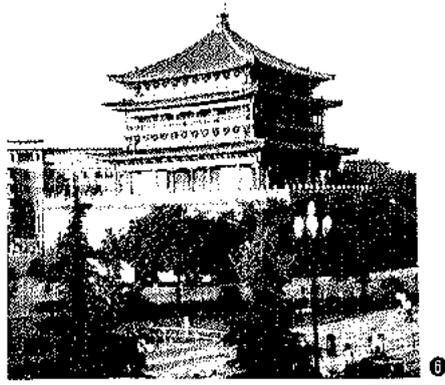
부부 및 멀티씨는 떠나게 된다. 식사 후에 화이트 스완(Withe Swan)호텔에 가서 로비와 쇼 팡 아케이드를 돌아본 후 동방호텔로 돌아 와서 우리 일행 중 내일 일찍 떠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눈 다음 남은 사람들과 내일 상오 시내관광 여행 일정을 상의한다. 내일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하여 이곳에서 중요한 곳인 光孝寺, 六榕寺, 懷經清眞寺, 廣州石室聖心堂, 中山紀念堂, 五羊像을 가 본 다음에 점심 식사 후에는 처음으로 자유시간을 우리가 가져 보기로 합의를 한다.

### 1989. 4. 5 수 흐림

**아**침식사 때 멀티 교수와 나란히 식탁에 앉게 되었다. 식사하면서 8년 전 인도방문 중 나의 수첩 속에 메모해 두었던 힌두교 여러 신들의 이름에 관해서 그에게 물어 본다. 힌두교에서는 우주 속의 모든 것들을 숭배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마트시아(MATSYA)는 물고기신, 쿠르마(KURMA)는 거북신, 마라하(VARAH)는 돼지신, 나라심하(NARASIMHA)는 人頭獅子神, 파라수카마(PARASUKAMA)는 송려신, 가네샤(GANESHA)는 코끼리신이라고 한다. 칼키(KALKI)는 미래에 나타나 중생을 주지하는

신으로서 칼키가 나타난 다음에는 모든 것이 다시 되풀이 된다는 輪廻思想이 힌두교의 특색이라고 그는 설명한다. 우주 속의 모든 것에서 神性を 찾아 보려는 사고방식과 모든 것은 永續的으로 끝없이 輪廻한다는 그들의 종교관은 특이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 아침 니일슨씨 부부, 그로스만씨 가족, 폴림씨 부부 및 멀티씨는 아침 일찍 비행기로 廣州를 떠났고 李利衡교수와 朴性武교수는 기차를 타고 홍콩을 향해 9시경에 출발하였다. 하지만서 부부와 쿠타브씨를 포함한 우리 일행 9명은 아침 9시 반경 동방 호텔을 떠나서 어제 밤에 만든 여정 계획에 따라 廣州 관광을 시작한다. 우선 호텔근처에 있는 五羊像을 가 본다. 전설에 따르면 2,000여년 전에 廣州 앞바다는 망망하게 넓었고 토지는 거칠어서 사람들이 매일같이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해도 허기와 추위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었다고 한다. 어느날 하늘에서 仙境의 음악이 들리는 가운데 다섯 仙人이 오체가 빛나는 옷을 입고 5마리 양을 타고 廣州에 내려왔는데 그 양들은 각기 다섯가지 곡식 이삭을 입에 물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경작을 하게 해서 오곡이 풍성하게 만들었다고 한다. 그후 선인들은 하늘로 돌아 갔으나 양들은 화석이 되어 廣州의 이 산 위에 남아 있게 되었으며, 이 일이 있는 후부터 廣州는 풍요하고 번성하는



지방이 되었다고 전하고 그래서 이곳을羊城 또는 穗城이라고도 칭한다는 설명이다.

이 전설을 기념하기 위해 1959년 이곳 언덕 위에 130개의 화강석을 모아서 높이 10여m(基石 포함), 부피 530m<sup>3</sup>, 머리부분의 무게 2t, 가장 긴 羊角의 길이 2m로 된 오양상을 조각해 세워 놓고 廣州市의 상징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주위를 돌아 본 다음 中山 紀念堂으로 가 본다.

廣州는 國父인 孫文의 고향이다. 민주혁명 선구자인 그를 기념하기 위한 중산기념당이 1931년에 건축되었다고 한다. 이 건물은 8각형 평면의 훌륭한 大會堂으로 수용인원 6,000명, 높이 49m, 그 외관과 내부에 중국 전통 건축양식이 반영되도록 만든 건물로서 산동성 출신의 젊은 건축가 呂彥直씨가 설계하였다고 한다. 그는 미국 코넬 대학에 유학을 한 다음 이 건물을 설계하고 36세의 젊은 나이에 이 건물의 완성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전체 스펠이 71m인 철근 트러스의 지붕 구조, 환기창과 천장의 8면 스테인드 글래스, 건물 외관의 웅장함과 내부 디자인의 훌륭함은 그 당시의 중국 건축 기술의 수준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건물이라고 생각되었다. 때마침 파리 오베라단이 와서 회당 안 관중석에 모여 앉아서 공연을 하기 위한 준비모임을 갖고 있는 중이었다. 이 건물 앞에서 손문의 대형 동상이 서 있었다. 이 동상 앞에서 일행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 본다.

다음에는 六榕寺에 찾아가 본다. 이 절은 537년 靈俗法師가 寶莊嚴寺와 舍利塔을 창건하였다 하며 989년 중건 때 海慧寺로 개칭되었다. 이 때 寶塔이 증건되어 千佛像을 안치해서 千佛塔이라 칭했으나 남신과 아름다운 난간의 색채로 인해서 花塔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부르게 되었다 한다. 그 후 1100년에 蘇東坡가 이곳에 와서 주위에 서 있는 큰 榕樹(보리수) 여섯 그루를 보고 혼연히 六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시를 쓴 다음부터 六榕寺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사찰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화려하고 장엄하게 우뚝 솟아 있는 花塔의 높이는 57m이며 팔각형의 평면을 갖고 있다. 외관은 9층이지만 탑신이 9층이고 平坐層이 8층으로 구분되어 있어 모두 합치면 17층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탑의 최상층에는 1358년 銅으로 주조한 利往가 서 있으며 그 기둥 표면에는 1,020개의 작은 불상이 부조되어 있고 그 무게는 5t이라고 한다. 최상

층에 올라가서 廣州市를 내려다 보는 조망은 장관이었다. 이 탑의 4층에 올라갈 무렵 桂林에서 왔다는 낯모를 젊은이가 집근해 와서 소형 도끼 주전자를 사라고 수차 강권해서 거절 못하고 선물로 사준다. 이것은 한 쌍으로 되어 있었고 표면에 용모양의 각이 있어서 특이하였다.

다음에는 廣孝寺에 가 본다. 이곳은 중국 嶺南에서 최고 최대의 名刹이라고 한다.羊城이 있기 전에 廣孝寺가 있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오래된 사찰이다. B.C 2세기 때 이곳은 四漢의 南越王인 趙氏의 지택이 있던 곳이며 삼국시대 때는 吳나라 귀족이던 厚顔이 귀향 살이를 이곳에 와서 하면서 講學을 해서 이곳을 厚顏이라 칭하였고 그가 죽은 후 유가족들이 그 집을 절로 만든 것이 이 사찰 역사의 시작이었다고 전한다. 寺誌에는 廣孝寺가 B.C 400년 경에 시작되었으며 達摩初祖(527)와 慧能 六祖(676)의 뒤를 이어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이곳은 중국 내외에서 불교 성지로 간주되어 왔다고 한다. 이 절에는 많은 문화재가 남겨져 있으며 건축물의 위용과 구조 및 의장의 훌륭함은 특기할 만하다 하겠다. 지붕의 형태는 남방 양식을 따랐지만 용마루 및 내림새의 휘어 올라감이 그리 심하지 않았다. 두공은 다보식으로 3齋工이 힘찬 모습을 하고 뽐내며 있으며 包壁이 없이 허공으로 되어 있고 창방 위 첨차 좌우로 人字形을 구성하여 뻗쳐 내린 부재가 매우 특이해 보였다. 대웅전은 東普 때 초창되었다 하며 정면 7間, 중앙 3間은 門扉가 있고 좌우 각 2間 벽을 만들고 벽마다 2개씩 창이 설치되어 있다. 모든 창은 창살만 있고 허공으로 되어 있었다. 기운이 너무 뛰어나 뚝뚝이 더 유의를 한 것이라 생각된다.

광효사로 가는 도중에 회교 사원인 懷聖寺를 가 보았다. 출입문 앞에 있는 철대문이 꼭 닫혀져 있었으나 요르단 사람인 쿠타브 교수가 교섭을 해서 무난히 문을 열고 들어가 회교당 안을 돌아 볼 수 있었다. 36.3m의 光塔(미나레트)이 특이한 모양을 하고 서 있다. 이곳은 중국에 회교가 전래되면서 처음 세워진 清真寺(중국의 회교당)로서 唐代(B.C 7세기)에 아부 와그스(Abu. Waggs)가 이곳에 와서 처음 만든 것으로 1,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이 광탑은 唐宋代에 야간 조명을 해서 珠江으로 오르내리는 선박들을 위한 등대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고 전한다. 1949년 문화재로 보존되기 시작했

고 지금은 廣州 회교인들의 종교 활동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한다. 大殿은 청대 말에 만들어졌으며 지붕을 백색으로 칠한 트러스로 받치게 한 것이 특이하였다. 출입구문에는 크게 敎宗四域이란 현판이 붙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 본 廣州 石室 聖心堂은 참으로 훌륭한 석조 고딕 건축이었다. 이 천주교 성당은 廣州 교구 수교가 있는 곳으로 1863년 6월 18일 예수 성심 채례일에 기공해서 1888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건축면적 2,700m<sup>2</sup>, 동서 폭 35m, 남북길이 78.69m, 양탑 높이 58.5m이다. 포인트 아치, 그로인 보물트, 플라잉 버트레스 등의 고딕 건축 양식의 특색을 모두 잘 갖추고 있는 건물이다. 1978년부터 중국에서 신교 자유화 정책이 시작된 후부터 이 성당은 省級 중점 분할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원형 보존을 위해 보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건물 내외의 분위기와 환경이 장엄하고 아름다우며 국내외 사람들의 정상적인 종교활동이 이곳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때 마침 성당 안 계단 앞에서는 점심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기도틀 드리러 모여 온 30여 명의 열성적인 신도들이 모여 앉아서 열심히 기도드리는 모습이 매우 성스럽게 보였다. 그들 뒤에 잠시동안 앉아서 주님의 복음이 중국을 포함한 온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기를 함께 기원하였다.

하오 1시 반 쯤 廣州에서 이름난 洋餐酒家에 가서 오찬을 든다. 광동 요리 본고장에 와서 음식의 참맛을 보니 그 즐거움이 한량이 없다. 전에 미국과 구주를 여행하면서 먹었던 광동식 요리와는 판이하게 다름을 느낄 수 있었다. 항상 기름기 많은 것이 광동요리거나 하던 나의 고정관념은 큰 실망이었음을 깨달았다. 그 산뜻하고 정갈한 음식의 구비는 오히려 한국 요리의 맛과 흡사함을 느끼게 한다. 靑豆醬(고추장)을 청하니 우리나라 햇고추장 맛과 거의 같은 것을 작은 접시에 담아 내어온다. 우리들은 오래간만에 그 맛에 도취되었다. 이 식당은 湖畔에 만든 정원속에 놓여 있어서 중국 남방 원림의 정취가 가득하다. 또한 중국 건축양식과 근대건축 의장 요소가 서로 융합되어 그 건축환경이 뛰어나게 아름다웠다. 이와같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최상급 美食의 정수인 정통 廣東요리를 드는 맛은 매우 흥겹고 즐거웠다.

우리나라 궁중 요리와 매우 흡사한 산뜻하고 정갈한 맛을 내는 정통 광동요리를 먹으면서 옛

적 고려 중기의 문화교류 상황을 회상해 본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주로 중국의 남부 지방인 明州, 泉州, 廣州와의 왕래가 빈번하였고 밀접한 문화교류가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필시 그때의 문화의 영향이 800여년 동안 승계되어 내려와서 공동된 미학과 食文化의 상관성을 갖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나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펴며 추측해 본다.

식사 후 화이트 스완 호텔로 와서 하만씨 부부와 Mr. 짜이(翟)에게 작별을 한 다음 남은 우리 동포 6인 일행은 廣州 도심가에 나가서 처음으로 우리들만의 자유산책을 시도해 본다. 중심가 거리에는 사람들이 콕차서 걸어 간다. 뒷길에 들어서니 거지들이 손을 내밀며 줄줄이 뒤따라 온다. 길가에 여기저기 서 있는 무위도식배들이 수상한 눈길과 모습을 하고 있어 불안한 경계심을 불러 일으킨다. 서로 조심하며 15분 가량 걸어가다 도저히 안심이 되지 않아서 2개의 택시에 분승하여 동방민관으로 돌아 오고 말았다. 이 호텔 서점에서 건축관계 참고서를 몇 권 사고 옆에 서 있는 중국 호텔(廣州에서 가장 큰 규모)안에 있는 상점가에서 선물들을 쇼핑했다. 만찬 때는 동방 호텔 8층에 있는 潮州式 요리를 들면서 우리 일행이 그동안의 보람과 수확이 적지 않았던 중국여행을 서로 되새기며 담소하는 것도 즐거웠다.

1989. 4. 6 목 호린다음 개임

**아**침 일찍 일어나서 6시 반 경 아침 식사를 든 다음 廣州 공항으로 향한다. 廣州-香港 사이의 中國民航(CAAC) 機는 비교적 좋은 편이었다. 이번의 15일 간의 중국 여행은 走馬觀山 격이었으나 나에게는 매우 소중한 경험이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중국의 건축문화와 그들의 생활 양상과 사회상을 이해하는데 큰 소득이 있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보고 느낀 중국에 대한 첫인상과 그 감회에 관한 여운은 나의 마음 속에 힘있게 고동치며 오래 동안 지속될 것으로 느껴진다.

동양건축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나는 중국에 와보기를 오래 전부터 동경하여 왔었다. 사실상 1972년 미국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부터 그 가능성을 내다보았고 그 준비를 위해 나는 1973년부터 1년 동안 대만에 있는 成

功대학에 객원교수로 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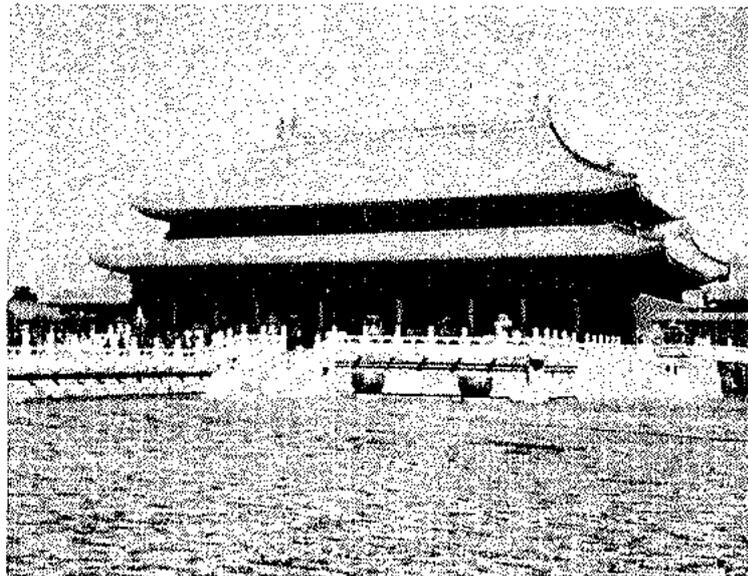
중국은 매우 큰 나라이다. 우리 조상들이 大國이라 지칭한 까닭을 잘 느낄 수 있었으며 잠들고 있는 사지와 같은 나라이라고 8·15전에 일본 사람들이 항상 말하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百問이 不如一見임을 다시 한번 통감한다. 일본은 지금 심지어는 고교생들까지도 단체로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오고 있는 형편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는 하루 속히 박차를 가해서 중국과의 문화 교류에 적극적으로 힘써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 여행을 통해 문화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는 중국에 훨씬 더 가깝다는 것을 마음 속으로부터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동양문화의 근원이 되는 그들의 문화불 포용성을 갖고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세계의 번영과 평화에 공헌하는 길을 향해 서로 협조해야 할 것임을 새삼 느낀다. 중국이 장차 市場 經濟의 장점을 택해서 개인의 인센티브를 유발하는 방향으로 적절히 개혁발전을 하기만 한다면 모든 사정이 진전될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88서울올림픽의 노레가 말하듯이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어 영원히 서로 잘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도록 동서양의 온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힘쓰게 되기를 기원한다.

비행기는 예정한 시간대로 香港에 도착했다.

운승중 소장은 이곳에서 2일간 더 체류하게 되므로 그와 직별한 우리 일행 5명은 KAL 機를 타고서 서울을 향해 귀국 길에 오른다. 우리 KAL 여객기의 내부 환경과 서비스 등은 중국의 그것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으며 훌륭함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상징하는 듯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되었다. KAL 機上에서 15일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 일간 신문을 보니 매우 반가웠다. 그러나 분위권 목사의 북경 경유 평양 방문 기사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가 북경에 있을 무렵에 문목사도 그곳에 와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계, 사업계, 대학가들에서 여러가지로 소용돌이치는 모습의 기사들을 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를 넓혀 단합해서 88서울올림픽의 정신에 따라 그 기세를 몰고 나가서 제 2의 도약을 향해 우리나라가 精進을 해야 하겠는데 하여 나라의 장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을 합동하여 유익하게 하시리라는 믿음으로 한반도의 밝은 앞날을 전망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나는 간절히 기원하였다.

예정된 시간에 金甫 비행장에 도착하여 그리던 내 집으로 돌아 온다. 짐들 내 조국, 내 집이 한결같이 더 좋고 안락함을 다시 한번 마음 속으로 깊이 느끼면서 무사히 돌아오도록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完>



⑦

# 1989년 11월분 도시신고 현황

##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 4백24만2천7백82㎡보다 66.1%증가 2백8십만4천7백54㎡의 실적을 보임.

### 나. 전년동기비

1-11월분 전년도누계 6천2백68만4천25㎡보다 40.90%증가 2천5백63만8천4백98㎡한 8천8백32만2천5백23㎡의 실적을 보임.

### 다. 전월비

지난 10월분 7백17만9천83㎡보다 1.83%감소 13만1천5백47㎡한 7백4만7천5백36㎡의 실적을 보임.

##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88년도	1989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895,769	1,247,122	351,353	39.22%
	부산지부	-	473,863	473,863	ERR
	대구지부	153,730	340,592	186,862	121.55%
	인천지부	309,505	490,786	181,281	58.57%
	광주지부	110,375	117,566	7,191	6.52%
	경기지부	1,008,864	1,145,601	141,737	14.12%
	강원지부	142,668	306,209	163,541	114.63%
	충북지부	151,882	480,109	328,227	216.11%
	전북지부	135,341	277,286	141,945	104.88%
	전남지부	131,031	339,471	208,440	159.08%
	경북지부	242,253	428,664	186,411	76.95%
	경남지부	714,428	863,164	148,736	20.82%
감소지역	제주지부	37,993	95,373	57,380	151.03%
	대전지부	0	268,814	268,814	ERR
합계	4,242,782	7,047,536	2,804,754	66.11%	

<충남지부와 대전지부의 증·감소 현상은 2월 지부가 분리가 됨으로 생김.>

(1989.11월 부산지부 설계도서통계는 지부사정상 집계가 안되었음.)

## 全國圖書申告 概況(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 별	'89년10월분	'89년11월분	증 감	비율(%)
단 독 주 택	503,038	316,501	(186,537)	-37.08%
다 세 대 주 택	274,310	198,720	(75,590)	-27.56%
연 립 주 택	259,085	108,693	(150,392)	-58.05%
아 파 트	2,769,104	2,296,116	(472,988)	-17.08%
근 립 생 활 시 설	1,152,246	1,094,163	(58,083)	-5.04%
종 교 서 설	59,157	51,406	(7,751)	-13.10%
의 료 시 설	8,893	7,317	(1,576)	-17.72%
교육 연구 시 설	189,316	191,095	1,779	0.94%
업 무 시 설	634,059	765,689	(131,630)	-20.76%
숙 박 시 설	247,283	178,246	(69,037)	-27.92%
공 장	368	1,076,707	132,339	14.01%
기 타	537,155	762,883	225,728	42.02%
계	7,578,014	7,047,536	(530,478)	-7.00%

##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月分)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855	966	1,216,388	75	78	30,734	0	0	0	930	1,044	1,247,122
부산지부	797	1,047	421,820	182	206	35,357	66	71	16,686	1,045	1,324	473,863
대구지부	210	255	301,645	505	535	27,768	47	48	11,179	762	838	340,592
인천지부	294	395	420,065	33	55	32,843	22	30	37,878	349	480	490,786
광주지부	188	196	73,191	63	73	40,764	12	12	3,611	263	281	117,566
대전지부	176	176	241,821	35	35	7,097	103	103	19,896	314	314	268,814
경기지부	1,185	1,394	1,000,197	202	227	93,452	64	64	51,952	1,451	1,685	1,145,601
강원지부	305	419	208,414	82	102	94,275	13	19	3,520	406	540	306,209
충북지부	360	488	391,479	63	85	73,845	44	47	14,885	467	620	480,109
충남지부	244	263	120,471	118	118	49,343	37	37	3,102	399	418	172,916
전북지부	190	262	244,144	68	74	26,293	22	22	6,849	280	358	277,286
전남지부	333	383	183,724	187	320	151,727	8	8	4,020	528	711	339,471
경북지부	375	462	348,563	147	173	75,486	17	17	4,615	539	652	428,664
경남지부	870	1,017	655,294	325	380	187,234	43	43	20,636	1,238	1,440	863,164
제주지부	155	176	80,001	52	52	15,372	0	0	0	207	228	95,373
합 계	6,537	7,899	5,907,217	2,137	2,513	941,490	504	521	198,829	9,178	10,933	7,047,536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月~11日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26,988	27,780	16,176,219	1,444	1,478	530,075	0	0	0	28,432	29,258	16,706,294
부산지부	12,031	13,306	6,140,932	2,765	2,867	571,713	673	701	284,110	15,469	16,874	6,996,755
대구지부	6,481	6,904	3,044,567	5,058	5,260	476,300	434	435	140,276	11,973	12,599	3,661,143
인천지부	6,481	7,531	5,627,410	564	693	272,317	198	234	166,578	7,243	8,458	6,066,305
광주지부	3,878	4,269	2,480,231	1,013	1,067	200,895	148	148	52,154	5,039	5,484	2,733,280
대전지부	3,964	3,964	2,424,461	505	505	185,664	1,072	1,072	252,657	5,541	5,541	2,862,782
경기지부	24,977	27,144	13,258,393	2,704	3,023	1,739,893	702	702	446,330	28,383	30,869	15,444,616
강원지부	4,591	5,457	2,750,087	1,168	1,376	496,821	146	150	36,994	5,905	6,983	3,283,902
충북지부	6,010	7,104	3,285,593	1,235	1,561	481,347	388	495	96,513	7,633	9,160	3,862,453
충남지부	4,559	4,902	2,443,322	1,195	1,242	403,051	342	342	85,456	6,096	6,486	2,931,829
전북지부	3,508	4,228	3,267,897	972	1,057	315,543	235	236	61,310	4,715	5,521	3,644,7508
전남지부	4,735	5,347	2,508,962	1,711	1,997	729,636	90	91	32,895	6,536	7,435	3,271,493
경북지부	6,943	8,158	4,551,418	2,202	2,475	1,389,854	250	250	113,099	9,395	10,883	6,054,371
경남지부	12,392	14,654	8,314,893	4,579	5,175	1,333,841	399	410	171,691	17,370	20,239	9,820,425
제주지부	2,063	2,310	892,693	471	484	88,432	0	0	0	2,543	2,794	981,125
합 계	129,601	143,058	77,167,078	27,586	30,260	9,215,382	5,077	5,266	1,940,063	162,264	178,584	88,322,523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006	2,121	276,517	768	797	38,385	57	57	1,599	2,831	2,975	316,501
다 세 대 주 택	862	920	192,367	135	143	5,757	8	8	596	1,005	1,071	198,720
연 립 주 택	63	103	108,471	1	1	22	4	4	200	68	108	108,693
아 파 트	188	765	2,220,906	19	60	74,417	3	3	793	210	828	2,296,116
근린생활시설	1,942	1,997	945,372	454	474	80,674	224	229	68,117	2,620	2,700	1,094,163
종 교 시 설	88	123	36,250	44	49	13,227	10	10	1,929	142	182	51,406
의 료 시 설	2	2	1,112	12	12	5,837	2	2	368	16	16	7,317
교육연구시설	40	47	111,041	49	51	74,962	21	21	5,092	110	119	191,095
업 무 시 설	165	172	731,503	62	66	29,139	11	11	5,047	238	249	765,689
숙 박 시 설	82	95	162,987	28	29	14,928	5	5	331	115	129	178,246
공 장	459	742	573,421	246	436	470,553	57	61	32,733	762	1,239	1,076,707
기 타	640	812	547,270	319	395	133,589	102	110	82,024	1,061	1,317	762,883
합 계	6,537	7,899	5,907,217	2,137	2,513	941,490	504	521	198,829	9,178	10,933	7,047,536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月~11日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 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61,209	62,642	10,148,824	11,419	11,699	727,439	874	888	43,076	73,502	75,229	10,919,339
다 세 대 주 택	16,089	16,689	3,785,593	2,336	2,362	122,055	139	139	102,105	18,564	19,190	4,009,753
연 립 주 택	889	1,387	1,700,433	29	36	28,188	17	17	2,458	945	1,440	1,731,079
아 파 트	2,003	7,204	25,922,898	140	241	345,928	46	79	77,871	2,189	7,524	26,346,697
근린생활시설	33,412	34,034	15,082,428	5,764	5,922	1,112,782	2,175	2,207	621,567	41,351	42,163	16,816,777
종 교 시 설	922	1,077	559,259	499	542	179,129	53	58	10,922	1,474	1,677	749,310
의 료 시 설	75	82	91,720	112	118	78,340	22	22	15,402	209	222	185,462
교육연구시설	432	551	1,97,705	547	606	758,303	199	202	99,795	1,178	1,359	2,055,803
업 무 시 설	1,650	1,746	7,061,743	608	642	404,753	119	122	77,580	2,377	2,510	7,544,076
숙 박 시 설	1,381	1,539	2,082,432	406	429	226,411	115	122	128,878	1,902	2,090	2,437,721
공 장	4,265	6,963	5,702,071	2,348	3,605	3,717,036	476	510	313,356	7,089	11,084	9,732,463
기 타	7,264	9,138	3,832,972	3,378	4,058	1,515,081	842	900	447,053	11,484	14,096	
합 계	129,601	143,058	77,167,078	27,586	30,260	9,215,382	5,077	5,266	1,940,063	162,264	178,584	88,322,523

## 建築法令改定推進協議會 開催

행정조치 사항은 행정지시 및 훈령으로



건축법개정추진협의회

本協會는 建築士界의 최대 현안의 하나로 떠오른 調査・檢査代行業務制度의 개선을 비롯한 건축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協議會를 건설부, 서울시등 건축관계 당국과 함께 구성, 그 방향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本協會가 구랍 11월 「조사 및 검사대행업무제도 개선의 촉구와 우리의 결의문을 건설부를 비롯한 4개 정당, 주요 행정기관에 배포한 이후 지난 22일 본협회 회의실에서 본부 임원 및 각 시도 지부회장, 건설부 및 서울시 건축담당자등이 참가한 가운데 협의회를 개최하여 본협회 대표 7인과 건설부대표 3인, 서울·인천·경기도 건축담당자 각 1인으로 구성된 건축법령개정추진협의회를 구성, 조사·검사대행업무등의 개정을 위한 토의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협의회 위원에 본 협회에서 정환호, 강태석, 강석준, 이종업, 최광수, 이종만, 김환기회원과 건설부 이필원건축과장, 천대삼건축계장, 강일동건축계장, 신경식행정계장, 서울시 최항준건축계장, 인천시 이병달건축계장, 경기도 최민석건축계장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지난 10일 협의회를 개최하여 행정조치에 의한 제도개선 방향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의를 벌여 의견절충을 하였고 오는 19일에 회의를 속개하여 현안문제중 조사·검사 업무 대행업무의 개선방안으로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법 보고를 충실히 한 건축사는 보호"하라는 건설부의 행정지시가 90. 1. 17일 기히시달 되었으며, 집단 민원 발생을 빚자한 건축불허가 및 지연처리를 배제하고 건축법상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공사중 설계변경은 준공이전까지 일괄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 행정지시 또는 훈령으로 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건축사의 2중치벌제도,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취소 업무정지명령, 건축사 처분기준 조사 및 검사조서 양식등은 건축사법령 개정시 반영토록 할 것과, 또한 조사·검사 업무와 관련되는 소규모 건축업자 제도신설, 시공오차제도도입, 위법건축발생의 주대상인 행위자 처벌등을 골자로 하는 사항은 건축법 개정 작업시 충분히 반영하기로 하였다.

## 綜合建設業免許制 發意 積極對處

— 건축설계·감리는 시공과 분리토록 —

구랍 1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정부의 건설업면허체계개편을 위한 공청회에서 종합건설업면허제 도입의사중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설계, 시공, 감리 등 전 분야를 일괄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다는 발의에 대해 본 협회는 이에 적극대처 「건축설계, 감리와 시공은 절대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설부, 대통령비서실등 관계요소에 송부하는 한편, 21일에는 본부임원, 전국시도지부회장, 분소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에 대응키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건축설계·감리는 종합건설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회원들의 일차된 의견을 회장 및 임원들이 관계 당국과 긴밀히 접촉, 우리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고 대처한 바, 당국은 금번의 종합건설업면허제도입 발의를 장기적 연구과제로 유보키로 결정하였으며 건설업면허에 있어 건축설계·감리를 분리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90년도 始務式 거행

本協會 '90년도 始務式이 1월 4일 오전 10시 본부와 서울특별시지부, 서울건축사복지회 임원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으로 거행되었다.

宋基德회장은 이날 新年辭를 통해 「격동의 80년대를 보내고 금세기를 마감하는 90년대를 열면서 더욱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협회로서 임원진이 업무추진에 앞장서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調査・檢査代行業務 改善과 綜合建設業免許制 시행등 현안문제 해결뿐 아니라

「設計費의 正常化, 不法事務所의 整備, 倫理委員會 運營強化등을 중점 推進할 것」을 밝히며 임직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각종 업무수행을 당부하였다.

직원 일동은 宋基德회장, 李永熙서울특별시지부 회장, 金椿培서울건축사복지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에게 團拜로써 개별적인 새해인사에 대신하고 새해 업무에 들어갔다.

한편, 구랍 30일에는 본부, 서울지부, 서울건축사복지회 합동으로 終務式을 거행한 바 있다.

## 제1회 理事會 개최

本協會는 지난 11일(목) '90년도 제1회 理事會를 개최하고 부의안건을 협의하였다.

또한 구립 21일(목)에는 '89년도 제13회 理事會를 개최하여 주요의제에 대한 협의를 마친바 있다.

주요안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89년 제13회 理事會

#### 〈附議事項〉

- ◆ 여비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각시도지부 직원정원조정(안) 승인의 건  
- 서울시지부에 대하여는 재검토후 결정기로 유보하고 기타지부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함
- ◆ 예산목간 전용사용 승인의 건  
- 각종 회의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 목간전용사용을 원안대로 승인
- ◆ 건축사 및 건축사보 직접인건비기준 변경 승인의 건  
-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조건부로 원안대로 승인
-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개정(안) 승인의 건  
- 소위원회에서 좀더 검토하여 결정기로 하였으며 소위원중 정환호 이사와 임원직 임기만으로 인하여 빠지게되는 이중임이사를 제외하고 우남용·장성진·강태석이사를 보선함
- ◆ 전국 건축사대회 개최장소 변경 승인의 건  
- 개최장소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하고 대회 주관을 본부에서 하기로 함.

#### ◆ 건축법령연구소 자문위원 위촉승인의 건

- 金熙春교수(서울대학교 공대 명예교수)를 1년('90. 1. 1~12. 31)임기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키로 함

#### 〈協議事項〉

- ◆ '90년도 건축사연수 실시방안  
- 전국건축사대회와 병행키로 함
- ◆ 건설업면허제도 개편에 따른 대책  
-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대처키로 함
- ◆ 조사·검사대행업무제도 개선대책  
- 건설부등 당국과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추진키로 함
- ◆ '환옥의 건축도예와 무늬'책자 배포  
- 원안대로 배포키로 함

### '90년도 제1회 理事會

#### 〈附議事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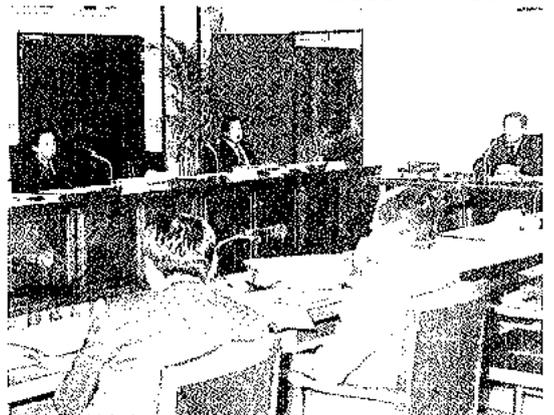
- ◆ 위원회 신설 및 위원위촉 승인의 건  
- 비위원회대책특별위원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고 각위원회 위원위촉은 회장에게 위임
- ◆ 전국건축사대회 개최일사 및 장소결정의 건  
- '90. 3. 22(목)~23(금) 한국종합전시장( KOEX )에서 개최키로 함
- ◆ 서울지부 직원정원조정(안) 승인의 건  
- 서울지부의 현행 9개 도시신고분소를 '90년도 지부정기총회시까지 합리적으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확정보고하는 것을 조건부로 원안대로 승인



'90년도 사무식



건설업면허제도 개편공청회



제회 이사회

#### 〈附議事項〉

- ◆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확장단초청의 건  
- 전국건축사대회시 초청키로 함
- ◆ '90회원명부 발간계획(안)에 대한 협의  
- 협회예산으로 원안대로 발간을 추진하되 광고를 적극유치, 게재키로 함
- ◆ 감사방법 및 제도연구에 관한 건  
- 감사에게 연구를 의뢰함.

# 協會消息

## 支部消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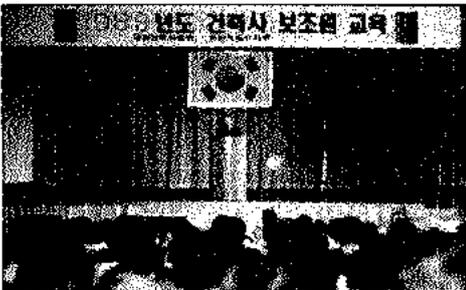
### 仁川直轄市支部(會長 李秉武)

#### 건축사 보조원 교육 실시

仁川지부(회장 李秉武)는 구랍 15일 인천남부소방서 대강당에서 '89년도 건축사보조원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1백30여명의

보조원이 참석, 「개정법규해설」 및 「소방실무」, 「건축의장- Antonio Gaudi 의 건축세계」 등에 대한 교육을 수강하였다.



인천지부 건축사 보조원교육



광주지부 건축업무간담회

### 光州直轄市支部(會長 宋良漸)

#### 건축업무 간담회 개최

光州지부(회장 宋良漸)는 건축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유대를 돈독히하여 건전한 건축풍토를 조성키 위한

'89하반기 건축업무간담회를 지난 26일 손병선 광주시건설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티힐 관광호텔에서 개최하였다.

### 全羅南道支部(會長 金仁模)

#### '89 송년의 밤 개최

全南지부(회장 金仁模)는 회원상호간의 이해증진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구랍 13일 여수시 「팔도강산」에서 '89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목포분소가 '89년도 우수분소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다.



전남지부 '89 송년의 밤

### 慶尙南道支部(會長 金東準)

#### 송년감담회 개최

慶南분소(회장 金東準)는 지부 임원 및 분소회장, 도청 건축관계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랍 14일 지부회의실에서 건축행정 및 제도개선에 따른 송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축행정진실화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토의를 벌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토의된 주요 내용은 건축사가 대행하는 조사·검사업무의 애로사항, 청문대상 여부의 합리적 분석, 준공처리 이후의 위반사항에 대한 건축사업무와 연계지양 '90년 2백만호 주택건설에 관한사항 등이다.

### 濟州道支部(會長 李世院)

#### '89 송년의 밤 개최

濟州支部(회장 李世院)는 지난 22일 저녁 제주시 모수관광호텔에서 '89년도 송년의 밤 행사를 회원부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고 회원 가족간에 친목을 돈독히 하였다.

이날 행사는 부부가요열창 경연을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는데

부부가요열창 경연에는 김수현회원 부부팀이 그랑프리를 차지하였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지부회장이 수협도지부장등 지역단체장들과 같이 이곳 해양경찰대를 방문하여 6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해상경찰의 노고를 위로하였다.



제주지부 송년의 밤



경남지부 송년감담회